



# 『독립정신』





1 『독립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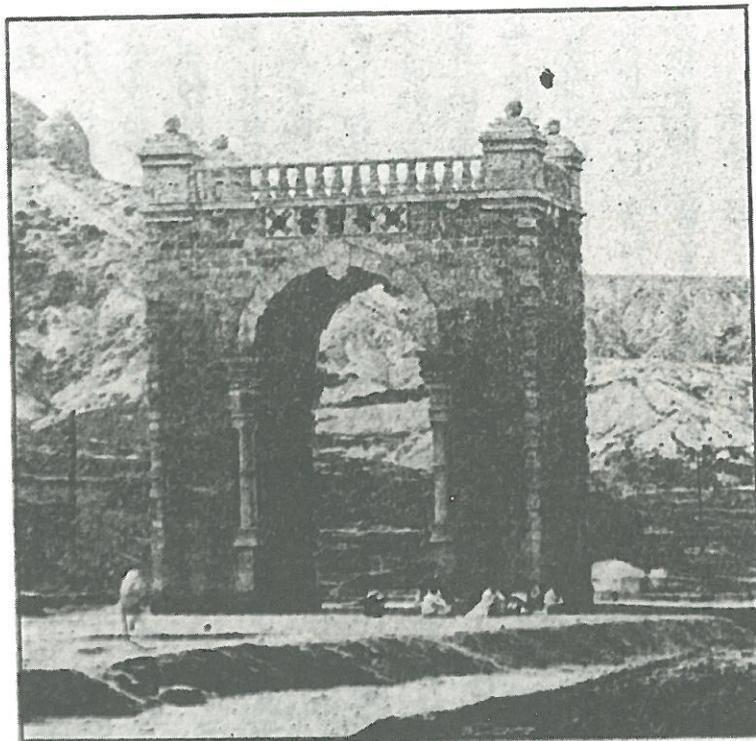


만 승 리 가 술 저





大韓帝國萬萬世獨立門



독립요지 서

육중에 지리호세월이 거연히 칠년이된지라 천금광음을 허송하기의색하야 니외국친구들의 석로빌려주는 각석서책을 잠심하야 고초와 근심을 적어 냐고저하나 잇다금세상형편을따라 어리석은창조에 을분한피가 북받침을 억제할수업서 여간흔 칙권을 번역하여 노은것이 몇가지잇스나 흐나도 발간치못하미 마음에 더욱 울적함을 의의지못하다가 수년동안을 신문론설짓기로 적이 회포를말하더니 중간에 무슴스단이잇셔 그것도 또한 폐지하고 잇슬처에 일아전정이 버려지는지라 비록 세상에나서셔호가지 유조흔일을 일을만흔 경륜이업스나 이것지 남의 무심히 들어안졌슬 씨리요강기적분한눈물을 금치못하야 그동안에 만들던 한영조연을 덩지하고 양력이월삼구일에 이글만들기로서작하나 당초에는 한창조회에 장서를기록하야 몇만장을 발간하려하였더니 급기 시작하고본즉 실을수업는말이 련속하느니라 마지못하야 관계잇는스건을 대강대강기록하서 기간에 스형에처한죄수들을 집행한일도 슈츠잇섯스며 들고나논죄수도 여러히미 즈연히소요하고 송구하야 얼마덩지하기도하고 혹 비밀히쓰노라고 몇번쓰서 감초기도놓였스니 서역이 즈연 련속치도못하고 뜻시 또한 여일치 못하나 그 강령을상고하면 밀락이 서로련락하야 다 독립두글자의 주의한것이라 디 명과인명을 만히 쓰지안코 흥용쓰는 쉬운말로 길게늘여 설명함은 고담소설곳치보 기묘케만들이오 전혀 국문으로 기록함은 전국에 슈효만은인민이 보기쉽게만들이오

f 1

독립요지

서문

일

f 2

독립요지

서문

이

특별히 백성변을향하여 만히의론들은 대한의장리가 전혀 아리인민들의게 달님이라  
대더 우리나라에 소위 중등이상사람이나 여간 한문조나 안다는사람은 거의다 써고  
고 물이들어 다시 바를것이업스며 또한 이 사람들을이 조괴몸만 그럴뿐안이라 이사람  
들사는근쳐도 다 그괴운을받아 엇지할수업시 되었느니 이말이듯기에 너무 심호듯  
항나 력력히 증명하여야 보면 허언이안인줄을 가히미엇을지라 오직 나의길히바르논바는  
국중에 더욱 무식하고 천호며 어리고 약호형데 조막들이 가장 만히주의호야 스스로  
홍괴호마음이싱겨 초초히나기를 시험호며 남을또호인도호야 날로 인심이변호며 풍  
속이 곳쳐져서 아리셔부히 화호야 써고 은티셔 싸이나며 죽은티셔 살아나기를 원호  
고 원호노라

건국스천이백삼십칠년륙월이십구일

한성감옥서죄슈

리 승 만 괴록

f 3

후서

사람이 말하되 범의게 물녀가도 정신만 일치안으면 산다하니 만일이 말이 거 좃것이아  
이면 비록 나라는 망하였셔도 그 나라 백성의 독립정신만 완전하면 결코 아조망하지  
안을지라

대대 희망의 독립을 보았는가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었지 향로아춤에 된일이며 또  
이탈리의 독립을 보았는가 그 굉장한 사업이 었지 한사람의 힘이 리요 이년 반다시 여  
러히를 요구하고 여러사람을 요구하야 붓과 혀를 쉬지안코 휘들으며 삼과 피를 흘리  
홀니어 대동한 인심이 독립하고 심혼싱각에 아조 갖가온 연후의 일이라 그런고로 네  
로브러 어진사람은 지괴으나만 영웅되기를 원치안코 반다시 다른사람으로 하여곰 지  
괴와 고통을 영웅되기를 원하야 귀를 불어주고 마음을 열어 주어 전국백성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니라

숨는다 오늘날 조선국의 성명이 변하고 조선백성의 일흔이 종문서에 잇는척을 당하야  
소위 조선국의 혼이나 조선백성의 정신은 어딤잇는뇨 그나라는 비록 남의 입에 물렸스  
되 그 정신은 불가불보전할식 이에 리학스 승만씨의 쓴바 독립정신이 세상에 나오니  
이년 우리 조선 스천년력스에 처음으로 불은 소리요 또 한 처음으로 듯는 소리인디  
그러하나 독립정신은 원리 우리나라를 일은후 창졸간에 쓴것이 아니오 곳 일아전정  
이 시작되기전 거의 인천항구에 대포소리가 터질척에 쓴것이니 당시에 리승만씨는

독립요지

서한

숨

f 4

독립요지

서문

수

무솔년정변으로 옥중에잇는지가 여섯히지요 이사람용만은 감금을면하지 겨우슈삭이  
라 할로아춤에 이글을써 몬져 옥중에함씩잇는동지자들 정순만 신흥우 리동녕 제군  
의게회하고 다시 용만의게부쳐 비평하기를청함되 용만은 감히그일을감당치못하고 오  
직 로성훈선비 리상제씨의게 부탁함야 한번 비평을듣고 다시 교정함이라

오호—라 조선백성이 복이업슴인지 용만이 힘을쓰지안음인지 감히 스스로 판단치못  
함나 그러함나 그동안 이것을 출판코져함지가 다만 함로나 일년뿐함이나 그러함나  
동으로쥬선하고 서으로힘써도 맛춤되 상당함부비를 엇지못하고 또함 이것을설고 미  
국서지와서 함로박비 출판코져함여도 미양 뜻이긋지못함 방히를넘어 오날여기서쥬  
선함일이 리일 더다가면 들니는고로 필경에는 뜻을떠릿드리고 다시 이글을 본쥬인  
의게 돌넷스니 이는 용만이 다만 이글을쓴자의게 한만함다는 희망을바를뿐아니라 또  
함 우리동포의 공변된리의를 방히함자—라함여도 다시 발명함곳이업노라

아모거나 보빅론빛은 같이우기어렵고 사향의님시는 스스로 감초지못함야 이글의아  
름다운소리가 스방에들니미 맛춤되 이글긋흔 스람들이잇서 동지함친구들이 마음을  
합함고 힘을함함야 일년을경영함후 비로소 이글을출판함나 그동안 그이들의얼마나  
이쓰고 얼마나힘들인것은 용만이 능히 저기의지닌일을 증거함야아노라

그러함나 이글을 쓴스람이나 이글을출판함는 스람이나 또함 용만이나 모든스람들이  
일테로 가셔히 녀이는것은 이것이 너무나게 출판되어 그동안 시세에달음과 형편의



11 『독립정신』

f 5

독립정신

서문

오

변함으로 후련한사람들이 자미를일출하시 두려하든바—라 그러하나 이글은 원리정  
치상요령을 만히들어말아야 본국과외국의 고금홍망을 비교하여 쓴것인고로 어나스  
름이던지 그릇이글을나는자는 위선 이글쓴자의 몬져 매달은것도 짐작하려나와  
호응당 독립의정신이들고 독립하는사람이되여 장차 조선에유조호인지가 될줄로미  
노라  
건국사천이백사십삼년일월 일 박용만

f 6

독립요지

서문

목

후서

독립정신은 우리대한국권을 안전키위하여 지은글이라 이책을 저술한이의 이국하는  
철성이얼마나 지극한것은 이글을보는이가 가히알터인즉 족히 설명할것이업거니와  
이책을 보는이들이 응당 이글의소종리를 알고저할지니 대강 간략히 기록함이 필요  
할듯하도다

이글저술가 리선싱승만 **李先生承晩** 씨가 서울 만민공동회 파산후후로 옥중에갓  
쳐 무수흔외형을겪고 서소문안 구감옥에서 칼쓰고착고초고 수갑질으고 쥬야닐곰  
들을 지닐씨에 시시로 처형당하기를 고뵈었으며 동지훈충이럴스의 처교처참당하  
는것을 여러번묵경하고 늑보다 몬저처형당하기를 원한적이 홀두번이 아니며 흠씩갓  
친 죄슈들이 신문을비밀히구하여보고 리승만이간밤에 처형당하였다는 귀절을 널거  
들닌적이 일이초에 지니였스며 그 부친씨 유언하는글을 보닌것이 세번이오 그부  
친은 옥문밖게셔 그 죽은시테를 가져가려 경야함이두번이라 저간 다소흔정형은 다  
널으지말고 대강 이걸로만보아도 오늘날 선싱의싱활함은 과연 텃명이라하리로다  
무수흔고초와 단련을겪고 모년모월에 종신징역에 선고하야 옥중에서 거의칠년동안  
을지니고 일천구백스년팔월구일에 비로소 방송을엇어 옥을면할후에 즉시 미국에리  
도하야 지금 문하스가되엿는지라

더 옥중에잇서 천신만고를지니가면서도 충의의피는 북중에서 잠시도 식지안이하야



우 흥 신



만 용 박

f 7

특별요지

서문

칠

지필을 일테로 엄금하는중에서 수년동안을 데국신문론설을 여일히지어 괴송하였스  
며 주야 학업을잠심하던여가에 갑오일청정징과와 몇가지 긴요한글을 번역하였스나  
국 스는 날로글너가며 완고협잡비들은 점점 득세하는중에서 신학문서척을 뒤가보  
고저항며 세계상 대운동에관계한글을 뒤가감히 발행하려오 헛되히 지필과사고만히  
비활뿐인고로 번역과 글짓는것은 폐지하고 한영저면을 만들기시작하여 주야잠심할  
시 맛츠니 일아전징이 날로 급박하여 오느니라 전국빅성은 금음밤중에잇서 무엇이  
밧게서 박두하여오는지 모르고지니며 황실은 아라스보호안에들어 조곰도 녀려업시  
여일한 태평건곤이라 잇지 장리를보고 안존자의 방성대국할비 아니리오 인하여 저  
면역스를폐하고 이글을시작하니 이글의 일편주의인즉 세계의 대강형편을 국문으로  
괴록하여 전국에 상하귀천이 일테로보고 깨닫게하고저함이라 선성의 천만고초중살  
어밧친의담충혈을 이글헌권에 투하여니엿도다

글을 필역하기전에 전징이 버러지고 글을 맛츠미 형편이 아조 변한지라 나라의 독  
립이 장츠 뉘손에달난지 몰으게되엇거늘 독립의론한글이 엿지용랍을엇으리요 이  
글이 적물을당할식 두려하여 옥중에서도 들들이 감초고 급기선성이 옥에서나오는  
날에 남이 이글잇는줄을알고 전파하면 발간하기전 압수를당할식 녀려하여 김히간  
수항다가 다항히 활판조유하는 미국런디에 니르렀스니 우리 한국의 복조이로다

동지우 박용만 신흥우 량씨가 이글을 발행하려고 츠데로경영하여 지어활판과 주저

f 8

독립요지

서문

판

서지 준비하였스니 미흡한 관계가있서 맞춤이 시작지 못하였다가 다항히 동지우모모 제군이 동심합력하여야 이글이 비로소 발행되니 비록 형편이변하고 써가 늦은듯하느니라 사람의 처디로 오날이라도 알아야 할것은 이거시오 리일이라도 알아야 할것은 이거시라 선심은 이글을 다시 교정할 여가업서 모모동지에게 맞춰 임의로 하기를 허락하였스니 모모동지는 또한 본문뒤로 세상에 전파코져하여 초본을 변치안코 발행하노니 참의동포들은 기뻐서 상고하며 선심이 이글로써 비양호정신을 예비할줄만 노이다

건국스천이백스십삼년일월이십구일

문양목

근셔



19 『독립정신』

f 9

독립요지	독립요지	목록
총론	총론	一
각각 제척망을 깨달음	각각 제척망을 깨달음	三
직척을 행치 못함 면화를 담당함	직척을 행치 못함 면화를 담당함	九
백성이 힘쓰면 될 일	백성이 힘쓰면 될 일	十五
참으로 충성하는 근근 본	참으로 충성하는 근근 본	十八
모임 속에 독립을 구개함	모임 속에 독립을 구개함	二十一
각국과 상응하는 관계	각국과 상응하는 관계	二十四
독립과 독립의 분간	독립과 독립의 분간	三十
백성이 열나지 못함 면나라를 보전치 못함	백성이 열나지 못함 면나라를 보전치 못함	三十三
즈쥬권리의 긴중함	즈쥬권리의 긴중함	三十九
런디리치의 대기	런디리치의 대기	四十三
류대주의 구별	류대주의 구별	四十九
오식인종의 구별	오식인종의 구별	五十四
식것과 네스것의 구별	식것과 네스것의 구별	五十六
세가 지정치 구별	세가 지정치 구별	五十九
미국 백성의 권리 구별	미국 백성의 권리 구별	六十四

독립요지

목록

구



f 10

독립요지

목록

삼

미국의 독립훈스적	七十一
미국 독립선고문	七十五
미국 남북방전징스적	八十三
법국 변혁훈스적	八十七
헌법 정치의 효험	九十二
정치를 변치안이 하는 손히	九十六
정치제도 가 빅성 정도에 달님	九十九
법성의 무암이 몬져 자유훈일	一〇一
자유권리의 방한	一二二
대한의 독립력력	一二四
청국의 완고훈	一二八
일본이 흥왕훈스적	一三〇
아라스의 정치력력	一三四
서양형제가 동으로 벗어움	一三七
일본이 조선파동훈려훈	一四五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훈	一四八
임오란리의 관계	一五一



f 11

일본정부의주의	154
일본인의주의가전과가지안이함	158
청일아습국의히를받음	161
도훈과회를여러번일히버림	164
일아교섭의결말	170
일아기전후대한정형	173
일아전정의근인	175
청국의화단의스변	180
일아전정의근인	188
갑오을미동안대한정형	192
갑오을미후일아정형	201
전정전일아량국의형세	209
일아교섭의결말	216
일아기전후대한정형	223
일본인의주의가전과가지안이함	229
청일아습국의히를받음	232
도훈과회를여러번일히버림	235

독립요지

목록

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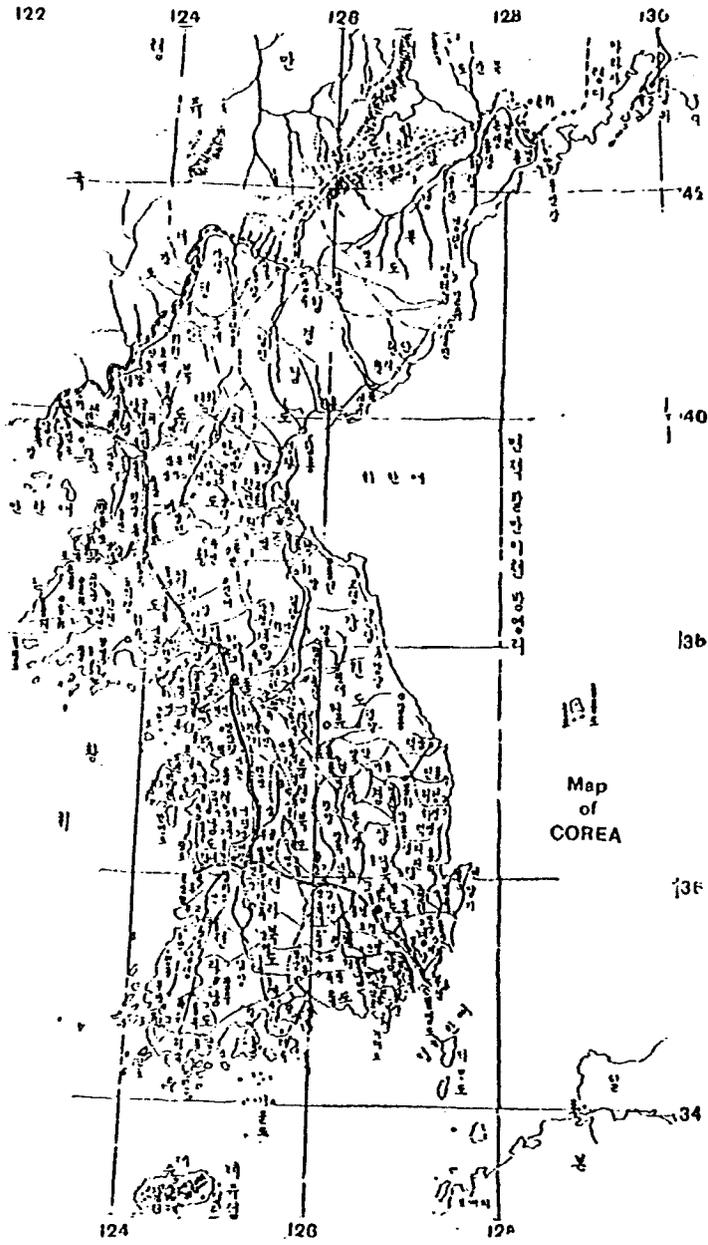
f 12

후록  
일본헌정주의주의  
독립요지

후록

一一三九  
一一五三

신어



도 디 션 죠



下陞帝皇高祖太



대 황 고 조 태



하폐데 황태



하페데황대

하페데황대

하페데황대

독립요지 단

총론

숨츠다 나라이 업스면 집이 어디잇스며 집이 업스면 나의일신과 부모쳐즈와형  
데자되며 일후즈손이 다 어디셔살며 어디로 가리요 그럼으로 나라에 신민된자  
는 상하귀천을 물론하고 화복안위가 다 일테로 그 나라에 달냈느니 비컨디만  
경창파에 비탄것갓호여 바람이순하고 물결이고요호씩는 돛달고 노질하기를 전  
혀 사공들의게맛겨두고 모든선객들은 각각제삿디로물너가 잠도자며 한가히 구  
경도호야 직분외에 일을간섭할바 업스되 만일 풍량이도도호며 풍우가대작호  
야 돛디가 부러지며 닻줄이 싼혀져서 허다호싱명의 사싱존망이 시각에 달닐진  
디 그안에 안존자 - 뉘안이 정신츄려 일심으로 일허느셔돕기를 힘쓰리요 설령  
전일에 원험이잇던자 - 라도 다 이져바리고 일시에 합력호야 무사히건너가기만  
위주홀지니 이는 그비가 배여지면 나의원수는 나의몸이느 다 화를면홀수 업습  
이요 혹 허다호 보피와 지산을 가진자 - 라도 다 네것 닉것슬 물론호고 분분히  
물에더져 비를 가바야히 만들어 가라안지안기만 도모홀지니 이는 그비가 잠기  
면 나의목숨이 홀노살수업고 목숨이 살지못호면 보피와 지산이 쏘호 귀홀것업  
슴이라 그럼으로 합심호야 조곰도 스스싱각이업서 사공들의 힘을도와 다 갖치  
살려고말홀지니 이는 사공을 위함이안이요 곳 자괴몸을 위호느도라 설령 사공

독립요지

총론

일

된이들이 각각 제지척을 다항야 같지라도 선진들은 각기 제 몸을 위하는 도리에 참아 그저 잊지 못하게 거늘 흠을며 선인들이 후술도 취하며 후잠도 못매며 후는도 멀고 팔도 부러져서 동서를 분변치 못하며 위티움을 매닫지 못항야 점점 움작일수록 더욱 위항하게 만들어 널판이 썩썩 썩러지고 괴계가 낮낮치 상항야 물이사면으로 들어오며 인명이 차례로 썩져들미 리웃비에서 급히 와서 티신건져 쥬려 항면이 비에 선진들은 종시 남의게 밀어두고 무심이 안져 죽기만고 티 흠이 도리라 항게는 가지 헤라 항게는 맛당이 남이 건져 주기도 바라지 말며 선인들의게 바려 두지도 말고 다 각기 제일로 알아 제힘을 다 할지어다 그러는 사공들이 선진과 합력 항야 일심으로 일할진디 공효가 속할지니 피초에 다 항이 되려니와 그러치 안이 항야 편벽되어 헤아리 되 비는 다 우리의 물건이라 남이 엇지간 예 항리 오다 항이 건너가면 선가를 후이 밧아 랑락을 치우것고 불행이 파선을 당 항여도 우리는 헤염도 칠 줄알며 다른 비로 건너가기도 어렵지 안이 항니 여러 선진의 죽고 살기를 우리 알바! 안이라 항야 상관 항기를 허락지 안을진디 여러 선진들은 홀수업다고 물너가 안졌게는 가 비질에 련속 항며 물길에도 익은자! 잇서 혼두 번 착수 항면 무양이 도강 할터이로 되져 몇몇사공들의 스스리해를 위 항야 허다 혼심명을 구 항지 안이 항며 거창 혼비 혼척을 건지 지 안이 리오 우리 대한삼천리 강산이 곳 이 천만 성령을 시고 풍파 대해에 외로히 가느비라 성사 존망의 급급 업 업 흠이 죠석에 달넛느니 이는 삼척

동조라도 다 짐작하는바 |라 엇더케 위티함과 엇지하여 이러함은 아리다시 말  
하려니와 우리가 지금당장에 생겨가는중에 안젓스니 정신초려 불지이다

▲각각제침망을깨달음

청컨디 우리 대한동포들아 상하귀천 대소관민 빈부존비 남녀로소를 다물론하고 삼  
천리강도에 속하야 이천만인구에 참여할자는 다 나라를 이러케 만든거시 얼마큼식  
자기의 침망이잇는줄을 깨달아야 할지라 그중에 권리를잡고 정부에안져 국권을제손  
으로 팔아먹은죄악이 세상에 들어난자도 잇스며 혹은 그런스런들의 일군이되여 나  
라집을 철어버리는일에 조역할자도 만흐며 혹은 소위 점잔은 완고대관이라고 데동  
과도리만차리다? 나라집이 쓰러지기에 이르되 말함마디 못할자도 만흐며 혹은 귀  
명상에 명예잇는 디관이라고 형편씩라 번복하야 자그들의비그지육만 처운자도 무슈  
하며 혹은 미관말직이라도 엇어다니는것만 영광으로녀여 권리가적으니 침망이업다  
하고 전후에 궁흉극악한일을 무슈히찬조할자도 만흐며 기타모든 불법불의한류들은  
다 물론하고 지어 아리빅성으로 말하여도 다 이와갓치 큰죄악은 범치안엇다하는 경  
향원근을물론하고 나라집의 쓰러짐을 밧치지 못할죄는 저마다 갓치가진지라 이말을  
처음듯는이들은 응당 그러치안케녀여 중심에 해아리되 잔악한빅성들이 나라 잘되고  
못되기에 무슴관계? 잇다하며 겸하야 나라를 근심하며 빅성을 녀려하야 쥬야이쓰  
고 평성을힘쓰던이도 또한 각처에 적지안케늘 엇지 다갓치 죄책이잇다하리요 결단

3

독립요지

각각제침망을깨달음

숨

독립정신

김기저 초미음운서단본

소

코 공평호의논이안이라 할터이니 실상 레박게안존자로하여금 볼진된 이런스름들도  
또한 직척을 다 놓였다 일을수업는지라 나라의 독립의 초를 확실이세우거나 그러치 못  
하면 독립을위하여 목숨을바리는것시 비로소 그 직척을 다 놓ियो 그러치 못하자는 아  
무리 성력을 허비하였으나 국세를 회복하기 전에는 그 담척을 벗지 못함이라 그러나 죽  
는것도 또한 등분이잇는지 후나라를 그릇드리고 백성의게 적원항다가 죄악이 관영하  
야 텃별이나 국법에 죽는자도잇스며 후 극한죄악을 가두이지어 용랍할곳시 업게되  
고도 능히와셔종신하는자도잇스니 이러케라도 죽으면 곳죄악을 면하는 다 할가 결단코  
그러치안은지라 응당 더욱에영구한별도 면치못하려니와 천추만세에 그 일홈이 밝는  
별을 엿지 죽음으로써 벗스며 누이가 그 죽음을 인연하여 무죄하다 하며 불상타 할리  
오 이러케 죽어서 도망한다 할수업스며 후 극한되는 범치안엇스니 제 몸을 앗겨 세상  
시비곡직에 관계하지안타고 편안이여년을 맞츠거나 질병과 지앙을당하여 죽는자도  
잇스며 혹은 무성무취하게 엿어먹기와 엿어입기에 골몰히 평생을 보늬다 그 초목과  
갓치셔는자도잇스니 이러케죽는것도 능히 직척을 면한다 할가 이도 또한 그러치안은  
지라 인성의 슈요장단은 후 구별이잇스나 급기스름갓흔백년을 살다 죽는날은 저마다  
다 일반이니 잠시되는세상을 하로라도 더살욕심에 쓰을너 구구히욕을견디며 원굴홈  
을참고 의자를당하여 영광시러히 죽을 기회를 일허버려 집파나라이 다그릇되게만  
들고 능히천만년을 살지 못함이 필경 죽어 업셔지는날은 그 더럽고 비루한성명을세

5

상에 위안이 똥똥히 넘어가며 그 후성들은 장차 무어시라 할지 모르나 응당 원망하며 한탄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그 도훈과 회를 당하였을 때에 다 조국들의 일성들을 만성각하고 우리를 도라보지 아니하여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인류노릇을 못하며 지원극통한 처지를 당하고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다 우리 조상들의 희망이라 할지니 엇지이러케 죽어서 용서를 잊고져 할리오 이러케 죽는 것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혹은 귀한 공을 견딜 수 없스디 참아 불의 불신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 하여 그 지조를 지키다가 귀한에 죽이는바 - 되는 자도 있스며 혹은 괴로운 세상과 육시러운 목숨을 살기 귀치안타고 도망하며 혹은 나라일이 날로 급하여 여망이 업스니 세상에 살아 소용업드고 도망하여 통분한 마음을 의의지 못하여 자결하는 자도 있스니 이러케 죽는 것이 가장 공경하고 충분한 죽음이 아니라 능히 죄책을 면할 듯 하나 이 도 또한 나라의 세상을 위하여 죽었다 할 수 없고 용렬히 죽었다 할 뿐이라 만일 시국을 통분히 하여 육된 세상을 괴로히 녀일진디 천금일신을 엇지 헛되히 스스로 바리리요 흠을 면하여 나의 몸이 또한 너 것이 아니라 런던에 주지 되신이 가 너게 맛기샤 이것으로 세상을 위하여 쓰게 하였스니 너가 세상에 살아잇슬 동안 잠시 맛히 힘할 직분이 잇거늘 너가 임의로 바리는 것은 조물주의께 크게 득죄함이요 또한 국민된도리로 말할지라도 나의 일신이 그 나라에 덕하여 맛당히 힘할 의무가 잇스니 대소관민간에 다 일례로 나라에 속하였거늘 엇지 그 중대할 줄을 모르고 스스로 업시 할기를 경솔히 할리오 이는 나라에 득죄함이라 일신을 바려서 하늘과 스름의께

독립요지

각각 제 희망을 깨달음

오

6

독립요지

각각제척망을 깨달음

륙

일례로득죄함이 엇지경계할바 - 안이리오 맛당히 공분호혈심과 충이항는본의로의  
를잡고 세상에나서서 간세호무리와 피악호 류들을쳐서 공담호마디라도 남의이목에  
들어니고 잔악호동포를 뒤신호야 강포호원수를 물니치다가 세력에셋겨 죽는바 - 될  
진디 이것시 참 영광시러은 죽음이요 나라를위호는 죽음이라 하늘의맛기신 본의를  
저바리지 안음이오 나라에 신민된적분을 다함이니 이러케 몸을바린자야 비로소적  
취을 다호엿드홀지니 그죽은것시 참 죽음이아니요 영원이 살아잇슴이라 천추에빛  
논일호미 굿치지안을지니 실로귀호고 영화로운죽음이라 누아니 부러워호며 누아니  
추앙호리요 그러는 스롭이 혼히말호기를 비록의 자리를 엇어죽고저호나 세상에알  
스랍이업스니 어리석게 죽을뿐이라 무슴일호미 들어니리요호며 호은일으디 니가의  
에들어가 죽어도 뒤를쓰를자 - 업스니 나만실업시 죽을뿐이라 무슴효함이 잇스리요  
호며 호은 니몸이죽어 일만될것갓호면 열번이라도 죽기가 어렵지 안으렷만은 나만  
죽고 일도되지못홀터이니 장부가 엇지헛도히 목숨을 발이리오 호는지라 이 세가지  
난호어 말호진디 죽어도알자 - 업다호음을 몬져설명호를지라

대키 충역과 시비라호는것슨 인정과형편을싸라 변호는구별이잇는니 호 오날충신으  
로 녀이던자이 리일역적으로 녀이게 되기도호며 호이곳에서 올라는스람을 저곳에  
서 그르다고 호는자도잇는니 지식이박지 못호는스람은 멀니보지못호야 그씩스람들의  
영웅호걸이라는것슬 중히녀어 천빅디에 란신적자의 일호미를 들을줄은 새닷지못호며

후 한디방에서 총신렬사라 일컫음을 장히녀여 세계각국이 간신 소인이라 하는것은 알지못함이다. 다만 당장에 보고듯는거스로만 위주하여야 능히 참공변되히 의로움을 행치못함되 오직지혜가 밝고 생각이 먼자라야 능히 일시인심을 불게함며 한 디방공론을 항거하고 굿세히 의를직혀 남은 다 어리석다고도하며 혹 역이라 적이라 함되 홀로 영광으로알아 굴치안코 죽기를즐거야 몇십년 몇백년후에 가서야 비로쇼그일 흥과 영광이 세상에 들어나니 이전스기에 빚는일흥들을보면 그뉘에는 다 아모도 몰을듯함였스되 즈연히 이세상에 드러나 숨길수업시됨이라 지금이라도 우리이목의 관렴으로든 남이아모리 알자 업슬듯하나 실상으로 공변된 의를직히기 어려운것시 한탄이지 공변된의를들어 죽기만할진디 엇지세상의셔 알지못할 리치가잇스리요 우리나라에도 경장이후로 나라를위함야 죽은사람이 몇몇되는지라 혹 발서들어나기도 하고 혹 아적들어나지안기도함였스되 다 세상의 이목이즈저하니 스스로 숨길수업슬지라 아적시디가 오리지못함을인연함야 못천일흥이 여러시느 초쳐씨를싸라 스키에 도 올을것시오 칙을지어 발포함자도 잇슬지니 엇지 영히업셔진다함리요 이는 죽은 후에 알자 업슬것은념려치 안을것시 분명함시오 돌지 나한나 죽은후에 뒤를싸라 죽을스람이 업다말할진디 의 자리에 들어가죽은후에 남이 내뒤를싸르고 안이싸를 것시 나의교계할바 안이라 그자리를당함야 뒤를 도라보는거슨 발서나의 죽을마음이 굿건치못함이나 진실로 이러케죽는것이 영광으로만 알진디 남모르는데 나 혼

독립요지

각각제침망을깨달음

철

8

독립요지

각각계척망을 깨달음

판

저알고 취하는거시 더욱이 영광이라 나의게 방희될것이 무엇이며 설령 남이 나와 갖  
치 죽을자 - 업서서 일이 되지 못함을 녀려할진디 맛당히 내가 남의 죽는디 갖치 죽지 못  
함을 녀려할지라 저마다 남의 의리를 갖치 않고 저할진디 남이 또한 내 의리를 갖치 할  
지라 내가 만일 남의 의리를 갖치 할야 순전호공심으로 남의 뒤를 싸를진디 남이 반드시  
나의 의리를 갖치 할야 내 뒤를 싸를지니 이는 런던호리치라 혹 당장에 싸르기도 할며  
혹얼마 후에 싸르기도 할며 대의정도를 세우는 자리에 영히 뒤가 섰는 법은 업는니 이  
는 뒤싸르려는자 - 업숨을 녀려할것이 아니오 세가지 목숨이 죽고도 일이 일우지 못함  
을 말할진디 또한 결단코 그것치 안은지라 사람이 세상을 위할야 큰리익을 도모할진디  
맛당히 그일이 런리에 공변된의인가 안의가 근본만 물을것이오 일의 되고 안이 될것은  
교계할바 - 안이라 런하에 공변된 의을 잡고 죽기까지 성력을 다 할야 씨를 썩려들진  
디 그조만 지속은 잇스나 필경은 들어나서 요흔스업이 결실되리니 이는 동서양 각국  
의 슂기를 볼진던 증거가 한들이 안이라 대장부 - 맛당히 넓고 장원한 런리를 밝히 삼혀  
곳게 나 같샘이라 엇지 내가 그 효험보기를 바라리오 우리나라에 큰리익되는 슂업과  
의리상일이 한나도 되지 못하는것은 슂삼마다 다 그일의 되기만 바라는 연고라 저마  
드 되기만 바라고 이리저리 교계할즉 자연히 죽을 녀려도 나며 제반리히의 관계가 들  
어와서 의리상철의와 용밍스러운 담략을 다 약하게 만들면 다시 부피호싱각이 나서  
부득이 할야 남이 기회를 만들어 노흔후 내가 힘안들이고도 일이 순편하게 되기를 기



忠孝大節圃隱鄭夢周  
의  
像



국군 고학동계 를도유에선조  
훈절순 고잡를리의 여학위 을  
쥬몽정 심션은포

9

다 될뿐이니 서로 기다리는중에서 무슨일이 되여 볼수 잇스리요 만일 사람마다 의리 만성각하고 목숨을 가바야히 녀여 일심으로 나갈진디 또 혼이 흥괴하여 능히역제 치못하고 응하여 나을지니 일이 엇지 못되게스며 설령 당장에는 응중하는 사람이 업 슬지라도 엇지 영히업슬리가 잇스리요 이는 죽어도 일이 일우지 못할까 녀려함이 맛 당치못함이라 그런즉 이세가지 연고로 인연하여 올흔 자리에 죽지 못한다 하는것시 실 로 의리물위하여 죽기까지 가고져 하는 마음이 업는것시요 후 이것슬때 닷지 못하여 능히 올케죽지 못하는자는 죽어도 그 죄책은 도망치 못할지라 그런즉 이시디에 나셔이 런디에 살아안존자 - 한나도 죄책이 업다 할수 업는니 각각 생각하여 보면 스스로알녀니 와 이책을 쓰는자도 또 혼이 천만구의 한나이라 이말을 하는거시 엇지 녀의게만 허물 을 돌녀보내고져 혼자 무죄하다 함이 리요 저도 저의 죄책이 어디 참여할는지 짐작 이 업지안은지라 스스로 붓그럽고 두렵거니와 이상에 기록한 말인즉 사람마다 저의 의 죄책을 깨달아 녀의하고 아니 하는것슬 못지말고 각기 저의 죄책과 도리만 힘하 야 죄책을 면할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바 - 로라

▲지책을 힘치 못하여 면화를 당함

그러는 사람이 다만 나라에 덕을 지책을 힘치 못하여 죄책은 될지라도 저의 몸과 집 이는 부지할진디 당장 제게는 리로운즉 오히려 저의 몸과 집안도 부지할지 못하느니 저 권리잇 후 영웅호걸이라고도 할런만은 필경 저의 몸과 집안도 부지할지 못하느니 저 권리잇

독립요지

지책을 힘치 못하여 면화를 당함

구

던자들을보라 당시에 위엄과영광이 곳 던디를진동하며 천만년을 새지지안을듯하야  
 어리석은 세상이 모도그광치에 취하야 부러워도하며 추앙도하더니 일쥔에 그 세력  
 이 다 어긋갓스며 그영광이 다 어긋잇는뇨 아라샤 공스관을 래산갓치 의지하고 세  
 상을반디하야 던하에 두려온거시 업는줄로알고 못된돈을 한업시지어 빅성이살수업  
 고 각국상업이 손해되게하미 누누히경고하되 나의권리라하야 듯지아니하며 묵주를  
 뒤로터셔 안팎호로 취리하며 발가리로 빅성을해하기와 참형을니여 후독하야만의일  
 을행하며 연좌법을 회복하고저하야 무슈히 이를쓰며유무죄간에 미결슈로 사오년식  
 지판업시 가도어두며 포락으로 살을티우기와 제반형구로 누초를밧다가 이미히죽이  
 기와 중역에선고하디 달포만에 다시 선고도업시 죽이기와 총적한 사람을얼거 도록  
 을쌘며 고발을 식히거는 여지로구초에니여 몰아넉거는하며 외양으로하는일은 데흥  
 과 레절적히기며 등록찾기와 사직상소하기며 모든문구 치레하기에 아모일도못하며  
 빅성은 올고부루지지는중에 노리와잔치는 날로심하며 위망이시각에 잇스되 종로숨  
 거리로 풍류치며 돌아단일제 좌우에 벽제쇼리는 전보다더하며 관찰관슈로간자들은  
 민요만 니지안코 먹으면 가장 지혜로운 영광이라하며 고혈을 썰어 어디가업시하야  
 심지어 싸를싸간다는 말씩지잇스며 기성과풍류로 질탕히놀기와 도임형초에 호강을  
 다하고 기라 모든폐단이 한량이업스되 가장 탐학하는 관원은 포뎀에우등을엇고 후  
 만인산과 비석이 원근에즐비하며 좀어질다는관원은 용랍할 곳이업셔 심지어 빅성

을 너무스람한다 하고 파면을 당하는 자! 잇스미 민심이 저연히 돌아서 원군공물을 당하고 호소하기를 생각지안으며 혹 지산과 언장을 써앗기고 살수업서 악에박쳐 정부에 호소할진디 설원하기는 고스하고 도로혀 풍화소관이라 하여 종물로다사리며 홀로죽고 상하는자는 여간무세하고 볼썽업는 하등 잔민들뿐이오 도적도 지물잇는 유명대적은 죽이지안코 기타 뵤반패택을 다 저의세리니여 저의세리형하며 서로 호위하여 가미 곳 세상이 다 저의들의 거시오 뵤성이 다 저의들을 위하여 난거시라 뵤 감히막으며 뵤 능히항거하리오 고루거각을 스면에 버려짓고 토디 언담을 원근에 장만하여 곳 만년무궁한 괴들을 잡은듯하더니 졸디에 세상형편이 변함미 저의가 몬져 화를 당하여 모진광풍에 락화갓치 훗히지미 혹 외국으로 잡혀가기도하며 혹 성명을 곳치고 모야도 주도하며 혹 도망할 곳도 업서 스방에 저물로 다 리노아 외국인 거류디에 보호를 청구하나 하늘이 뵤위하시거던 뵤능히용랍하리오 호호탕탕하던디에 도라갈 곳시 업스며 언장과 지산을 능히 보전치 못함미 당장에 언벌을 받으며 기타 담장포학하던류들은 아직 벌이 몸에 미지아니함미 능히 용랍을 엿을듯하나 초초법률이 밝혀가며 인민이 열니고 보면 엿지 그 저물을 편안하누리며 엿지 그 죄를 무스히 면하리오 언리가 소소하여 도망치 못하리니 그런즉 저의들이 님의 목숨을 싣혀 저의 목숨을 이르려한거시 불과 저의들의 목숨을 저의 손으로 싣흔거시오 나라를 헐어다가 집을 받치려한거시 불과 저의 집을 헐뜨름이라 엿지 다만 죄책만잇고 저의들씩 히는 업다하리오 남

독립요지

직책을 힘치지 못하면 화를 당함

실일

조의 일신이 국가경쟁하는 기회를 당하여 다 힘히 베풀어 위에 잇스니 맛당히 학술을 포부  
 하고 나라를 받들어 세계에 상등국이 되게 할진디 중흥은 공신이 되여 일흥이 고금에 빛  
 날지니 지금 세상에 아모아 모유명호 정치대가 들과 갖치됨이 어렵지 않을지라 저런 공  
 법을 세우는 사람이 실로 별인물이 아니로되 다만 기회를 당하여 형편을 밝히보고 죽  
 기로써 힘을 다하여 홀로 일하기에 잇는지라 급기 열심으로 일을 하여 조국 손으로 부  
 국강병을 만들어 노후에는 그 일흥과 위엄이 각국의 추앙하는 바 되어 한두마디 말  
 이 족히 세계공론을 번복하는지라 멀리 보지 말고 다만 일본에 모모대신만 보아도 족  
 히 나라에 신하된 자로 하여곰 부러운 생각에 성길것시어늘 이런욕심이 나지 못하고 도  
 로혀 살지우기과 비불나기에 평성을 골물히 여스하여 유신의 종질만하다가 오히려  
 목숨도 일허바리며 천추에 누명도 잇으며 저의 집안이 거절할곳시 업시되느니 엇지 두  
 렷지안으며 엇지 비루하지 아니할리오 이는 디위를 엇어 우해안존자의 중계할것시어  
 니와 아리 빅성된이로 말할진디 당당한 니나라를 남의 거스로 밀우어 두어 도라보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아니하여 이디경까지 이르렀스미 악호정스와 부피호풍속이 날로  
 심하여 음란스특호 흥실은 점점늘며 방탕스치호길이 날로 열녀 경향대도 회쳐를 볼진  
 디 곳 음탕하고 피악호굴혈이라 의복법절과 일용의 필요등물이 본국에서 짓는것스 점  
 점업서지고 외국것시 날로 성호미 지물은 싸지고 물건은 느는지라 인하여 사람의 성계  
 가 줄어들미 인심이 점점강악하여 심지어 락류이 쇠괴여지며 골육이 서로 다로는지

13

독립요지

직책을 힘치지 못함 면화를 담함

습

라 각각 이심이 되야 이천만명이 이천만 마음을 가졌는니 모도공심은 업서지고 스심이  
 이가득하야 여간돈뿐이나 잇는집지식들은 주식잡기와 허랑방탕하디빠져 인간에 극  
 락으로 넘어며 빈곤한 지식들은 늪을속이고 썩어서서라도 당장 비불나는것만 다 횡으  
 로알아 거짓말과 스투흔거시 국중에 가득하며 스지를편히하야 게을니 세월을보디며  
 무어슬비호던지 무어슬하야보라하면 할수도업거니와 하야서는 무엇슬하야나하야아  
 모것도 아니하고 먹고입으려하미 즈연히 먹고입을수가업스즉 부득이하야 못된일로  
 생각어들어가며 흥난말이 궁하면 못할일이업다하야 각각 저만살녀하는등에서 늪을  
 죽이미 늪을죽이는중에서 늪가죽음을받는지라 서로잔히하는등에서 인구가히마다줄  
 어들되알지도못하며 알아도 걱정도아니하며 하로잇홀살기만 경영이라 부자는간  
 난하여지고 간난한자는 죽게되며 죽게된자는 업서질뿐이니 전국에 누가 이화를 당  
 치 아니하리오

습한다 사람이 다 갖치 이 기명호 세상에나서 늪은 날마다 부강문명에 나아가서래  
 평안락호복을 일레로누리거늘 우리는 어이하야 한낫목숨이 타는불과 썩는물속에서  
 서로살수업기에 이르노뇨 늪의 나라사람들의 사는거슬볼진디 그나라에디하야 엇는  
 영광과 복락은 다 고스하고 다만 백성의 스스로이 살어가는 처디로만 보와도 각각  
 제직업을 편히하야 일분척리틀 달노홀자 업스며 즈유권리를 보호하야 일호반점이  
 라도 썩아슬자 업스며 서로사랑하고 위로하는등에 즐거운락이 싱기며 서로구원하

고 불상히 녀이능등에서 인정과은의가 성기며 상업으로 흥왕식혀 각국의지물을 벌  
어들이며 공법과 농업을 부즈런히야 지물이부요함의 사람이 쓰라 귀중하여 지며  
계가 편첩함의 슈족에 괴로움이덜니며 교화가 룹성하여 덕행과 신의를 중히녀이  
정대호근조는 즈연히들어는며 경위가셔고 법률이 밝으며 강포한자가 머리들지  
못하고 잔약한자는 두려울것시 업는지라 나라이래평함의 백성이즐거우며 백성이즐거  
우면 뇌몸이 그복을누리는니 부모쳐져 형제즈미와 친척고구 이웃간에 뜻되로 힘락  
함이 곳인간에 구락세계라할지라 나라를 이러듯즐거히 만들어노코 일테로복밖으  
며 타국에나아가면 다만 한들만잇는곳도 그정부에서 령스를보이며 군함을 파송하여  
싱명과지산을 완전하게 보호하는니 이럼으로 이백성은 가난곳마다 상등의티접과극  
한리의을 엿는니 이 엿지사람된자의 부러울바 안이며 욕심닐바 안이리요 저사람  
들의 저러흔 복을받는것은 하늘이 특별히주시는 편벽되히 품부흔 거시안이요 후  
이슴십년 스오십년 빅여년전에는 다 우리보다 더욱심하고 어려운 처디에잇던 나라  
들이라 교화가열니며 문명이 발달되는되로 각기 네적어두운 거슬바리고 밝은식법  
을쓰라 인민의풍기가 밝피며 사상이변하여 저마다 다 남을위하여나서 남을위하여  
살다가 남을위하여 죽는거시 사람의도리요 직분으로알고 행하는등에서 된거시라일  
로만보아도 사람의회복이 다 저기의 저취하는바 안이리요 남을한리요 우리가우  
리의직책을 못한것이 다만 우리백성들의 희망만될뿐아니라 그희가 우리의게 다 갖

치 및치는거슬 가히 알니로도

▲빅성이힘쓰면될일

이글을 보시는이들이 응당 말하기를 빅성이 아모리 직책을행하고도 심호며 또흔직  
책을 행치못하는거시 우리의게 히되는줄도 모르문안이로되 우해잇는이들이 즈괴들  
도 아니행하며 빅성들도 행치못하게흔즉 빅성이 무슴힘으로 능히 할수잇느냐 할지  
라 이뜻을 파혹고저출진디 몬져 나라이 엇더흔것신지를 알아야 하게도다

대기 나라이라 흥는것은 여러사람이 모혀 한 무리가되야 사는거슬 이름이니 비컨디  
여러사람이 흥씨모혀 일을 의론하는회와 갓흔지라 큰집에 모혀안져서 들식 세식픽  
를지어 제뜻디로 말도흥며 웃고 짓거리기도출진디 다만 일만의론치 못할썸 아니라  
도로혀 큰 란장관이되여 서로 쓰호기도흥게고 처고 살히도홀터이니 엇지 위험흥지  
안으리오 맛당히 일정한 법과규모가잇서 종용흥고화평흥게 진압도흥며 공평흥고바  
르게 조쳐도흥야할지니 이러케흥자흥축 불가불 가합흥사람을 택흥야 스무를맛겨  
행흥게 흥야야 규모와 처서가 잇슬것이오 이일이 되게흥잔즉 쓰는경비도 잇서야 흥  
게고 일흥는사람들의 의식도 티여휴어야 전혀 그일에만 미일터인즉 불가불 그모흔  
사람들이 돈을얼마식 슈렵흥야 일군들의게 맞기느니 그런즉 그일군들은 그회에디  
흥야 일테로 관계되는 직책외에 여러사람의게 공번되히 속흥중이라 몸을전혀 그회  
에맞쳐서 여러사람이 다 편리흥도록받들지니 직책은 일군의게달냈거니와 이일을맛

15

독립요지

빅성이힘쓰면될일

심호

기고 안이맛기기는 여러사람들에게 달닌지라 설명 그일군들이 직책을 극진히 다 할진디 여러히 일심으로 밧치고 도아서 아모도록 힘있게 하려니와 만일 그일군이 직분을바리고 제몹을 리롭게하고저할진디 여러사람이 일시에 일하는 그페단도막으며 일도맛기지안어야 을을지라 만일 그러치못하야 한번맛기후에는 자그들이 어련히알아행하리요하고 도라보지안을진디 어질고 진실한 일군이잇서 직책을 다하려하여도 홀로 힘이자라지못하야 엇지할수도 업스련이와 아모리 현인군즈라도 구이할곳이업스면 츠츠스스욕심에 설너 필경 안이날싱각이업스려던 흠을며 현인군즈가 본티씨가업스니 불히히 현인군즈들의집안에 부랑피류들이싱겨 그일을 난호어 츠지하고안져여러사람의모음을 이리저리흔들어보미 감히막을자 업는지라 스스욕심이 불닐듯싱겨 필경은 그사람들을 다몰아니고 그집을팔아서라도 주식잡기에 바리고저할지라이는 인정의즈연함이니 엇지저 일군들의 잘못함이리요 일식헌자들이 당초에 근원을바로세워 페단을막지못할연고라 나라의 관원들은 다 회에 스무원이요 박성은 다 회원이니 박성이 밧치지아니하면 관원의힘이 어디서며 박성이막으면 관원의페단이 엇지싱기리오 다 박성이 자그들의 일을행치아니흔데서 싱김이라 그러는 박성이 자그들의 일을 하지안이함은 무슴연고요 다 그나라이 뉘것인지 모르는 연고요라 나라를 위하라면 곳남을 위하는줄로알며 남을위하는거시 참저를 위하는것신줄은모르느고로서로밀고 안이하는중에서 홀수업는형편이 싱기는지라 나라이 진실로자그

집에 불뚫는 거슬 엇지 놔이 쓰지 안는다고 쯤기도 쓰지 안으리오 놔은 나서던지 아니 나서던지 나 혼져 헛치고 들어가 다만 기동썩리 혼나 이라도 건져 너려 흘거 시어 놀 좋시도 나라이 너몸의 관계가 긴절치안은 줄로 아는고로 사랑 혼는 몸이 적어서 서로 밀고 건지지 안음이라 그런즉 이 나라 히 혼는 자만 나의 원슈가 아니라 건질수 업다는 자 이 쓰 혼 나의 원슈나 만일 너 몸속 에 이 생각 이 잇스면 너 몸이 곳 나의 원슈라 이 몸으로 인연 혼야 나라 에 히 되는 것을 막지 못 혼야 나라이 이 디경에 이르고 히가 너 게 밋 쳤느니 나를 히롭게 혼는 몸이 엇지 나의 원슈가 아니라 이 디경에 이르고 히가 너 잇는 원슈를 바리고 다도 아나아가 홀로 일 혼고 저 흘진 디 백성이 엇지 잔약 혼며 힘이 업다 혼리 오 청컨 디 해아려 보라 전국에 백성은 얼마며 관원은 얼마뇨 슈효의 다 소를 비 교 흘진 디 누가 힘이 만으며 누가 권세가 만키에 백성이 약 다 혼는뇨 정부에 몇 백 명 관 원들은 백성이 밋 쳐 주지 아니 혼면 지정이 어 디 서싱기 게는뇨 이 천 만 싱령이 합 혼야 몇 백 명의 힘이 되어 저의 슈족을 결박 혼고 살진 디로 버 혀 가 되 감히 버 서 날 줄을 싱각지 못 혼고 도로 혀 흘수 업 습을 한 단 혼니 엇지 어 리 셔 지 안 이 혼며 의 똘 지 안 으 리 오 지 금 이 라 도 각 각 몸 을 삼 혀 보 아 조 곱 이 라 도 흘수 업 다 는 싱 각 이 잇 거 던 곳 바 리 고 놔 은 혼 던 지 아 니 혼 던 지 나 혼 즈 라 도 혼 면 될 것 이 오 나 도 아 니 혼 면 영 이 되 지 못 혼 리 라 혼 야 힘을 다 혼 여 일 흘진 디 우리 도 저 부 강 문 명 혼 나 라 들 과 갖 치 되 기 를 가 히 바 를 지 라 지 금 우리 의 맞 당 히 흘 일 은 장 초 이 아 리 다 시 말 혼 련 이 와 가 장 급 혼 거 신 즉 스 람 마 다 흘

독립요지

백성이 힘써면 될 일

심철

수업다는 믿음은 바리고 일심으로 일하는 일군이 되도록 만들뿐이라. 빙성의 생각이 이  
에 미치지 전에는 아모일도 다 헛거시라. 하노니 이거시 곳 나라를 보전하는 씨. 뿌림이  
라 씨만 잘 뿌려 노으면 추수가 자연히 풍비하리다.

▲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

우해 말하바는 다 신민된자가 그도리는 생각지 못하고 다만 스스리히만 교계하는 자의  
게 중계할바 아니와 적이 공심이 잇서 나라를 위하야 충성을 본받고저하는 자들을 볼  
진디 실상으로 나라를 위하야 죽고저하는 믿음의 남의 나라스라만 못하다. 홀수업스는  
다 엇더케 하는 거시 참 충성인지 알지 못하는 연고로 다. 낫흔 믿음을 가지고 낫흔 성력  
을 허비하너 도로혀 참 충성의 본의를 방기하는 지라. 맛당히 충역의 분간을 묻져 알아  
실상으로 충성을 행하야 그 공효가 영원히 미칠이로다. 근리 우리나라 스라들의 충  
성이 라는 것은 다만 인군의 명령만 순순하며 인군의 뜻만 따르는 거시 충성으로 녀여  
서. 당장 종사가 위하하고 국가가 어지러 일이라도 감히 거스려 간하지 못하며. 탄압의  
괴식만 삼혀 순종할 따름이요. 물너 나와서는 도로혀 평론하며 서로 말하기를 일은 될 수  
업스니. 칙령지하에 엇지 거역할 수잇스을 이요하며. 아모일이라도 하다가 팔경 잘  
못되거니 리굴흔 자리에 가서는 허물을 칙령으로 돌녀 보내고 저의는 아모죄도 업노라  
하며. 후. 충직은 자잇서 죽기로 쓰간하야. 막을진디. 곳 역적으로 지목하야. 비판으로 모  
히하고. 벼살을 팔며. 빙성을 글거다가. 제 것 처럼 밧치고. 요공하야. 영귀를 도모하며. 불신

불의를 행하여야 세상에 우습을 세치고 문득 칭찬하는 말은 칭령이라 하는니 인하여 민심이 비반항하며 언하에 실신하여 나라이 위태하며 인군이 쓰라위태하시느니 이거슬 오히려 충신이라 칭하는지라 이것지 부모의 살을 버혀다가 봉양하며 효조라 하는자와 똑같이 오리오. 밍조 썩셔 글썩스덕 빅성이 중하고 종사가 들지요 그다음에 인군이 라는 것은 니 이는 인군이 중하지 않라 함심 아니요 인군을 참으로 중히 여기려면 빅성과 종사를 먼저 중히 여기야 한다 함심이라 이 대의를 아는 사람은 인군을 낮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뜻으로 섬겨서 군명을 거역하고라도 빅성을 리롭게 하며 종사를 편안케 하여 국가가 태평안락하게 함이 인군의 옥테가 스스로 태산반석의 편안함을 누리실지니 이거 시 곳 나라에 신하된 본의라 이 본의를 알진디 비록 군명을 항거하고 역명을 실어 천 참만류하는 화를 당할지라도 달게 여기고 빅성에게 히 될 일은 일호도 항거치 아니하여 올흔 거시어늘 잠시 이목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히 종사에 위태함을 도라보지 아니함이 엇지 참 충성의 반디됨이 아니리오 성군이 우혜게시미 어진 신하가 아리서 밍드느니 이는 성군의 충명을 도아 밍지 못함심을 기워서 빅성이 안락하고 나라이 태평코져 함이라야 모리 성인이라도 신하가 안이면 천만가지 일을 홀로 다스리실수 업슴이니 신하의 직책이 엇지 중대치안이 하리요 이러듯 중대흔 직책을 모르고 다만 우혜 뜻만 아당하노예와 우마갓치 부리는바 되고 저 할진디 언하에 이것지 위험한일이 업는지라 맛 당히 올흔도리로 섬기며 바른 말슴으로 간하여 성인의 덕화가 세상에 들어나며 만민

독립요지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

신구

의게 대답하여서 민심이 갑부하여 각국이 존송하여 간담으로 만세를 불으며 덕화를 감동하여 눈물로 칭송하며 태평가를 불너 성덕을 자랑하여 민간에 모든 복이 다 성군의 주신거스로 하여 한 백성이라도 화를 거스리고 법을 범할진디 만민이 다 일제로 공분을 되여 필부필부라도 은택을 모르는 자 업고져하며 나라를 위하여 목숨바리를 영광으로 하여 뇌란이 생기지 안이하며 외환이 침범치 못하여 황실이 영구히 태평안락함을 누리리며 백성이 또한 가끔 인종축락을 잊게 할진디 이 엿지 여민동락하는 성군의 뜻시 안이리오 이럼으로 문명화 나라에서 들은 신하들이 각기 맞은적척의 방한이잇서 그 방한안에 잇는일은 의례히 지키가행하는고로 인군이 항상 정스에 괴로우신 폐단이 업고 한가한거를이 만호실변안이라 백성이 모도 갑부하여 한나도 원굴한다 불평한다 하는자 업고 설령 불쾌한 무리가잇셔도 법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곳 그 백성들을 두려워야 감히 반심을 생각지 못하는나 이럼으로 데왕의 존엄하신 위의로도 시위와 추종업시 민간에 거동하기와 타국에 류람하기 존중되는 풍속이라 도처에 남녀로소가 만세를 불너 덕화를 칭송하며 스스로 호위가 되어 조곰도 불법한일이 생기지 안느니 이엇지 인군씩 침략이안이시며 침복이 아니시리오 이런 침복과 침략을 누리시는것은 그 인군되신이가 다 요순같은성덕을 겸함심이나니라 그 신민들이 인군씩 충성하는근본을알아 정치제도를 일당하게 만든연고라 만일 일호라도 나라를위티케만들고 상의를아침하여 충신이 되고져하였슬진디 엿지 그덕화가 퍼져서 민

21

심미 이러듯 감복하리오 일로써 볼진디 전국을 리롭게 하는 것이 참 충신시오 전국을  
히롭게 하는 거시 참 역적이라 우리나라에도 몇십년전 스기만보면 이뜻슬 다 새달을  
거시어늘 스람의학식이 어두어지며 충역의근본을 일허바려 오늘날 신민의스상이이  
에 서지밋쳐스니 그관계가 엇지적드하리오 스람마다 맛당히 충과역의 참 뜻을 몬져  
비화야 하게도다

▲ 마음속에 독립을 갖게 함

이척을 괴롭히는 뜻은 천언만설로 소리를 높히질너 전국동포들의게 일심으로 합력하  
야 대한제국의 독립권리를 보전하야 거의다 실행진 성익을이어 영원무궁케 만들기  
를 원함이라 몬져 말하바와갓치 이나라에 스는 거시 대히공파에 비타고 안즘이라 엇  
지 옷사람들의게만 위티하고 아리박성의게는 상관업드하야 무심히안져 돕지안이  
하고 편안히 건너가기를 바라리오 넘너로소가 일제히 일허나서 각기 조국의지물과  
보피라도 물에더져서 비를 가바압게만들어 무스히 건너가기를 도모할지라 만일 조  
국한몸들만 건지고져하거나 함장과스공만 구하고져할진디 필경 파선하기를 면치못  
할지니 스람마다 대한제국의 조유독립을위하야 지물과목숨을 앗가지안는 거시 숨천  
리강산을 파선되지안케하야 이천만성명을 침몰하지안케하는 중대한 직책이라 이직  
책을 스람마다 조국의역기에 메이고잇느니 씀새고 정신차려 어서밤비 합심하야 나서  
서 일들을하세 동포들아 동포들아 우리대한동포들아 이세가가어느세며 우리스정엇더하

독립요지

마음속에 독립을 갖게 함

이십일

요이요흔금슈강산 엇지아니 사랑함며 보비로운 독립국권 어이아니 보호할가 아세  
 아쥬 동편똥해 아름다히 반도되여 오천년리 쥬쥬국이 레의지방 쥬랑함며 성계신승  
 국태민안 늬부럽지 안엇도다 남대양 북대륙에 온디디방거려안져 괴후는온화함며도  
 디는기름져서 물산이풍부함며 오곡이풍양함고 빅과가구비함며 어염이 풍족함고 금  
 은동철이 스방에 쓰헛스미 각국인이 흠선히녀여 침홀닌지 오릿느니 윤리가 시법을  
 비호며 괴계를써서 합당히 쥬여니면 스스로 부국을 일울것이오 명산대천이 도쳐에  
 경기절승함야 유람함는외국인이 니디에구경함고 풍경을 쥬랑함되 동양기(서스)영어  
 로슈잇슬터니드국이러함며 인물은 미묘함고 풍속은 순후함디 레의염치 숭상함며 효데  
 충신 중히녀여 스롱공상 네가지에 각기직업 편히함미 전정이드을어 편안함디 즐겨  
 함미 위티함을 모로도다 성질을 의론컨디 청인의풍후함과 일인의 강약함을 고로게  
 겸비함야 완고질박함 성품도잇스며 영리민첩함 지조도가젧느니 교육만 잘식하며인  
 도만바로함면 족히 동양에부강을일우기 어렵지안을지라 엇지인가가 젧다함며 토디  
 가 젧다함리오 구라파쥬 유로바에 하란국(홀터니드)과 서스국(슈잇슬터니드)갓흔 나  
 는 게우 대한의 숨분지일밖에 안이되되 강국스이에셔 쥬쥬독립을 유지함며 문명을  
 다도느니라 우리는 이 력력함인구와 이요흔 강도를가지고 엇지 늬만못함기를 쥬쳐  
 함리오 악한압제와 완고함구습이 성품에물들어 스름의성각이 츠츠나여지미 늬과비  
 등함여불쑥시 감히 쥬기못함야 너겨슬밀우어 늬의게스양함고 물너가피함야 편함

23

을 취하고저하는고로 필경 우리나라를 다 남의손에 넣기에 이른지라 엇지 지원극동치 아니하며 이척하고 약압지안이하리오 만일우리가 이거슬 영히보전치못하기에 일을 진디스리의도리와 관계는 다 고스항교라도 장초 무슴면복으로 세상에서서 무슴말로 후세에 디답하리오

숭흐다 동포들아 생각들하여보라 스름의일신이 세상에 처할썩에 먹고입는것도 중흐드하려니와 이것만 중히녀이고는 즘싱과 달을거시업니니 스름의디점을 받을수업는지라 우리 대한동포들도 남과갓치 타고나서 스지빅테와 이목구비며 지혜총명이 남만못할거시 업거늘 엇지하야 만국이교통하며 지혜와지조를 서로다도는 세상에나서 남과갓치 상등디점받기를 원하지안으리오 속담에 제집기도 남의키의게 물니는거슬 보면분항다하거늘 함을며 스름이스름의게 하등디점을 받을거슬 엇지싱각지안으며 원흉이 아니녀이리오 비록 오날이라도 이글을보고 기쁘히 새닫는썩시 싱길진디스름마다 무슴속에 되나라 독립권을 보존하는것이 나의목숨보다 더 중하게녀야 아모셔나 아모일에는 독립을 위하는 자리에느 죽기까지 나아가는거시 영광으로녀이며 일변으로 남의게 이싱각을전하야 하로 잇출일년에 전국사람이 다 나와 갓흔싱각을 가지도록하야 주는거시 데일긴급하며 데일 중대흔일이라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이 잇다업다함은 외국이침범함을 두려함도안이요 정부에서 보호하지못함을 넘려함도하리오 다만인민의무슴속에 독립두글자가 잇지안이하이 참 걱정이라 만일어리

독립요지

무슴속에 독립을갓게함

이싱슴

척은 지어미와 어린의치들이라도 그 마음속에 이싱각만 깎히뵈여 저마다 해아리되  
이천만인구가 다 죽어업서 지기전에 다만 한나이라도 살아잇스면 대한독립을 직  
히이라하는마음이 굵을진디 오늘날 독립일홈이 업스들 무어시걱정이며 세계만국이  
능멸항기로 무어시두려우리오 이럼으로 인민의속에 독립마음을너어 주는것이 지금  
데일 일이라 나의급급히 이척을 기록하는뜻시 다만 이것한가지에잇는니 천인만설  
이다 이두글자에 정신을둔거시라 지극히 원항는바는 전국인민이 다 이뜻을알고일  
심으로 힘쓰기를바람이니 나의목숨을 바려셔라도 이뜻을 일출수만잇스면 진실로앗  
기지 안케노니 독립마음을 전파항기에 관계한 몇가지도목은 아리 기록하려니와 위  
선 우리나라사람들이 독립을무어신지 아직도 모르는자—업지안을지라 그뜻을 대강  
말항노라

▲각국과상동항호는관계

스빅여년전에는 디구상각국이 다 각각제나라디방만 직히고 서로동항지 아니항야말  
니 단이지못항미 디구가 동근줄을모르고 다밋기를 싸혼모지고 하늘은 동글어서 싸  
뜻은바다이요 바다뜻혼하늘이라 홀뿐이러니 일천스빅구십이년에 의대리(이탈리)국  
스캄(콜롬버쓰)라하는이가 나서 대령을 처음으로건너 남북,아메리가,츄를 초져  
너니 그후로 백인들이 아메리가츄로 건너가살아, 미국,이되었는니 지금 우리나라  
에 가장만히오는 미국,사람이 곳이나라 스칼들이라 이셔부터 디구가 동근줄을알



아메리카주를 처음으로 찾은

쓰버림코 림사국리타의

라도 능히 제일만 잘하야갈진디 강포한나라이 감히 넘겨다보지못하야 피츠에 평등으로 되접하느니 이는 다 일테로상등되는 나라이오 련방이라하느것은혹 두나라이느 여러나라이 련합하야 니치느 각각씩로하되 국권은혹 한-황제나 군주의 계속하야 타국과 전정하거나 교섭하느일을 되신쥬관하느니 이는 그실상을 말할진디 독립국이냐 다름이업스며 기타 속국이라 속디라하느거슨 혹 나라명식이 잇기도하교 아 조일홈도업시 한-고을처럼되여 영히 늑의나라에 속하야 관찰 총독을 보니여 다스리기도하느니 동히 말할진디 일홈은 잇스나 업스나 불과상전나라에 속하야 외교너치물 제가쥬장하지못하교 상국이 되신형하미 벼슬서지도 혹 이슴등 혹 류철등관이 상은 다 그나라 사람을 쥬지안이하교 상국에서 보니여식하며 학문교육에도 방한을 마련하야 정치학 법률학은 비호지 못하게하며 혹은 본국방언도 쓰지못하게하교 군적에너셔 군스노릇하느 힘슈와 세박치고 부여하느 모든일에 편벽되히 압제하며 후연설이나 신문잡지등 문설이라도 고국을상각하거나 국권회복할뜻슨 엄금하야 못하게하며 혹 충의잇는 형적이잇스면 황무흔 싸흐로 귀향을보니거나 섬중에 안치하야 부즈형제가 맛나지못하야 평성을맛치게하미 아모도록 그빅성의속에 예스인군을싱 각하거나 국권을 회복하야볼 무압이 업서지도록하미 존귀하던 공조왕손이 다 늑의종이되야 슴람된 되접을 받지못하느니 실로 슴람심장을 가진자는 축척에설어서살수업느지라 년전에 인도국 중 한나히 우리나라 슴람을 맛나 울며하느말이 우리부여

25

독립요지

각국파상통상관계

이심오

고 각국이 서로문을통하고 왕리교섭하야 교를전하며 물화를상통하야 나의예사것과  
 남의식것을 비교하야 쓰며 나의흔것과 남의귀흔것을 밧고어쓰미 교화와 풍기가날  
 로열니며 학문과 지조가 한업시 진보되여 오늘날 세계에 데일부강하고 문명하느는  
 나라들이 다 통상교제하느는 리익을엇어 저렷듯됨이라 리익을 쓰라 세력이 점점확장  
 되미 초초동으로벗어 오류십년리로 청국 일본 대한에 차례로 일으렷스미 세계의통  
 헝하느는리익이 이렷듯장하느는지라 우리나라도 잘만홀진디 이런키명시되를 당하느는것이 한  
 량업는 헝복이될지라 우리가 각국과 데일 니종통하고로 세상에서 우리를 산중쳐스  
 국이라하느니 우리가잘만하엿던들 속담에 니종는쌀이 우득하느는말이 우리의게 합  
 당하엿슬것이어늘 아직도 이거슬 새닷지못하야 전후 이십여년에 조곰도 진보된 호  
 헝업고 도로혀 국권을 보전키 어렵게되엿스니 이엇지 우리의 새닷지못하호 허물이  
 아니리오 그러하죽 통상교제가 각국에 다 리익되느는거시오 어느나라에는 리롭고 어  
 느나라에는 허될거시 아니라 만국이 리웃되며 스허가 형데되여 래평안락을 일레로  
 누릴지니 엿지질겅지 안이하리오만은

가척하도다 각국의 교와가 한결갓지못하야 강포하나라이 힘을밧고 욕심을부려 남의  
 도디를점령하며 국권을 침탈하느는페단이 종종성기느는지라 이에 만국공법을 마련하야  
 권리의 방한을당하미 독립국과 련방과 속국과 속디의 구별이 잇느는지라 독립국이라  
 하느는것은 니치와 외교를 니가즈주하야 남이 간에하느는지못하느니 아모리 적은나라이

조의 잘못을죄로 나라를업시하여 영히, 영국의 종이 되었느니 그덕들은 아모도록 잘 들항야 조손을 니모양 만들지말나 하였느니 지금세상에 나라를 한번 그릇드린것이 후성의게 엇더케 적원함인지 가히알지라, 파란, (포르티노)국은 거의 숨뵈년전에 부강하던 큰 나라호로 어두운 인군과 간악한신하들이 권세를지하고 빅성을 잔히항야 형제가외로오미 도디를버혀주며, 아라스, 에 청구항야 보호병을 들여다가 신민을 잔히항고 필경 조그들의몸까지 팔아먹어 나라와호씨 업서지미 참분함 빅성들이 군사를 일회혀, 아라스, (러화)를항거항드 가 강포한군스의게 전국이 어육되미 그참혹추은호 정상은 참야 말할수업는지라 지금까지, 아, (러화)법, (프티노스), 오, (오스트리아)승국의 령도가 되었느니 이는, 파란, 말년전스를보면 조세히 알너니와 보는자로항여곰 숨흔눈물을 금항지못할지라 미양, 파란을 유람항는 여러과각이 예사적에 변화항든 궁실루티의 뷔인터를 지너드 가 당시에 풍류인물을 싱각항고 항상 비감회포를 금치못항야 그 적막처럼한 경상이며, 아라스, 의 참독무리함을일카러 글을지어 세상에 전파항미 각국의 예왕과 신민된자들로항여곰 족히 증계가 되게항느니 뉘안이, 파란, 빅성을위항야 숨히감동항리오 다항이 그중에서 버셔나서 타국으로 훗혀져잇는동포가만흔티 가장, 미, 국에 만이잇서서 종종고국을 잊지안이항고 서로감정을표항며 항상 기회를기다리드 가 이번에 일아전정됨을보고 유지항자가 글을지어돌니고 동포를 합항야 고국을 회복항려항미 각국에잇는 스람들이 저마다 응중항고져 항느니라 이

독립요지

각국파상통항는관계

이십칠

러듯 중대한일이 일조일석에 되기는 바라기 어려우나 그 스람들의 마음속에 고국이  
 중시업서지지 안이하야 괴어히 회복하려할진디, 파란은아직까지도 업는나라으로볼  
 수업느니 필경 다시일어나 의구한독립국이 되기를 가히 괴필할지라 이럼으로 다만  
 백성의 이모암이업는것만 녀려할바로라 그런즉 지금세상에 속국이라하는것은 예사  
 날에 우리알던바와는 대상부동이라 다 년호와 정삭이나 받들면 미년에 소위조공이  
 라고 여간물품이나 좀 보닐스름이요 기외에는 조공도 간섭이업서서 실상은 조유독  
 립국과 다름이업던바와 갓지안이흔지라 그갓지 아니흔줄을 어서받비배달아 스람마다  
 놀나서 두려운싱각을 잠시라도 잊지말고 서로경성하며 깨우쳐서 전국이 다 알도록  
 일송기를 직책으로숨어야 할지라 엇지 일송일피를 병가의상스라하며 흥망성쇠를순  
 환송논 리치라하야 심상히 녀일바—리오 예사적에는우리나라이 타국과 상통하는  
 것이 다만 중원과일본뿐이라 인종과 교화와 글이다갓고 또다가 련접하야 댁락이상  
 동송민 비컨디 한집안형데들이 리웃에서 갓치살어 후 다도기도하며 후 다시화목도  
 하나 그 승피득실을 볼진디 불과 그형과아오식에 서로세력을 다름이라 그씩세월에  
 흥망성쇠는, 아세아(예외) 동방습국의 집안세리 하는일이라 리히득실이 다 그속에잇  
 다하려니와 지금이세되는 동서양의 상통하며 류대부류가 련락하야 오직인종이šķ겨  
 살며 만국이 경징하여 세력을 확장하며 문명을다도민, 구라파(유럽)의 인물 교화  
 정치 학문이 류대주에 데일이라 세상이 이렇듯흥성하야 동으로 날마다벗어오미형

세계 곳곳 조슈밀녀들이 오듯 하니 여간 정신차리고는 부지할수업스며 한번 부지할  
 지못후 후에는 다시 회복키 어려오니 비컨디 심산궁곡에서 한두집만 격장하여 허물  
 업시지닐썬에 서로힘도입고 의지도하여 일업는세월을 편안이보되드가 급기 인간에  
 루설되야 저자길이열니미 부상대고와 란류무뢰비가 스방에서몰녀들어 압뒤에 집을  
 짓고 좌우에섯겨살어 권력을비교하며 리익을달들진디 엇지 이전살던썬만 생각하고  
 일업시 비부르기를 발알수잇스리오 급급히 장스판경위도 비화야하게고 세상의물정  
 도알어야 능히 집과터도 보전하며 넘과갓치 지물도모아 부요히 지녀보지라 지금  
 우리대한사람들 스는등에 곳곳이 싱소훈면목도 만히섯겨살며 이상훈집들과 괴이훈  
 물건이 도쳐에편만하니 결단코 이전에 일업시나서 일업시살드가 일업시죽던썬와는  
 비교할수 업는지라 저 외국사람들이 우리디방에 들어올썬에 조곰도 누구를 허롭게  
 하던지 념의것슬 썬앗고저함이안이라 지구상 모든나라와 통상교섭하여 피츠리롭고  
 저오는바니 이는 결단코 막을수도업고 막을리유도 업슨즉 이나라 사람들이 맛당  
 이 그리유를 세뎃고 전보다 빅비나 정신차려 일하여 저스람들의 하는것을비호고본  
 썬셔 그티로 하려하면 나도 그리익을엇어 그와갓치 되엿슬거시어늘 이거슨 하지안  
 코내것슬 닐여주어 저의세리 하여가도록 맛겨두고안져 념의 경위는 비호지아니하  
 며 념의세력만 두려워하여 스스로 머리틀숙이고 압제를 족청하며 도로혀 념이업섯  
 스면 나훈져 잘살줄로만 생각하여 념을 다 모라닉고 문을닫치고저하여 빅가지로서

독립요지

각국과상통하는관계

이실구

협상의 늪의 계도 방희되고 내계도 위태하니 엇지 한나라의 편벽된 고집을 위하여 만국의 공변된 리익을 폐하고 다 각기 물너가리오 필경 도호말로 권면하든 못하면 위협으로도 놀아서 권세를 임의대로 쓰지 못하기에 일을 지니 이거시 곳 독립권리에 손히 밝는 근본이라 이 손히 밝는 면서도 종시 새닷지 못하야 일향 늪만 허롭게 하고서 흘진디 맛츠니 이 세상 이 형편에 국권을 한번 이러바리고 엇지 졸연히 회복하기를 바라리오 이는 늪의 속국되는 위태한 관계라 급히 새달아 두려워할바—로다

▲ 독립과 중립의 분간

이상 네 가지 외에 혹 영세중립국이라 하는 것도 있고 혹 영세독립국이라 하는 것도 있느니 영세중립국이라 하는 것은 각대국의 인허를 엇어 중간에 서서 한편으로 치우치지 안이 혼다함이니 여러 강국 틈에 잇서 조슈독립권을 일치안이 하되 다만 어찌나라와 련합하여 도아주거느 어찌나라와 쓰화서 실화하지 못하고 홍상제 도디와 국권만적허 늪의 시비에 들지 안이 하며 홍상각국과 평균히 교제하여 늪의 침노를 방지 안코 영구히 티평함을 보전하되 만일 리웃나라들이 서로 쓰화 군스가 내디 방에 침노하게 될세에는 내가 능히 내 힘으로 막어 그 침범함을 방지 안이 하야 중립국의 권리를 일치 아니 하느니 이거시 영세중립국이라 속국이나 보호국 보다는 대단히 나아서 홍상티평히 부지음은 엇으나 조슈활동하든 힘은 업서서 늪과 다도어 부강을 결우위 보지는 못하느니 엇지 당당호 내나라를 가지고 늪의 방한을 밝으리요 오륙년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엇던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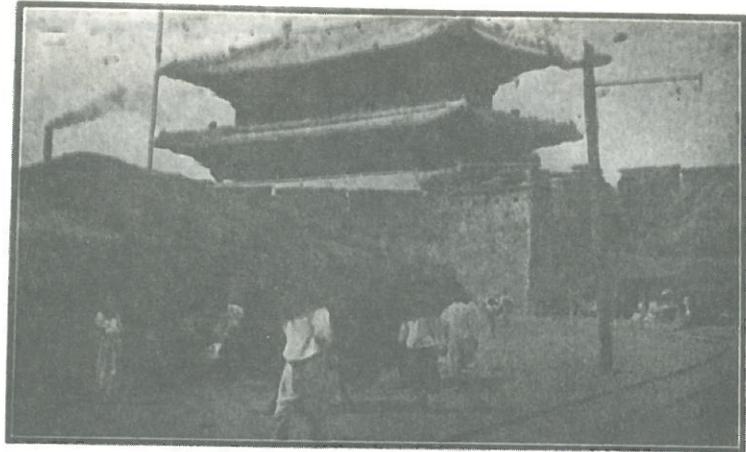
신이 일본에 가서 대한을 중립국만들기로 비밀히 주선하다가 되지 못할 줄을 알고 도라  
 왔다하니 그 주의는 무엇에 있었던지 모르거니와 그 권류도 형편이 위태함을 짐작한 모  
 양이라 진실로 위태함을 념려할진디 마땅히 직분을 다하여 죽기로써 독립의 기초를  
 공고케 할 기를 힘쓰는 것이 옳을지니 이는 독립의 일홈까지 업혀진 후에라도 영히 셋기  
 지안이 할 중심이어늘 함을며 우리나라는 세계에 반포한 자유독립국이라 각국과 우  
 등공스를 밋구어 교제하며 니정에 다향여 무리히 간예치 못하느니 비록 주권하는 이들  
 이 스스관계를 위하여 속으로 외국인을 의지하고 보호를 얻는고로 외국인의 능멸함을  
 종종 밋으느 실상들이나 가는 못하느거시오 올흔스 람들만 나서서 국권을 바로잡을진  
 디 누가 감히 업슈이 녀이지 못할지니 독립의 온전함이 이러할지라 빅성을 부들여 원과  
 를 비양하여 확실한 기초를 세우기는 생각할지 못하교 도로혀 독립권리를 업시하교 중  
 립명목을 세워서 저의 손으로 상응우를 약게 만들고 조그들의 몸이나 하로라도 더부  
 지 않고져하니 더욱 통분가증하도다 이거시 다 빅성이 어두어져 알지 못하느연고라  
 한두사람이 엇지 속으로 혼져 국권을 번복하기를 성심하리요 어서 어서 세여야 일 후에  
 또 이런 폐단이 업슬지니 이는 영세 중립되는 관계라 가흔 중립명목에도 여러가지 구별과  
 등분이 잇다하나 결단코 이런 생각은 두지 말고 당당히 독립권리를 영영히 세울마암  
 을 굳게 심일할거시오 보호국이라하느것은 니치와 외교를 제 힘으로 조주하지 못하야  
 필경 위태하게 될진디 그히가 리웃나라에 서지 밋칠터인고로 한나라이는 혹 몇나라이

독립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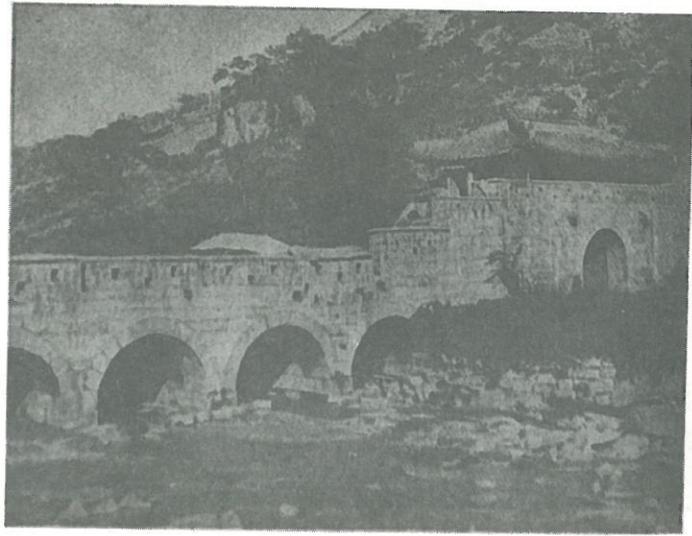
독립과 중립의 분간

순신일

합하여 그 나라의 니치외교를 뒤신하여 위티치안케하여 국권을보호하여 강호나라이  
침범치못하게하느니 일홈은 나라이라하나 실상은 속국속디에 지나지못하여 제것을  
가지고 남의종노릇을현이라 남에게 의뢰하기를 도와하여 눈에서피가나도록 엇어맛  
져가며 우마갓치 부리는바 | 되고셔라도 더러운목숨한나 사는것만 만힘으로 녀이는  
자에게는 이만치 도흔것이업슬지라 소위 본국관원이라하는자들이 나라는 엇지되었  
던지 저의욕심취우기만 경영하여 대포알이 왔다갔다하는중에서도 험잡과 탐학하기  
에문 눈이볼거 빅성문 업셔지도록 히하느나라도 디구상에 업지안이하나 만일 이런  
관리들이 영구히 권세를잡고 안즐진디 허다한성령이 홀노무슴죄라하리요 리웃나라  
기명스스람들이 그런관원을 몰아니고 정스를뒤신하여 무고잔민의 성명지산을 보호  
하는것시 엇지 다형이안이라하리요 그러는 이것슬 다형으로아는자는 지금세상에나  
서 실로스람이라일을슈업도다 비컨딘 조상씨부허 유전하여나리는 고루거각이며만  
가호세간을 제손으로보전하여 남과갓치 대가를일우지못하고 도로혀 안방대청건년  
방사랑이며 가산기명과던답노복사지 낫낫치 녀여주어 남의산림을만들고 한두간형  
랑을빌어들어 구구히부쳐살며 종의종질을 달게녀여 심흔박디는 면하면 곳은혜로녀  
일진덕 이 엇지창조있는인성이라하며 우마돈견보다 낫다하리요 진실로 인형을쓰고  
인성을타서 낫슬진디 시시로 숨고분하여 엇지참아보고살며 원통하고 눈물나서 엇지  
능히견디리요 찰하리 류리기결하여 멀니가셔 도라단이다가 죽는거시 나홀지라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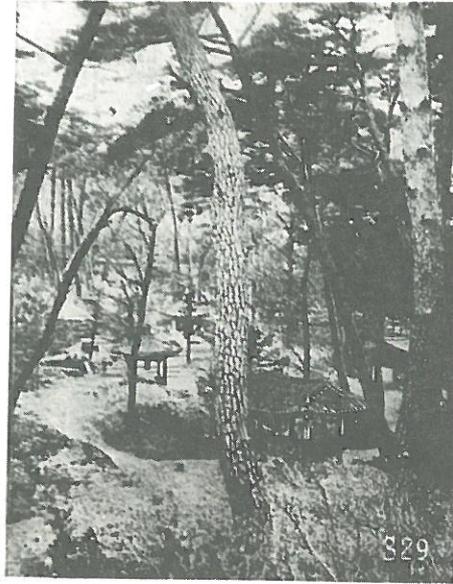
문대 동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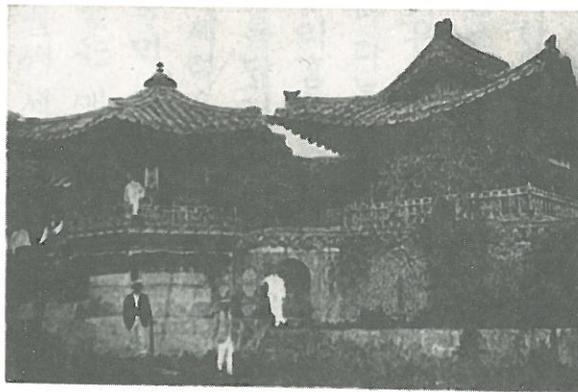
문구 슈(田)울서



문대남울서



원공늪곶대관동



각면늪곶대관동

원공늪곶대관동  
각면늪곶대관동  
조선으로  
홍익사  
이전  
유인들이  
되어  
가지

즉 나라의 신민된 자 - 맛당히 제 나라를 제 손으로 흥왕시켜 어진 주인들이 되어 가지고 도훈 손님들을 청상야 흠뻑 즐기며 동등이절을 밧도록 힘쓰야 할리로다

▲ 빅성이 열나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치 못함

우해 몇가지는 세계 각국을 공법으로 구별하야 각각 차지하는 권리와 이익의 분간을 말하이니 이 공법을 어드나라이 홀노세우거는 만국이 합하여 법관을 뒤이고 명할것은 안이로되 교화남은 큰 나라들이 힘을 급혀 준행하미 한두강포한 나라이잇서 잔약한 나라를 법외로 뒤점하고 욕심을 부리고저 할지라도 적은 나라이 능히 거절하야 밧지안이 하는 권리가잇는니 이것시 공법의 힘이오 설령 적은 나라는 무리함을 당하고도 거절치 못할경우이면 각국이 시비하야 강호자로 하여곰 무리함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공법의 힘이니 공법의 힘이 이러듯 장호지라 엇지 아름답지 안으리요 만은 다만 세계의 교화와 문명이 아지도 한결 갖지 못하야 후 강대호 세력을 밧고 어두은 나라들을 뒤하야 공법을 바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도 종종 업지 안이 하미 어두은 나라들은 저의가 공법을 알지 못하는고로 남이 업슈히 녀어 이러케 하는 줄은 새닷지 못하고 도로혀 하는 말이 만국공법이 대포한 자루만 갖지 못하야 위력을 써 세상을 뒤 하려 하미 인하여 나도 또한 공법을 바리고 세력을 밧으려 하는 날에는 남에게도 대단위티 하려 나와 조귀케도 구히 넘려 될바 - 라 이런 나라에게 조쥬 권리를 허락하는 것시 철몰은는 아히에게 잘드는 보검을 밧김과 갖호여 그것으로 제 몸을 상하는지라 맛당히 세앗서 임의 티로 못

공개홀지니 이럼으로 나라가 어두은즉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능히 공법의 보호를 받  
지못함야 독립권리를 보전치못함은바 —라 이엇지 공법의 편벽됨이리요  
대기공법의 본의인즉 련리와 인정을싸라 세계만국과 만국만민이 일테로 평균호리  
의과 권리를 보전케하고저함이니 각국의 교화가 퍼져서 문명이한결갓치될진디 응당  
이공법이 안이행함은디 업시되려니와 만일 한두나라이라도 기명치못호구석이 잇슬  
진디 불가불 공법권한이 구별이잇슬지라 가령 기명호 나라들은 다 만국이동행함야  
한디방이라도 열니지 안은곳이업스며 한사람도 열니지안은자 — 업게함는것이 공법  
된 리의이라함는니 이거시 참나의도흔거슬 세상과 함씩함자는 공법된뜻시어늘어  
두은나라에서는 이뜻슬모르고 말함기를 나는 늑의씩것도 원치안이함며 나의 예스  
것도 바리지안올터이니 나혼저 문답치고 이전갓치 서로 살게노라홀진디 이거시 엇  
지 조쥬독립권리라고 제마음디로 함라함리요 부득이압제하여 공법된뜻슬싸르고 편  
벽되성각을 바리게홀지니 이거시 곳 조쥬독립권리에 손히되는 큰 근본이라 만일한  
두번에 곳 깨닫고 마음을도리혀 날로기명에 나아가 공법의뜻디로행함여 피츠에 리  
의를 엇고저홀진디 타국이 무단히 간예홀제제도 업게고 늑의법외에 힘위를 모르고  
밧을리치도 업스려니와 좋시 깨닫지못함야 일함으로 기명을 반디홀진디 맛츠니 습  
분오렐함거나 속국과 보호국되는 화를면치못호지라 함는님의 련디만물을 창조함신  
뜻을 삼힐진디 하나도바릴거시업서 모든스름의게 쓰임이되게함심이라 다만 스름이

다 알지 못하여 홍상 지식의 정도를 생각하여 병되느니 이르는 말로 설명할 것이 업는  
 지라 가령 박해곡식을 뿌리며 물에 고기를 낚고 산에 산양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다  
 알바—어니와 금은동철이며 석탄석유와 기타 모든 천연물로서 무궁히 감초여 우리  
 인류의 쓰게 만드신 것은 혹 아는 자도 잇스며 혹 모르는 자도 잇고 여간 안다는 자도 또  
 혼 등분이 많아서 혹은 대강만 기억하며 혹은 기계와 제조가늘어 그 정진함을 다하  
 기에 이르고 었던 나라에서들은 더욱 학문과 지혜가 발달되야 심지어 형질업는 물건서  
 지 쓰는 거슬 만드느니 오늘날 세상에 한량업시 리익되는 면보와 공익선같은 거슬 볼진  
 덕 다 사람의 의스박게 나는 것이니 처음부터는 자의 미지안을 일이라 무식한 사람들은 조  
 화라고도 하며 도술이라고도 하려니와 그 실상인즉 다 지식으로 리치를 궁구하여 번  
 기와 공익의 힘을 잡아 기계에 붙쳐 쓰는 거슬 만들뿐이니 으 희라도 비호면 알거시오 법  
 덕로 만들면 될 것이 어늘 무슴신과 하고 이상히 녀일바—리오 다만 지혜만 발달하기  
 에 잇는 지라 지금 저 서양 사람들은 지식을 늘여 남의 모르는 거슬 묻져 알아 너였스미가  
 장 장한 듯하나 실상은 하늘이 사람의 쓰기를 위하야 만드신 물건이 만분지일도 아  
 직서지 다 알아 쓰지 못하리라 우리도 지혜만 열닐진디 다만 남의 알아된 면과 공과 등  
 물만 잡아 쓰르 뿐안이라 천종 만물의 형형석석이 성긴 것이 다 공과와 면과 갖쳐 긴히  
 쓰느니—될 것이오 지금 세상에 보고듯지 못하물건을 다 들어 너여 쓰게 함이 진실로 어  
 렵지 안을 지니 런디 조물주의 만가지 물건을 만드심이 전혀 사람의 유용하기를 위하야

독립요지

백성이 열나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치 못함

술심오

하나도 바리지안케 하심을 가히 짐작할지라 옛지법연히 바려들바—리오 오늘날 세계에 문명부강하다는 저 영, 미, 등국 스물들이 일이 빚년 숨스빅년전에 는 우리와 가지 못 할야 심히어둡고 어리석던 스물들이라 줄디에 세계가 열니는 석를 당할야 지식학문이 한업시 발달되리 지금은 우리보다 몇빅비나 지나가져 우리의 생각도 못할일은 성취 할지라 저 런디에 싱긴스람은 하나도 흥왕발달하는 효력을 엿지 못할자—업스며 심지어 물건사지라도 그 공표인절함을 극진히 안이한바—업서서 인구는 번성하며 물 건의근원은 마르느념려가 업는지라 스람은만코 싸흔좁으리 각처로 훗혀져서 뷔인싸 를쳐져살미 괴후도합당하고 도디도기름지며 각식물산이 풍부할야 살기도흔곳이 각 처에만으되 그곳빚성들은 후 반쯤열녀 여간기화된 나라도있고 아조 미키할야 야만 인종되는 나라도있서 다 각기 예스적에 지닌던디로 게을니살려할뿐이오 더 낮게되 여 남과 갖혀지기는 원치안이하며 그도흔 던조물을 다 바려써기 허두어 폐할물건을 만드느니 우리나라로만 보아도 키국흔지 스오천년전에 금광 은광 석탄광을 합당히 키여 쓰르줄물느서 각국이와서 차례로쳐지할며 도디를 다 바려두어 전국에 숨분지 일을 게오기척할였느니 이거슬 다식법과 식기계로 합당히키간할면 그리익이한량업 슬거서어늘 다열지못하고 도로혀 스람이만할서 무슈히죽어야 살곳도있고 빈곤기도 면할게드할며 기타 천만가지 지물과 보비근원을 다 헛되히 써기 허두어 녀여쓰르줄 모르며 도로혀 남의 나라만 못하고도할며 지물이 귀할드기도하고 급기 타국과상

동양야 식법을 비호자하면 다 즐기지 아니하여 여전히 문닫치고 어둡게 살려하니 이  
 뜻을 공평한 동양야 색으로써 허기름 허락함이 올라갈까 이느니 결단코 그러치 않은지라  
 그연고는 세가지잇스니  
 조물주가 사람의 쓰이는바 - 되기를 위하여 한업시 쓰어 두신거슬 써기 허바려져의도  
 쓰지안이하며 남도 쓰지못하게하니 이는 포진된물이라 불가함이 한가지요  
 또한 다른곳사람들은 로디와물품이 부족하여 인성의일용스물을 공쾌할거시 업슨즉  
 이싸헤스람업셔 바려둔물건들과 저싸헤 물건업셔 죽게된인민들을 석거두어 동양야  
 야셔로힘있게호진디 피츠에 리로음이 공변된 뜻시어늘 엇지 남의공공함을 불게하  
 고 나의욕심만 채우고저하여 세상과동행기를 실타하리요 그불가함이 두가지요  
 또한 나라를 닦쳐두고 남과갓치 밝은세상을 만들지아니하며 물건을 바려두어 남과  
 갓치 보비롭고 편리한그릇을 만들지못하게함디 다만 앓갑고 이색호선안이라 그나  
 라사람들이 밝은세상에 락을보지못하며 선미호괴계의 편리함을 엇지못하고 백년천  
 년이 지나도록 영히 더욱갓흔 세상에서 도탄슈화를 면치못하며 바다만건너가면요  
 지일월 순지건곤의 극락세계갓흔 문명세티가 스는줄은 적연히 모르고 도로혀 뇌풍  
 속과 뇌쳐디가 련하에 데일이라할지니 이엇지 그사람들의 참복이라하리오 출항리  
 압제를 부려셔라도 세상형편을보고 스스로 새닷게하여야될지니 나라를 닦치고저하  
 는뜻세 불가함이 세가지라

독립요지

백성이 열나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치 못함

승정철

이 세가지관계를볼진디 기화의 리익이 엇더함을 가히 짐작할바라 그럼으로 공법에 어찌나라이던지 주인업는 뷔인싸홀 츠져닐진디 그싸히의례히 그나라에 속홀드후려 니와 만일 그나라이 싸홀엇어 제것만 만들고 실상으로 기척후는호협이업스면 그나라싸호로 보지못후야 누구던지 몬져들어가 기척후야 쓰게만드느자가 츠 주인이 되논법이니 이는 아모도록 런디만물을 다 스름의쓰는바 | 되고저후이니 첫 일함을중히호지안코 실상 효력을 인연후여 권리가 싱기는본의라 일로볼진디 당당호 나의도 디라도 니가 능히기척후야 쓰게만들지못후면 나하느를인연후여 영히 바려들수논업손족 필경 남이만들어 남의쓰는거시될지라 엇지 기화를실척후고야 나라를보전할수잇스리요 함을며 이기화호 세상은 전과갓지안이후야 빅성의주유권리를 증히녀여균평호리익을 보호후여주논고로 세상이 그즐거움을 한량업서 누리논바 | 라 이럼으로 기화의세력이 조화에 물젼트후미 스스로 퍼지는힘을 능히막을수업논지라 이등에서 홀로 빅성을늘너 머리를 들지못후게하고 예스법만 힘코저홀진디 부지중에 져여 들 어오논세력이 점점빅성의일허나는 괴운을박쳐서 능히 더 늘을수업시 될거슬모르고 억지로 늘으고저만 힘쓰르진디 그등에서 즈연히 총돌이싱겨 니란이 즈쇼나셔 외환이침노후미 싱령이잔멸후며 세상이소요후야 화근이 필경 리웃나라에서저 밋치는니 이리호 경우엔 그 리웃된나라이 즈기의 화를면코저후여 불가불 간예후는니 이는 공법에 허락후는바 | 라 이세상에잇서서 엇지 예스법을직척가지고 독립권리를 보전

39

코저 할 리요 이것은 다 조쥬독립권리를 보전치 못하는 연고의 대키라 나라를 위할 여근 심하는 자 - 맛당이 삼척 불일이로다

▲ 조쥬권리의 긴중함

조쥬독립이 이러듯 중흥진퇴 그리익의 관계가 응당적지 않을지라 맛당히 상고할바 - 로다 대키 한사람이느 한나라이느 제가 제일을 하는 거슬 조쥬라닐으며 싸로서서 늑에게 의지할지안는 거슬 독립이라닐은니 이는 인류로 생각자의 량품으로 다 갖치 타고 난 것이라 세상에서 닐은바 높다 았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거슨 인심으로 질명 혼형편을 구별함이 어니와 실로런리를 볼진퇴 그 소위 귀하고 높다 하는 자이느 약하고 천하다는 자이느 이목구비와 스지빅데는 일반으로 타고 나서 더하고 덜하는 것이 업는니 이 논 하논이 다 각기 제가 제일을 하며 제가 제목을 보호할 것을 일테로 품부함심이라 비급할씨에 쥬여 먹고 살치올씨에 엇어 입고 몸에 힘롭게 흥을 막아 닐은 손이 잇서 홀 거시오 험한디를 멀니 하고 편한디를 향함은 발이 잇서 홀 거시오 엇지 하면 표할 것과 엇 지하면 험될 거슨 지혜가 잇서 생각하리니 범빅육신의 쓸녀 괴기묘묘한 것이 다 제일 싱 쓰기에 너너한 연장이라 이 연장이 다 우리 일신에 이러듯 긴절하되 무심히 보는 자는 그 긴절함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비컨디 우리 몸에 시계가 잇서 시시로 볼씨에 는 요긴한 줄 몰으다가 급기 업서 진후에야 곳 견딜 슈 업는 줄로 아느니 우리의 스지빅 데도 업서 노코 보면 엇더케 긴중한 지 비로쇼 짐차 할 지라 가령 손과 팔이 업서 업해 도

독립요지

조쥬권리의 긴중함

송설규

혼음식을 두고 짐어먹지 못하며 눈이 업셔 도혼단청오식과 일월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야 법도 혼원슈마 눈압해다다르며 티산도 혼지앙이 니마우에 썬러지되 검첩이 물으며 귀가 업셔 오음륙불의 즐거온 음성과 퇴정벽력의 놀나온 쇼리를 듣지 못하며 밭과 다리가 업셔 물결도 치미쳐와서 일신이 위티힘이 시각에 잇스되 피할슈 업슬진디 그목숨의 살어 잇는거시 무엇시 귀하다하리요 필경 늑의게 의지하여 먹여주고 입혀주며 듯고 보고 덩기고 생각하느거슬 다 늑이 티신하여 주어야 하로라도 살지니 그 티신하야 주는 사람이 도라보지안이 하면 곳 안져 죽을 사람이라 무슴도리가 잇스리요 이런사람이 잇슬진디 이는 곳 인간사회에 사막위와 흑과 도회여 세상에 살어 잇는거시 제게 도 죽는 이만 못하거니와 늑의게도 공연히 이아찰뿐이니 찰하리 업는거시 도로여편하리로다 일로볼진디 스지빅테가 일신에 었더케 긴절하거슬 가히 알게스나 다만 그긴요할 줄만 알고 바로쓰근 줄을 몰으면 또한 업는 것과 같흐니 바로쓰는 법을 알아야 참도 혼연장가진 효험이 잇슬지라 그 바로쓰는 법인즉 제 권리를 보호하느디 잇스며 제 권리를 보호하자면 몸의 당할 일을 제 스지빅테로 행하야 늑의게 의지하지안어야 될지니 이럼으로 제 권리를 보전치 못하면 스지빅테가 업는 사람이오 스지빅테가 업스면 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지니 지금 세계사람들이 제 주주권리 보호하기를 목숨보도 더중히 녀임이 이러호연고—라 지식이 발달된 나라에서들은 사람마다 제 주주권리를 위하야 목숨을 걸우며 지어 어린히 서지라도 다 제 몸드스리기를 먼저 힘쓰게 하야 늑

41

의게 의뢰하기를 대단히 붓그럽게 아는고로 심지어 제부모의게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케네여 님의 압제와 위협을 결단코 밧지 않으려 하며 님이 붓들여 주고 안주는 거슬 대단히 붓그럽게 케네여셔 어려서 붓혀 먹고 입는 것까지라도 제손으로 벌여하기를 힘쓰는고로 후 부모의 재산이 만항서 지식의게 세쳐주면 지식의 밧지아니항고 그 재산으로 병원이나 학교지어 빈한공곤한 사람들이 병도 치료항며 학문도 공부항게 항고 말항기를 나도 공부항고 일항면 부형의 학문도 잇고 저물도 잇슬지라 님손으로 성가항지 못항고 엇지 부형의 유업을 밧아 편히 놀고 먹으며 님몸에 도훈연장을 쓰지 않으리요 항야 무슴일이던지 슈고로히 직업항는 거슬 대단히 중항케 케네여 일업시 편이지닌 자를 곳 사회에 버셔논 자라고도 항며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고도 항야 아모리 귀항고 놀홀지라도 놀고 먹는 자—업는니 이러릇 사람을 비양항미 저마다 공부를 힘써항며 버리를 부지런히 항야 일평성 잘살고 못살기가 다 제게 달렸드항는니 이런나라에는 벼슬이 썩어지 면 굴며 죽게드고 거정할 관원도 업슬 거시오 허다식술이 살수업서 벼살한 자리 엇어 달나고 이결항는 빚성도 업슬 거시오 님의 사랑구석에 일업시 들어누어먹고 세월보닐문 직도 업게고 간난한 친척봉우와 사돈의 팔촌까지 줄멍줄멍 떼를 지어 아침항며 험담항며 님의게 붓쳐살아 구박밧고 욱되는 줄 모르기도 항거니와 알고도 모르는 체 구구히 저 너러는 모든 폐단이 하나도 업스리니 저마드 저된 노릇슬 다 항야 런부항신 육신과 계를 하느도 바림이 업스며 더욱이 교화로써 인심을 협혹항며 제육신을 다 님을 위항야 쓰리

독립요지

주유권리의 진중함

소심할

거슬만들어 가령 천만명이스는 나라이면 천만명이 다 제정신과 제몸으로 세상을 위  
 향야 일하느니 이거시 참 사람스런디라 가위조물주의 성성공신본의를 저바리지안  
 엇다흔리로다 그런즉 오늘날 놈의 저러듯 잘스는 거슬을진디 다 자유권을 중히녀  
 이논뒤셔 된거시니 자유권의 리익이 이러듯 큰지라 나라를세우고 정부를두어 정  
 치를마련하며 법률을당하는것이 다 사람의일신상 자유권을 보호코져함이니 만일  
 그러치아니하면 약한자의목숨은 강한자의 고기가될거시오 어련히 가진역은 어룬  
 의 음식이될지니 제몸의살년권리를 엇지 지킴이오 불가불 평균하게법을세워대  
 소강약 물론하고 제분수안에 속한권리는 저마드있셔셔 능히 싸아슬자 1 업느니 이  
 거시 곳나라를설립한 본의라 엇지 귀하고 높은사람만 권리가잇고 천하고약한자는  
 권리가 업드하리오 이는 만고에 써스려스흔리치오 텃하에 공공을경위라 사람이 스  
 램의게티흔 권리가이러함이나라이 세상에티흔권리가 또흔이러함야 자유독립을 귀  
 한줄모르고 타국의게 보호를청하거나 도아중을 의뢰할진디 스지빅테가 업는사람과  
 갓흔지라 엇지능히 쓰로서셔 엇지흔노 보호할가 남이 잡아주면 일허나드가 노으면  
 도로쓰러지며 남이먹여주면술드가 아니먹이면 죽을지라 비록 독립의 일흥은잇스나  
 독립의 실상힘이 업느니 비컨디 색두탈 놀는것갓호여 밋혀서 식히느니로 쓰라할  
 동할뿐이니 그 활동하는것이 엇지 제힘이라하리오 불과 놈의손바닥에서놀뿐이라필  
 경은 그 놀며주는사람이 괴로우면 접어서 주먼이에 넣는척가잇슬지니 밋게셔도 제

43

힘으로 놀지 못하였거던 엇지 주면니속에서 제힘으로 나오기를 바라며 제가 나오려  
항기로 엇지 나오게 그져두리오

숨흐다 이나라권리 보호할직책을 갖치메힌 형제들아 정신차려 들어보라 외국에 정  
치를 의논하는자들이 대한사람들의 성질을상고하여 보고 하는말이 이나라에는 당초  
에 독립공작가 업다하느니 아조 빼가업슬진디 혈맥이 어디서싱기리오 우리가 이말  
을 적당호 의논이라하야 스스로 업는체하는것이 옳을가 결단코 그러치안이호며 천  
만번 그러치아니호자라 우리나라사람이 오리압제에 놀녀서 아조힘습이되여 스스로  
들어볼싱각을 못하느연고라 합당하게 가라쳐서 그뜻만때달으면 엇지힘이 업스리  
오 스천여년 레의동방 자유독립 백성으로 충군익국 중히녀여 빛는스기 상고하면충  
신렬스 무궁하느니 우리인민의 도흔성질 무어시 부족할가 다만 교육을 송상치못하야  
어두은등에서 의심이 싱겨 엇지호지 모르는바라 못노니 동포들아 잠도깨고 씩도  
새여 밝은세상 빛출엇어 어서셀니 우리권리 회복하며 남의슈모 막어보세 보세보세  
하여보게 일들호호씩 하여보세

▲린디리치의대기

이우혜 모든말을 볼진디 사람마다 영원호 회복안위크 다그나라에 달닌줄을알것시  
오 나라의 회복안위는 또호세상형편의 달닌줄을알지라 인류가 되여 이세상의 나서  
이세상형편을 모을슈업스며 세상형편을알라면 몬져 일월성신의 모든리치크 엇더호

독립요지

린디리치의대기

소심습

것을 알아야 할지라 우리도 조그로 문디리의 모든 학문도 업지 안이 하며 성경현전의 의론하바도 적지 안이 하되 다 그 근본을 확실이 알지 못하야 다만 그 씨사람들의 지식 밋치는 곳까지도 말하고로 스시와 주야의 서로 밋피는 법은 다 밋야 그러하되 형테가 엇더 할 것과 엇더케 도려 단야 스시와 주야가 되는지는 알지 못하고로 하늘은 둥글고 싸은 모지다스 말과 음은 정하고 양은 동한다스 말이 다 맛지 안는 말이니 이는다 만우 리나라만 어리석어 그런 거시 안이 오 세계 각국이 전에는 다 각기 이러케도 말하며 저 러케도 밋어서 바로 알지 못하엿다가 급기 세계 열녀 서로 동행하미 발로 친히 단이 며 눈으로 친히 보아 낫낫치 사실 하야 본즉 기전의 말하고 밋던바가 다 올치 안이 하지 라 세계에 의견을 모아 날마다 연구하야 지식이 발달되미 과제는 정긴하야 현문덕와 망원경으로 안력의 밋지 못하는 곳을 지적치 볼어 보며 경구와 공의선으로 공동에 올라가서 풍운승설의 변함을 투리하야 산천성시의 형디를 굽어 보고 화륜선으로 대 양에 횡행하야 디구를 돌어 단이며 허저선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며 현과선과 무선현 으로 몇만 리 밖과 안저 시각으로 담화하야 기타 신출귀몰은 과제로 사람의 지식과 힘 을 도와 황연이 투리하야 발명하것시 우리도 지금 그 법과 그 과제로 써 보면 려력히 알 바이라 의심할 거시 업느니 과왕에 우리 알던 것시 올치 안은 줄을 새달어야 할지라 그 런즉 우리 선각들이 남의 선각들만 못하야 그러하야 안이 오 다만 우리가 우리 선각들의 말슴하신 거슬가지고 더욱 발명하야 선각의 밋쳐 생각지 못하거슬 넓히지 못하엿고

45

라 지금부터는 맛당히 우리선현들만 올다 흥던고짐을 바리고 남의 밝혀노흔 리치를  
 송고야야 보아야 하늘과 싸이 참엇더흔것인지 알지라 하늘과 싸이 엇던것인지 물으  
 고야 엇지 세상에난거슬 장히녀이리요 먹고 입기도 급하다 흥려니와 눈과귀를 몬져  
 열어노코야 불일이니 어셔빚비 식로 만든척들도 구항야보며 남도 권항여 알도록할  
 지라 그러는 이척에 저세히 말홍슈업스니 대강 두어마뒤로 말홍노라  
 되개 하늘이라 흥는것슨 무슴형테로 된것이안이오 다만 뷔인허공에 풀은괴운이 쓰혀  
 구름업슬썩에 보면 맛치 쪽물들인것 又호되 만일 구름이 중간에세워 괴운쓰힌것을  
 멀니본죽 업슬썩에는 약간 풀은듯호를뿐이니 괴운에 풀은빛시잇셔 그러함을 가히알  
 지라 그러는 이빛치 심히얇어셔 갓가이셔는 보이지안느니 물속을 엿보는것 又호여  
 바다이 약호면 빛치아쇼업는것 갓고 좀 김호면 완연히풀으고 대단히김호면 아쇼풀  
 은빛문 보이느니 공괴의 빛도이러호여 산을 갓가히셔불썩에는 아모빛도 업스되 멀  
 니에서 볼스룩풀은괴운이 점점김히지느니 일로보면 죽히 하늘이 형테업는풀은괴운  
 이 쓰혀 그러케보히는줄을 증거호지라  
 싸이 그가온티잇셔 형테 又 동글어 굴 又치되였스미 동셔는 뜻이업고 남북은 뜻이잇  
 셔 남극이라 북극이라 흥느니 극히치워 빙양이잇스며 남북의 길이는 이만칠천륙백  
 구십이리 가량이라이림으로 디구라닐은느니 싸이 구실갓다는뜻이라 형테 又 원릭커  
 셔 우리 보기에단 평탄호듯하되 널은 들에서 산을멀니보면 산밧흔 보이지안으며

독립요지

현다리치의덕

수심오

무변대히에서 멀리오는 비를보면 뜻더똥만 몬져보이다가 츠츠 갖가히 을스룩아리가 보히느니 일로볼지라도 싸이등근줄을알지라 지금 우리나라에 와잇는 외국인들은 디구를며박회석 돌아단인자 | 만흔지라 우리도 곳 단여보면 다 알것이니 더욱이의 심이 업스며 디구우혜는 스방으로 공과라하는 괴운이 쓰고잇서 계란에 회V스위V 노른스위를쓰고 잇는것 V호미 싸에서 우흐로 일빅오십리 가량은 그공과가 스면으로 돌너잇서 스람과 만물이 다 이괴운으로 인연형여사느니 맞치 고기V물로인연 형야사는것V호흔지라 이괴운의 잇고업는것을 알고져홀진디 무엇시던지 공중에 들너 보라 걸녀서 잘 돌아가지안타가 힘써 쉼너 저으면 무슴쇼리가나니 맞치물속에 혼 드는것V호흔여 이괴운이 스방으로 류동형여 단이느중에서 바람이 성기는바 | 라싸 속에 불이잇서 왕왕터져올나 연과와 불이 나오느니 이것슬화산이라하며 불이 요동 홀씩마다 싸이 혼들느니 이것시 디진이라 디면에 히스빗쏘여 더우면 습과가물녀 공중에올나가는거시 안과와구름이오 찬괴운과 부드쳐서 한링이 상박형면 쇼주 고는 것갓치 물이되여 나리느니 이거시 비가되며 후 둥간에서 찬괴운을맛나 다시얼면눈 도되고 우박도되느니 이는 다 괴운으로되느니라 이디구가 태양을쓰고 홍상 도라 다니기를 쉬지안이하야 한 박회를돌아 그자리에 도로오면 일년이요 제몸이글녀 한 번돌치면 하로가되느니 히를에워 한박회를돌아 올동안에 제몸이 셔셔 동으로 습빅 류심륙츠 뒤집혀서 히스빗 보히는쪽은 낮이오 히스빗 아니보히는쪽은 밤이라가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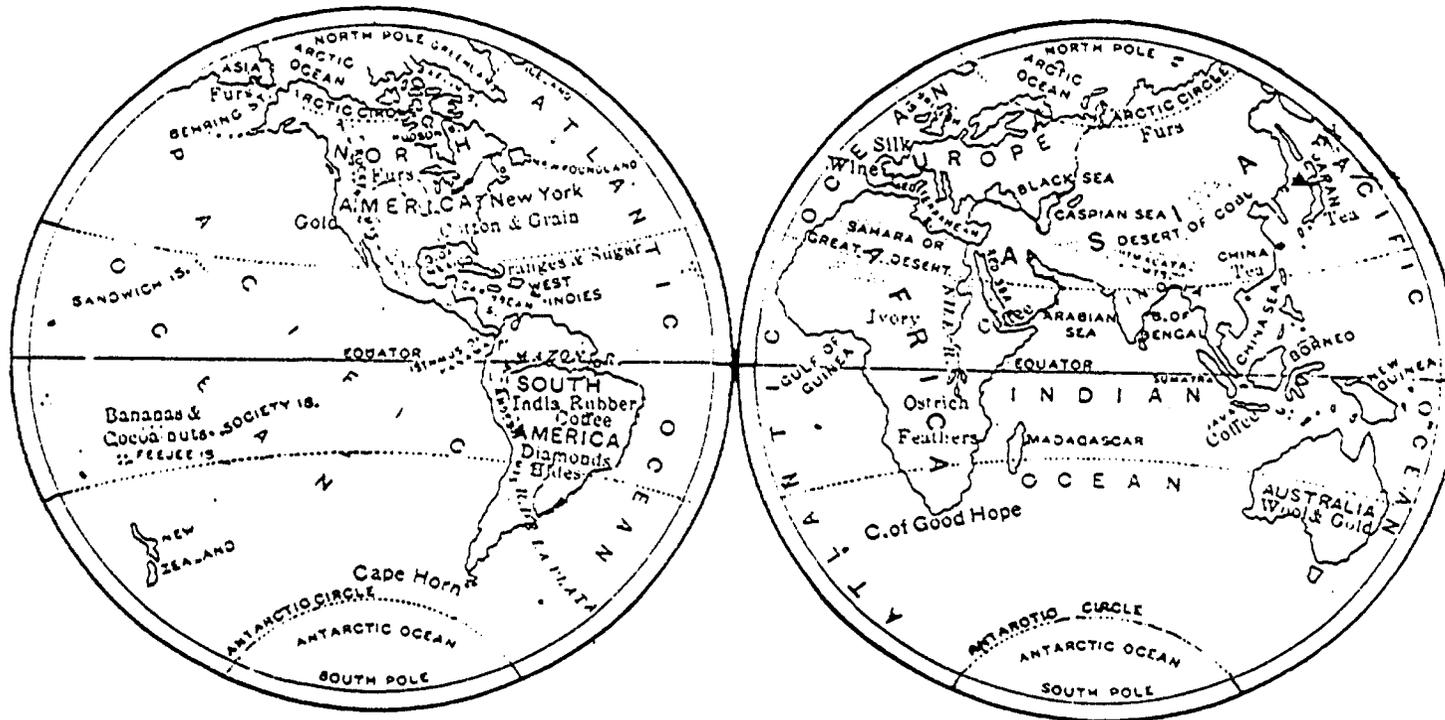
특별요지

현대리치의관계

수심철

령굴한지들 등압해 돌날전덕 압흔빗치고 뒤는 아니빗쳐서 돌나는덕로 밧피일지라  
 주야에 변함이 이와갓흐며  
 디구가 히를쓰고 한박휘 돌 동안에 달은디구를쓰고 열두번을돌리 한달에 달이한번  
 식보혀서 일년에 열두달이되느니 이는 곳 일월의분간이라 디구가 히를세고 돌아갈  
 석에 기리로 싹싹시서서 돌아가는것이아니오 한편으로 비스름이가는고로 히발이남  
 으로 만이빗칠척도잇고 북으로 만이빗칠척도잇서 남에 만이빗칠척는 남이여름이요  
 북이 겨울이며 북에 만이빗칠척는 북이여름이요 남이 겨울이라 이는 스시의 변함는  
 대략이라 이 리치가 가장정미하야 그림을그리고 장황히 말하여도 처음듯는자는 입  
 으로말하며 손으로 형용함는이만치 자세치못하려던 것지 이척으로 밧피알게하리오  
 다만대지만씩서 알고저함는모음이 성길가함이니 다른척을 만히만들어야 하려니와  
 혹 한문아는이들은 시로, 청국서만든 한문척도 엿어보면 만히알지라 스시의 변함은  
 이러하거니와 다 태양의 빗줄인연하야됨이라 달과모든별이 다 디구모양으로성겨야  
 모빗도업고 다만 히빗을밧아야 빗치성기며 각기 다니는길이잇서 여일히돌아단이되  
 혹은 태양도세고돌며 혹은 다른별도 세고도나 일영흔길이 잇는고로 여의여지는 폐  
 가업스며 그대소는 다 등분이잇서 태양이 디구보다 일빅숨십만 갑절이크고 달은륙  
 천만 갑절을합하여 한덩이를만들어야 히 하나만 항게스며 디구가 슈성보드는십스  
 갑절이크며 목성은디구보다 일천스빅갑절이큰지라 이는 천문학자들이 다 천문추추

항노법으로 산노아보고 질명하여 노흔거시라 그 대소의등분이 이러듯갓지안으리우 리보기에 일월은 거의갓고 모든별들은 거의상반흔듯함이 다 무슴연고—뇨이는 다 름안이라 후 지구와 갓잡기도항고 멀기도항야 상거가 갓지안이흔연고라 달은 지구 의갓가온고로 히보드적으되 히와갓치보이며 히는 지구에서 먼고로 달보다 크되달 과갓치보히느니 모든별의대소도 또한 이와갓흔지라 지구가 히와 달 둥간에들어히 빛슬가리면 달 한편에 빛치업서지는고로 월식이되며 지구가 달과 히 둥간에들어히 한편을가리면 지구에서 보히지안는고로 일식이라하느니 일식할씨에 그먹는곳시 항 상둥근지라 일로보와도 지구가둥근거슬 더욱 분명히알지라 그러나 이 모든형태들 이 공동에서 썩러지지안코 달너 도라드니는거슨 무슴힘이뇨 다름안이라 다 제몸에 각각 잡아다리는 힘이잇서 서로잇글어 들이는고로 피츄살녀서 물너가지 못하느거 시요 큰거시 적은거슬 잇그는힘이 큰고로 태양의 잡아다리는힘이 가장만흔지라 모 든별과 지구가 다 이힘을인연하야 공동에 항동함이오 사람과 세상만물이 지구상에 북혀서 쥬야돌아가되 서로 썩러지지 안는거슨 지구의 잡아다리는힘이라 비컨티골 에 물방울을발나 것구로들면 썩러지지 안이하느니 무어시던지 큰 물건에 적은것이 북흙은 다 그큰것의 잡아다리는 힘이 큰연고—라 가령 돌구을 공중에 더질진티 더 지는힘이 다하거시지 올라가서 그힘만 업서지면 잠시도 머무르지못하코 곳나려오 느니 이것도 또한 지구의 다리는힘에 선을녀 돌아옴이라 이상 몇가지는 다 려디에



구 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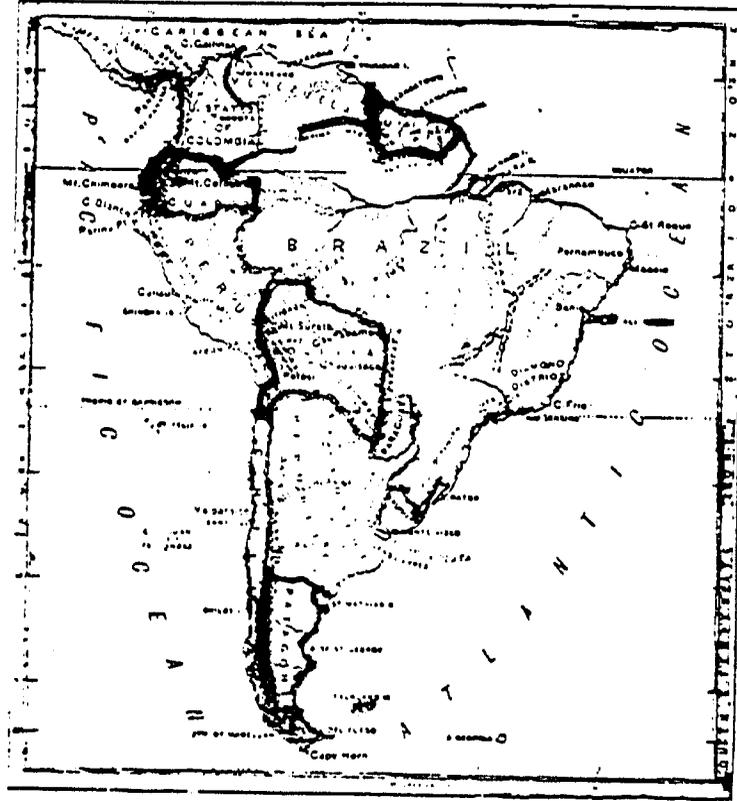
구 반 동



쥬 파 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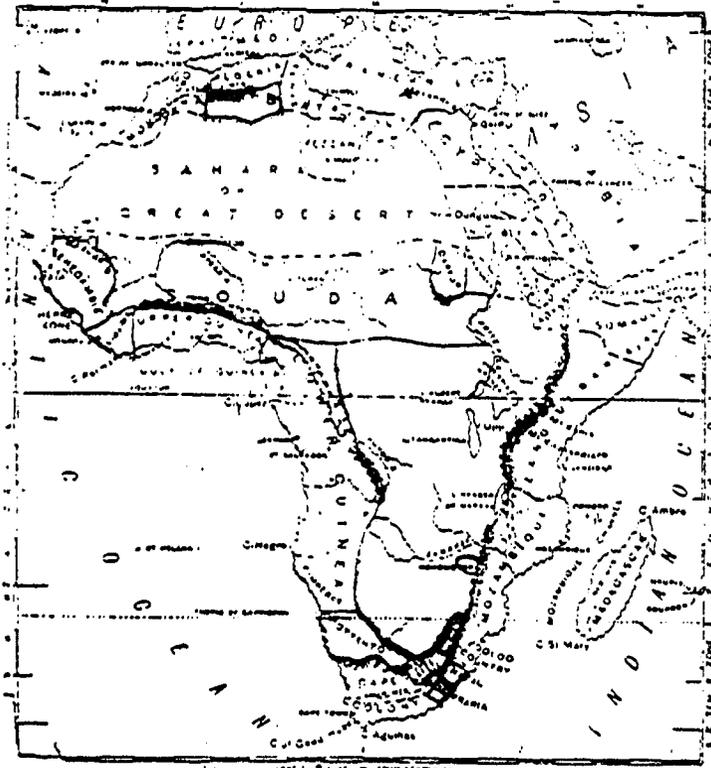
쥬 아 세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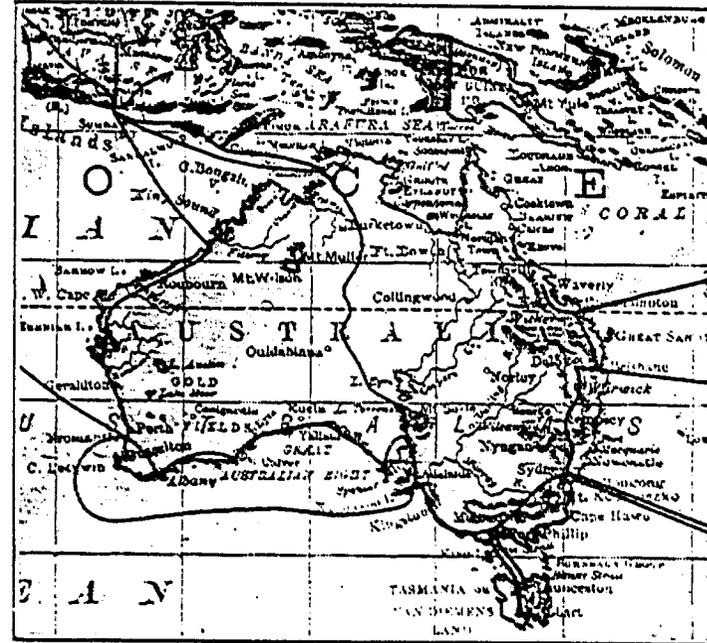
가 리 메 아 남



카 리 메 아 북



카 리 프 이



아 리 일 레 튜 스 오

관계된것을 긴급히알거시라 조세헌 리치는 이책에 다 만홀슈업스나 지금제상에 동  
행하여 말만대강하는 으히라도 다 아는바 어늘우리가 홀로 어둡게안져 어리석게  
밋기를 부상에 히가올나 함지에 썩러진다 룡이 물을주어 비가나린다 일식 일식 미  
성해성 퇴성벽력 던동디진의 썩스썩스시 덩흔리치를 다 지앙이라 변괴라하야 후괴  
괴묘묘하게 제도지니며 화를면하고 복을구한다하야 세상의어리석고 요스흔일을 못  
할거시업시하야 각국사람이 흥보고 비웃는줄 전혀 알지못하고 도로혀 나의 아는것  
과 행하는것만 세상에메일이라하니 우물에안져 하늘을보며 하늘이 적드하는것이엇  
지 우물بات게 잇는자의 우슬바 안이리오 텨디를 모르거던 인스를 엿지알며 인스를  
모르거던 나라를 엿지알니요 어서어서 알아보아 세상형편 밝히보고 나라일을 힘써  
하야 노과갓치 살아보세

▲륙대주의구별

지구외면에 스분지일은 륜디오 슴은물이라 큰물은 바다이라하며 더 큰물은 대양이  
라하는디 대양을 다섯세 난호어 일흥하느니 태평양은 우리스는 륜디를 둘러잇는물  
이라 메알큰거시요 대서양은둘지니 미국과 영국스이에 막힌것이요 인도양은 인  
도국 압해잇는물이라 우리나라에서 서으로향하야 서양을가자면 중간에지니는물이  
오 남북방양은 지구량편뒹헤잇서 극히치우며 스시에 어름이 풀니지 안는지라 이뒹  
헤는 일년에 석달동안은 히를보고 여섯달동안은 히를보지못하야 초초 가운데로향

북반요지

륙대주의구별

소설부

홀스룩 점점 더 더워셔 디구 허리중간에 이르러서는 가장 뜨거운고로 스시에 홀상  
치위를 모르는지라 디구중간을 적도라 할야 적도량편으로나가며 뜨거운곳은 열티디  
방이라 할며 더 량편으로 나가면 좀 더은곳은 온디디방이라 할며 량편삿흔 한티라 할  
느니 한티와 열티에는 디후가 사람의게 심히 합당치못할지라 우리대한은 적도북편  
으로 온디디방에잇서 디후가 가장온화하니 우리의 락연호행복이라 더욱스랑시려온  
나라이로다 이 다섯대양에 간간히 류디가싱겼느니 이 류디를 후여섯쪽에도되고다  
섯쪽에도되여 구별하였던티 한쪽식난흔거슬 류라 할느니 이는 물가이라 하는뜻이라  
대기 여섯쪽으로 칠진티 아세아는 데일 큰쪽이라 우리나라이 이 대륙동편삿해잇  
느니 우리가 다 아세아 류스사람이라 디류를 더욱 크게스랑할야 되나라를 스랑할  
는 본의가 될지라 홀을며 이 대륙이 세계에 데일 조중이니 이는 만국만민의 시조되  
는 아담이 이싸헤서 낫스며 세계에 나라이라고 설립할기를 이싸헤서 문져할였스  
며 정치교화와 락문디리등 모든학문이며 각식문명의 근본이다여기서 문져싱겨낫  
스며 가장 특별흔거슨 세계의셔 바드느 여러가지종교가 다여기서싱겨 유교의 공  
부조와 불교의 석가여티와 회회교의 마호메드와 기독교의 예수가 다여기  
서나심이니 온세상에서 각각밋고 바들어 힘입으며 자랑하느 모든교화의 본교향은  
다우리 아세아 류요 또한 디구상에 유명흔 고대국이 여러히며 락하에 데일곱흔산  
이여기잇스며 디후가 이디방이 데일을관평하며 인구가 류대류통에 데일만흔며 폭원

이때일드며 각석 보비롭고 괴묘호물산이 가장 부요호지라 우리나라이 이대쥬에 있  
는거시 또한 련연호행복이라 엇지 더욱 사랑치안으리오 다만 가석호바는 둥간에나  
러오며 문명이 점점떠러져서 이런 요호대쥬를 거위 바릴디경에 이르러 지금은 도로  
혀놈의게 비호게되며 늑이와셔 티신 간예호기에 이르렀스니 이난 다 우리가 헛도  
히 예스것만 송상호고 더 낮게호기는 힘쓰지 안이호연고—라 오날북허라도 급급히  
진보호기를 도모호거시며, 구라파쥬는, 아세아, 서편에잇서 룩디로 서로련접호였스  
나 다만, 유렬산이 둥간에막혀 동셔를 구별호였는디 폭원은, 아세아쥬보드 가장적  
으나 인구는 심히번성호며 기화호기에 데일부즈런호야 즈고로, 아세아쥬에서 싱기  
난문명을 넘겨다가 날로 더욱 정긴히만들어 지금세계에 데일문명부강호 대쥬라 만  
고스기에 큰전정이며 굉장호스업이며 빚는스적이 만히 여겨셔되였스며, 영, (잉글랜드)  
트(국과, 덕, (썬된) 국과, 법, (프랑스) 국과, 오지리, (오스츠허리아) 국과, 의티리, (이탈리)  
국등 데일부강호 열국들이 다 여겨잇는니 가장 들어는곳시오, 북아미리가, 쥬는대  
셔양 서편과 태평양 동편에잇서 폭원이, 아세아, 보다는 미우적으나, 구라파쥬보드  
는 갑절이나되는디 전에는 세상에서 이싸히잇는줄을 알지못호였드가 스빅여년전에  
○클림버쓰가 초저녁인후로, 구라파, 쥬스람들이 초초건너가셔 도디를기척호며 나라  
를세우미 근본잇던 야만인쥬들은 점점스스로 업서지고 지금북편은, 영, 국속디된, 키  
나다, 라호는 큰싸히잇스며 남편에는, 아미리가, (합중국)이 잇는니 우리나라에 만히와

독립요지

해대쥬의구별

오현인

있는데, 미국사람들의 본국이라 설립된지 오리지안은 식나라으로 교화와문명이 날마다 진보되어 불구에 장차비교할 나라이업게스며, 남아미리가주는, 북아미리가, 남편에잇서 류디로련락하며 적도를 걸쳐노였스미 남북, 아미리가를 혼씩합하여 치기도 높는지라 폭원은, 북아미리가와 비등하며 대소합하여 십여국이잇스나 인민이 별로 열리지못하며 들어닐만호 스적도업스며, 아프리카주는 대서양동편과 인도양서편에 잇서 우리나라에서 가려면서으로 향하여 인도양을 건너느니 폭원은 거의, 아세아, 류만하나 둥간에 큰 스막이잇서 평호모리박치며 인민은 북편히변외에는 모도 살빛 치검은 야만이니 흑노라하는것이며 북방뫼호로, 잉급(이징드)라 하는나라이 거의스 천년전에 부강하던 나라이라 세계에 데일몬져열닌 큰 나라호로 빅성이 초초게을너 구습을편안히 녀임으로 점점쇠잔하여 아적까지 명석은잇스나, 영국의 장악에 들어 버셔날수 업시되였스며 이대류 스방히변으로 도라가며 각국이 들어가 차지하여 쪽쪽이 난호였스미 족히 상고할 스적이업스며, 오대리아, 주는 인도양동북과 태평양서 남에잇느니 곳, 아세아, 남편이라 우리나라에서 남으로향하여 수로로 적도를 건너가 면 여러섬이잇고 남편압해 데일큰 섬이잇느니 이거시 곳, 오스투리아라 폭원이 가 장적으며 인민은 다 살빛히 검은인종이라, 아세아, 유에서 건너가 셔겨셔 된 인종이 또흔 적지안이호디 전에는 세상에셔 이디방이 잇는줄을 모르드가, 아미리가, 유를초 진후로 비로소 알아녀여 백여년전 북혀, 구라파, 유 사람들이 건너가 후 장스도하며

53

독립요지

육대주의구별

오십송

후 구양가는 자도 잇서 초 초 셔겨 살드 가 인항야 영국의 속디가 되엿느니 또호 특별  
 호 스기가 업는 지라 이우혜 여섯가지 구별호것이 육대주라 이육대주등에 상고호말호  
 스적과 세상에 관계되느일은 다 남북 아메리카와 구라파 아세아 대주에 잇는지  
 라 이아리 대강 다시 설명호려니와 예사적에 우리동방에서 소위 텨하라 스히라호  
 던거손 불과 중원구주별이라 그 가으도로라가며 잇는나라들도 다 무어신지모르고  
 남만북적의 모든 오랑키로 지목호야 동치안이호며 온세상이 다 여과잇드호야 이밖  
 게 몇십갑절되느 사히잇서 사람의 뜻으로 측량치못호일이 무궁무진이 되출은도모지  
 모르고 방속에서 기른으히쳐림 스오천년을 지닌드가 남의게 이아쳐셔 부득이 눈을  
 들어 스방을 들너보니

굉장호고 광활호야 조물능력 측량업네 물도만코 사도만호 호호랑탕 무변대  
 히 모를것도 하도만호 형형석석 괴이호며 나라만코 사람만호 모를일도 한  
 이업네 인물언어 이상호며 복식제도 경편호다 만국이 리웃되여 문호를상동호  
 며 만리를지척숨아 왕리슈작극히쉽다 승천리멀고멀던 약수논어디가고 셔역국  
 겨장호여 조석상종 호단말가 여보시오 벗님네야 금음밤중 버셔나셔 밝은텨  
 디 구경호세 식로워라 지금세상 이전세월 안이로세 도흔씨에 텨여나셔 도  
 혼시디 당호엿네 텨하각국 주류호고 고금스적 통달호여 학문지식 넓힌후에  
 나라도아 스업호야 만년무궁 터를다가 영원토록 세워노코 빛난공업 빛난일

흥 디구상에 들어니세 총신렬스 멧멧치며 영웅준결 그뒤런고 천지일시 도  
혼괴회 시호시호 부지리라

▲오식인종의구별

디구상 류대주에난호녀 사는인구의 도합슈효가 십오억여만명 이라 다섯가지종류의 구별하였느니. 몽고리안. 파. 코키시안. 파. 이디피안. 파. 아메리킨. 파. 메르레안. 이라이다섯가지 인종이 흥형용도다르고 살빛도갓지안이하니. 메르레안. 이라 흥인종은 살빛검은니, 오스투리아. 주에 사는바 오. 아메리칸. 이라 흥인종은 살빛검불은 디 남북. 아메리가. 주의 사는 모든토종이요. 이디오피안. 이라 흥인종은 검양빛갓하니, 아프리카. 주의 토종이라 이는 다 야만인종이오. 코키시안. 은 살빛치 극히 희니, 구라파. 주에 사는, 영, 범, 등 모든인종이라 지금세계에 데일기명하기로 상등 디위에 이른사람들이오. 몽고리안. 은 누른빛치니 곳 우리가 이인종이라, 아세아. 주에 살아 슈효가 가장만호니, 대한, 청국, 일본, 이 다 이종류라 갓흔대륙에살며 살빛치 갓흐며 글이 또한 갓흔고로 특별히친근하며 토디가련접하야 즈고로 타국파는 상종이업서스되 이 세나라는 교섭이 자존고로 교린하는의도 즈별하거니와 니와입살갓치셔로관계되는 형제도 또한 중대할지라 맛당히 원협파스스를 피츠간에 생각지말고셔로권면하며 도아서 솟발갓치 받치는힘이 잇는연후에야 능히 일테로 부지항기를도 모항리로다 이상에 말하바는 다섯가지 인종의 구별이라 모양이 이러듯 갓지안이호

55

며 거처가 또한 이렇듯 멀니난호여 가히 저의만있고 남은업는줄로알아 오류천년동안을 지니엿스미 즈연히 언어문자와 인정풍속이날마다 뉘어져서 각각제것만도코제법만을타항야 오늘날에일으려 아조비교할수 업는등분이 잇게되엿스나 그 근본은다한하느님의 저손이라 뉘안이 동포리오 비컨디 한조상의저손이 멀니릭혀살어 여러티를지니미 풍속과 의복음식이 다각기디방을 쓰라변항야 서로맛나는날에 그리력은이져바리고 곧타국사람갓치 녀임갓흔지라 우리,대한으로만 볼지라도 다한근본의혈족이오 다한나라신민이로되 동서남북이 골골이뉘어서 서로 흉보는 풍속도만코피츠모르논일도 만혼중에 심지여 알어듯지 못항는말씨지잇스나 이는 다 세상이 열니지못항야 서로왕리교섭을 통치안은연—라 온 세상사람의 난호여 사는것이 또한 이와갓항서 피츰양의 등분이잇스나 그 근본이야 엇지 다르드항리요 다만 사람의지혜가 보고듯는외에 멀니밋치지못항야 태산을넘을수업고 대회를건널수 업드항며 그넘어와 그건너는 하늘과 땅의점흔디라항고 언어와왕리를 교동치안이항며 풍속과제도를 서로 밧고지안이항야 저러듯 등분이잇기에 이른지라 진실로 만국이 상통항야한집갓치 석겨살며 형데갓치사랑항야 정의가친밀을진디 풍속이 스스로갓항지며 인물과 언어문자씨지라도 다 한결갓치될지라 이거시 곳 기화의주의니 지니간 백년동안에 세상이변흔거슬 볼진디 온느백년동안에 또 엇더케 변할것슬 가히 짐작할지라우리나라안으로만 보아도 우리는 아모리기화를막고 반디항엿스나 부지중에 즈연히

독립요지

오석인종의구별

오심오

변항야 날마다 허마다 뚝어진거시 한두가지안이오 오날형편을 십년전에 비항면가  
히알지라 이 열녀가는세상에 홀로 어둡고저항나 동려오는 허빛치 빗최지 안을곳시  
업슬지라 종시 이형편은모르고 돛단허를 갈히려는것이 엇지 어리셔지 안으리요

▲서것과애스것의구별

디구상에 십오억만명되느 오식인종을 통합항야 세가지등분에 구별항느니 문명기화  
훈스람과 반쯤기화훈스람과 야만되는 종류라 이 세가지에 등분으로 난호어 구별항  
미야만이라 항는거슨 오랑키라 항는뜻시라 야만인종에도 또훈 두가지 구별이잇서  
더욱 심혼자는 증성보다 좀 뚝을뿐이라 글도업고 교화도업서 인륜과 례절을알지못  
항고 나라명식이업시 다만 추장이잇서 물녀단이며 서로 노략질항고 살히항기로 위  
주항며 증성과 고기나 잡아먹으며 과실과 곡식열미를 썩먹고 도굴갓흔디서 몸을의  
지항야 살뿐이요 좀 나흔것은 짐모양도잇고 나라명식도 후잇드항나 또훈 얼마나  
홀것업서 후 다른 인종이 보히면 련신갓치 리상히녀여 후혀져 다라나거는 후 잡어  
먹으려고 썩을지어 덤뵈드가 총소리를듯거나 후 다른기계 쓰는거슬보면 곳 물녀드  
라나며 타국인종이 밀녀들어와 사느디로 점점피항야 산곡이나 슈목식이로 물녀들  
어가 필경 저희본도를 다일코 인종이 츠츠쇼잔항야 업서지느니 곳 지금 아프리가  
와, 오스투리아와, 아메리카도종이 다 이거시라 우리나라에도 외국 군함을썩라 이  
런인종이 종종왕리항느니 열물이 먹빛갓흔지라 그등에 밝드느쟈들이 백인파상종항



인 홍 종 토 국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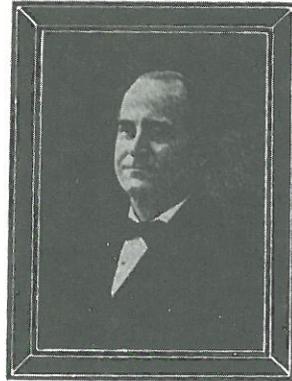
인 흑 종 토 카 리 프 의



족 인 석 종 논 잇 에 종 설 각 양 평 러



현금 미국에 유명호  
정치가 학문가 연설가  
민주당령수 썬라연



신 덕 에 인 국 미 훈 장 확 괴 면

Vertical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likely a calligraphic inscription or a historical document snippet.

57

야 학문도 공부하고 기계도 비호느니 저런야 만들도 초초기화의 힘을 받아 기명애나가 거던 힘을며 반기화라 하는 거슨 사람의 지혜가 반쯤 열녀서 레의 럼치도 알며 승강오륜도 중히 녀이며 나라를 세워 인군신하 백성이 정사와 직업을 구별하며 도성을 쓰코 궁궐을 지으며 보습과 싸뵈를 만들어 밧출일우며 소외와 활을 닦으며 전징을 예비하며 비와 슈례를 지어 막힌 티를 뚫으며 각석연장을 써서 사람의 슈고를 더신하며 교화가 있어서 어리석은 자를 가라치며 법률이 있어서 약한 자를 보호하느니 이는 아세아 모든 나라에 우리와 갖치 사는 인종들이라 저야 만의게 비교하면 극히 기명호인종이라 하게 스나 더욱 진보하기를 힘쓰지 못하야 만물의 리치를 알지 못하야 헛된 거슬 숭상하며 요스 혼거슬 밧기에 일으려 일월성신과 산천초목이며 모든 짐승과 버레를 섬겨 복을 빌고 화를 면한다 하야 심호자는 스름을 잡아 제도지니며 즈너를 죽여 희성을 만들며 모든 악호 풍속과 요스 혼미음이 심겨 아 못것도 하지 안이 하고 스스로 되기를 기디리디 몇천년 전의 넉인거슬 조공도 낮게 하지 못하였느니 우리가 이 충슈에 드는 스름들이요 문명기화라 함은 스름의 지혜를 늘여 업던 거슬 있게 하며 잇는 것을 도케 하며 도흔 것을 더 낮게 하야 만가지 물건을 한나도 바리느거시 실도 록 만들며 화륜선을 만들어 전에 비가 못단이던 곳을 평디 갖치 황황하며 털로를 지어 슈라사 통치 못하는 곳을 순식간에 왕리 하며 석유를 어더니여 기름불을 더신하드가 더고 등과 밧기 등을 초레로 발명하여 쓰기에 편리하고 부비가 적게 하며 더고 선을 마련하야 몇만 리 밧게 안져 글자를 시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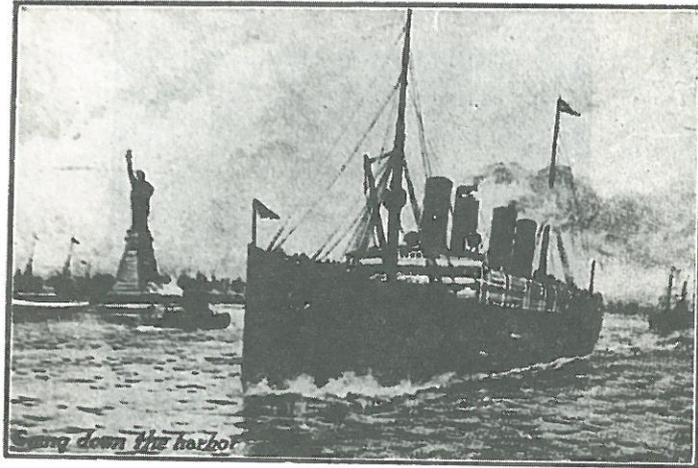
독립요지

서것파에 서것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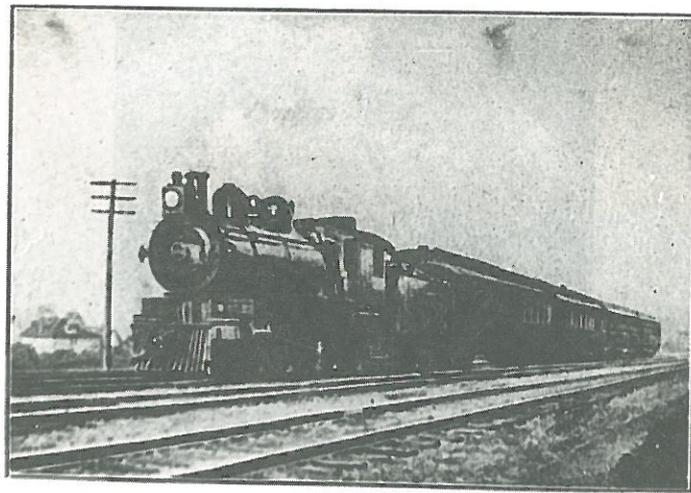
오십칠

화답하며 면화등을 만들어 언어로 화답하며 오히려 미편향야 무선면을 만들어 졸업 시 소식을 통행리 오리지 안이 하여 면괴선이 또한 폐홀디경에 이를 것이 오 농스괴게 와 길삼제구를 빅가지로 지어 하여 열스름 빅스람의 홀니고 학년일을 한두스람의 슈족으로 한가로히 되신 하며 이외에도 천천만 가지의 신괴미묘한 거슬 날마다 서로 되어 이 오는 백년 동안에 장차 무슴측량업는 일이 싱길년지 알수업드 하는지라 이러 듯만 들어 세계에 통치못한 나라이 업스며 들어나지 안은 곳이 업는지라 이는 다만 형 식으로 들어는바—라 스람마다 보고 알기 쉬운 고로 장하다 칭찬하는바—어니와 그 교화와 학문의 근원을 상고할진디져 괴게와 제조물건은 불과 쥬교마흔 지쇼썸이 라 할지라 정치법률의 정미호제도와 인의즈비의 지극한도덕이 세계에 극진한 정도에 이른지라 그 구별은 아리 대강다시 설명하려니와 그 부강문명함이 다 교화에서 말 미암아 됨이라 엇지 상고할바—안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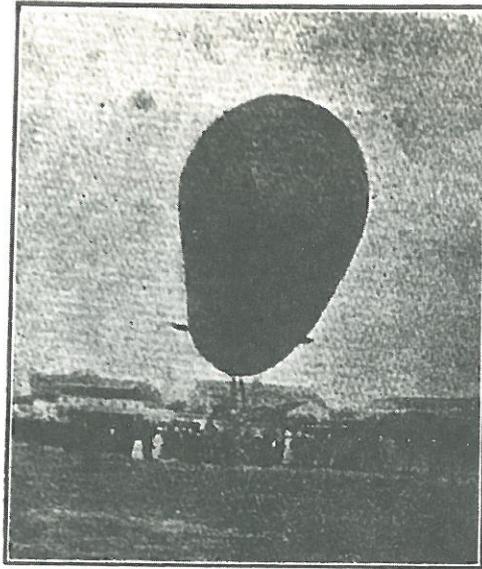
대키 이세가지 등분으로 세계에 모든 스람을 구별하리 장단우렬이 실로 판이할지라 저 괴명할 스람들은 텃하에 편안하야 놈들과 다 통행기를 위주하느니 그 통행려는 본 의인족 실로 놈을 헤치고 조괴들의 리익만 엇고져함이 전혀 안이요 다만 어두운 스람 들도 다 조괴네갓치 괴명하야 상등디위에 올르고 공번된 리익을 흠뻑 누리고져 함이 니 그 뜻시 조괴도하거니와 텃하에 당연함인즉 인력으로 막을수업는바—어늘 미괴할 스람들은 서답도모르고 당초에 놈의 거스 보기도실코 듯기도실타하며 편리할 괴게와



선 륜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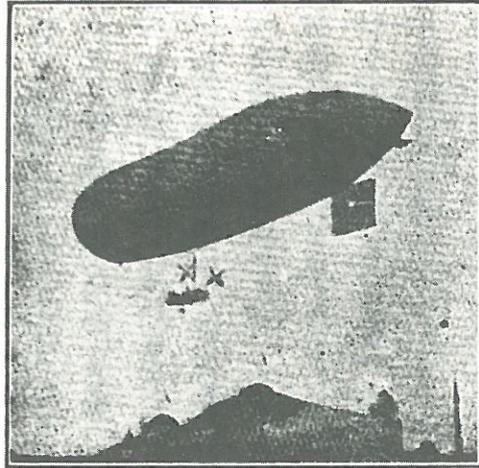
거 륜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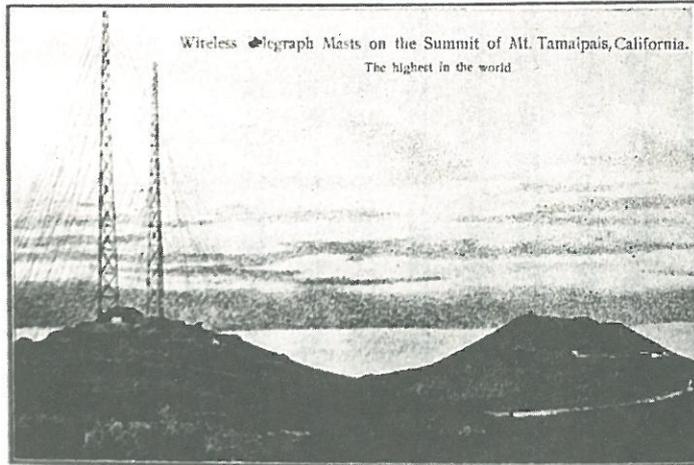
구 괴 경



것 는 흥 화 면



선 기 공



선 먼 무

Vertical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The text is partially legible and appears to be in Korean. It includes phrases such as '선 기 공' and '선 먼 무' which correspond to the images on the page.

59

독립요지

세가지정치구별

오신구

공교호 물건은보면 스 쓰기는 문져하며 남의지조는 비호지안코 써기은물건만 실어  
들여 귀호돈을 받고어보되며 어두운 구석에서 어둡게살기를 편히 녀일뿐인즉 맛츠  
니 멸망을츠취하야 업셔지기에 이르는바—라 빅인종은 점점 번성하며 황인종과 후  
인종은 히마다 줄어드느니 우리나라와, 청구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작년에 인구  
조스호것을 상고호건디, 형성, 오부안에 합 십구만스천일빅명이니 지작년에 십구만  
륙천륙백스십륙명과 비교호면 이천오백스십륙명이 줄어든지라 전국을밀우어보면히  
마다 쥬는거슬 죽히증거호게고, 일본은 홀로 점점늘어셔 본국에서 다살수업스릭점  
점외국으로 옮겨살느니 이는 시거슬박아 기명을접하야 남과셔겨 부강을다토는교  
로스람과 물건이힘씩 흥왕함이라 비컨디 박해 요흔씨를 썩릴진디 처음은 잘되드가  
히마다 그씨를박아 쌍에다시심으면 점점줄어지고 줄어들어 필경은 잡풀과갓치되고  
시씨가 번성하야 온박출 다 츠지하기에 이르느니 인종의셔겨스는것이 또호 이와갓  
혼지라 하로박비 시괴운을 박지안이호면 점점늘어오는 시스람의세력이 온국통에  
편만호리니 본도인종은 장츠 몇세티를 지너지안이하야 쥬즈도 구하기 어렵게 되리  
로다

▲세가지정치구별

이여러가지 인종과 광덕호 류디를 싸로 난호어 나라이되였스미 나라이 또호한들이  
안인줄을 가히 알니로다

대다수사람이라 하는 것은 여러히 모혀 살게 마련이오 여러히 모히족 다름이 심김은 띠연  
한성품이라 만일 저 법은 류디를 저 만흔 사람의 게 규를 업시 너여 맞겨 들 증상의 무  
리 갖치 제풀되 로 뒤 언 단이면 제힘되 로 얻어 먹게 만들어 슬진되 큰 고기는 증고기를 숨  
키고 증고기는 적은 고기를 숨키여 서로 잡혀 먹히기에 하로도 편히 살 사람이 업슬  
지라. 그러므로 각기 방편을 쓰러 한무리씩 서로 모혀 디경을 구획하고 나라를 설립  
하여 정치와 법률을 마련하고 다스릴 자를 명하여 인민의 심명과 지산을 보호하게 하  
얏스니 이것시 나라의 성립은 본의라 그러는 것던나라는 일본의를 더욱 박혀 한 백성  
도 제권리를 일흔차 업도 북항며 었던나라는 일본의를 다 이저 바리고 맛츠되 쇼와  
말과 못치 되여 코를 틀고 굴네를 써서 선은 되로 쓰러 단이며 쓰러는 되로 맛고 잡아  
먹는 되로 죽으며서 도로 현 충성이 라고도 하며 도리라고도 하며 곳여 만창성이 다 우  
헤 멋스 람을 위하야 싱긴 줄로 녀이 는니 이것시 곳나라의 등불싱긴 구별이라 이 구별  
외 세가지 명목이 잇스니 전제와 헌법과 민주라 이 세가지를 분석하야 말을 진되 전제  
라 하는 것은 인군이 홀로 통치하는 신다는 뜻이라 대한과 청국과 아라야가 다  
이 정치를 쓰는 나라들이라 이 또한 한 조고로 나라싱길씩 몬져 열닌제도 나 되고 시  
절에 인심이 량순하고 풍속이 순후할 때에 무위이치하던 법도라 요, 순, 우, 량, 갖흐신  
성군이 우해 게시고, 주공, 소공, 이윤, 부열, 갖흔 어진 지상이 이리서 받들미 스스로  
덕화나 스헤에 업히여 한 일 업시 띠하 가 뒤 평하야 강구연월에 격양가를 부르며 각

각 그 업을 즐겨히 행하여 귀혈인지 알지 못하였는나 이거시 곧 치국평탄하하는 아름  
 다 온 정치어니와 급기 인심이 날로 거악하여지며 풍속이 점점 괴피하여 악한 지조  
 가 천만가지로 늘어 사람의 덕화로 잊지 못할 슈업을 디경에 이른 세상에 대한히 부족  
 향다 할지라 세상은 날마다 변항되 법은 조금도 못치지 안을진디 어려서 님던 옷을  
 장성한 후에 님으려 하면서 전과 갖치 맞지 안는 것과 빛나지 못한 것을 거정하는 거시 엇  
 지 이와 달으리요 흠을며 성예병왕과 충신의 스가 디티로 칭기라는 법이 업는나 불행  
 히어 두운 인군과 간악한 신하가 권세를 잡고 임의로 들을진디 전국성령이 모도 어육  
 이 되며 종묘사직이 곳 조석에 위급할지니 천하만교의 이 갖치 험하고 위티호일이 어  
 디 다시 잇스리요 이는 곳 천하에 대불행이오 또한 그 인군씩도 행복이 안이라 이런  
 나 라 할스록 니란이 자조나며 국권이 향상위티호는나 아라샤의 강함으로도 백성이  
 스방에서 왕왕이 일하나 국권을 바로 잡으려하는 란리가 칭기는지라 이럼으로 지  
 금 아라샤에서 도 년리로 정치를 변하려하는바 이 이는 전제정치를 하는나라의 위  
 티호는 정상이오 헌법정치라 하는 것은 인군이 우해게서 만스를 동활하시며 신하가 밋  
 들어 섬기기는 별로 전제정치와 다름이 업스되 다만 권리의 방한이 잇서 상하의 회  
 원을 설시하고 백성이 투표하여 명망잇는 사람을 천거하여 의회원이 되며 백성의 권  
 리를 디표하여 크게 관계되는 일을 의논하여 결처하게하는나 가령 지정으로 의논할진  
 디 일국의 탁지는 그나라 인군이나 대신의 스스지물이 안이오 전국백성이 거두어 모

독립요지

세가지정치구별

독신일

아즈기들슬기에 위항역 일항년되 쓰라함인주 구등에 학교를설립항야 인민을 교육 항며 도로를 슈리항고 등을달아 백성의리왕을 편케항며 순검을두어 평시에느 도적 과 범법항년자를금항며 병당을두어 란시에 백성의싱명지산과 일국을대표호 구괴를 보호항며 동양과디방정부에 스법형정항년 관원의월급과경비를위항여 쓰라느거시라 만일 백성이 돈만모아니고 그쓰는것은 모른체할진되 그돈으로 한두스름의몸을위항 야 산천괴도를항년지 뇌인과기싱의 노리뒤나 치르던지 후한두세력자의 장등에너어 장스도항며 스스싱식도되며 처첩의호강도 식히다가 급항면 외국공스판에 들며밀고 제목숨이나 살녀할지니 우연히 이런페단이 후싱기면 천국에불행함을 장츠엇지항리 요그림으로 국가에등대호일에는 의회원에서 백성을덕신항야 일꾼일리라도 나라를 위항야 쓰도투의론항여 가호술로 작당된후에 상의원으로 올녀 상의원에서 또 가호 줄로 결당항면 비로소 우해올녀 지가들몰어니여야 비로소 구등에 반포항야 백성이 쇼상히알게항고 실시항여 항항년니 국민의일테로 관계호일은다 이러듯 신중히 항 항년바—라 이단, 영구, 덕구과 기타 화제국이나 군주국이며 동양에, 일본이 다 이 정치로 다스려 종샤와 황실이 태산반석가치 편안호복을 누리며 일국신민이 무궁호 덕화를입는바—라 이런 나라일수록 뇌란이업스미 인군이편안항샤 민간에유람항기 를거리지안느니 지금세대에 가장합당히 녀이느법이라 인군의 권리를감호하던 지 백성의괴습을 기른다는 편벽된말로써 고집할수 업는바—로다

우리나라도 63년전후 스괴만 불지라도 민간에 스론이잇스며 50정에 대간이잇셔 의  
론하고 간하는 규모가 정제함의 심지어 호조집리 고직등서지라도 우해셔 스스로서  
쓰시랴는돈은 결단코 밧치지안이함야 군명을 항거함일이 한두가지 안이니 이는 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나아가도함는바라 우리나라도 기명성덕에는이러케 다스렸는  
니 이거시 곳 헌법정치의 본의오 민주정치라함는거슨 63성이 주장함다는뜻이라 인  
군을 인군이 라칭호함지안코 대통령이라함며 전국63성이 밧들어천거함야 다즐거히  
추승훈후에야 비로쇼 그위에 나가며 그리함고도 오히려 념려가잇셔 후스오년이나  
팔구년식 63년을 덩함여 함이 찬후에는 한의함을 다시인임도함고 후 다른이로션거  
함기도함야 일국을 다스리게함며 모든관원의 권한을구별함여 한두사람이 임의로못  
함게함는니 이런정부의 주의가 세가지니 일은63성이 함는것시오 이는63성으  
로 된것시오 숨은63성을 위함야세운것시라 이세가지 주의로 정부를세우미 63성  
은 그정부를 스괴네집으로알며 관원은 63성을 스괴상전으로알어 서로보호함고 밧  
치기를 일신의 스괴뵈데가 머리밧치는것갓치함는지라 지금, 미국과, 법국과, 구라과, 주  
에 몇몇부강함 나라들의 함함는정치니 이는 곳상고요. 순.적.에 부스상전함지  
안이함고 어진이틀림함야 밧들며 온 나라스름이 다 마르디 어질다함후에 인지를쓰  
며 다 마르디 죽일만함다 함후에야 죄인을죽이던 예스법이니 지금히 공번되고 바른  
제도라. 요. 순.세상을 고셔에 말만들엇더니 지금시디에 곳 함함을볼줄 뉘가짐작

독립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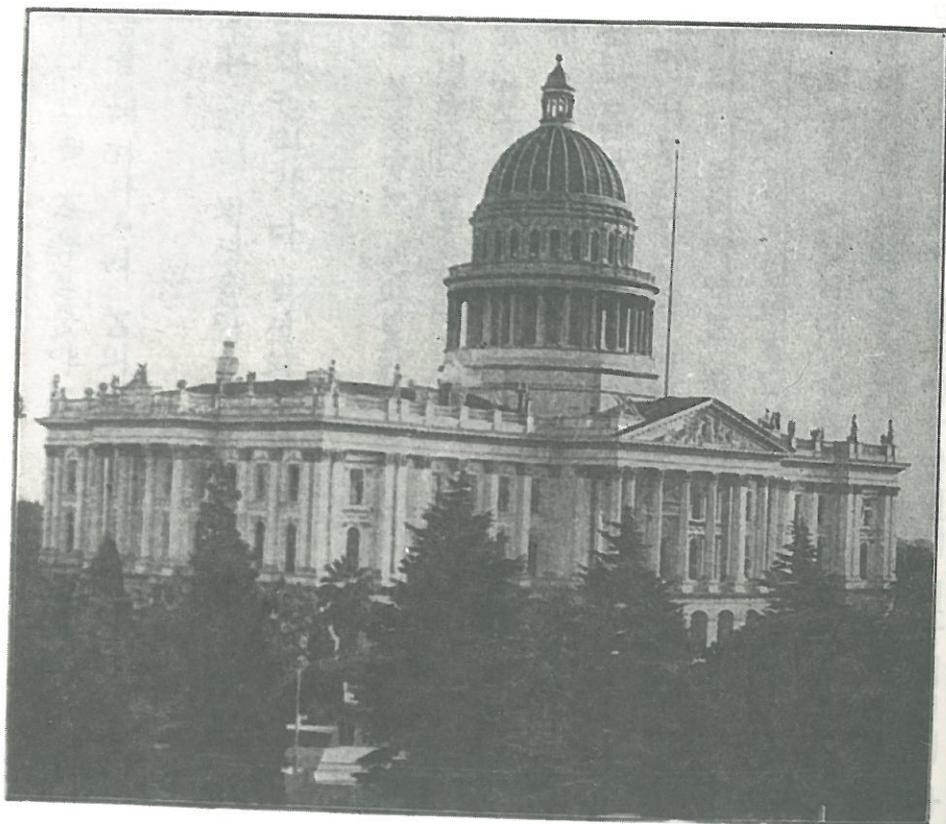
세가지정치구별

독심송

항였스리오 세상에 서들은 세 가지 정치등에 이거시 데일선미호 제도라 호는바 1)라그 러나 동양런디에서는 결단코 합지도 못호련이와 도로혀 극히 위험호싱가이라 구위 험호은 아리다시 설명호련이와 무슴정치호 험호던지 정부세우는본의는 일치말야야 정부나 빅성이나 능히부지호도리가 잇슬지라 급급히 알아볼지어다

▲미국법성의권리구별

미국의정치제도를대략의론호건미 상하의회원이잇서 전국을 대표호는니 관제호립 법호정호스법 세가지에 구별호야 권리호난호어 맞게호되 호립법관은 법률호당호는권리 에만 호관호고 다른권리에호는 간예호못호며 호정호관은 법률호당호기만호고 호법호관은법 을맛기만호야 피호추에 두가지권리호를 호저호지 호못호게호는니 호는 호평호균호분호비호야서 호로잇결너 호페호단호히 호싱호기호지호안호도호록호호미라 호모호든호권리호의 호근호본호을 호다 호빅호성호의 호게 호주호장호호야 호등 호양호정호부의 호관호원호을 호선호명호호거나 호큰호스호건을 호질호명호호호씨호에는 호전호국호빅호성이 호일호데호로호투호표호호야 호스 호람호슈호호의 호다 호소호를 호싸호라 호별호명호호며 호한 호고호을 호일호은 호다 호각호기 호그호곳호스호람호들이 호일호제호히 호모호혀 호한 호법 호으로호맛호호 호험호호미 호일호명호호 호법호를 호미호해호는 호상호하호기호천 호빈호부호로 호소 호남호녀 호관호동호의 호등호분호이 호조호공호도 호업호고 호다 호만 호나 호이 호호저호호호년호한호에 호초호는 호능호히 호제호목호을 호다 호사호릴 호만 호호자호는 호다 호일호데 호평호등호호호빅호성 호의호권리호를 호잇호는니 호이호는 호한 호두 호관호원호이 호나 호웃호스호람호이 호어 호진 호모호임호이 호나 호면 호이 호러 호케 호디 호접 호고 호그 호러 호치 호안호으 호면 호변 호기 호호는 호것호이 호안호이 호라 호아 호쥬 호일 호명 호호호 호장 호정호을 호만 호들어 호전 호국호에 호반 호포 호호미 호빅 호성이 호한 호나 호도 호이 호거 호슬 호모 호르 호는 호자 호업 호서 호서 호저 호저 호직 호혀 호가 호며 호한 호두 호가 호지 호라 호도 호그 호법호에 호버 호셔 호나 호는 호거



### 집회의 국미

조국의 목숨을 살리는  
벼락같은 싸우거나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그런

시잇스면 잇던 사람이 법외에 일을 당하였던지 전국벽성이 다 조국의 목숨을 쓴는거  
스로싱각항미 그나라에서 벼슬하는자는 의례히 공평정직하여 벼락같은 씨우거나  
불효부메혼다고 저물을 썩었거나 기타 모든학정도 힘코져 안이하려니와 설령 그런  
뜻시 잇더라도 벽성이 밧지안이하느니 이거시 관민의일테로 영구히 평강한 부락을  
일치안는 근본이라 이런나라에는 벽성이 비컨디 집에 주치돌갓호여 하느니라도 혼  
들니면 온집이 다 기우러질지니 이럼으로 정부에서도 벽성의 학문지식을 널리며법  
률장정을 하나히라도 모르느자—업도록 힘쓰는바—어니와 벽성도 각기 학문과 지조  
를늘여서 남의게 지지안으려하며 법률장정을알아 제권리를 일치안이하며 남의압제  
를밧지 안이하고 겸하여 약한자의 권리까지 보호하여 유기로 제적척을 숨느니라 그  
벽성의권리를 구별하여 말올진디  
데일관은 나라를 보호하는 본의를위하여 권리의 구별한도목이 아리 기록한바와 갓  
흐니

일표는 나라의권리가 다 벽성의게서 싱김이요

이표는 정부는는 전혀 벽성을위하여 세운것이니 벽성의 공변된 권리에서 싱김것  
이오

삼표는 제목을 제가다스려 남의게 의뢰하지 안이하며 또한 남의압제를 밧지안  
이하고 능히 제목을 조유할줄아는자는 다 일테로 평등한권리를 잇으며

독립요지

미국벽성의권리구별

독심오

스도는 벼슬직품을 마련하거나 등분을 구별하여 상하반상의 명목을 말하느니 악습을 일결임금하며 오도는 세상에 덕행이 여러 사람의 게 공변되히 리로를 공업이 있어서 특별히 국법으로 허락하기 외에는 공변되히 속하리언을 한두 사람이 스스로이 차지하는 폐단을 금하며

류도는 관원을 선명하거나 일일의 문헌은 공변된 처소는 한두 사람이 억지로 막거나 위력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법성들의 게 일테로 공평히 주창케 할 것시며 데이관은 사람의 심명을 보호함이라 그 권리구별의 도목이 아리와 갖흐니

일도는 모든 법성이 각각 체모과 집을 보호하며 각척 재산에 속하문권을 간유하는 권리가 있느니 혹 사람을 법외에 무단히 잡아 가두지 못하며 법성의 집과 세간을 무단이 뒤져 보지 못하며 이도는 사람을 잡거나 직산을 슈험을 세에 반다시 문적이 있셔 그 사람의 성명과 직업과 무슴일에 관계함을 낫낫치적어 혹 오착되거나 무죄히 걸나느니 폐단이 업게 하며 겸하여 사람을 잡거나 짐을 뒤지는 증거가 확실함을 명세하여 실슈가 업기를 담보할 후에야 비로소 형을 것이오 심도는 처송에 빚진자가 남의 지물을 속여 먹으려 하는 정적이 잇기 외에는 빚진 것을 인연하여 유에 가두지 못할 것시오

67

데스관은 빅성의지산을 보호함이라 그 권리구별의 도목이 아리와 갓흐니

일도는 빅성의지산을 시가되로 갑기외에는 나라일에는 후 다른디 쓰는거슬 빙  
자하고 천단이 취하지못하며

이도는 농스짓는 장정이니 나라사에 빅성이 맞호 작농하는것이 일명호 년한이  
잇서 영히 츠지하지 못하게하며

데스관은 빅성의모음을 제싱각되로 하게함이라 그 권리구별은 아리와 갓흐니

일도는 빅성이 교 밋기를 각기제셋되로 쓰르게함야 후 이단스설이라던지 사문  
란적이라 하는페단이업시 제 의견되로 론난하게하며 다만 종을 띠미하거나 한  
사람이 두쳐나 후 처첩을두는거슨 엄금하며

이도는 여러가지교를 법률에 다 한가지로 되접함야 엇던거슬 국교로 명호지만  
코 각기 모음되로 밋어 받들게하며

일도는 나라에 공스가 잇슬썩에는 모든교회가 다 일테로 상관호되 속호교회로  
인연함야 구별을 같히지안이며

스도는 무숨교를 받들던지 조유로 하는권리는 관원이나 웃사람이나 후 남이간  
예치못하고 제셋되로 하게하며

데스관은 빅성이 충역시비를 분변하거나 정스의페막과 모든관계에 되함야 후 말로  
의론하거나 글을지어 전파함에 각각 제셋되로함야 막지못함이라 그 권리구별의도

독립요지

국민빅성의권리구별

독심철

목이 아리와 갓흐니

일표는 처음지어 전파하는일에 사람마다 자유로하는 권리가잇스며  
 이표는 누구던지 자유언론과 저술하는 권리는 잇스되 다만 방한이잇서 허무한  
 말을하거나 사담업시 남의게 손해를 세치게되는일에는 그칙임을 담당하게하며  
 예륙관은 빅성이 회를모호고 일을 의문하는것을 닷당히 보호함이라 그 권리구별의  
 도목은 아리와갓흐니

일표는 무슴일이던지 여러사람의게 공번되히 리로올거슨 아모던지 회를설시하  
 고 모혀 의문하는 권리가잇스며

이표는 빅성이 원군할일이 잇거나 남의게 무리함을당하고 모혀 등소하거나 설  
 원하려는거슨 다 허락하여 금하지못하며

데철관은 빅성으로 하여곰 군스의 형악함을 방지안케함이라 그 권리구별의 도목이  
 아리와 갓흐니

일표는 무변의권리를 문관아리 잇게하며

이표는 태평할적에는 주인이허락업시 빅성의집에 군스를 두지못하며

슴표는 슴마다 칼과총을 예비하여 제몸을 보호하게하되 다만 군기를 감초어  
 감안히 흉한게교에만 쓰지못하게하며

데팔관은 법률을 바키들이되여 빅성으로하여곰 법률의괴로움을 방지안케함이라 그

권리구별의 요목이 아리와갓흐니

일도는 일지후에 마련흐법률로 전의지은죄를 다스리지 못흐며

이도는 법률마련하기전에 당헌약조를 후에 마련흐법률로 인흐야 폐하지 못흐며

삼도는 괴왕실시하야 힘흐는법률은 잠시도 폐하지 못흐니 의회에서 결정하

고 정지하기외에는 아모던지 법률을 임의로 정지하는권리를 가지지 못흐며

예구관은 송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법이니 저고로 전제정치하는 나라에서 권리를 한

두스랍의게 맞기고로 법정에서 재판할썩에 항상 공평헌본의는 바리고 스정을 사

르느 폐단을 미리막기위하야 권리를구별하야 당헌요목이 아리와갓흐니

일도는 죄인을 심판업시 오리가두지 못흐며

이도는 살인죄인외에는 무슴스건이던지 심판후에 속을받치고 죄를 면하려면

막지 못할거시오

삼도는 속박치는 벌전을 과히 만케당하지 못흐며

스도는 재판마당에서 언제던지 빅성이 송스하는거슬 들으려하면 방청을막지 못

흐며

오도는 송스받는 빅성을 그 본디방에서 결쳐할것이오 멀니 이송식혀 송민의게

폐단되지 안케하며

륙도는 법관이 재판할썩에 빅성중으로 지스흔스람을 법에당헌되로 멋식립하야

독립요지

미국빅성의권리구별

육십구

독립요지

미국헌성권리구별

철성

혹씩 송스를 뜻게 하느니 (○ 비심관이라 하는 것이라) 아모일이던지 다. 비심관이  
있서 법관과 혹씩 송스 뜻는 거슬 막지 못게 되 만일 스쇼흔 송스에 원고와 피고가  
다 허락 할 썩에는 ○ 비심관이 업서도 관계치 안이 함며

철도는 면담과 지산과 명예에 손히 할 일에는 누구던지 디위와 등분을 물론하고  
아모나 걸어서 법정에서 정쇼하기를 구이 함지 말게시오

팔도는 송민을 불너 올 썩에 무슴 관계와 무슴 스건에 불너 가는 거슬 숨기지 말고  
저 알너 줄 것시오

구도는 지관 할 썩에 원고가 반다시 증거를 분명히 세워 디면 함야 들어 너여서 허  
무헌일에 열거 정호는 패단이 업게 할 것시오

십도는 피고가 자유로 변명하기를 허락 함야 호령 함거나 위협 함는 패가 업게 함며  
법률 아는 자를 변호 스로 정호야 디신 변명 함고져 할 썩에는 아모나 다 허락을 엇  
을 것시오

십일도는 억지로 공쇼를 받아 죄안을 만들지 못 함며

십이도는 법률에 정호는 노흔 디로 다스리는 외에는 스람의 자유 권리와 생명과 지  
산에 손히 가 되게 함지 못 할 것시오

십삼도는 법률 디로 한번 결 처 함 후에는 다시 번복 함야 두 번 감 죄 함지 못 함이라

이상 아홉 가지 도건은 백성이 의례히 저마다 엇는 권리를 구별 함야 낫낫치 장정을 만

71

들이 전국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알고직혀 행하게 하니 뒤감히 분슈외에 일을행하  
거나 잔약한벽성이 신원할곳시 업스리오 이런나라는 참 즐겁고편안하여 곳 인간에  
극락국이라 할지라 제집과도디지산이다 제거신줄을 밋을수업스며 제쳐져 가속이  
다 제거신지 안인지 알수업스며 제목숨이 살엇는지 죽엇는지 밋을것이업시 늬의회  
싱이되여 지늬는나라에스는 사람들로하여곰져 사람의무궁히 누리는복락을듯고  
보게할진디 엇지 부럽지아니하며 원하지 아니하리오 관원된쟈 | 엇지 그더러운저  
물이나 벼슬을 중하게녀이며 벽성된쟈 | 엇지 던장과 지산을 귀히녀이며 이러듯무  
궁후복락을 구하지안으리오 피쳐다 무식하고 어두은통에서 몰나 이러함이니 실로  
무식한화가 이러듯 후독하도다 그러나 늬의 저러후복락을 누리는것이 엇지 래고  
적분히 이러하거나 우연한통에서 스스로 되엿드하리오 다 그 조상된이들이 무궁한  
고초를 견디지못하여 저괴세리 날어나서 벽성의뜨거운피를 한업시출니고 저괴네저  
물을 슈업시허비하여 이러호 근복의 무궁한 고초를세워 그 저손들의게 세쳐준거슬  
그 저손들이 능히 잘직혀 보전하여온고로 오늘날 저사람들의 대강아는것만 말하여  
도 질척이될지라 다 의론할수업스즉 다만 이복을엇는 근원만 대강 의론하게노라

▲ 미국의 독립호소적

서양각국도 전에는 후 의회원 규축이 잇섯스나 헌법이 서지못하며 거의 다 전제정  
치로 나라를 다스렸스며 처음에는 세상이 다 리익을 만히엇어스나 인심이변하는디

독립요지

미국의 독립호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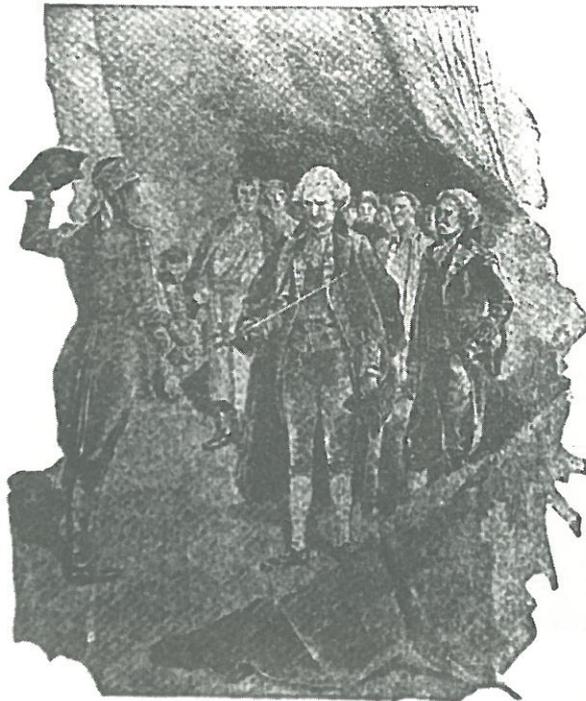
철심일

로 법의 혼단이 초초싱겨 일이 백년동안에 이르러는 천백가지 혼단이 총총이나서 백성을 도탄에 들게 함의 혹은 한들유권자의 권리다움을 인하여 전정이나 날거나 성령을 초기 및 처 잔해하며 혹은 헌법교황의 세력을 자시하고 혹은 데왕과 권귀와 장수와 법관의 모든 권세와 위력을 빙자하고 세상을 흔들어 모든 창성이 다 물설코볼타는중에 서 능히 살수업는디경에 이른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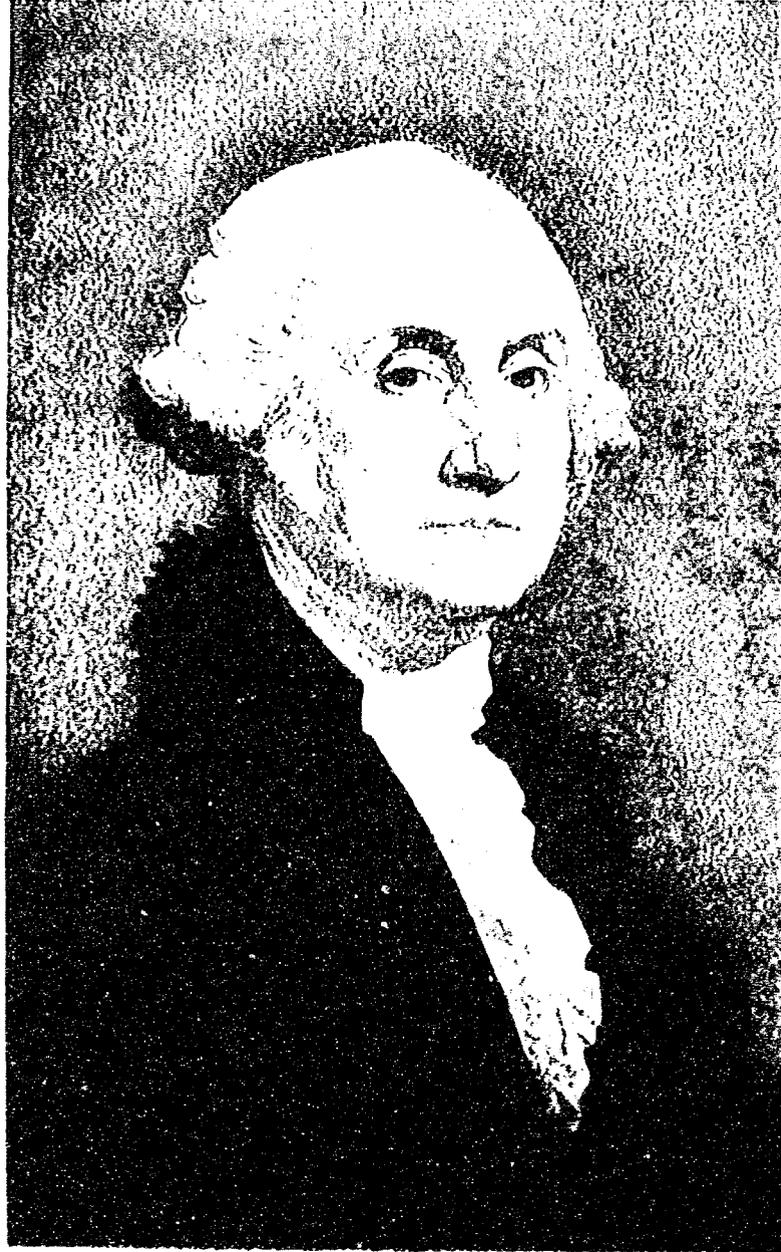
대더 고로움을 면하고 편함을 취하며 죽기를 면하고 살기를 도모함은 모든 성명가진 종류의 헌헌헌성정이라 포학헌정사의 학디를버셔 서로 살기를구함이 비견디 물마르는 응명이에 목마른고기뎌가 서물줄기를 찾는것과 갓흔지라 아메리가쥬를서로차조노흔씩을 당항야 스람마다 헤아리되 대서양바다문 건너 가면 한업시넛은쌍이모도 야만도인들의 간간히 모혀스는 싸히되여 다 바라써그혀 두엇스미 무슈흔금은동렬을 키어쓰지안이항며 기름진농도가 사나은 들—증성의 슈풀이될뿐이니 이논곳하느님이 우리불상헌 성명을 위항야 특별히 감초어두심이라 우리가 건너가서 힘들여 기간항면 밍호보다 사나온압제를 버셔나서 편안헌 세월을보고 살다가 조손의 괴업을 세치리라항야 조국과 고향을바리고 부분히 뒤를니어 대히를 건너가서 슈목을 작별항며 면토를키간항야 증성을물니치고 야만들과 싸와서 무슈히죽어가며 간신이 거접항야 날마다 모혀들리 멧히가못되여 호구가 번성헌지라 적이 태평헌 락도를엇어 별유런디를 일우게되엿스니 고진감리를 실로다항라고도 항려니와 그정형을싱각



## 징전립독국미



물승장곡성 고흥승득 을정전립독  
맞돈승와 논복향



통술와 저승 할조창을림독국미

항면 또한 가공한 세월이라 아무리 포학한 인심이라도 저 권세잡은자들이여 도로혀 탐학을 더하고저 하였도다

이적에, 영국에서, 아메리카를 쳐서, 그 인민을 다, 영국, 미국으로 만들며, 백성들은, 영국이 좀 잘되 접하여 주기를 기뻐할 뿐 아니라 굶기, 관원을 보이며, 다스리는 날에 포학무리함이 전보다 심하여, 영국, 미국의 노례로 되절할 시 모든 물건에 세를 편벽되히 물리며, 송스에 항상 치우쳐 학되 하여, 모든 심한 폐단을 이로 다 말함 수 업는지라 원리 이 백성들은 각국에 학문 지식 이 유여 한 등에서, 남의 노례 되 접박기를 실행 하여, 바다를 건너 이 지방에 모혀 온 족 목숨을 기만 중히 하여, 압제를 달게 받는다, 써, 은 백성과는 결단코 갖지 안은 지라 의 괴로운 선비가 처처에서, 날려 나셔, 영국의 세력을 두려워지 안 이 하고 죽기로써 반되 하여, 전정 이 성겨 나 마 그 석형편 인 족 대 소 관 원 이 하로 지어 병 병, 순포와 여항 평민 등 에 라 도 모 도, 영국의 충신 이 라 다 말 할 기를 상국을 비 반 하고 왕 명 을 거역함이 도리가 안 이 오 역적의 당류라 하여, 날려 나 는 디로 못 지 르 기를 위 주 는 는 터 인 족 모든 세력 이 다, 영국의 장악 에 잇 스 며 다 만 그 러 치 안 타 는 는 백성 인 족 여 간 장 스와 농 스 하 야 저 의 슈 족 으 로 벌 어 먹 는 무 고 잔 민 뿐 이 라 여 간 잔 민 의 령 성 한 힘 으 로 었 지 강 대 한, 영국 을 결 우 기 를 바 라 오 만 은 그 스 램 들 의 항 는 말 이 세 상 에 스 램 은 다 한 가 지 라 남 의 노례 되 접 을 달 게 받 는 자 는 곳 스 램 의 권 리 를 일 혀 바 린 자 이 나 스 램 의 권 리 를 찾 지 못 는 자 는 찰 할 리 죽 어 목숨 을 바 리 고 피 를 흘 녀 보 비 로 은 그 초 를 세 워 우

리즈손의 영원호복이 되게 하는 것이 옳을지라 우리 부형된 이들은 벼슬에 선을 나가나 월급에 팔아서 남의 종노릇을 충성으로 알고 우리 백성을 못지르려고 충을 노으며 창으로 지르느니라 우리가 맛당히 우리 부형의 손에 죽어가며 독립을 위하야 쓰와서 간담이 훗히지며 백골이 부서진 후에야 말니라 하야 충분에 살느피로 죽으려 나아가미 혹형편을 앓히거나 힘을 비교하지 안코 일편단심으로 죽고져하는 믿음뿐이라 농부들은 허의와 낫을 들고 나서며 부인과의 힘들은 부지생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압해서 죽으며 뒤에서 뒤여서미 각기 제양식을 쓰가지고 한편으로 농사와 생의 하며 거의 팔년 동안을 련속 하야 전정하미 전후로 죽은 생명은 얼마이며 업서진지물은 얼마나 되게는요 당초에 몇사람이 날하날세에는 이삭지될줄을 뜻하지 못하고 다만 조그한나 죽어물으고져 할뿐이러니 불의에 이러케 죽으려는 사람이 련속 하야 뒤를 쓰라 점점 만하지미 각국에서 다 밋친 백성이라고 희망하던 인심이 이에 이르러 변하야 초초 감동하는 정의의를 표하는 자 - 만으미, 법국이 부득이 하야 군사를 내어, 미국 백성을 도아 주기를 즈원하논지라 필경, 영국이 물나고, 미국이 독립하야 영원무궁한 자유의 초를 세어 오늘날 세계에 상등문명국이 되얏느니 이 동안에 허다한 영광스럽고 총의로운 스적은 이보다 말할수업는지라, 미국 독립스기를 보면 대강 알너니와 여러 기록한 것만 보고도 총의에 간절하듯 포는 김히 비와 새달을 것이 무궁할지라 순전한 공심으로 목숨을 바려 남의 노력을 면하려 하면 뜻밖의 힘이 생겨 당초에 바라지도 못하던 공업을 일우느리치를 확

75

실히 밋은 후에야 능히 사업의 기초자가 될 것이오 더, 미국 법성의 더러듯 보비로운 권리를 엮는 것이 일호도 남이 도와 주어 되었거나 힘들이지 안코 엮은 것이 안이라다 즈기들이 무한한 피와 무슈한 지경을 허비하고 힘들이자만 할 후에 엮은 것이니 이느곳 힘들이 엮은 지물이 능히 오리부지하는 리치라

숱하다 우리, 대한 형제들은 이거슬 보고 응당 감동함이 잇슬지라 우리느 이 기초를 귀왕 에세워 이 권리를 누린드 하는가 후 장리에 이 기초를 세어 이 권리를 츠즈려 하는가 후 이 권리는 물론하고 살기만 중히 녀여 남의 종노릇하기라도 풍족히 녀이게는가 맛당 히 절당호주 의가 잇셔 한가지주의를 가지고 목덕을 숨아 일변으로 일할여 나가야 될지 라 부디부디 심상히 녀이지말지어다

▲미국 독립선고문

대더 더러듯 지리호전정이 날허나 허다할 심령의 상할거시 다 포학호전제 정치의 압 제하는 폐단을 인연항야 만고스기에 처음으로 싱긴 일이라 즈고로 각국에 이 권폐단을 인연항야 민요나 군요의 끈란리가 싱긴 것이 거의 업는세 업섯스되 다 일시겨분호과 운을부려 한번보복항거나 설치항기를 시험항야 잠시 세상을 소동호를 일으키오 한들공평 호스사람들이 우헤서 잘 무마항거나 잘 진압항면 인항야 평정항고 말뿐이니 그 폐단 의근원은 일호도 막힌거시 못되는지라 이, 미국전정은 전혀 이압제를 밋지안으려는 주의로 인연항야 목숨들을 바리고 필경 남의 포학을 면항야 식로나미 일후에 영원히

독립요지

미국 독립선고문

철심오

이페단이 싱기지못하게 할 주의가 싱겨 정치페단의 근본을 바로잡으려하미 국권을도  
 로한두사람의 장악에맞기는것이 다시 위험하게될 념려를 새달은지라 이럼으로정  
 체제도를 우해 괴독흔바와갓치 마련하야 만민의게 일테로맞겨 주장하게 하느니 이  
 는 사람의 회복안위를위하야 각기 제손으로맞하 남을받을것도입고 남을원망할것도  
 업게하느본의라 그림으로 스름마다 그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제한몸에 달닌줄로알  
 며나라를 잘 다스리려하면 먼저 제몸하나홀 잘 다스려 남의다스림을 받지안케되  
 는디 잇는줄로녀여 각기 자유하느권리를 제몸솜보다 중히녀이며 이 중하권리를중  
 히녀이느모임을 속에기뵈히뵈이게하며 터터로 조상이 유전하느 장가귀훈 유업으로알  
 미 이괴초를 세운자가 지금겨우 일백십삼년동안에 그즈손들이 이권리를 다만직혀  
 일치만 안을썩안이라 날마다 히마다 이권리의본의를 확장하야 점점 정미하느 정도에  
 이르느지라 그괴조상들의 독립하던스적을 기념하야 서울일회를 와쉬○톤이라 하  
 느니 이는 독립괴초에 첫지유공흔 처음 대통령 와쉬○톤의 빛는일홈이니 세계정  
 체기혁하느근본의 괴초자가되여 만국의추앙하느바라 양력철월초스일이, 미국독  
 립의 반포하날이니 이날을, 미국의 데일콘 명일로녀여 히마다 이날이면 전국 상하  
 관민이 공스간에 모든스무를 전폐하고 집집이 국기를썩뜨며 등을달아 온 나라이다  
 경축하느빗치오 당시에 전망하장슈와 군스의무덤에가서 글을지어 찬송하며 뿔슬땀  
 허 영광이며 만세를불너 한업시 즐기며 감동하느 눈물을나려 늦기기를 마지안이하

고 심지어 외국에 가서 있는 한두 백성이라도 경축하는 레식을 행하여 독립명일을 기념하는지 이단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인들은 근처에서는 다 이날에 구경도 하였을지 모르나 오 알기도 할지라 나라에 적이 충의지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이러듯 즐기는 것을 보면 응당 감동하는 마음이 흥을 금치 못하리다. 미국의 독립선고문 글을 아라기록하는 노니 이는 일천칠백칠십륙년 칠월 스일에, 아메리카 합중국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대표한 자들이 모여, 영국을 거절하고 독립하는 보의를 세상에 반포한 글이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간담에 식이며 입설에 비어 있는바 이 사람은 미군에 독립한 충의를 밀우어 각각 자기나라의 독립을 중의 비양하는 본의라 우리, 대한 동포들의 가장 기히 주의 할바 이로다 그 글에 하였스되

세계에 었던 인민이던지 타국의 압제를 버셔나서 하는님의 품부하신 평등디위를 좇아 지구상 열강과 갖치 서로서고져 할터에는 가지 못하여 난호게 되는 연고를 단하에 반포하는 거시 인정의 맛당히 녀는바 이라

대더 온 세계 사람이 다 동등으로 생겼으니 이는 고금에 받고 지 못할 참리치라 조물주께서 일례로 권리를 품부하였스미 생명과 자유와 안락함을 구하는 거시 다 남이 빼앗지 못할 권리라 이 권리를 안전케 하기 위하여 나라를 설치하고 정부를 세워 손주 정부는 곧 백성의 공변된 권세를 합하여 된 거시니 언제던지 정부의 제도가 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의를 손히 할진디 백성이 맛당히 그 제도를 변하던지

독립요지

미국도그립선고문

칠십칠

업시 하던지 하고 서로히 정부를 세워 괴초를 무슴주의로잡던지 권세를 무슴제도  
 로조직하던지 그빅성의심각에 가장합당하야 저희들의 래평하고 안락호복을유  
 지하도록 만드느것이 곧 그빅성의 합당권리라 그러나 사람이 맛당히 경제호  
 바는 오리된정부를여간 스소호곡절로 경솔히 변기치 못할거시라 이럼으로 각  
 국의지닌경력을인연하야 빅성의성질을 궁구하여볼진디 정부의포학이 파히심  
 한데이르지안이하야 능히견딜수만잇스면 찰하리 저의권리를정지하고 츠아지닐  
 지언정 오리습관된 정부제도를 폐하기 즐겨안이하느니라 그러나 포학과찰탈이  
 혼결가치 심하야 빅성의권리를 다 업시하고 압제를 위쥬코저하는 경우에는는  
 정부를 번복하고 저의장리에 영구히 안전함을 보호하도록 쥬비하느거시 곧 빅  
 성의권리오 또한 빅성의직책이라 우리거류디사름들의 무수히 츠어오며 당하느  
 곤난이 곳 이디경에 이르러 필경 더츰을슈업스미 부득이하야 이전정부제도를  
 변하려함이라 지금, 영국,왕의 스기를볼진디 여일히 빅성을 살히함며 침탈하느  
 스적뿐이나 전희주의가 우리 모든 거류디를 순전호 포학과 압제밧헤 넷코저함  
 이라 이뜻을증거하기 위함여 실상형적을 공평호세상에 들어니고저하노니 그스  
 적말을호진디

모든 빅성들의게 유조호법령은 힘하기를 허락지 안이하며  
 관원들의게 명령하야 빅성의게 시각이긴급호 모든일을 다 즈괴의 지가를 엇기

전에 는 힘하지 못하게 할라 하며 자기의게 지가를 청할 때에는 또한 허락치 아니하며  
 빚성을 더 표하여 법률을 명하는 리법관들의 권리는 다만 포박하는 인군에게만 상  
 극이 될뿐이요 기외 모든 사람의게 업을 수업는바—어느 이 권리를 허락치 아니하  
 야 온 빚성의 일례로 리로 일일을 힘치 못하게 하며 법률명하는 회를 명쳐가 업시  
 자기의 뜻대로 이리더리 옮기게 할야 멀고 불편함으로 인연할야 스스로 괴진함도  
 록 만들며

빚성의 권리를 침탈하다가 빚성의 더 표자들이 용맹스러히 날거나 그 불가함을 반  
 더 할진디 곳 회를 해쳐 회를 모히지 못흔적이 한두 번이 안이오

회를 허산식한적마다 다른 사를 씹아 다시 설시하기를 오리금지 할야 업시 할슈  
 업는 권리를 영히 업시 하고저 할미 인할야 밧게서 침로 할며 안에서 날거나는 모든  
 위퇴함이 싱기게 할며

각국에서 빚성이 들어와 호구가는는 거슬 열심으로 막으려 할야 외국인 입적하는  
 법을 업시 하고 옮겨사는 빚성의 넘어들어오는 거슬 빚가지로 금하며

공평한 법률이 서는 거슬 실허할야 재판권을 세우지 못하게 할며  
 법관들을 월급과 벼솔로써서 자기의 뜻대로 부리는바—되게 할며

쓰는 더업는 관원을 각 식명목으로 파송할야 쟁를 저어 우리 디방에 와서 빚성의 고  
 현을 설고 싱명을 방허할며

독립요지

미국도그립선고문

철설구

태평무스홀썩에 상비병을 우리민간에 홍상두어 빅성티표자의 허락업시 저물을 허비함며

위력을형코저함야 무관의권리물 도로혀 문관우해 처함게함며

지판장정이 본디방법들과 합지안함며 빅성의뜻에 거스리는거슬 닐며 디방법 물이라 명석함야 우리로함여곰 북중함게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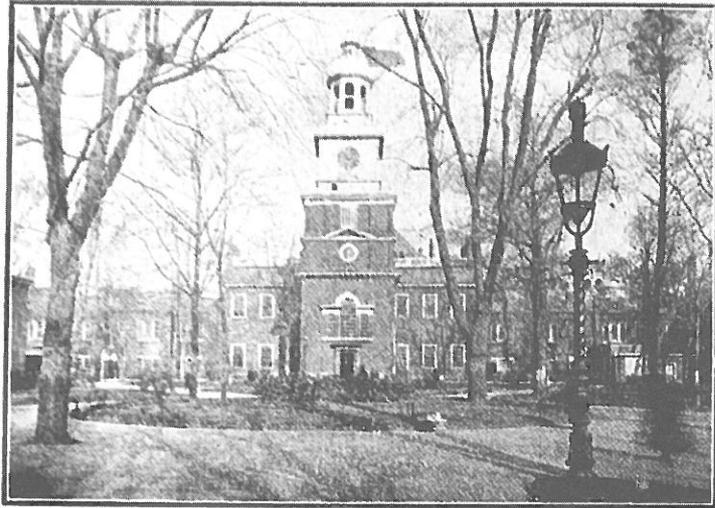
만흔군스를닐니 피류의세력을 도으미 무단히 인민살해함는 학생을인연함야 빅 성이닐허나 저의세리 증벌함라함면 란민이라고 탄압함며

각국과 통상함야 장스함는권리를 막으며

빅성의 티표자들이 법티로 의론함여 허락함는거시 업스되 임의로 법외에 세를 물니며

지판홀썩에 비심관 세우논권리를 임의로세앗스며 놈의 무소를인함야 이믹함빅 성을 지판함다 칭함고 바다를 건네여가며

영국의 보통법들이 디방에통함치안함고 독립정부를설시함야 편변되히 색로 다스리게함미 이논 더욱심함포함을 우리의게 색로 더함고저함미요 우리의데일 리로운 법들은 낫낫치업시함고 디방정부의 의례히힘을권리논 한나도업시함며 우리를 저기의보호안에 들지안는다함야 우리의세우는 정부를 업시함고 우리의 게 전정을 닐희키며



미국독립선고학교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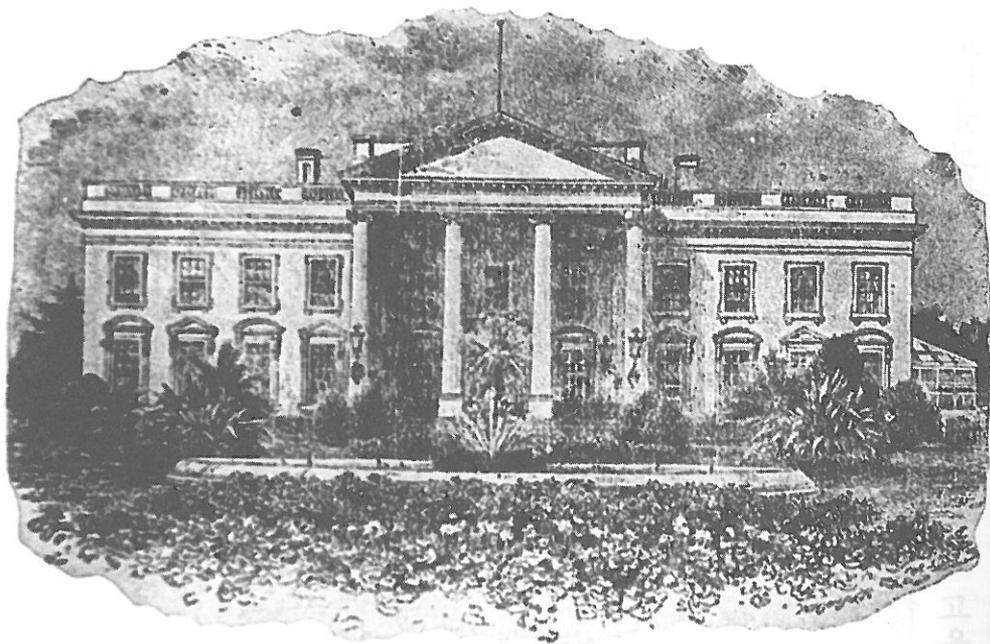
미국독립선정운동고동  
던연설가혜노리오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미국 대통령 이승만 공백

고을을 본을 으고 비성을 살히 하며  
모든 조

바다와 해변에 도적을 노아 무단히로략하게하며 고을을불붙이고 뱀성을살히하며  
지금방장 외국고용병을 만히 실혀다가 싱령을잔히하며 지산을소멸하는 모든포  
학을형하려야 발서호편으로 시작하였스니 그잔혹무리함이 가장야만시덕에  
형하던바—오 기명호나라인군의 형위가안이며

우리동포를 위협하여 억지로 군기를들고 저의나라를 침로하거나 저의형태와천  
구를 도륙하게하거나 후 저의조손으로 조결하게하며

민심을선동하여 서로쓰와 잔히하게하고 또한 무지한야만인종을 흥상닐희혀 우  
리너디를침로하게하여 남너느로소를 구별업시 살륙하게 식히느니라

우리가 이모든 참혹한압제를받으며 가장의공훈 정상으로 신원하기를 이결하되  
신원은고사하고 도로혀 포학을 더욱 심히하느니 더러듯포학한인군은 조유하는

뱀성우에 결단코 합당치안이호지라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참고 더 영구동포들  
이 우리에게 무리히 더절함을 조조설명하여 그치기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우

리거류민의 어려운스정을 깨달아 긍축히내에게도하여 보았으며 저의들의 공평  
하고 관후호선심을 이결도하여보았으며 이런침탈을 결단코 받지안을뜻슬 밍세

도들어내여보았스되 저의가 또한 귀를막고 듣지안이 하는지라 이럼으로 우리  
가마지못하여 각립하는주의를 반포하고 더 뱀성들을 모든타국사람들과 갖쳐

여 태평호를세우는 친구로되 전정에서는 원슈로 더절할지라

독립요지

미국도그립선고문

판설일

그럼으로 우리가, 아메리카, 합중국에 모든나라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대의를들이  
 이 만국대주제의 공평히 판결을심을 바라고 이 거류지에 모든 율령을작성들의합  
 심권계를 의지하여 우리거류지가 완전한 조주독립국이됨을 세계에 반포하노  
 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구왕실에 대하여 신민된분위가 다 물시되며 두나라사  
 이에 모든정치상 관계가 다 업서지고 확실한 조주독립국이되야 전정을 날회키  
 거는 평화를일우거는 연합동맹을잇거는 통상도약을당하거는 기타 모든 정치적외  
 교에대하여 조주국들의 자치권 권리는 우리도 다 평등히가져 조주홀지라 이션  
 고문의 들이닌인 주의를 영원히 유지하기위하여 전혀 하는님의 도의심을 의지  
 하고 우리의목숨과 영광을 다 앓기지안이하기로 서로 담보하노라

이글한장이 곧 전국백성의 공분회의의를 날회키여 한업는피를쓰시고 독립의초를세  
 운거시니 이글 반포할날로써, 미국의 독립명일을 승는바—라 구구절절이 동분겨절  
 하여 장부의혈과를 스스로 겨동식하는중 가장 주장되는뜻신즉 모든사람이 다 동등  
 으로났다함이라 이한구절로 말미암아 모든도목의 근본이성김이니 이럼으로 사람마  
 다 나 도남과가혼 권리가잇음을새닷고 그 권리를 목숨보다 중히녀여 이러듯 보비로  
 은 괴초를세움이라 그림으로 정치제도를 순전히 이뜻으로 마련하여 우헤괴록은빅  
 셉의권리구별이 다 이에서성겼는니 이글이 지금 세계각국사람들의 사랑하여나려는바  
 —라 실로 심상히 보아넘기지못하리로다 그러나 만일그씨에 백성이 다 어리석어서

저마다 밋기를 아리사람은 의례히 웃사람의 양식이 되고 소국은 맛당히 대국의 노래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섬기는 것이 충심이오 도리오 런던의 상경이며 고금의 등의 라야 이런말 되는 자를 도로혀 여적이라 란신이라 죽일놈이라 업시 할놈이라 할진디 그씩 성을티야 이런적문을 여만장을 발간야 이런말을 여만마디하기로 무슴효함이 있 션스리요 그런즉 이글의 본의도장하거니와 그씩성의기명함도 또한 여디서지이른거 슬 가히 짐작할지라

대더어나나라이던지 백성이 다써가어서 원과가업시된후는 여러히 적공을들여키 명훈함문으로써 식과운을받아 심략이 심기게후후에야 스스로 뿌리가제함으로 날히 날지라 그러키전에야 아모런쥬의던지 서볼수도 업스려니와 우연히 선다할지라도 불 구에 다시 써러질지니 완전히선거시라 날을수 업스리로다

▲미국남북방전정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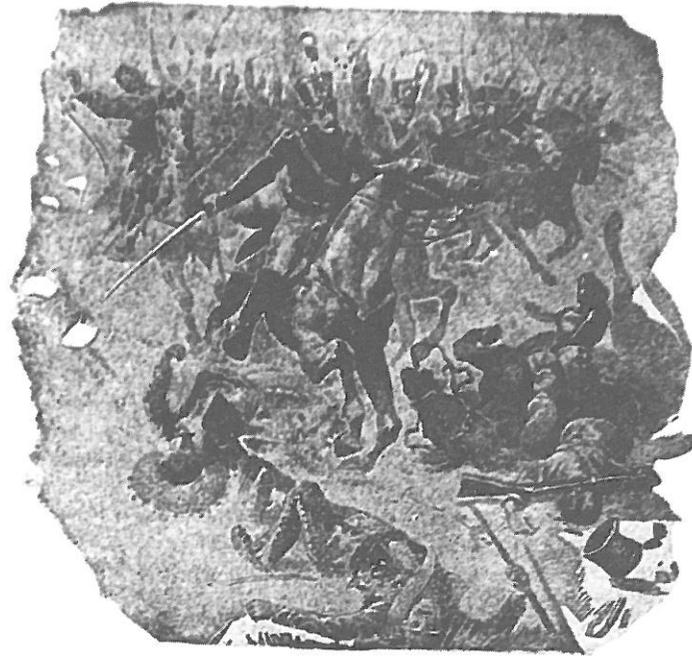
이러듯 힘들이고 벌어엿은 독립권리를 티뒤루유전하며 직혀 사람마다 제권리를 일 호도 일치안이하며 남의권리를 조곰도세앗지못하고 인야 남의권리를 보호하는거 시 또한 제도로아는고로 타국백성이나 타국정부의 주권리를위하야 힘한일이스 괴에 만하들여는지라 그중에 가장 빛는스적들여 대강말하게노라  
 조초로, 미국에물건이 부요하고 스텐이귀중 더욱이 주권리를 더러듯 중히년이 논던디에서 아모리 모칭긴스탐인들 엿지남에게 머리를속이고 노래노릇하기를즐겨

독립요지

미국남북방전정서적

판설송

항리요 저마다 지조를 닦고 지혜를 들며 제손으로 버려먹고 제손으로 남을 도아 주기를 사람의 맛당호(호) 적분으로 아는 고로 부자가 지물은 아모리 만호(호) 되 부릴 사람이 만만치 않은 지라 이세에 대서양을 건너 장스단이는 스물들이, 아프리카가 주히변에 가서 비를 더이고 살빛검은 인종을 혹 유인항(항)야 갑을 주고 사기도 하며 혹 군기를 가지고 겁박항(항)야 사로잡기도 항(항)야 다 그중에 나히덕당(당)고 부리기요 혼(혼)으 히와 계집을 동여 비에 몇 백 명씩 시고 바다를 건너 가서 북(북)아메리카가 주 동남히변에 하륙(륙)하여 중가를 밟고 난호어 팔아 큰 리익을 도모(모)항(항)미 사셔 부리는 자 - 한 량 업는 지라 비록 말은 통치 못(못)하고 모양은 흉(흉)하나 스지가 든(든)항(항)야 힘센 일을 잘(잘)항(항)며 먹고 남는 거슨 심히 쓰고 천(천)하니 갑쓰고 편호(호)거슬 휘가 사고져 아니 항(항)리요 인(인)항(항)야 장스(장)항(항)는 자 - 히(히)마다 늘어서 스십(십)삼(삼)년(年)전(前)〔즉 일천 팔백 육십 일년〕에, 미국, 남방에 있는 흑노슈(슈)효(효)가 스(스)빅(빅)만(만)명(名)에 이른 지라 부모 처(처)와 고국 산천을 일(일)코(코) 싱(싱)소(소)호(호)스(스)람(람)에 게(게) 스(스)을(을)녀(녀) 대(대)히(히)를(를)건(건)너(너)오(오)미(미) 여(여)러(러)들(들)동(동)안(안)에(에) 비(비)에(에)서(서)죽(죽)는(는)자(자)도(도) 무(무)슈(슈)항(항)며(며) 불(불)합(합)호(호)의(의) 후(후)와(와)슈(슈)도(도)에(에) 병(병)도(도)자(자)존(존)중(중)저(저)의(의) 주(주)인(인)되(되)는(는)자(자)들(들)은(은) 돈(돈)을(을)주(주)고(고)우(우)마(마)갓(갓)치(치)부(부)리(리)려(려)고(고) 산(산)거(거)신(신)죽(죽)곳(곳) 인(인)류(류)와(와)갓(갓)지(지)안(안)케(케) 더(더)접(접)항(항)는(는)페(페)단(단)이(이) 싱(싱)긴(긴)지(지)라(라) 그(그)인(인)종(종)들(들)의(의) 정(정)경(경)을(을)싱(싱)각(각)항(항)면(면) 실(실)로(로) 가(가)련(련)공(공)축(축)항(항)도(도)다(다) 이(이)에(에), 미(미)국(국)북(북)방(방)스(스)람(람)들(들)이(이) 그(그) 불(불)가(가)함(함)을(을) 의(의)론(론)항(항)여(여)왈(왈) 세(세)상(상)에(에) 스(스)람(람)은(은) 다(다)한(한)가(가)지(지)니(니) 더(더) 후(후)인(인)들(들)도(도) 다(다) 우(우)리(리)의(의)동(동)포(포)라(라) 그(그) 형(형)용(용)이(이)다(다)르(르)고(고) 지(지)혜(혜)는(는)부(부)족(족)항(항)나(나) 하(하)느(느)니(니) 품(품)부(부)항(항)신(신)권(권)리(리)는(는) 다(다) 낫(낫)은(은)죽(죽)우(우)리(리)가(가)우(우)리(리)권(권)리(리)를(를) 중(중)히(히)녀(녀)이(이)며(며)남(남)의(의)권(권)리(리)를(를) 멸(멸)시(시)항(항)는(는)것(것)이(이) 도(도)리(리)가(가)안(안)이(이)라(라) 함(함)을(을)며(며) 스(스)람(람)이(이) 스(스)람(람)을(을)사(사)고(고)파(파)는(는)거(거)슨(은) 형(형)이(이)나(아)



미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시대에 동령  
아부라 함녕 큰

오를 물건이나 짐승으로 뒤접함이니 엇지 교화받은 사람의 참아 할바—리요 맛당히 후  
 노들을 속량하고 종을 부리거나 미매하는 풍속을 금하야 평등으로 자유하자하고 글을  
 지어 전파하미 감동하야 좃는자— 날마다 성하는지라 이에 남방사람다려 종을 다  
 여노호라호즉 남방사람들은 돈주고 사서 부리는거시 또한 자괴들의 권리의잇는일이  
 니 남이간예 할수업드하야 피차상지하다가 필경 전쟁이성겨 수년동안을 크게싸와맛  
 참치 남방이지고 북방이이여 일천팔백륙십삼년에 노래속량하는 령을반포하니 전국  
 에 그 가공호후인들이 일시에 굴네를벗서 자유로도라가니 그목숨들의 즐거움도  
 량할수업거니와 그 호대호은혁이 어디까지미치리오 이후로 영영히 노래부리는풍속  
 을 금하기로 법률을딩하야 지금미국서는 종이라는 일홈도업스며 초초 그주의가번  
 성하야 지구상각국이 이법을모본하미 지금세상에는, 대한과, 청국,외에 중부리는풍  
 속을 폐하지안은 나라이업는지라 나라마다 모든백성이 다 평등으로 권리를가져 남  
 에게 의뢰하거나 남을위하야 살지안이하고 각각 제몸을의뢰하며 제나라를위하야 일  
 항기에 등분이업드고로 사람을고용할일이 잇슬데에는 멋시나 몇날이나 며칠몇히를  
 약도하고 무슴일에 얼마고전을작성하미 그시간과 그일에는 약도를쓰라서 고용하는  
 거시오 그 언약외에는 조공도 상관이업느니 이는 남의집에 심부름꾼이나 회사에스  
 무원이나 나라에 벼슬하느니라 다 낫흔규모라 이럼으로 사람마다 제나라법률에 미  
 엇드할지언정 한나도 엇던스름에게 미인자는업느니 이런나라에서는 전국백성이 가

령 만명이 될것조차하면 만명이 다 살아활동하는게 되야 나라를 받들고 보호하는니  
 그힘이 었지 강대치안으며 힘이 었지 무인디경으로 보리요만은 그러치못하나라는총  
 총이 등급을분별하여 차례로 넘게미이다가 필경은 우해 한두사람의게미여 그웃  
 사람의 손과발이될뿐이니 그나라안에 백만명이 잇슬지라도 실상은 한사람뿐이라백  
 만명을결박지어 한두사람이 높이고안존나라에 자유활동하는 일이만명백성이합하여  
 침로하면 었지 무인디경조차안이하리오 노래를업시하고 권리를 평균하는사람들의  
 날마다 부강문명함이 전혀 이연고 한가지뿐이니 인심을 자유로노아 평등으로 되접  
 하는효힘이 실로 었엇타하게는요 이러듯 굉장호리의의 효력을볼진디 그근본인즉다  
 세상사람이 동등으로났든뜻을 김히궁구하여 확실히직현현에서 생긴거시라 미국  
 백성들이 저그네 권리를 보호함으로 남의권리를 또한 회복하여 이러듯 빛는스쳐  
 을 일운거시 었더케 힘드리고된거신가 김히싱각하여보라 사람조차안게성긴야만후  
 인들의 권리를위하여 저의나라에 갖흔동포제리 전정을닐회케셔 이쓰힘에 상흔인명  
 이 거의백만명에 지니며 지물허비할것이 숨심역 만원가량에 이르렀는지라 자유권리  
 가 무엇인지 모르는나라에서들은 곳 이런스쳐을보면 도리여 미천스름이라일을지라  
 었지인외의리가 지구하여 사람의싱각박게 쉼여나는일이 안이리오  
 슨흐다 우리,대한형제들아 각기 예스법의습관된 소견을새치고 세상에공변된스상으  
 로 박고어 싱각하여보시오 더사람은 어이하여 남의권리보호하기를 이러듯힘쓰거늘

우리든 어이하여 우리국민의 당당한권리를 찾고져 아니하며 우리나라동포들을 압제하고 함디하여 우마못치디점하며 노레못치부리기를 당연하게 녀이는가 우리나라에서 도 갑오경장초에 노레법을혁파하여 틀문을당항였스나 상하가 다 그본의를깨닫지못하여 그법을바리면 곳런디에써스쳐스흔 리치를억의는줄로 녀이는고로 지금껏그법이 실시되지못함이라 이문데 한가지에관계가 심히크니 설명코져 하는말이 또한한 이업스나 이척에 다 말올수업스즉 다만 우해말올것만보아도 족히 그관계를 짐작할 지라 어서박비새달아서 늑에게 노레디점도 박지말고 늑을 노레디점도 하지말며 제몸을 늑과못치녀어 한나도 평등권리를 찾지못함 슴람이업도록 할지어다 나도 또한 대한신민이라 내나라네전통속을 잊지무단히 바리고져함이리오만은 지금계상이 과연 전과됨어 만국이상동함미 즈주즈유하는 나라에는 각국박성들이 날마다모혀들어 분분히입척함니 이논 물이다리로흐름과못치 즈연한 인정이라 이거슬 알지못함고 다만 내박성만압제함야 나가지못함게할진디 이논 바다와동함야노코 고기를 병속에 있게함고져함이라 잊지부지함기를 바라리오

▲법규변혁론소적

이척에 구라과주 각국에는 모든압제정치로 주장을숨아 박성이 도탄슈화의 극도에 이른지라 박성이 주권자들을 호랑못치 두려함며 원슈못치 위위함야 슴면에 원성이 창란함되 우해안존자들은 천세만밋고 일항압제함야 머리를 들지못함도록 누르느니

라 당시형편으로볼진디 박성의괴운이 아조써가어 실낱만치라도 성익이 업슬듯하였으나 그 박성들의성질이 근본나약한지 아니하고 교화와 학문의힘이 또한 그 마음을 얼마짐 발달식히고로 그 권리세력밋해서도 중시불평호무음이 굴항지안은지라 다른 나라스괴난 이로도 말할수업고 다만 법국스괴만 대강말하야 밀우워 보게할지라도 더 법국이 그씨에 전제정치로 폐단이 가장심하야 우해황제가 전국박성의 죽고사는 거시 조괴의한뜻에 달난줄로알아 말한마디나 글한장이면 곳 일국에 법이되여 감히 의의는자는 곳 대역부도로 다스리느니 이럼으로 스람마다 아당하고 순종하야 국법을 열멸시하고 은총을도모호미 정부대신은 우마의디접을 달게녀이며 궁중간세비는국 권을 조롱하야 상방참마검이나 마피동부또흔 가진명석을만들어 이르는곳마다 스람을쥬이고 저물을로략함을 전례로녀여 감히 막기를 생각하느자 업느니 대강형편이 이러호후에야 법률이어디잇스리오 송스를 전혀 청축과되물로 걸쳐하느고로 옥중에 스십년을 죄명도모르고 갓친스람이 잇는지라 박성들이일으기를 이권던디에서 송스 하려는박성이 틀닌인스라 즈금으로는 무슴시비가잇거던 법관의게 호소하지말고 량척이마조서서 연장으로쓰와 승부를비교하야 시비를 결단함이 오히려 공번되다하야 이법이 대단히성형하느니 이일로보면 그씨스정을 가히짐작할지라 국중에 심오만명 되느 량반들이 모도권세를잡고 세상을흔들디 그밋헤 박성된자 업지권리를의론하리요 다만 하늘을 부르지즐뿐이러니 이씨 미국에서 박성들이닐허나 독립권리를세

위 정치 폐막을 제하고 어진정사를 날희키고 들듯고 스스로 감동하여 그 제도의 아름다움과 뜻에 공평함을 저마다 찬탄하여 민심이 스스로 동향고저하는지라 우해있는자들이 이 형편을 싫어하고 더욱 심히 단속하여 법률정치등스에 조곰이라도 곡직시비를 의론하지 못하게 하며 하는말이 더, 미국인민은 다 란민정당의 종류라 런하만고에 업는 의론을 지어너서 신민의 분의를 의니 맛당히 못질너 업시 하는화단을 면치 못할지라 비성이 엇지 나라일에 상관하는 권리가 잇스리요하여, 미국과 당초에 동섭도 못하게 할려하는지라 그러나 민간에서 법률 의론하는 선비들이 위티함을 무릅쓰고 글을 지어 전파하며 신문에 게재하여 비성의 지혜를 날마다 열어 주어 집집이 정치상 의론이분운 함의 의고에 격분한 남자들이 우해서 금하는 것을 불게하고 스스로 즈원병이 되여, 미국에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 쓰호는자 - 무슈함민, 법국 정부에서 마지 못하여 민심을 진정하기 위하여 군사를 파송하여, 미국 독립정신을 도와 쓰호는 것이니 우해괴록 혼바, 미국 독립이, 법국의 조약을 입었드함이 곳 이거시라 이러듯하여, 미국의 식로 열년종이가 날마다 넘어들어와 막을수업시 전파되미 유명헌선비들이 무슈히나서 정사의 모든 폐단들이 민심을 고동하여 위력으로 억제하기 어렵게 된지라 우해서 부득이 비성을 허락하여 정부관원들과 함씩 모혀 국사에 긴급히 곳칠것과 맛당히 시형할 거슬 결명하여 올니면 실시하여 주마함민 이에 날을 덩하고 관민이 함씩 모혀 의론할식 비성의 슈효가 만아서 관인들의 의론이 설수업는고로 함씩 모히기를 실혀하여 오릭결

덩이 못되니 빅성들이 모혀서 저의제리 도목을 덩하고 이티로 집행하는거시 올흔지라  
 합의치안이하는 관원들을 기드릴것입다하여 형제가장 위름하미 비로소 우해서그뜻  
 슬허락하야 다시형하여주마하니 민심이 크게깃버 대헌에 비맞는것 곳흔지라 진실  
 로 당시 우해잇던이들이 이허락함을 실상으로형하여 민심을순종하엿던들 피츠에영  
 구히 평강안락함을 일레로 엿어슬거시어늘 종시도 포학혹싱각이 업서지지안이하야  
 외면으로 이 허락을반포하고 민심의 혹허짐을 인연하야 도륙을 형코져하는지라 밤  
 으로 군스슴만명을잇글어, 피리스(법국정성)성 니외에 편만하야 대포와 군괴톨버려  
 노코 각처에 방을붓쳐 감히모히는빅성이잇스면 곳 도륙을더하리라하미 그엄위흔형  
 세가 곳 빅성으로하여곰 숨을쉬지 못하게하는지라 이씨에 빅성들은 리허를 알지못  
 하고 나라일이 순편히바로잡히엿다고 다형히녀이며 신문을 기드리되 그날아침은신  
 문이 오지안이하미 괴이히녀여 나서본즉 밤시에 형편이 홀연변하야 신문사와 빅성  
 모히논처소에 검국이삼렬하야 임위가진동하는지라 빅성들이크게겨노하야 스방에서  
 물살듯 날어나며 괴왕축을바에는 쾌하게죽는것시 낫다하야 남녀로소업시 집집이나  
 서서 예를지어 모혀들미 무식한군스들이 총으로노코 창으로질너 인명을상하는지라  
 민심이 더욱겨분하야 물밀듯 밀어들며 처처에 풀무노코 군괴톨만들어 시적이 분분  
 혼중에 다도어들어가 목숨을결우미 소위군스들은 다 남에게팔너 못할바이업스나공  
 심은업고 겁심만 만흔지라 급기 저의부모쳐저형데즈미가 저의총썩헤 분분히쓰러지

91

며 다도아 나 오는 것을 보미 저 것들도 목석간장이 안인즉 스스로 감동함이 생기는지라  
 흠을며 저희스람들의 실덕실신함이 전국스람으로 하여곰 적국이 되게 할 줄을 저의도  
 아는바—라 후 군복을 벗고 다라도나며 후 창을 거구로 잡기도 하여 맞춤니 전국이다  
 뵈성의편이 되기에 이른지라 즈초로 쉼스틱이라 하는 옥을 물가 온디 지어 한편에 다  
 리를노아 동케하고 대포와 군스를두어 출입을 파수함의 진실로 나는식라도 통치못  
 함지라 이속에 가진형구를 마련하여 수습빅가지 모든악형으로 스람을 뵈덩질함의우  
 리나라 경위원 경무청에서 죄수를 신문하라 면 칠십여 가지 뇌형을 자랑습아 뇌세는것  
 이 여게비하면 오히려 문명화나라이라 할지라 이러듯 렬용성곳치 굿게지어 그속에  
 한번들어가는자는 하늘도 못보고 일월도 못보고 엇더케 업셔지는지 그문밖에 나와  
 본자—들은지라 렬덕으로 유전하며 황실과세가에서 이윽으로 뵈성을 로락하는 합정  
 을만들어 그 업호로 지닌자—홍상 니가 같니고 머리뺏치 올라가던바—라 이씨에  
 이르러 뵈성들이 문져말함기를 우리조상들이 디덕으로 이속에서 원통은목숨을 씌코빅  
 골을 출여 뇌인곳이라 이것을 문져 새쳐업시함자야 일시에 달녀들어 평디를만들고  
 피가설어 억제치못하여 물밀듯치미니 황태와 대신들이 엇지할수업셔 창황망조함야  
 천만가지로 민심을 효유코져하나  
 숭호다 석가임의 늦진지라 러져나오는 강물을 뉘 능히 막으리요 뵈성의하는말이 만민  
 을다죽이고 즈기흔져 살려함던 포학한 인군은 곳하는님씩 죄인이요 창성의원슈라

독립요지

법국변혁운동사적

구실일

92

독립요지

법국면혁훈사적

구성이

지금 세궁력진하야 민심을 순종한다하나 그 마음은 전혀 한법성도 남기지 안코져하  
리니 결단코 그 권세를 회복할수없스며 더 황족귀척세가 들은 다 저의몸 잇는줄만알  
고 법성잇는줄은 알지못하야 인군잇는줄만알고 나라잇는줄은몰나셔. 결투를 권하  
야 포학을행하게 하던류들이라 텃디간에 가득히쓰힌 만민의공분을 이런세를타셔한  
번 설치하리라하야 전일에 모든왕권당이라 세도변이라하던 각식당류를 대소유무죄  
를몰론하고 낫낫치 살히홀시 심지어 스부가 무죄호 부녀들과 어린히까지 남기지  
안이하려하야 전일에 유덕군자라던자도 무슈히 허를 당하엿스족 기외에 정경은 다  
가히 짐작할지라 만고에 이러듯 참혹한스적이업섯스니 참아 더 말할수업도다 이는  
다 거의 일백십여년전에 된스적이라 지금껏, 법국 혁명스기를보는자 - 다, 법, 국, 혁  
성의 잔포함을 희망하며 일변으로 당시 집행하던이를 더욱이 경계하야 나라를다스  
리는자들로서여곰 거울을 삼게하느니라 이후로 국중이 오리요란하야 정치를여러번  
번복하다가 인민의지식이 초초늘어 맛참니, 미국, 제도를 모본하야 민주국이되여 지  
금세계에 강대호 나라이되엿스니 그 참담한화를지니고 비로소 이러케된것신즉다웃  
스라들이 받게시세를 알지못하고 법성을압제하면 되는줄로만알아 받게셔 들어오는  
식고운을 억제하지 못하느중에서 필경 충돌이 성김이라 지금세상에 나라를 다스리  
는자의 겁히 경계할바 - 로다

▲헌법성치의효험

93

독립요지

헌법정치의요형

구심송

정치상 변혁하는 생각의 이념부터 더욱성형하여야, 구라파, 주에 여러나라의 변혁야 공화국이 되었으며, 기외에 여러나라들은 우해잇는 이들이, 초초 풍기의 변함을보고 그 정치제도의 공평치못함을도 깨달으며, 빅성을압제하여, 못닐어나게하는 것은, 옷사람들의 의크게 두려운 화단이, 생각길줄도 알아, 조그네세리 정치제도를 변하여, 빅성의 권리를 얼마쯤 허락하여, 피츠출들이, 나지안케하미, 인하여, 상하가, 다 평안무스하고, 나라이날로, 흥왕하는지라, 이거시, 곳 헌법이니, 구라파, 주에, 각국이, 거의, 다, 이법으로, 다스리는바, 1. 라, 다, 괴롭출수업고, 다만, 영국, 으로, 불지라도, 겨우, 빅년이전, 정형을, 말출진되 불과, 바다, 가에, 조고, 만출, 섬세, 덩이, 로, 되며, 별로, 부강, 라, 일출, 거시, 업던, 나라, 이라, 조그로, 왕족, 과, 세, 가, 들이, 국, 권, 을, 조, 롱, 하여, 정, 스, 의, 모, 든, 폐, 단, 이, 법, 구, 에, 비, 하, 면, 오, 히, 려, 심, 하, 다, 일, 을, 지, 라, 다, 시, 말, 출, 것, 업, 거, 니, 와, 민, 심, 이, 본, 리, 영, 약, 하여, 남, 의, 게, 지, 기, 톨, 도, 하, 안, 이, 하는, 중, 에, 더욱, 이, 유, 명, 한, 대, 신, 들, 이, 만, 히, 신, 거, 세, 상, 형, 편, 을, 밝, 히, 삼, 하, 고, 몬, 저, 폐, 단, 을, 제, 하, 며, 시, 법, 을, 참, 용, 하여, 상, 하, 의, 회, 원, 의, 규, 모, 톨, 다, 시, 덩, 하여, 빅, 성, 의, 권, 리, 를, 얼마, 썸, 허, 락, 하고, 이전, 세, 가, 들, 의, 홀, 로, 차, 지, 하, 던, 리, 의, 을, 다, 거, 두, 어, 공, 평, 히, 누, 리, 게, 하, 며, 빅, 성, 으, 로, 하여, 곧, 국, 스, 톨, 일, 데, 로, 찬, 조, 하, 게, 하, 며, 법, 륜, 과, 지, 정, 과, 기, 타, 일, 국, 에, 크, 게, 관, 계, 되, 는, 일, 은, 맛, 당, 히, 빅, 성, 의, 디, 표, 현, 상, 하, 의, 회, 원, 에, 서, 몬, 저, 결, 정, 하여, 우, 해, 지, 가, 를, 물, 은, 후, 에, 시, 행, 하, 게, 하, 미, 우, 해, 셔, 나, 관, 원, 이, 나, 빅, 성, 이, 나, 이, 법, 디, 로, 행, 하, 기, 전, 에, 는, 아, 모, 라, 도, 혼, 저, 힘, 으, 로, 홀, 수, 업, 느, 니, 이, 렴, 으, 로, 스, 롬, 마, 다, 조, 그, 의, 게, 속, 출, 직, 척, 과, 권, 리, 가, 얼마, 식, 다, 잇, 셔, 그, 권, 리, 와, 직, 척, 외, 에, 나, 가, 는, 일

을 일호라도 범하면 대신이라도 구의하지안이하고 그 시비득실을 빅성이 탄회도하고  
 론난도하는바—라 다만 황실을 존중히 받들어 특별히 높힐뿐이오 기외에는 상하반상  
 의 등분이 업시 법률밋헤 일테빅성으로 뒤접하는니 이는 상하가 온전한방법이라 설  
 령으로써 포학을 행코져 할지라도 법외에 일은 할수가 업스즉 빅성의게 히가 밋칠것업  
 고 빅성의게 히가 밋지안이호즉 스스로 충의하는 마음이상겨 인군을 곳저의 사랑하  
 는 부모못치 받들고 보호하는니 설령 불쾌무도호호무리가 잇기로 엇지감히 거스리는  
 음을두리요 호을며 강포호나라이 국권을 침탈코져 할지라도 또한 빅성을두려하야웃  
 스텘을 펴박하거나 썩이기를 도모치못할지니 이거시 참 황실과 나라와 빅성의게두  
 로 영구히 평강을복이라 이엇지 정치의 가장아름다운 제도가안이리오, 영국이 이제  
 도로 인연하야 스오십년동안에 더러릇 부강하나라이되여 온 세계에, 영국,속디업는  
 곳이 업는고로, 영국,국기우해는 히질척가 업드하는니 이와갓흔 부강에이른지라 몇  
 십년이 안이된일이니 엇지 힘이나 위력으로 썩어서됨이리오, 미국이 닐허나 썩로난  
 후로 포학을점스의 위티함을매두고 어진정스를행하야 인민을 즈유하게하미 인민이  
 다그 덕화에화하야 한빅성도 나라의 영광을위하야 죽고저안이하는자—업는고로 국  
 권이 스스로강하여 점점복종하야 들어오는도디가 온 지구상에 편만히된지라 그속  
 디빅성을 또한 전보다 후히뒤접하여 지금, 영국,황제의 모친, 빅도리아, 녀황폐하가  
 봉셔하시기전에 환갑정스를 잔치할시 본국신민의질겨 경축함은 이르지도말고 각속



대 황 국 영



아리토빅 황녀국영

국속디에 모든빚성이 심지어 야만도종사지라도 다 일테로 경축하며 돈을모화 병원  
과학교를 크게설시하여 빅토리아 여왕의 성덕을기념하였느니 당시지된거슬 괴륙하  
여볼진디 회호세계에 강구연월이 었지이에 지너리오 슈화도한중에들어 군민동락하  
는 참질거운것이 무어신지 모르는 자들로하여곰 보고들을진디 스스로 눈물을금치  
못할지라 그러나 그스적을더말할 결을이업느니 대강 우헤말호것만보아도 족히사람  
의 감심을동홀지라 남의질겁고 편호거시 었지 부럽지안이호리오 당초에 더 빚성들  
도 정치의제도를 못치안엇더면 그 질겁고편호것이 다만 잠시뿐이라 었지 영구하  
기를 담보호리요만은 몬져 그 제도의근본을 안전케하야 온빚성이 다잘못호거나 온  
빚성이 모두무식하게되기전에는 그 부락을 영원히보전하야 출몰호자 업슬지니 었  
지 더욱질겁지안으리오 구라파안에도 녀러나라이 이법으로준호하야 아모리쌍은좁  
고 빚성은적을지라도 능히권리를 남의게 조곰도일치안코 문명을다도는거시 다이법  
의효험을엇어 된거시오 동양에 일본도 거의스십년전에는 세상에서 일홈도 별로알  
지못호던 조고마호 섬중나라으로 정치를변호야 서양개모를준호호면서 곳날마다홍  
왕호야 오늘날 열강국과 권세를다도기에 이르렀스니 이것도 또한 다른연고업고 다  
헌법정치를 모본호야 관민이 흠씩정사를 의논호는연고라 이세상에쳐호야 종샤와  
국가를보전호고 빚성이 안락코저호진디 맛당히 정치제도를못쳐 상하가 흠씩안전호  
법을 행호호후에 가히 유지호기를 바를지라 세상에 어진자는 티적이업느니 모든빚성

과 리익을 평균하고자는 뜻이 었지 어진정스가 안이 리요 어진정치의 한업는세력이날  
마다 자라셔 동으로 퍼져오미 조슈밀듯 넘쳐서 막을수업시 들어오는중에 나홀로 반  
타야막으려할진디 누가 의의며누가 지게는요 이는 스람마다 셀니싱각하여 불일이  
어니와 정치를 종시 변치안이라는다가 멸망에 이른나라들을 대강 의론하리토다

▲정치를변치안이라는손히

류대주의 디방을 비교할진디, 구라파, 유가 가장적어 그러하되 문명부강은 지금세계  
에 제일웃듬이니 이는, 구라파, 유에잇는 모든나라들이 다 정치를 변혁하여 혹 공화  
를모본하며 혹 헌법을유장하여 그 민심을 발달할연고—오 초초 동편으로 벗어오면  
서는 에스적북쳐 몇천년동안을 부강하든 큰나라들은 다 전제하는 에스법을 고치지  
못하다가 인하여 스스로업서짐을 면치못하느니, 구라파, 유 동편싣해, 토이기국,은대  
단이 강성하던 나라으로 지금은 간신히부지하여 날로업서가며, 아프리카, 유 북편에  
이금국,은 세계에 제일오리고 제일크던 나라으로 지금 다 업서지고 간신히 일홈만  
남었스나 영히, 영국의 장악을버서날수 업시 되었스며, 아세아, 유 동편싣해, 파사국,  
〔피시아〕은 또한 상고적북쳐 유명하던대국으로 약간남은강도를 부지치못하게 되었스  
며, 청국, 서편에잇는, 인도국,〔인디아〕은 상고적북쳐 강대하여 근디까지 토디가 넓고  
백성이 많은 나라으로 겨우 스오십년전에 통히, 영국의 차지하바—되었스며, 청국,  
남편히변으로, 섬나, 면전, 안남국,등 여러나라이 다 차례로업서졌느디, 섬나국,〔사

이같은 명석이 겨우 부지하엿다가 지금 그인군이 서로해대닷고 죽기로서 변혁하기를 힘써 그왕조를 각국에유람식히고, 영국에보내여 공부를졸업하엿스며 국중총명자들들을 날로교육식혀 예사법곳치기를 전력하미 지금각국이 다신기히녀여 칭찬하며공담으로 찬조하기를 앓기지안이하나 전혀빅성이어두어 우해서홀로하기어려움을한탄한다하며, 아세아동편에잇는, 청국인족 세계스기에 가장 오린나라이라쌍이가장크고 부요하며 빅성이 데일만하여 가령은 세상사람들을 다 셔겨셔 한줄로늘어세우면 미 네명석이여 청인하나식 세우느니 그나라의 강대함은 가히알게스며지금국권을보전하지못하여 이리저리 썩스겨가며 빅천가지로 남의위협과 토식을당하며 갑오년에 적은, 일본에게 일피도디하얏스며 당당하데국에 쯤고로속하여 인군이 그곳에서 날어나신, 만주의너른성을 제힘으로 보전치못하야 지금, 일본이디신쓰와회복하러하기에 이르렀스니 그나라의 지금셋부지함이 다 각국의 견아상제하형편에인연함이라 장초이모양으로 멧히만 더지니려하다가는 필경 명호도업셔지게될지나 이럼으로 고명한사람들이 헌법을모본하자는 의론을 발과하느니라 기외에 무슈한여러나라의말함을 다 물론하교 다만 우해몇나라으로만보아도 지금던디에 나라를부지하고 못하기가 전혀 정치제도를 곳치고 안이곳치기에 달닌줄을 의심업셔 새달을지라

대기 전제정치밋헤는 나라이 점점쇠피하교 다른정치밋헤는 점점강왕하야가느연고

물 우해도 슈츠 말하바—어니와 전제정치는 첫째 빅성의 무음을 압제로결박하야 시  
비폭적을 들어너서 말하지못하게함의 불평함이밋쳐 서로 사랑하느니 무음이 업서지며  
원협이 자라서 피츠잔히하느니중에서 스스로 업서지며 들지는 심각을발달치못하야 스  
람마다 남과긋치 흥왕하기를 도모하지안코 각각웃사람의 결박하느니거슬 안져밖으려  
함미 타국사람이 들어와서 나의리익을 임의로취하족 즈연히 진익이말나 부지치 못  
함며 세스지는 빅성은나라일의 상관업다함미 빅성이나라를 남의것스로알아 보호  
코져안이하미 남이와서 그 우헤잇는 몇몇집권한이를 후 뇌물로 췌이거나 위력으로  
핍박하여 디신장악에잡으면 모든빅성은 총환방을안이하도 스스로 췌너 들어올지  
니 전제국의 가장 위력하느니라 더 다른정치하느니라 그들은 빅성의 무음에 결박을  
풀어노아 다만 법률과장정으로 일당하게 방한하여 노환안에서는 세상에무셔올것도  
업고 두려울것도업스미 괴운이활발하야 남의뒤에 췌러지기를 죽기보다 실패하느니  
빅성이남보다 나후후에야 나라이 엇지 남만못하리요 서로타도아 압셔려하느니중에서  
필경 한업시나아가 상등국이됨이오 또환 빅성으로하야곰 일테로나라를돕고 보호하  
게하느니고로 저마다 제것스로알고 사랑하여 국권을확장하며 영광을들어너서 도디를  
넓히기로 공업을습느니 남이엇지 넘겨다보며 침범하기를 경영하리오 이러함으로날  
마다 흥왕발달에나아가 데일 부강할정도에까지 이르느니라 그 장단우렬의구별이  
엇지 판이치안으리오 지금 우리나라이 이디경에 이른거시 근본은 다 정치를변혁치



각념기념십스극어의데황태



빛문대남성경



원공양중에울서

못할연고라, 청국(淸國)조차 강대하던나라로도 오늘날강도와 국권을보전키 어려울디  
경에 이르렀거던 흠을며 우리는 십여갑절이 적은중에 남의힘을 받고잇스리 석로서  
불날이 잇슬기 말기 질덩키어려온지라 이쌍에안져서 잇지 중시 변혁하기를 급급히  
경영치안이호리오 이는 유지호자의 김히급히 연구할바라 그중에 합당호정치로되  
홀지니 대강 다시설명하기를 마지못호리로다

▲정치제도가빅성정도에달남

이상에 말호바는 각국의호망성쇠가 다 그정치제도를석라서 되는연고를 설명호이라  
이거솔보면 정치를불가불 변혁호야 될줄은 스름마다 짐작호려니와 모든정치외제  
도가미양 그나라 빅성의정도에 달남줄은 문져알어야홀지라 만일 빅성정도난 보지  
안코 다만 남의정치 구별만보아 망령되히 헤아리되 지금 식세상에는 아모거솔호야  
도 관계치안타홀진디 이는다만 국법에만 득죄홀辨안이라 동양런디에 용랍치못홀죄  
인이라

대더 굽어차란가지는 줄디에 퍼지못호고 안져차란 으히는 당일에 멀니못가느니 빅  
성의정도가 이와호호서 몇천년 몇백년을 전제와 압제아리서곳어셔 의례히밧을거스  
로녀여 스람을 만일 평등으로 되점호라홀진디 웃스람도 변괴로 알거니와 아리스람  
이도로혀 더욱 큰변으로알아 후 존귀호디위에잇서 하천호스람을 경되호거나 슈령  
이되여 평복으로 민간에 순호호는거솔보면 그 아리빅성이 크게늘나 데룡을일코풍

속을흐린다하며 후 반상을현과하고 노복을업시하자하면 더욱이반티하여 명분을어 지리고 럽디들박고려한다하며 후 불법하는관장을결어 송스라하면 곳 풍화를손상 할다하여 모든 이런페단이 이로다 말할수업는지라 후 우헤고명은 관원이잇서 실로 빅성의게 공변되히 리로을 근원을보고 괴어히 실시코져 하다가는 맛츨니 대역부도 의일홍을쓰고 빅성의손에 도로혀 대화를당홀지니 이럼으로 빅성의정도가 이에이른 나라는 압제가 두가지가 잇는지라 첫지 옷사람의압제는 의례히 정치상권리로싱김 이어니와 아리빅성의압제는 또한 풍속에설녀 이풍속을거스리고는 옷사람이 아모리 잘하려하여도 맛츨니 힘할수업는니 이럼으로 옷사람의세력으로 압제하는거시 아모 리크다하나 실상은 아리악한풍속의 압제함이 더욱히큰지라 사람마다 이풍속의결박 을박아 능히 그싱각을 자유로못하는고로 옷사람이 권리를가지고 그 괴악한 풍속을 인연하여 압제하는거시나 만일 빅성이 그 풍속의결박을면하여 각기 남의압제를안 이박는거스로 당연한줄을알진디 그 만흔아리사람을 누힘으로늘녀 압제하리오 몇천 년을두고 나려오며 점점변하여갈수록 심하게된 모든악습속에서 스지빅테가 낫낫치 병이들어 손싷발싷을 싷디할수업는 전신불슈가된지라 졸디에 남의빅여년리 연구하 여진보한 시법을 억지로싱코져할진디 엇지 총돌이안이나며 큰변이업다하리오 그러므로, 영국과, 덕국, 나혼 강국들도 교화와 학문의 무궁한힘을엇어 사람마다 믿음을 얼마 싷발달하여 고금에적중하고 인정에합당한제도를 간신히 참작하여 그 중간법률

을형항의 비로소 상하가 다 편안하고 변혁이 얼마순편히된지라 그럼으로 맛당히헌  
 법제도를 연구하여 시급히시작하여 조곰식키여쓰리진디 과히 출들도업슬것이오 황  
 실과빅성이 일테로 영원무궁히 태산반석의편안함을 잊을지라 이글을지어 헌법을쓰  
 고저한다고 중벌을더할진디 이는 나의일신이 가로가될지라도 두렵지안이하며 스양  
 치안을바리로되 다만 바르고원하는바는 이글보시는이들이 우리, 대한의 급급업업호  
 스정을내달아 숨막히고 괴운근쳐서 거의 죽어가느냐라에 이 한가지 단방약을 급히  
 시험치안이하면 화라 편작이 가 되들어도 회춘할길 망연하리

▲빅성의 무음이 문져 자유홀일

그러혹즉 헌법을쓰는거시 그리어렵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긴급함이 이러듯 절박하  
 나 이것도 우리, 대한인민들의 지극정도를 가지고는 결단코 급히 하지못할지라  
 대대서양 여러나라들은 설립된지가 다 동양국치 오리지안은고로 사람의 무음이 악  
 호풍속의 물든거시 과히 겁지안엇스되 동양 사람은 여러천년을 전하여나려오며 병  
 들고싸운거시 속속들이 비녀들어 여간학문이나 교육의힘으로 졸연히 근인을제하  
 기 어려운지라 맛당히 석교화의 자유하는도로써 오린풍속의 결박박은 민심을 풀어  
 쥬어야 비로소 고질된구습을 벽파하고 초초제성각으로 도쿄엔잔은거슬 뒹흔출아는  
 방향이성길지라 만일 그 무음의 결박박은거슬 풀지못하여 예스풍속의 압제속에서  
 유하지못하며 몸만 자유를엇으려할진디 이는 결단코 되지못할일이라

독립요지

빅성의 무음이 문져 자유홀일

일필일

대더 세상에 천백가지일이 다 사람의 믿음까지에서 생겨되는바! 너 사람이 믿음으로 할려고만 하면 못할일이 없다함이 었지 리치에여의는말이리오 몇만리밖에 안져 숲시간에 언어를상동음과 공중에올나가서 스방으로 횡행하여 세계를유람하며 임의로왕리할과 기외에 모든 천천만만가지의 신괴미묘한거시 다 사람의 믿음으로 하고 저하는중에서성겨 리치를공구하고 법을투득하여 점점 정진하기에 이른것이오 금은 동털쓰어두고 키여 쓰지못한것과 지혜총명바려두고 넘쳐림 쓰지못한것이 다 믿음에 업는연고! 라는 믿음의 업는자는 자연히 헤아리되 사람이 었지 공중에올으리오이 전성현의 못후신것을 우리가할수업스리니 생각도마는거시 올라하며 산천의턱을살코 털로를놓는것이 청룡벽호를 허롭게함이니 후 비도안이오며 다른지방도잇게다하며 하늘은동하고 땅은고요하며 일월이 서로돌아간다 하는말은 성현의 의론이니 아모리 나흔말이 잇다하여도 미지안을바! 라고하며 기외에 모든 이러흔악습이 다 남의 뜻에 압제를받아 조피 믿음에 결박을벗지못함이라 속담에일으기를 상에노은 소금도 집어내야 쓰다하는니 아모리 쉬은것도 할려고안이하면 절로될수업는지라 지금우리나라사람들이 다 믿음의결박을 풀지못하여 아모것도 할려는생각이 나지안이예인 즉 아모것도 할지안코 었지스스로 무어시되기를바라리오 지금사람들의 믿음정도를 대강구별하여 생각의 결박받은거시 었더흔거슬 알니고저하노니

일은 반상의등분을 베풀지못함이라 당초에 스람으로 띠어나가는 상중하의등분

이업서 상놈의 몸도 쓰러면 압하고 글그면 시원하며 놈들만 거스름 들리며 놈보는 것은 보히며 제게 리로운 거스름 보호하고 제게 히로운 거스름 막으며 싱명지산을 보 전항야 넘과 못치 살자는 거스름 조곰도 넘보다 다르지 않은즉 세상에 갖흔 사람이오 나라에 갖흔 빚성이라 도덕상 스업항야 사람을 만히 구제하면 상놈의 일이라고 못 쓴드 항게는가 충신절기국계세워 인군되 신죽을 진디 량반스 손안이라고 소용업드 항게는가 오늘날 량반들의 원시조 되노는 엇더 할 량반이며 엇더 케싱겨는고 지 고로 나려오며 쥬박의 유전하는 충신렬스와 현인군주며 문장명필과 영웅준렬들이 다 량반의 혈속이며 디벌쓰라 되였는가. 오. 하인이며. 순. 하인고 피장부아장 부라 썩 갖흔 량품으로 도덕품형 잘다가서 공업은 덕 들어나면. 송. 우암. 허. 미 수. 가 아모라도 될 것이오 전정에 공을 세워 보국안민 잘만 하면. 남. 이. 장. 군. 리. 순. 신. 을. 저. 마. 다. 압. 두. 항. 야. 티. 디. 로. 다. 토. 어. 나. 아. 가. 며. 나. 의. 부. 형. 과. 조. 상. 만. 못. 할. 거. 슬. 부. 그. 러. 할. 진. 디. 곳. 스. 람. 마. 다. 성. 현. 처. 량. 되. 기. 를. 념. 려. 할. 거. 시. 업. 슬. 지. 니. 이. 거. 시. 곳. 스. 람. 닥. 신. 조. 물. 주. 의. 본. 의. 요. 썩. 혼. 지. 금. 각. 국. 이. 문. 명. 디. 위. 에. 일. 으. 는. 근. 본. 이. 어. 늘. 엇. 지. 항. 야. 후. 명. 조. 상. 이. 한. 나. 만. 싱. 기. 면. 그. 이. 를. 곳. 던. 신. 갖. 치. 놓. 혀. 다. 른. 이. 는. 그. 외. 갖. 치. 될. 수. 업. 는. 줄. 도. 알. 게. 항. 고. 그. 일. 항. 을. 빙. 자. 항. 야. 놓. 혼. 스. 람. 이. 되. 려. 항. 니. 첫. 제. 조. 상. 의. 일. 항. 을. 의. 퇴. 항. 야. 잘. 되. 기. 를. 평. 영. 항. 이. 국. 민. 의. 원. 기. 를. 줄. 게. 함. 이. 오. 들. 지. 는. 스. 람. 의. 스. 상. 이. 티. 디. 로. 앳. 혀. 저. 서. 진. 보. 할. 기. 상. 이. 업. 게. 항. 며. 세. 사. 지. 는. 인. 지. 가. 날. 수. 업. 서. 점. 점. 잔. 약. 항. 게. 만. 드

독립요지

백성스리압이온저주유한일

일필습

독립요지

희생의 모양이 온저 자유호일

일찍이

는것이라 아비는 조부만 못하고 저는 아비만 못하야 되되로 나려지면 필경은 온  
나라이 세상에 데일잔약하고 앓흔사회가 될지라 텃하에 공번된벼슬자리를 전국  
사람다려 한나도 상관말나하고 리정승 김판서의 세전지물을 만들어서 속익을 불  
변하고 기여즈를 몰나도 아모의아들이오 아모의손즈라면 부귀영화가 제것이오  
전국빅성이 제종이라 지조닥가 어디쓰며 스업하여무엇할가 이럼으로 비호지도  
안이하고 문견도 좁아져서 점점 더욱 못되여가미 맞춘니 직척이 무엇시며 도리  
가 엇던거신지 전혀 알지못하고 다만 어려서부터 비호는것은 늬를압제하며 호  
령하야 저의포화만기르고 늬의공심을셋고며 저흔저 스름이오 늬은모다 스람갓  
지안이호 물건으로알어 상놈의지물은 내임의에달녜스며 천한스름의 계집은씨  
아서도 관계치안이하야 저의들의 화복기름이 전혀 량반의손에달녜스니 저의들  
은 다만 량반을받들어 영화롭고호강하게 도아만줄뿐이니 비록 인품이 특출하나  
불과 기천에서 난 룡이라 무엇에쓰드하며 아모리 학식이 출중하야 경던위디 홀  
지라도 엇지감히 벼슬자리를 우렐러보리오하야 이거시 곳규모가되미 상놈의즈  
질들은 아모리 총명영특하나 세상에바를것이 바이업서 경륜이 거절수업스미 또  
호 공부를 힘쓰지안이하야 한업닌인지를 원통히바리느니 전국인민을 통히비교  
하면 량반이 천분의일이 다 못되느니라 더 천분의일은 되나 못되나 나라를위하  
야 일흔다홀지라도 기타 구빅구십구분은 다 그 량반들을위하야 사느스람이니 실

로 나라에서는 천분의 구백구십구분은 다 일허바리고 안존지라 이도흔 빅성들  
 을어림업시 일코안져 날마다 쇠피하여 이디경에 이르고도 빅성은오히려 깨닫지  
 못하여 지금껏 벽파항저 안을썩안이라 후 뒤즈손 누아들이 농흔벼슬을 농엇드  
 항면 그 위인도못지안코 당연히 흥것으로도알며 일도잘흥출로 밋으되 급기편  
 식도업고 디별도부족흥이가 아모벼슬을 농엇다항면 학문지조가 아모리 유명타  
 항여도 존중히 녀이지안코 도로혀 속히 물너나기를 바르느니 저의몸이나 저의  
 즈질이 또흔 학문과지조를다가가 그 디위에올나 그 스업항기를 엇지감히 뜻항리  
 오도로혀 저 지조업셔 썩겨난 량반들을도아서 그밋헤 머리를숙이고 종질항기  
 를 즈원항리니 이거시 곳마음이 농의굴네를 벗지못흥이오

이논싱각을 제썩티로못항는것이라 무슴일을티항던지 무슴말을 들을썩에 엇던  
 거시 춤 리로는가 히로는가 제썩견티로 썩로싱각항지못항고 미양 그스람의 디  
 위와 당환일의 쳐디를싸라 바람압헤 풀긋치쓰러져서 천만인의 의스와츄츄가  
 흥나도소용업고 다만 그중에서 내로라항는 한두스람의 눈치만보아 썩녀갈썩이  
 니 엇지경위가 서볼수잇스리오 세상에 스람이잇고는 시비가업슬수업느니 시비  
 라항는것은 너는글으고나는을라항는중에서 싱기는거시라 진실로 뉘가을코뉘가  
 글은거슬 공정히분별항야 바로 같히여닐진티 무슴시비가잇스리요 스람마다 시  
 비를 분간항는지혜는 다 갖치잇스되 잘다지못항면 거울에 썩세인것긋항서 바

독립요지

빅성의무암은몬저주유흥일

일찍오

독립요지

백그성의 무압이론적 자유론일

일관록

로비치지 못하느니 시비를 항상 바르지 못하게 질명항야 혹은 이러케 알고 혹은  
 저러케 아는중에서 리치가 흔히 뒤집히기 쉬우니 만일 글은것이 득승항야 올흔  
 거시 서지못하게 될진디 관계의 대소를싸라 필경 텨디가 뒤집히고 일월이 밧피는  
 디경에서지 화단이 밧칠지니 엇지 세상이 위티항지 아니항며 스람의 녀려할바! 안  
 이리요 이럼으로 스람의 학문을 비양하느본의가 첫지 지혜의 본성을 거울치치말  
 게다가 인간천만에 본식디로비초여 시비선악과 장단우열을 차차업시 판결코  
 저함이니 기명하나라의셔 학문으로 위주함이 첫지 이주의로 인연함이라 그러나  
 스람의 지혜가 아모리 밝다하여도 한두스람의 일시성각으로 경홀히 질명함이 오  
 히려 부족함념려가 업지 못함고로 아름다운 규모를 마련항야 무슴일이던지 여려  
 스람이 모혀 의론항야 각기 즈괴에 생각디로 무슈히 열명항후 제삿슬싸라 가부를  
 질명항디 가령 그 모힌중에 열스람이 잇슬진디 여섯스람은 올타항고 네스람은 글  
 타항면 여섯스람의 말디로시 항하느니 다만 이슴인이 상으로 몇천만명의 일이라  
 도 다 이 규모를 줄힘하죽 여려 밝은 지혜를 모아 홀일을 열명함이 무슴실수가 잇스  
 리오 이거시 곳 기명하나라들의 인지를 활용항며 국스를 다스리는 공평항법이라  
 조곰도 편벽된페단이 업느바! 로다 그러하나 그 가부를 질명항는 스람들이 각  
 각 제주권이 잇셔 천만인의 의론을 구이항지 말고 제주권디로 말문을 줄알어야 비로  
 소 그법이 공평히 항할지라 만일 식권이 업셔 엇던거시 올흔년지 판단치 못항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두권계있는자의 의견만 쓰라갈진디 그 공평한법이 도로  
 혀 세력있는자들의 기양을도올지라 가령 열한명이 혼가지일을의론술식 다섯스  
 을타하고 다섯은 부타할진디 그 큰일이 전혀 한스름의게설넛스니 그 스름의말  
 이엇더케중대하뇨 이런씨를당하야 한스름의을혼말이 이러듯긴중하며 한스름의  
 을치못한의견이 이러듯 위티흔지라 지금 우리나라스름들의싱각은 모도 양의무  
 리코호여 그 먹이느스름의 눈치만보고 빅덩의집에라도 무리로몰녀가며 저의들  
 의위티함을 알지못하느니라 아모 량반의말이라하면 싱각도안이하고 의례히을  
 타하며 엇던상놈의 의견이면 아모리 도와도 되지못하리라하야 듯기도실혀하거  
 던엇지 싱각을호려하리요 급기가 부를몰을진디 첫저 디답하느말이 나는 남하  
 느디로할거시니 남의게 몬져 물어보라하거나 후이것도요코저것도 요타하거나  
 후내의견은저려하나 아모씨의말이 이러하니 그말되로 서로게다하거나 후 남도  
 다이러하니 나도 그리할수밖에업다하거나 후 량편안면에 구의하면 가부를말할  
 수업다하거나하며 후 부득이하야 가부작정하느것지 남의 일괄을 구의하거나  
 남의스정에 팔남바—되거나하야 당초에 시비선악을 밝히알지도 못하거나와야  
 간아는것도 제모음디로 설명치못하느니 다만 한두스름만 이러할썬안이라 전국  
 인민이 모다 이러하미 여간 한두편 관계되는일도 당초에 의론술수업거던 함을  
 며 일국대스름이 스름들과 의론술진디 무슴일이 공평히되게스며 무슴폐단이성

독립요지

빅성의마암이몬져주유하일

일회철

독립요지

백성의모양이본져자유홀일

일필필

기치안으리오 생각을 조유로못함이 또흔 이것ियो

숨은 스롭이 벼슬에부종하는 노래의스상을 면치못함이라 당초에 스크이싱길  
 석에 높고낮은 등분이업스나 급기장성후후에 그 인품을싸라 지혜로운자는 높  
 의웃스르미되어 권리가 조연만어지니 그 높은디위와 권리를 조리가역지로  
 세았거나 높이 조기를위하여 주는것이안이리 그스르미 조기의 지혜를잘써서  
 모든인민의 두루 리로을 은퇴을베푸는고로 여러백성의모양이 스스로도라가 그  
 스크미 우리를위하여 일을만히하도록 바르느 모암이싱긴즉 그스롭을 여러히  
 밧들어 좀 높은디위를허락하며 높보다 만흔권리를맛겨 그디위와 그권리를가지  
 고 여러스랍들의 공번된리의의를널리 기위하여 일을 더 만히하라 함인즉 실상이그  
 높은스롭을 위함이안이오 여러낮은스롭을 위함이라 그럼으로 벼슬디위는 턴하  
 의공번된 그릇시라하는니 누구던지 세상을위하여 스업만 만히하는자는 스스로  
 민심이도라가 높히 추앙하는바 될지니 여러인민이 추앙하여 그스롭의말을 중  
 히녀이며 그스랍의몸을 귀히밧들진디 명식은 무어시던지 쳐디는엇더할던지 실  
 상권리가 다 그스롭의게잇스즉 세력이 엇지디위에설녜다 할리요 다 스롭의게달  
 녀 뉘가 억지로막을수업고 억지로식힐수도 업는바 어늘 스랍마다 이거슬때달  
 지못하고 헛디위와 명목을인연하여 높다귀하다하여 그디위를 엇은후에야 말이  
 서고 뜻시힘한다함미 무슴일을 높고저한다느자 세상을위하여 조곰식 힘자라는

뒤로 일을 할야 일을 쓰라 힘이 더늘게 할 줄은 뜻하지 못하고 곧 불의 불신 할 일이라  
 도형 할야 지름길로 그 자리를 엮으려 함이 그 자리가 점점 더러워져서 정직한 자  
 는 초초물너가고 간악한 류들이 다 도어 차지하고로 그 높흔 디위가 인 할야 천  
 히 되여 전일에 여간 명망이 있던 자도 그 디위에 안는 날은 민심이 곧 도라안져 두  
 렷 할 일도 의심을 두며 진실 할 말도 미지안이 할야 무슴령을 나리던지 무슴일을 할  
 던지 낮호로는 순종 할나 실상은 관장의 명령을 리웃들은 이의 말만치 중히 녀이지  
 안는 지라 지금 우리나라에 벼슬 디위가 이러듯 하천하게 되얏스미 그 권리를 인 연  
 할야 스업 할 실상 힘은 아조업 다고 할야도 가항 다 할야게 날 이 무식 할 박성 들은 그  
 속을 생각지 못하고 좋시도 할야 말 이 박성은 아모리 지덕이 겸비 할나 어리셔고 무  
 식 할 관원이 할기 전에는 우리가 무어 시던지 할 수도 업 거니와 할야도 되지 안으리  
 라 할야 관인은 나라를 팔아도 막지 못 할 줄로 알며 평민은 나라를 당색에 영, 미,  
 국, 국, 치 만들 도리가 잇슬지라도 도아 주지 못 할 거스르아는니 불과 관인들의 노례  
 되는 생각 뿐이라 엇지 국민 된 중임을 감당 할 리요

대더 좋이라 할야는 것은 제 몸 갑슬 만히 밧던지 적게 밧던지 인심이 관후 할고 의식이  
 녀냐 할 디로 보니 여쭙던지 숨쉬구 식을 못 할야 미나 엇어 마즐 집으로 중가 밧고 팔던  
 지 다 상전의 뜻만 순종 할 뿐이오 제가 감히 알은 체 못 할야 제 몸을 팔아 먹는 악 할  
 상전을 썬나 기습 할 할야 도도 혀 눈물을 흘니는니 이거시 곧 노래의 성질이라 만

독립요지

박성의 망상이 문져 주유 할 일

일필구

독립요지

빅성의 무안이론적 자유주의

일변상

일 살살을 빚치고 또로나가 살나호면 도로그여들어오며 의지가업서 또로살기 실패하느니 이런성질을 벼파호기전에는 결단코 즈주하는 빅성이 되지못할지라 이거시 또호 마암의결박받은 한가지레습이오

스는 사람의 마음이 세력을 의뢰하기도하옵이라 대장부—세상에 나서 맞당히나 의괴운을 굿세게하야 남이 와서 나를의뢰하게할것이어늘 이것을 싣가지못호고 도로혀 남을의뢰호려 단니노라고 괴회와형편을 삼히기에 겨를치못하니 런하에 더럽고 비루함이 실로비호되업도다 즈고로 유지호 남즈는 세력을 두려호야 괴지를 굿호지안이호며 형편을 인연호여 주의를번치안이호며 천병만마가 물밀듯 들어오되 즈괴의 일신을티산곳치 중히녀여 호발거름도 되축호지안이호며 퇴정벽력이 지척에 달녀들되 안식이 불변호고 절기를 굿게세워 천만세에 들어나서 영원토록 빛나느니 은나라. 빅이. 슈제. 는 말을치며 간호였고, 러조(송도) 썩 쟁포은은 대진을 홀로막어 빛난피를세쳤스며 아조(의. 박티보)는 단근을 밟 으면서 의불굿치안엇스며 근리스적으로 말호여도 장신이 동병호여 범킬호는그 동으로 도성을 침범호시. 담비장샤. 호나이 담비쓰을던칼을들고 닥다러 홀로 막어되적호앗스미 지금껏 말호는자 칭찬함을 말지안는바! 라 우리나라에 이런스적을 괴록호랴면 지필을 저당치못호지로다

쇄호다 더스기에 빛는 현철과 영결들은 목숨호나 사는것만 다힘으로 알지안코

목숨외에 특별히중호의가있서 그의를몰으는자는 살어도 죽은줄로알고 목숨을  
 바려 의를세워스미 몇백년 몇천년이 지니도록 써기안느니 이것이 실로 인류  
 에티어 난 본의라하게거늘 지금사름들은 심각이 점점비루하여가서 오늘날에이  
 르러 맛츨너기아미 무리와긋치되어 춤영광이 엇더한것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몰으고 다만 인간의 지극한락은 식식이 데일이라하여 놀기와 살기만 중히녀이  
 뭇무엇이던지 넘시만 맛흐면 스방에서 모혀들고 빗만보면 각처으로 쓰러가리  
 그비루한티도와 부피한행동은 날으지도말고 다만 그정상을말할진디 실로 엇지  
 할수업는인민이되어 이것을 형제라고도하며 지혜라고도녀여 유과 망신은 엇더  
 하던지 님에게부혀 리만성기면 영웅이라하느니 티산긋혼세력을 저흔져 반티하  
 야 악한세상을의의고 의를들어니고져 하느니마암이업스죽 엇지의가 스스로형하  
 며 세상이 스스로잡히리오

대더 세상은 의와 악이 주야로쓰호는 큰 전정 환관이라 기명환 나라에서는 의  
 편을도아 쓰호는자 - 만혼고로 올흔자 - 편함을엇고 그러치못한 나라에서는 악  
 편을도와 쓰호는자 - 만혼고로 올흔자 - 용랍을 엇을수업는바 - 라 그러하축악  
 이강하고 의가악하야 당초에 비교도할수업슬듯하나 누구던지 진실로 밝히알어  
 실났긋치 악한거슬 굿세계 부들고 죽기까지 나아가기를 의심업시할진디 그의  
 가 필경은 세상이라도 의의는법이어늘 이거슬 몰으고 강은편만찾즈니 초소위

독립요지

백기성의무암이본져주유호일

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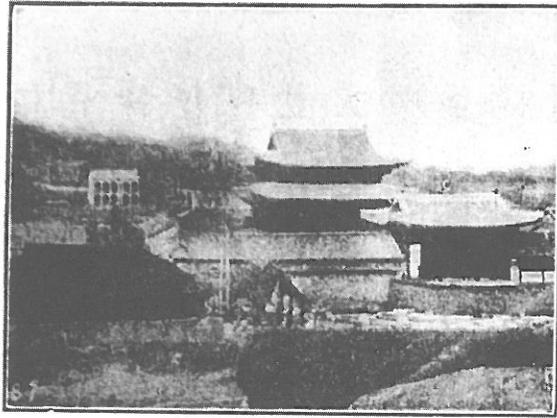
독립오지

민생의 무압이 본져 주유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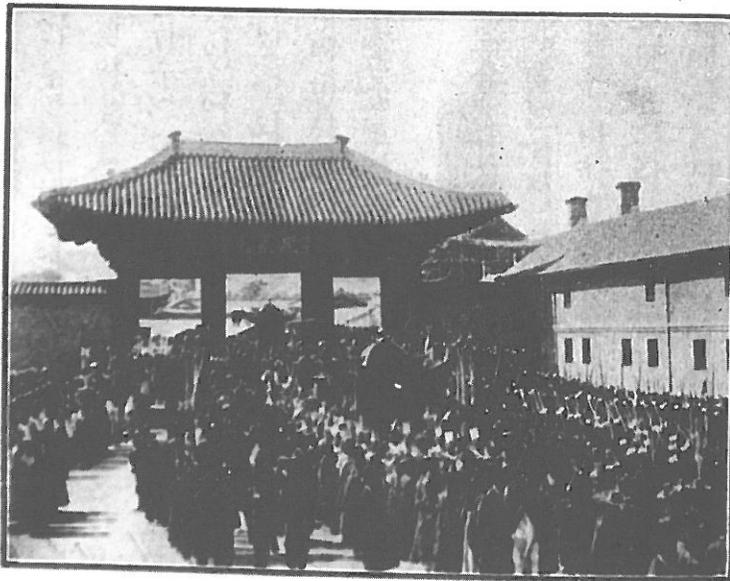
민생이

박쥐의구실이라 날짐승과 길짐승이 편을갈나쓰홀씨에 량편의강약만삼히다가괴  
는짐승이 강호는 날기를감초고 그편에쓰히고 날짐승이이익이면 날기를퍼고서  
편을도으미 그후에는 량편에서 다알고 붓치지안이호는니 이러호무리들은맛당  
히 세상밖게몰아너쳐 선악의전징이 결말된후에 풀어노아 석겨살게호면 비록큰  
히는 업슬지라도 엇지 국민된직척을맛겨 권리를허락호리오 이는 세력이범위를  
벗어나지못호는 생각의페단이며

오는 스롭이 스스싱각을 버셔나지못호이라 스스싱각이라 호는것은 제몸을위호  
는디셔 싱감이니 세상에 활동물로 되어나셔 지양을피호고 복을구호은 다 곳호  
성질이라 이거슬 몰을수잇스며 물으고야 또호 엇지호리오 그런즉 이거슬 스스  
싱각이라 호수는업스나 그 구호는것이 또호 구별이잇셔 남을허롭게호고라도저  
를리롭고저 호는것은 남만호로을썩안이라 제게도 허가크게 되는거시니 이거시  
널은바 스스로은싱각이오 남을리롭게호야 제게 스스로 리가도라오게 호는것이  
공변된리익이라호는니 이리익을 참리로음으로아는자는 인간사회를 유지호는주  
의로 제직척을습는니 이는 스롭의회복안위가 전혀 사회에속호연고—라  
대여 사회라호는것은 인류가 모혀 호몽호치가 된것이니 이슴인만모혀도 곳호사  
회오 밀우어 도성이나 나라이나 온 세상이나 인류가모혀사는무리는 다 호사회  
라 본리인류가 짐승과뵈어서 싸로살지못호고 여러이모혀 규모와질서를 명호고



궁 운 경



의 위 는 시 활 동 거 상 황

이승만은 이 시대의 탁월한 힘이 되어야 사는 법이나 가령 몇집이 모혀사는 법은  
이승만은 이 시대의 탁월한 힘이 되어야 사는 법이나 가령 몇집이 모혀사는 법은  
이승만은 이 시대의 탁월한 힘이 되어야 사는 법이나 가령 몇집이 모혀사는 법은

사회를 만들어 서로의 타향은 힘이 되어야 사는 법이니 가령 몇집이 모혀사는 적은  
 사회로 말할지라도 그 사회가 종용치 못하면 그안에 사는 인척이 엇지편하기를 바  
 르며 그 사회에 지물이 너넉출진디 그안에 사는 자 - 엇지의식이 업스리요 이로 밀  
 우어 나라의 큰 사회를 볼진디 또한 이와 혼지라 우해도 여러 번 설명할바 - 니다  
 시 말들거시 업거니와 이거슬 아는 민족들은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곳 제 집  
 을 너넉히 하는 거스로 알며 나라를 태평케 하는 거시 곳 제 집을 편안케 하는 법인 줄  
 알아 온 사회를 유지하는 공번된 리익으로 숨는 것이 국민된 직책이 어늘 이거슬 몰  
 으면 국민들은 곳 제 몸 하나만 보전하면 그 사회는 업셔도 살 줄로 알며 제 몸만 리  
 로 으면 온 사회가 위태하여도 홀로 편안할 줄로 녀이니 가령 던하에 아모도 업고  
 나 혼져 살면 락이 있다 하게는 가 이는 곳 야만시디에 하등 사회의 주의라 각기 제  
 입과 제 몸과 제 집 사지는 겨오 생각하나 기외에는 도라 보는 것이 업셔서 헛대 붓  
 혀 곳 서로 성명을 열우느니 빅성의 생각이 이러듯 약게 되미 스스은혜와 스스원  
 슈만 중히 녀이고 공번된 은혜와 공번된 원슈는 중히 녀일 줄 몰나서 천만가지 일에  
 리히시 비를 밧고 어싱각 하는 니 이는 마암이 스스 뜻에 버셔나지 못 혼연고 - 라 이  
 싱각을 가지고 나라 일을 의론할진디 뉘가 참 사회일에 리로 올 스랍인지 엇던 일  
 이 참 사회에 유조할스건인지 비교하지 안이 하고 다만 제게 친소 원근을 따라 스스  
 만 위하는 중에서 큰 사회가 스스로 결단날지니 엇지 위태치 안으리요 이는 사회

추립요지

빅성의 마암이 문져 주유할일

빅심습

독립요지

희생의 무상이론적 자유호일

희심소

를유지할출 물은느페단의 근본이오

육은 사람의심각이 구습을바리지못함이라 대더 일을의론하는자는 흥상 여러가  
지를 비교하여 그중에서 나쁜거슬되하여 힘줄출알어야 일이완전하여 남만못하  
게되는 흠결이업슬것이니 남의것과 제것슬 비교하는심각이 몬져잇서야 하여나  
와 설령 비교할심각은 심기고도 제가몬져알던거슬 나쁜줄로녀이느 편벽된심각  
을 배치지못하면 아모리비교하여도 남의요흔것이 참 도케보이지 안이하는성질  
이 저마다잇느니 이럼으로 누구던지 구습에 요케녀이던거슬 도치안은줄을더욱  
몬져 배달은후에야 비로소 리히선악을 바로아느길이일닐지라 흠을며 지금계상  
은련하만국이 지혜를모아 데일편리하고 데일정미혼법을되하여 통행하며 날마  
다진보하여 전에요런것을 리일 더 기이하게하여 점점심길수록 더욱진보함이나  
의업던거슬 남에게비와서 그 비흔거스로 더 기량하여 서로 지혜와 지조를가지  
고 다도아나아가기 어제요흔것을알던자- 오날 더 나쁜거슬알지못하면 어제  
는 남에게 으뜸이되였스나 오날은 발셔 남에게 썩러진지라 이럼으로 점점서것  
으로나아가서 문명이한업느 정도에이르미 쇠거슬모본하는자는 남과치홍왕호  
며 네전것만 고집하는자는 날로쇠함을 면치못하는바-라 우리가 지금이계상에  
처하였스즉 어서밤비 쇠거슬구하여 곳 목마른듯 물찾듯하여야 쓰게는듯 이것을  
배닫지못하고 도로혀 네전것만직히기를 곳 목숨까지앗겨 선왕의구레라하면 참

구레인지 안인지도몰으며 참 도혼지언썩은지도 생각지안이하고 의례히 텅하에 데일이라야 다시 업는것으로알며 조상의 유전행던거시라하면 어니썩부터어 니썩까지 써왔는지 지금세상에 합당할지 안은지 남도이만흔거시잇는지 업는지 는못지안코 의례히 이거슨 곳치지못할것이라하느니 의관제도로만 불지라도 갑 오이전시뒤에 갓망건과 중추막 소창옷슬 조상의 네스법이라하나 우리의중간조 상들이 네썩선조상의 제도를변하야 시로만든 법인줄을몰나서 설령 저의시조들 의 네썩행던법을 다시행하라홀지라도 이거슨 선왕의법이 안이라하느니 일로써 다시밀우어볼진디 지금사람들의 단두루미기와 적은것슬 이아리스람들이 또저 의 조상의 네스법이라하야 만일 큰갓에 넣은것을달아쓰고 횡의나 중추막을입으 라하면 도로혀 조상의네스법이안이라하야 죽기로써 반디홀지니 과연 이만치우 슈은일이업는지라 이외에 모든천백가지일이 이와갓하서 그씨를싸라 변함이업 슬수업고 변치안으려하여도 부지중에 변치안을수가업느니 이는 오늘날 우리의 일용스물을 십여년전에만 비교하여도 가히 파혹하게거늘 종시 우물안고기를변 치못하야 돈썩만흔 하늘을보고 데일넙다하미 태산에올나 스방을 들너본자의말 을 엿지밧고 고지들으리요 인하야 시거슬실혀하며 반디하야 빅반으로저회코저 하느니 이 생각으로써 나라일을 의론하랴홀진디 다만 시법만 준행치못할썩아니 라 도로혀 크게위퇴호화단을 날히킬지니 이거시 구습에서 생각을자유로못하난

독립요지

독립의무와 의무의 자유의지

독립의

폐단이며

철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하는 악습에 물들리라 대더 진실이라 하는 것은 만스의 근원이오, 박형의 옷들이니 진실이 안이면 소진의 구변도 남이 밋지 안이 하며, 제갈량의 의사라도 남이 좇지 아니 하는 리치라 비록 일시에 속인바 1 되어 밋고 좇는다 하나 얼마 못되어 맛츄니 들어나 는 법이니, 흥번들어나 는 날은 뒤가 다시 밋으리요 사람이 밋지 안이 흥즉 합심이 되지 못하며 합심이 되지 못즉 저 혼저 흥일외에 다만 일이 인이상이 흥할 일이라 도 당초에 흥의 도 못할 지니, 그런디에서 무슴 큰 사업이 되여 볼수 잇스리요, 그러흥즉 우리나라에서는 아모것도 흥수 업서 스스로 쇠잔하는 것파 타국들의 날마다 큰 사업이 싱겨 저러듯 부강에나 아감이 실상 근본인즉 다 참것슬 흥하고 아니 흥하는 구별에서 분간됨이라, 지금 대한과, 청국은 무어시데 일만히 결단되었는 나 흥진디 거짓흥거시 첫지라 흥지니 그 거짓악습을 말하야면 실로 한량이 업는지라 우해서는 아리를 속이며, 즈식은 아비를 속여, 남을 잘 속이는 자는 총명지혜롭다 하며, 잘 속이지 못하는 자는 못반편이라, 텃진이라, 흥야 부모가 즈녀를 가라 칠씨에 남에게 속 쥬지 말나 하며, 선성이 데 즈를 교 흥 흥씨에 거짓 말로 칭찬하야, 인간 천만에 여간 관계 잇는 일이나, 흥 상관업는 일이나, 거짓말과 거짓씨가 들지 안는 곳시 업서, 이거슬 레절이라고도 일으며, 이거슬 흥세라고도 하며, 이거슬 권모술수라고도 하며, 이거슬 업슬 수도 업고, 업스면 또 흥 일군의 슈단

이안이랑이야 이거스로 집안을 거꾸며 이거스로 친구를 접제하며 이거스로 나  
라를 다스리며 이거스로 세계를 교섭하리 내 말을 할 때에 속을 두고 말하며 남의 말  
을 들을 때에 속을 두고 들은즉 남의 정대할 말을 속이느거스로 들으며 나의 진실한 말  
을 남이 또한 고지듯지안이랑야 단 두사람이 스스일을 의논할수업거던 엇지나  
라의 근관계를 말하야 절당하리요 이럼으로 세계에서 대한과 청국을 곳 거짓  
말런디라하야 공스나 령스로 탁하여보이면 참정할사람은 이마를 찌어 기리고  
머리를 흔들며 오기를 즐겨안이하느니 이는 진실함을 얻을수업스즉 일을 결당할수  
업슴이라 실로 부그럽고 분한일이로다 이러듯 하야 일을 조처할수업스미남  
이 필경 위협으로 되려늘나 압제로 압박하미 속으로 뇌물을 받쳐 무스함을도모하  
니 이거시 도로혀 후환을 기르느줄 깨닫지 못하느도다 이럼으로 세상에 공도가 업  
서지며 인하야 원기가 줄어들고 거짓거시득세하야 곳 거짓거스로 사느세상이 되  
니 인민의 권리가 어딴잇스리요 협잡이 총총히늘며 폐단이 첩첩히싱겨 엇지할수  
업드경우에 이르렀스니 이 악습에 들든거슬 바리지 못하고 국사를 의논하느권리  
를 얻을진디 협잡과 뇌물이며 아첨하고 청축하느모든 폐단이 총총히싱길지니 비  
록법을 엄히세워 폐단을 막는다하나 법행하느사람이 엇지 또 그 사람이안이리요  
이는 진실함을 중히하미지안이랑야 폐단이요  
팔은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느권리가 잇슴을 알지 못하느 폐단이라 던디 만물이 다

독립요지

독립의요지

독립

독립요지

독립의 단념이 곧 저주요한 일

독실관

조졸주의 창조정신을 받아 형성적식이 괴묘정간하게 되었으나 다 사람의 쓰느바  
— 되지 못하면 맛츄니 혼돈세상에 바린물건이 될뿐이라 이럼으로 그중에 사람을  
너여 가장 신령한 영혼을 북쳐 지혜와 능력이 잇서 능히 만물을 주창하게 하였느니  
이럼으로 사람은 지혜가 점점들어서 오리될수록 물건이 더욱 간절히 싸우느바  
되거니와 증상은 능히 진보하지 못하여 몇천년을 지나되 홍상 혼모양이니 식의  
깃터림과 증상의 굴이며 검의의 줄치는 것과 벌의 살두는 것이며 기외 각식종류들  
의 모든 지조를 볼진디 텃성으로 품부혼지각은 다 얼마쯤잇서 그러하되 그거시  
다 태고적에 하던 것과 조곰도 나홀거시업는지라 이는 다만 증성만 이려할뿐안이  
라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아프리카가 유에 검은인종이나 태평양 모든 섬에 종녀  
님꼴은 살빛인종과 남북, 아메리카 유에 검은인종들의 사는 거슬 보면 모도 태고  
적에 지니던 것과 혼모양이 오 조곰도 진보된 거시업스며, 아세아 유에 여러나라들  
은 이보다 좀 낫다 하나 근년에, 일본이 식로 서양의 문명 교화를 엿어 다시 변혁  
하야 노흔외에는 모도 다 배스것만 직혀서 다만 진보하지 못할 뿐안이라 도로혀  
배스거슬 다 이져바리고 전만 못하게 된 거시 만흔니 가령, 고려씨에 굽던 스기  
유명할 고물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법을 이져버려 굽지 못하며 근자에 일  
본인들이 연구하야 그와 흡스히 만드느바 — 오 기외에 천빅가지를 보면 다 이와  
같아서 전에 우리나라이 몬져형하야, 일본이 비와 좋던 거슬 지금은 우리가 도로

혀, 일본에게 비호며 교화와 정치의 근본이 다 동양에서 생긴것을 서양에서 갖다가 들어 너 노엇스미 우리가 지금비호며 도로혀 서양것이라고닐으느니 다만적물학과 화학으로 말올지라도 지금 서양사람들이 지정지미하게 발달식혀노흔것을보고 스텝마다 그 신괴미묘함을 탄복하고칭찬하나 그 근본인즉 다 동양에서겨물치하는법을 몬져 말하여노흔것이라 우리가 이말을썩에 더 스텝들은싱각도못하던바니 만일 우리가 그후로 날마다진보하엿다면 오늘날 어딴지이르릿슬지 몰나슬터이니 서양사람들이 보고싸라오려고 이를쓰르거시어늘 다만선각의말만 중히녀일줄알고 선각의말을 더욱연구하야 더 낮게하기를 경영치못하미 오늘날날 우리의선각이 놈의선각만 못하게되엿스니 이는 선각을놓히는것도도로혀 약게힘이되엿고 교화로 말올지라도 예수가 동양에서나샤 교를전하섯거늘 동양에서 밧지안이하야 서양에서밧어다가 저려흔 문명정도에 이르렀거늘지금 우리도 그 근본을모르고 서학이라고도하며 혹 서양 교화라고도하야 놈의것이니 알기실타하느니라 스텝의 어리석음이 엿지 이다지심하리요 물을마시면근원을알고져하며 실과를먹으면 나무를뿌는것이 현연한 성품이어늘 엿지하야 이 성품을 전혀바리고 리치와 근본을 알고져안이하야 하느님이 스텝의쓰기를위하여 만드신 런디만물을 다 바려두어 지금셋비와 써볼싱각을 두지 안이하느고로 필경 놈이 티신다스려 쓰는것을 만들려힘이라 진실로앗갑고 원통하도다

독립요지

비성의무암이몬져 주유홀일

빈심구

독립요지

백성의구원이론적 자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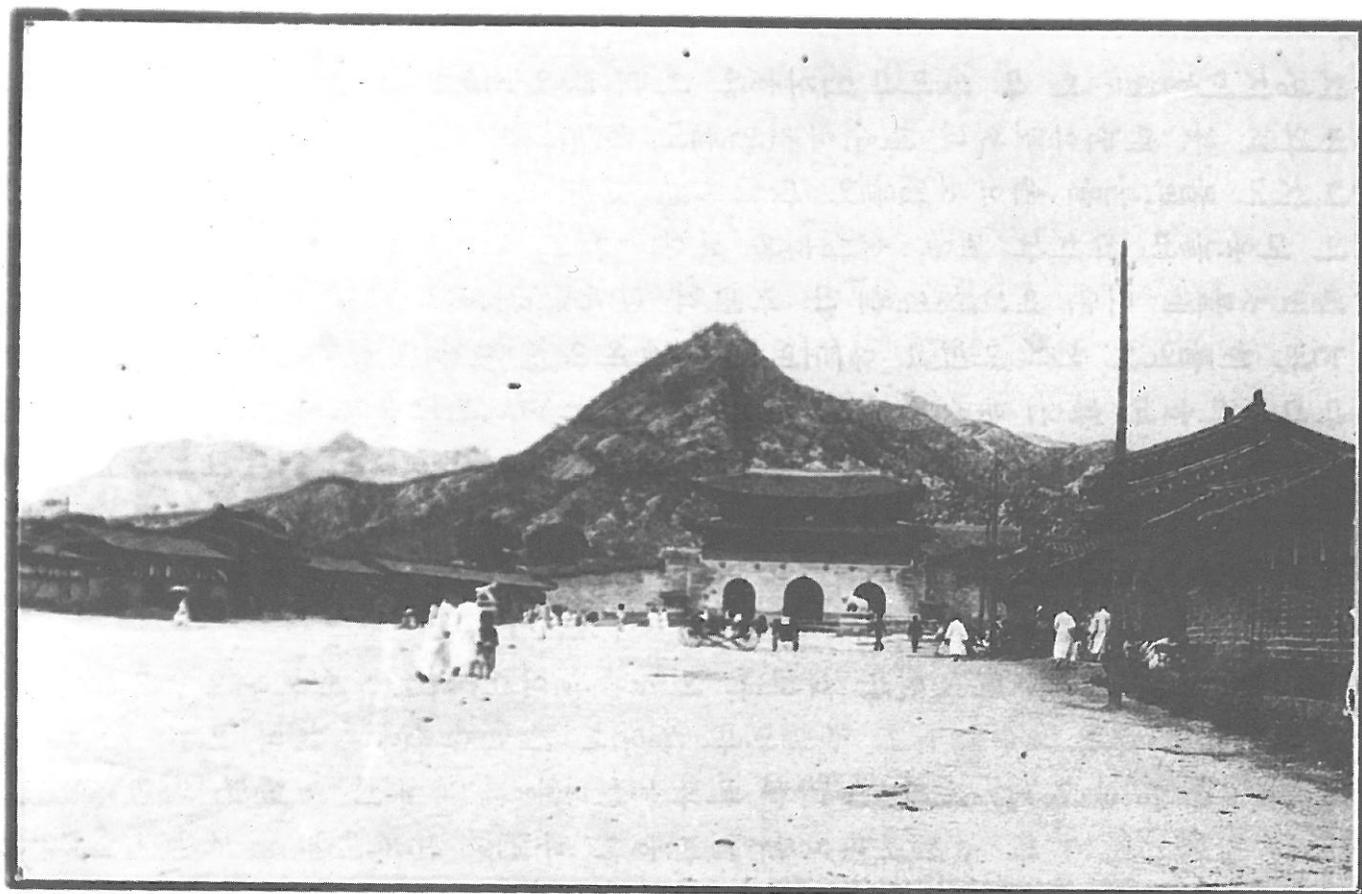
백이성

대더그 언고를 궁구할진디 당초에 사람과물건이 엇더케 싱긴근본을 알지못하  
 는디서 어리석은싱각이싱겨 다만 만물을 바러들썬안이라 도로혀 만물을사람보  
 다 신령하게녀여 일월성신과 산천초목이며 날짐싱길버러지를 할나도 안이섬기  
 는것이업셔 돌쪼각과 흙덩이로만든 부쳐 미력과 우상등상을 곳 신명으로서 위하  
 며 심지어 구렁비암과 가진천루흔미물을 안이위하는것이업셔 텨디간에 가장귀  
 하고 신령한사람의 디위로 더 무심한미물에게 절하기를 붓그러 안이함며 도로  
 혀 더 미물을위하야 사람의맛당흔일을 폐하는것이 무수흔지라 네썬에 의금국,  
 이 망흔썬에 소와 귀와 돛과 괴양이틀 다 위하는고로, 파사국이 각씩짐싱을물  
 아 군스압헤세우고 밀어들어가미, 이금,군스들이 저의위하는짐싱이 마즐가두려  
 하야 활흔변을 쓰지못하고 종종히 항복하얏느니 지금 우리나라 스라들이 이디  
 경사지논 이르지안엇스나 헛것 숭상하논풍속을 궁구하녀볼진디 이보다 별로멀  
 지안은지라 국가에 만분시급흔일이잇셔도 들가시기전에는 쥬문에갓가히못함며  
 화식이 목전에박도하되 점밋고 신밋어셔 예비하지안이함며 이인이며 명인이며  
 관상장이 스쥬장이등 모든 혹세무민하논류들을 밋고안져 제세안민할 방척이잇  
 셔도 들어쓰지안이함며 못구리흔후에야 짐고치며 척력보고야 출입하논 무궁무  
 진흔 악풍피속이 모도 사람의모음을 결박지어 능히 벗어나지못하니 더 미물에  
 속하고 헛싱각에미여 능히 제몸을스유하지못하논 백성의게 만일 나라일을의론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문화광

121

독립요지

빈 의 무압이 문져 주유할일

빈이 신일일

항은 권리를 허락할진디 발달황왕항은 모든 긴급한 사업을 엇지 용맹있게 행하여  
 보리요 이는 인류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음을 알지못하는 폐단이라  
 이상 여덟가지는 다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여 본연의 자유권을 중히 여겨 줄 줄은  
 폐단의 가장 들어는 것이라 이것을 벗파하지 못하고는 능히 빅성된 권리를 엇어 발달  
 진보항은디 나아갈수업는니 사람마다 나문져 이런습관을 깨치고 어서 눈을 깨우쳐 주  
 기로 직책을 숨어야 되게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저할진디 식학문이 안이면 될수업는  
 바—라  
 대더 식학문이라 항는 것은 몇천년전에 어리석게 밋던 거슬 다 깨쳐 버리고 식로히 분  
 명중거와 확실한 본테를 들어 너 아모라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마음으로 싱  
 각하여 깨닫고 믿음이니 서양사람들도 전에는 말하기를 큰 코세리가 잇서 히를 싣고  
 다라난다 항며 혹은 무슴귀신이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라 항야 맞치 우리나라에서 말항  
 는바 히를 먹어 일식이 되며 옥도세가 들속에 잇서 약을 써스는다는 말과 갓흔의견이라  
 범벅스물에 모든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그 실상을 초쳐 너 지혜가 밝히 쏘나미 생각  
 이 더욱 늘며 리치가 더욱 소상항야 괴운을 잡아 번기를 만들며 벽력을 피항고 비를 물  
 니치며 물과 불을 손으로 만들어 당석에서 서로 변항게 항는 모든 괴이한 일을 저마다  
 비와서 꾀제눈으로 보고 제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 텃문 디지 화학등 천종만물의  
 지정지미한 학문이 다 날마다 진보항야 식로 쏘어 너기시라 이 학문을 알지못항면 리

치를 희생할수업느냐 리치를 희생지못하면 어리석은싱각을 베풀수업는지라 엇지 인류의 령혜하고 존귀한디위를알며 령품으로타고난 권리를 중히녀일줄알니요 그런 즉 우리나라동포들의 데일 시급한것이 식학문이라 급급히 공부들힘쓰야되려니와 만일 식학문의 힘을엇어 자유출출만알고 자유의 방한이잇는줄을 알지못하면 또한 그 권리를 엇지못할지라 권리의 한정잇는거슬 불가불 설명하리로다

▲자유권리의방한

대더 조물주의 려디만물을 창조하신본의를볼진디 과연 지극히 공번되여 조곰도 편벽됨이업도다 가장 적은물건부터 한업시 큰것까지라도 서로제어하야 평균히보전하게하셨느니 쥐또흔짐성은 지극히적은고로 별도로라보는자—업슨즉 그 자유함이 한덩이업슬듯하나 고양이가잇서 얼마쯤 못하게하며 고양이의게는 기가잇고 기의게는 호랑이가잇고 호랑이의게는 스즈가잇스며 스즈의게는 사람이잇서 서로 제어가되며 고리또흔고기는 지극히데대하야 바다에서 제어할것이 업슬듯하나 조고마흔 상어의 무리를만나면 그 거대흔몸에 용망이소용업고 마참늑 늑에고기가될뿐이니 세상만물이 다 이러하야 서로 제어하느중에서 스름의 다스림을받느바—니 이는 스람이가장 령혜한연고—라 그런즉 스람의권리는 방한이업서 제 마음과힘되로 극한자유를 힘흥이 맛당할기 이는 결단코 그러치안은지라 더 무지흔짐성들도 지혜를쓰라 권리의크고 적은 한정이잇거늘 엇지 스람이 홀로권리의방한이업스리요 스람은 만물중에 데

123

일 지혜로운고로 직척이 또한 만물중에 제일중중지라 가령 놈의 부모된자 - 이치를 먹이고 입히며 기르며 교육함은 그 부모된직척이나 이직척이있다고 무단히 포박하거나 구박함은 합당권리가안이며 어린듯한 부모의게 의뢰하야기르며 인도함을 밝은즉 맛당히 그 뜻슬술중중하야 바로박어야할지라 만일 제뜻에 호흔것이라고 부모의가라침을 박지안을진디 이는 조유하는 권리가안이라 그럼으로 사람의대 소를물론하고 각각 그직척을싸라 권리가즈지하고 권리를지히면 직척이즈지하니 네썩야만시디에는 각각 힘이강하야 놈을이이는것으로 권리라하엿스미 한당이업셔것니와 시디가 초초기명하야오며 교화가 더욱박아져서 세력으로달도던 권리를감하고 법률을만들어 한당하리 가령 백성이모혀 한 쌍을작만하고 평간히난호어 집을지을시 각각목에오는쌍을 한조각도 너노치안으려할진디 가온디셔스는 사람들이 길어업셔 바그로 동치못할지니 맛당히 백집이 각각 조곰씩너노아 길도늬고 공원디도 만들어서 일데로 편리하게하야 능히 그사회를 유지할지라 만일 내지산을 보호할권리가내게잇스니 너노치 안으리라할진디 세계가 그저는 지닐수업스즉 필경 강포한 자가 나서서 치고싸앗는 폐단이셀닐지라 나라를세운것이 또한 이와갓하셔 그나라안에서는백성들이 각기 제권리를 찾는다고 공회를 생각지안이하면 방한이업셔서 그 권리를 보호한다것이 도로혀 그 권리를손해할뿐이니 이럼으로 법률을당하고 그 법률안에 방한을당하야 서로편리케함이라 만일완악한자 - 제권리만보호하기 위하야 그

독립요지

자유권의방한

법이심습

법률에 벗어나진디 제권리를인연하여 여러사람이 었지그스름의권리만 중히녀여 저 그들의 권리를일코저항리요 응당 절제하여 그스름의권리를정지하게홀지니 이럼으로 권리를중히녀이던 빙성은 법률을 몬져 공부하여야 그 법률만 의의지안이항면 그 안에서조공도 남이금지홀자—업는줄로녀여서 각각 제물을 다스릴줄아는고로남 이다스림을 방지안디니 다만 국법만 이러홀썸안이라 여간 일이심명이 모히는적은 사회에도 또한 규축장정이잇서 아모리 귀중하고 존엄한이라도 그 좌석에 참여하면 곳그규축을중행하며 밀우어 온 세상으로말하여도 또한 공법이잇서 이 경위되로준 형상디니 그 대소의구별은비루담으나 공변된본의는 홀가지라 스름이 제권리를보호 하여 남의게일치안이항며 제물을다스려 남이다스림을 방지안이홀진디 그나라이또 한 나라권리를 일치안이항며 타국의다스림을 방지안이홀지라 이것은 다스름의 몸 에 설년권리를중히녀여 나라의권리를 보호하는근본의 대강을말함이어니와 지금우 리나라의 독립권리가 었더호형편에잇는것을 알아야 비로소 무슴침각이 날것이오지 금형편을알라면 맛당히 지는력스름 몬져상고하여보아야 비로소 리력을알나로다

▲대한외국법리력

대한이 단군의후로 거의오천년리에 당당호 독립강국이라, 고구려,세에, 슈,양,데,가 일백십삼만병을 거나리고, 조선을 침로홀서 습십여만명이, 요동을 지녀, 압록강, 을 건너 평양까지 이르렀다가, 을지문덕에게 피항하여 겨우 이천륙백여명이 살아건



安市城  
李世民  
中矢傷  
目圖



동국명장양만춘의 화살에 당태종리세민의 눈이 상한 것



子箕신호興倡를化教  
의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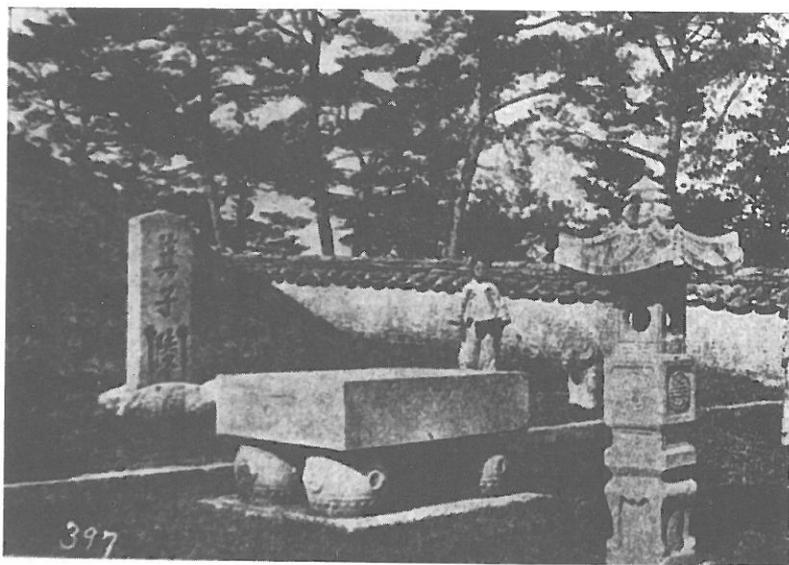


조 기

의君檀신호立創을國東  
像



군 단



능주귀는잇에양평



乙支文  
德清川  
江大破  
隋軍圖



乙支文  
德遺像



덕문지을장명국동



상피항야 물너갓스며, 원나라, 씨에는, 원나라이, 일본을치고저항야 스신을보너여항  
 북항라항미, 일본이듯지안커날, 원나라이 대로항야, 고려와 연합항여, 일본을철서  
 일병이, 고려에게 대피항바-된지라 이에, 고려군스를 크게 칭찬항여왈, 몽고군스  
 가 아모리강항고 쓰흠을잘항나, 동국, 군스를 싸를수업다 항였는지라 기외에 빗는스  
 적을 다 말항자항면 훈두가지가안이라 일일히 들어 기록항기 어렵도다 후 병력을들  
 어 위엄도보였스며 후 교제로상통항야 평화전쟁의 즈주항는권리를 일치안이항야동  
 방에 강항세력을 다도었느니 지금, 구라파, 주중에잇서 강국들과 권리를던등항는적  
 은나라들의게 비항바-안이라 지금 래셔의 몇몇독립국들은 다 여러강국식이에세워  
 여러나라의 상제항는 세력중에서 능히부지함이니 만일 이세력이업시 다만 훈 강국  
 파 쓰호라할진디 능히부지할나라이 몇치못될지라 우리나라는 조고로 연합항나라이  
 중원, 일본, 두나라뿐인디, 일본은 바다를막혀잇서 피츠상통이 즈연히말었스나, 중  
 국은 토디가상접항야 호흡을상통항는중 조고로, 중국,의 강대함은 동양의 티적이업  
 는바-라 일조에군스틀닐희혀 물밀듯들어오면 압뒤에도아줄자-업섯거늘 홀로티적  
 항야 번번이 승전항스적을 우헤기록항것만보아도 우리나라 산천이 웅장치못항거나  
 인민이 강한항지못항다 닐을수업는지라 점점인지를발달항야 부강에 나아가기를 힘  
 써스던들 오늘날, 영국이 조고마흔 섬세당이속에서 닐허나 런하의강국이됨을 부러  
 워항지 안엇슬지니, 주, 문왕이 빅리로 왕던항함이 족히 자랑할거시 업섯슬것이어



像의臣舜李호船龜造創



거북선을창조한  
리순신



鄭起龍單騎逐賊圖



임진왜란에 단거리로  
돌아온 적을 쫓아  
죽인 그림

千古勇士金德齡의像



천고용사 소요만고  
충신 김덕령



王仁授學圖

개외주왕본일이인왕소명국동  
것논호슈교을문한

늘 심각이 먼디밋치지 못하여 한갓 이속에서만 서로 권세를 다투어 식기로 서로 잔히  
 하며 영웅을 바려 쓰지 안았으며 흉을며 부피호선비들이 소위 도학을 힘쓴다고 인심을  
 결박하여 활발한 기운이 싱기지 못하니 날로 잔악한 티 이르러 스스로 설수업시된지라  
 아쥬 임진년에 이르러 왜장 평슈길 이 이정형을 삼히고 군사를 날호혀 침로하니 각처  
 에서 명장과 충신이 날어나 적군을 퇴적하다가 전망한 자도 많으며 승전한 자도 무수하  
 였스니 리순신, 류성룡,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 등 모든 유명인이 가쳐쳐에서 나  
 왔스되 다 식기와 침소하는중에서 성공할 자리를 잊지 못하였스며 혹 자리를 잊고라  
 도 또한 기운을 퍼지 못하여 영웅의 뜻을 다하지 못하니 일병이 무인디경곳치 들어와  
 종사가 위태하게 되었다가 명나라 장수 리여송의 조역함을 넘어 왜장을 막으니, 일  
 본이 별로 리롭지 못하고 물너오스며 그후 병조년에 이르러 대병을 지니니 지얼마 못  
 되어 원기가 밋쳐 소성치 못함중에 한이 괴를을 타서 침로하여 화식이 박도함이 부득  
 이 머리를 굽혀스나 그러듯 위급함중에 죽기로써 절을 굴치말자고 굽세히겨르다가  
 척화당으로 죽은 자도 또한 무수하였스며 세조와 대군의 존귀하신 옥테로 적군에 잡혀  
 가샤 무지함, 호한에게 곤욕을 당하시며 심지어 윤집과 오달제와 홍익한, 세충  
 신은 호진중에 잡혀가서 무수한 악형을 당하며 오랑키 썩기틀 그치지 안이 하고 충  
 절을 세워 빛나게 죽었스나 지금에 습학사의 일흔을 묻으는 자 업는지라 천추만세에  
 무궁한 영광이 스기와 곳치 유전할지니 후세에 충신들로 하여곰 당시에 곳치나서 갖치

독립요지

대한독립의력

백이신철

쥬지못함을 무궁히 한탄할지라 이후로 거의 숨막년동안을 소위 쥬공훈다는 명석이  
잇섯스니, 동국, 오천년스기에 이르러 더러운욕이 업는지라 길게 영웅으로 향여꿈  
기호는물을 금치못향야 성주명왕과 충신의스가 북벌을 경영으로 전징을예비향였스  
되 맛츠니 그 뜻을 일우지못향였스니 이는 다름안이라 소위 도학을숭상한다는 선비  
들이 망령된의론을뒤여 천명을거역지안는것이 올라향는중에서 인심이 스스로 슈치  
를이져바리고 구츠히 편안함을 싱각향야 국권회복할 의론을들으면 곳 양화물 쥬취  
훈다향며 위망을지축훈다향야 감히 이런뜻을 말향지못향게향였스즉 이중에서 무슴  
싱각이 날수잇스며 싱각이잇기로 무슴일을 행향여보앗스리요 이럼으로 스랍의싱각  
이 점점이두어셔 갑오이후까지도, 청국,을비반향고 독립국이되는것이 의업는일이라  
향야 대청년호를업시향고 건양이나 광무년호를 디신향는척력은 보지안는다는 무리  
석지잇섯스니 도학을숭상한다는 무리들의 독향히가 이르러트심향지라 진실로 통분함을  
을 의의지못향리로다

▲청국의완고함

청국인족 요순이후로 문명이일족되여 교화와정치가 선미향정도에 이른고로 인  
향야 교만향싱각이싱겨 탄하에 나혼저만 나라이오 기외에도디를상접향 여려나라는  
다, 동이, 서유, 남만, 북적의 모든 오락키라향야 쥬고로 후 화친을 청향거는 스신  
을보너는 나라이잇스면 곳군스를보너여 쳐물나쳐거는 힘이부족향면 공쥬를 시집보

되며 독립권을 후이 주어 달지 아니 되거나 나 홀뿐이오 급기 곤욕을 심히 당할진디 마지못하여 하느님말의 오랑키들의 계는 도훈말을 들어도 깃볼것이 없으며 악한말을 들어도 성닐 것업다 하여 한 고조 시절부터 홍상 이리케 지니여 왔스니 교만방조 혼성각으로 세상에 나흔스만 잇다 하여 남과 상동흥기를 엄금하였스니 런하에 이러듯 고루하고 편벽됨이 다시 어디잇스리오 설령 레박게도 강할나라이잇슬진디 맛당히 얼마나 크며 엇더케 강할것을 비교하여 보아 나도 더 강하게 하여 쇠피하기 에 이르지안이 할것이오 만일 다야만이나 오랑키와 하여 나와 비교할수 업는 줄로 알진디 더욱 나의 문명기화를 볼 볼나들여 하여 모도 다 교화에 들어와 갖치 문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도리에 도공평하고 내의 세력도 더욱 들어날 것이니 이는 곧 영국, 미국이 런하에 힘세 하는 본의 어늘 엇지 하여 나의 높은 교화와 나의 도훈문명은 나 혼저만 알것이오 내나라만 힘할바라 남의 거슬 보기도 실코 내것을 남보이기도 실타 하여 세상을 등치안이 할기로 작정하미 이상한 인물과 이상한 의복이 내디경에 들어 서면 잡아 죽이기로 작정이오 내벽성이 디경을 넘어 남의 디방에 들어가면 곳 잡아 업시 할기로 만고에 바고 지 못할 국법을 숨었스니 런하에 이러듯 편벽됨이 어디잇스며 악한 풍속이 어디잇스리오 이러듯 적히여 거의 류삼년전에 이르러 영국과, 법국이 비로소 통상하기를 청하거늘, 청국이 그 인종들을 서편오랑키라 하여 막고 드리지 안는 지라, 영국이 군사를 하륙하여 북경에 돌입하여 대립을 불을 노으미 전국이 소동하여 위티함이 조석에 달난지라 부득이 통상하

독립요지

청국외와 교할력

백이십구

기물허락하고, 광둥에거류디틀러서 외국인을살게함미, 영국,스신이 북경에들어갈시 영인이 한문을모르느고로 스신의수레에 크게식여글이되, 영국이 항복하려온다하야 보논사람들이 속게함며 또한 스기에기록하여알 모년모월일에, 영국이 와 조공한다 하였느니 이는 세상을어리석게하야 형세를 강하게고저하논 어두은루습이라 이후로, 법국이, 안남국을치지함며, 섬나국이 색로나되 아못말도못하였고, 영국이, 면전을 점령함며, 일본이, 유리국을 빼아스되 또한 잊지못하였느니 이는 다, 청국에속국으로 오리그밋해들어 감히 버셔나기를 생각지못함며 또한 감히 침로할자 업던바러니 일조에 양인의세력으로 분분히쳐여니미 그형세를 가히 다도지못함을출매 달은지라 다만 그형세에 장한출만알고 그나라이 어티잇스며 대소가얼마나함며 정치법률과 인정이 엇더함고 풍속이 엇더함것은 적연히 아지못함미 모르는중에서 의심이싱기며 의심중에서 겁이나셔 서양사람이라면 곳 호랑이와긋치 두려워하야 티함여서는 감히 머리물들지못함며 도라서면 곳 양국귀신즈식이라 혹 서방 오랑키종류라하야 만일 그사람들의 교화와풍속을 알아보라하논자 | 잇스면 곳 이단의교를비혼다 이국인과 잠통한다 약을먹여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한다 어린히를 썬면 다스람의눈을빼인다하야 모든 어두은싱각으로 무단히 의심함미 관원들이 위력으로잡아쥬이지안이하면 비성세리모혀 후살히하거나 군축하야 견디지못하게하느니 이럼으로 상하관민무론함고 세상형편을 알수업스며 제나라디도가 엇던지몰나셔 어티서어

더서지 제정인지 아닌지도 알고저하는지도 알지라, 아라스가 이삿살값하고 비밀히, 청국 정부를 썩여먹고 더 영, 법, 량국은 다 놔두고 독립을 함이여 호랑자 호룡심 이있는자들이니 심히위험한지라 우리는 천하에 형제도 부강하고 토디도 썩은너냐야 놔의거슬원치안이하니 우리와 협력하면 갖가운리웃에 서로돕기도 쉽고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다하는지라, 청국이 얼마마쯤 의뢰하는모음이 성기는고로 아라스가 이히마 다, 청국, 지방을 누에가 썩럽먹듯하야 들어오되 청인은 그디경을 분간하지 못하고 전분히 그러하던줄로알아 부지중에 일흔것이 후룡강일디지방으로, 대한, 북편디경사 지련락하야 함이 이승싱가량에 이르거늘 청인은 종시때맞지못하니 동방에 위급함이 이러듯 급급하도다

▲일본이홍왕호스적

일본은 세계에, 왜국이라하던나라이라, 대한 동편에잇서 조고마흔 섬세명이로되었느니 토디와인민이, 대한에 비교하면 조곰 더 되는지라 조고로 인민이 강한하야 무 괴를상상하며 교화가부족하야 괴이흔풍속이 만흔지라 허중에 색로잇서 밧게침로함 이업는고로 조존조대흔성품을 저의세리길너서 놔의게굴음을 밧기는 죽는것조치너 이논고로 하라기리라하는것을 도케너이는 풍속이잇서 놔의게 무단히시키고 억울함을 당할씨에는 제손으로 비를갈너죽기를 맞당흔의로알아 적게관계되면 혼들이오 크게 관계되면 오류심명식흔씨모혀 서로일으기를 우리가 이러저러한 슈치를당하고 더러

독립요지

일본이홍왕호스적

백송선일

히 사는 것이 영광시러히 죽는 이만 못하도 하고 저저히 칼을 잡고 남녀로소가 일시에 살  
어안져 머리를 급혀 작별하고 그 자리에서 곳 오장을 쏘다노코 업디려 죽는지라 이런  
일이 비비유지하다가 근리에 츄츄 업셔지는바 | 니 그 한독홍성품은 죽히 칭찬할바  
| 아나나 남의게 무단히 지기 싹허는 괴운은 가히 본받을 만흔지라 백성의 괴운이 이  
러흔족 아모리 강흔나라스람이라도 감히 무리하게 디답지 못하느니 이것이 가장  
유권리를 보전하기에 특별홍성질이오 또흔 네 풍속에 량반을 돕히고 례법이 심하야 귀  
죽은 몸에 칼을 츄고 단이느니 이는 싹레하느라 버혀죽이라하느니라 인명을 초리  
곳치녀이는 독흔 마음과 열니 지못흔 풍속중에서 이 천오백여년 동안을 유전하야 나려  
오며 더티로 혼성씨가 인군노르스를 향엇스미 이는 각국스괴중에 업는 일이라, 한, 청,  
량국변방을 종종침로하야 홍상괴롭게하며, 빅제시절에, 조선에서, 왕인을 보녀  
일본왕즈의 스승이 되여 론어와 천즈와 다른척을 만히가라쳐주엇스며 또, 일본, 국문  
(이러파)을 만들어 주엇스미 그나라에 글쓰는 법이 비로쇼 이셔부터 성것스며 그후  
에 또 우리나라에서 금부처와 불경을 보녀엇스미 지금, 일본이 숭상하는 불교가 다  
이셔에 들어간 것이오 그후에 또 련문과 척력을 만드느 법과 의술과 풍류하는 악공과  
질그릇과기와 굵는 장식들과 간장만들며 술만들며 옷만드느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  
서 들어가서 법을 가라쳤느니 당초에는 이러케 열니 지못흔 인종으로 우리나라의 문  
명을 비화다가 얼마쯤 열난바 | 라 그셔에 정치제도를 불진디 쌍을 버혀 난호아 봉흔

제후가 있어서 각각 권세를 잡고 정사를 주창하며 그중에 관직이 있어서 인군의 권리를 더 신중히 인군은 다만 헛일일뿐인것을 오 실상 권력은 업섯느니 임진년 전징이 역시 다 관직의 임의로 칭호바라 이 전징에 일본이 인피습직장을 조공하였으나 이는 그쪽에 었던사람이 일본에게 병화당할것을 등분히 녀어던인말이오 실상 인족 한 일량국이 이쓰흠끗해 평화로 언약하고 부산항구에 거류지를 당하여 일본인이 와서 살게하고 변방에 수자리를 두어 우리나라에서 미년에 십만량씩 경비를 허비하다가 일천팔백륙십구년에 이르러 비로소 업시하였더라 서양사람들이 일본이 인족을 짐작할후로 간간히 와서 상업을 통상하려하나 일본이 다 막아들이지 안이하던니 일천팔백오십삼년에 미국이 군함을 보이며 억지로 통상을 트니 그후에 일본이 세상 형편을 삼히기 위하여 스신과 선비를 보이며 교제를 친밀히 할시 서양의 부강 문명을 형편을 대강 새닷고 본즉 남이 와서 통상하는 것이 나를 희코져 하는 본의가 안인 줄을 짐작하며 나라를 유지할라 면 서양 제도를 모본하여야 될 줄을 알지라 이에 총명지혜한 선비를 택하여 구분히 보이며 서양에 가서 공부하게 함이 그 학도들이 각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후 그 한이 차지 못하여 각각 도라 오고져 하는지라 그 연고를 들은즉 서로 의논하는 말이 우리 가 본국의 잇슬씨에 세상 형편이 었던지 전혀 몰으다가 여과와서 공부하며 삼척 본국 동양 형편이 이러듯 위급한지라 더 위급한중에 안져서도 었던지세를 알지 못하니 우리 가 홀로 위턱함을 보고 었지 공부만 하고 안져 세월을 허비하리요 맛당히 곳 도라가

네나라국민을 다 혼들어매와서 흠뻑 동양을보전하는것이 을타하고 곧 도라와서 후 정부에 들어가 권리도잡으며 후 민간에나서서 글도지어전파하며 연설도하야 민심을 고동하며 습권을벼파하야 상하가합심하야 봉건제도를혁파하고 권리를 정부에돌려 보내고 황실을납혀 실권을회복하며 정수를곳쳐 네전폐단을제하고 서로히 기명혼제 도를 차례로모본홀시 도든완고세가들이 구력반타하미 기화변에서 잡혀죽은자도 무 수하며 중상을당하고 간신히면하야 병신된자도 여러명이라 다행히 지금 명치황제 의 총명과단함으로 형편을 몬져깨닫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을 용서하야 중임을 맡기며 슈구당을차례로몰아내고 기화당을벗들어 시법을실시홀시 헌법을세워상하의 원을설시하고 백성을허락하야 나라일을 의논하는권리를앗게하미 외국에가서 공부 하는자 - 날마다늘어 사람이 다 누구던지 학문만다그면 못할것이 업슬줄로알고 집 과 솟이라도팔아 경비로장만하야 영, 미, 국에 건너가서 졸업하고 돌아오는데로 그 지조를싸라 권리와직업을맞기미 점점 석학문공부하기를 즈기의 목숨구하듯하야 이 습신된자들은 남녀를물론하고 그성질과 모양이 다 서양사람못치되미 전후스십년동안에 전국에하나도 변치안은것이업서 세상스름들이 날으기를 일본은 다만 그나라 일흥 두글자외에 변치안은것이 업다하느니 이러듯 속히변혁함은 세계스기에듬은일 이라 나라에 신민된자들로하야끔 족히 부러온 마음을 의의지못하리로다

▲아라스정치력

아라스, 청국, 북방에잇서은국, 구라파와, 아세아를 반에결쳐안져 텃하에 데일 큰나  
 라는, 영국과 이나라 들을치는바—라, 영국은 각처에 훗혀진속디를 다 합하여쳐야  
 큰 나라이오, 아라스는 혼덩이로 이러듯 크게되였느니 그 폭원의너름을 가히 짐작  
 하게스나 다만 디구북편탓해갓가와 그후가극히차고 널은들이 심히습하야 스를살기  
 에 합당치못한곳이만으며 모든항구가 반년동안은 얼음이 풀나지안이하야 동서양에  
 전정이잇스면 군스파송항기에 심히 불평호고로 호상 얼지안는항구를 엇고저하는바  
 —라 조초로 풍리가열나지못하야 지금껏 야만시러운풍속이 만히덜나지안앗스나 이  
 전스기를보면 더욱괴악한 스적이만흔지라 일천륙백칠십이년에 대피두(피리)이라  
 하는인군이나서 정스를 그미씨의게맛기고 미복으로각국을유람할시 남의문명진보참  
 을보고 조그나라의 열나지못함과 곤궁잔약함을 단식하야 크게번혁함을 밍세하고비  
 짓는장식의게 고용이되여 비짓는법을 공부하여가지고 나라에도라와 정스를 곳치고  
 풍속을 변할시 영특한슈단으로 완고한민심을 도라보지아나하고 용맹시러히 행하나  
 다만 신하가어둡고 비성이 열나지못하야 그 신민을 다리고는 졸연히 성공하기어려  
 은지라 이에서양사람들을청하야 들어와입적하고 살기를원하는자는 그자적을싸라벼  
 솔도식히며 쌍도버혀주어 내신민이되여 나라를돕게하미 지금도 그나라에 여간평민  
 이라도적이 상등디접 밝는사람을보면 다 얼골빛치 흰 인종이요 모든하등사람은다  
 살빛치누르고 형용이추호인민들이라 이러듯 힘써행하미 나라를중흥하여 노엇스미

독립요지

아라스의정치력

백송설오

지금 저러듯 강대하게 된 것이 다 이 인군의 괴초잡은 것이라 이럼으로 그 서울을, 피  
독보(피리스박)이라 할야 그 괴대하고 사업을 천추에 괴념하는바라 그러나 그나라에 본  
도박성을 위하야 의논하는자 - 종종말하기를 이 인군의 공업은 심히 크다 할게스나 본  
도인종의게는 크게 원한을 품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바라 이 인군이 평성에 각국을  
병단할 욕심이잇서 스방으로 도디를 널니 확장하고 맛츠티 장성을 계획이업서 욕심을  
취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줄 모져 생각하리라 미리 열네 도목 유언을 지어 김희간슈하  
고 그후 즈손으로 하여곰 디디로 유전하며 비밀히 감초고 형편을 싣라 본셔 할라 하엿  
느니 그중 대지가 강하나라와 몬져 할야 적은 나라를 난호어업시하고 그후에는 틈  
을 타서 그나라를 마자 처업시하며 즈유하는 나라에는 혼인을 동호거나 달니 결연하야  
몬져 뇌정을 간섭하여 권리를 주장하라 하며 모든 이런 궤환간교한 계획의 뜻이 가장  
음험하리라 그후로 루디 인군 되는 이들이 다 준행하야 효험이 만터니 근리에 이르러 그  
글이 발각되여 세상에 들어나니 그 무한한 욕심을 알고 각국이 크게 두려하야 스람마  
다 전파하여 하나도 모르는 자 업도록 만들미, 구라파, 유에 모든 나라이, 아라스, 의 세력  
을 막기로 데일 긴급문예를 숨지안는자 - 업는지라 일천 팔백 오십 구년에, 아라스, 와  
도이기, 두나라 전정에 각국이 일제히 나서서 쓰흠을 간섭하야, 아라스, 와 약도하고 후  
히어 구를 다시 건너 임의로 나오지 못하게 하니 본리 후히는, 아라스, 합디가 서양으로  
나오는 길목시라 이 어구만 막으면 서양 각국에는 감히 엇지 할수업는 연고라 이후로

아인이 감히서으로 다시 엿보지 못하고 벌곳치람하는 눈을 동으로도리키니 밤중중후  
런디에 허다한싱고기가 무수히 널넛는지라 일천팔백팔구십년간에 서빅리아혈로를  
시작한야 류년을작명하고 일만오천리가량을 통행어나오니 이는 그서울에서 군스를  
파송한야 아세아, 유 동방뺏해 나오기를 지척사치하고저함이라, 허삼위로 지덤을습  
으니 곳, 대한, 북도와, 청국, 동편에 련접한곳이라 이디방에달하여 동양런디를 임의  
로 호령하고저함이라 서양에서 막은불이 동양에 밋쳐오는지라 그 위급절박함이 실  
로 조석에 달넛도다

▲서양형세가동으로벗어옴

아라스의 세력이 서양으로 벗어가지못함은 다른연고가업고 다만사람마다 그육심을  
세달어 가는곳마다 숨가며 방비한야 그계획에 썬지지 안이하고 일심으로 합력한야  
막어느는연고! 라 동양각국도 진즉 그형편을새닷고 서로방비한야감히 다른육  
심을 부리지못한것슬터인디, 한, 청, 량국은 아조물이고안져 점점벗어들어오는 화근  
을 방비한지 안이한즉 그형세가 심히위티한지라 만일 아라스가, 청국을향하여 호  
령만 크게한여도, 청국이 곳 두려한야, 대한은 본티우리것이 안이니 앓길것이 업  
다한야 제것처럼허락하고 저만 화를면한것일것시오, 대한인즉 해아리되 괴왕에남  
의속국되기는 일반이니, 아라스의 속한것이기 과히 원통타할것도 업거니와 설령원  
통할지라도, 청국의 세력도 거절치못한것던 함을며, 청국이 티적하지못한는, 아

137

독립요지

서양형세가동으로벗어옴

빈손심철

라스를 잊지 감히 항거 할 리요 할야 영원히, 아라스의 입에 들어가기를 면치 못할지니 만일, 대한이, 아라스의 들어가면 일본이 스스로외로워셔 또한 홀로부지 할기를 바르지 못할지라, 일본이 독히 이형편을 삼히고 주야로 백성을 교육 할야 이 뜻을 알게 하며 군스를 길니 국제를 강케 하고 일변으로, 한, 청, 랑국을 매워 갖치방어 할기를 힘쓰고 저항의 서양 각국이 또한 이 뜻을, 일본에게 권고 하며, 대한과 통하여 매닫게 할니 이는, 아라스 세력이 미치는 곳마다 상업과 전도 할니 모든 공변된 리의에 크게 손히 가잇는 연고라 이세에, 법국, 러, 유교인들이 들 들 들어와 전도 할니 우리나라에서 잡는 데로 죽이기를 일삼더니 일천 팔백 십삼년에, 영국, 군함 일척이 남도 해변에 데이고글을 보니, 동상 할기를 청하며, 교칙을 받치거늘 곳 퇴 할야 물니치고 일천 팔백 십칠년에, 법국, 군함 두척이, 고군산, 압해 들어와다가 앓흔 바다에 걸녀 조수 물니 간 후에 곳 파션이 되니라 법인 류 빈 여 명이 섬으로 들어가 섬 중 사람의 구제함을 얻어 의복과 음식을 극히 준비 하며 비를 닦여 실어, 청국으로 보되려 할시 맛춤, 영국, 비가 못가히 지나다가 실어 서오니 이세에는, 조선, 정부와 백성이 외국인을 극히 잘 티 접 할였스나 외국인 이 다시 들어올가 넘려 할야 글을, 청국, 에 보되려 법인의게 설명 할야 글이, 티

지나간 후에 우리가 외국 사람의게 글을 바다 보니 그 글에 할였스되 귀국에서 우리 교사들을 무단히 죽였스니 그 연고를 물은즉 귀국의 법이 외국인을 들이지 안는 다 할는 지라 그러하나 만일 청인이 귀국에 들어갈진디 극히 보호 할야 잘 티 접

항하니 엿지항여 청인은 이러듯 잘 되접항며 우리백성의게는 홀로 편벽되허항  
노요 만일 우리백성이 후 인명을 살히항거나 불쾌함을 도모항거나 후 다른죄를  
범항였슬진디 우리가 아모말도 못홀터이나 이 사람들은 실로 아모죄도 업거늘  
귀국이 사형에 처항였스니 이는 법국, 정부를 디항야 크게 손히항게함이라 항였  
는지라

우리는 이편지에 디항야 삼가 답장항노라 년전에 엿던외국사람이 옥에 잡혀곳치  
는디 언제들어온지는 알수업스나, 죠션, 옷슬넙고, 죠션, 말을항며 얼골은 같히고  
밤이면단이며 낮이면자고 다만 상종항는사람인즉 우리나라에 불쾌한무리라 급  
기 잡혀와 심스항는차리에 성명을 바로디지안이항며 어디사람이라항고 일으지  
안이항나 지금 귀국에서 이 사람들을 귀국인민이라 항는뜻신지 자세히알기어  
렵거나와 당초에 어나라 사람이라고 말항지안엇스즉 돌려보디줄수도 업섯고  
설령 귀국백성으로 알엇기로 내나라에 비밀히 들어오는자를 국법티로 다스림  
이 무어시 그르리요 함을며 언어와 일홈과 복식을곳치고 니디에 비밀히단입이  
분명히 다른뜻시잇슴인즉 엿지, 파선항여오는사람과 갖치비교항리요 만일 파선  
항여 오는자 잇스면 힘디로구제항야 돌려보디는것이 본국의법이라 귀국백성  
들도 표풍항여 온것갓항면 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름업시 항였슬지라 귀국을  
디항야 우리가 크게실슈항였다함은 실로 놀나온말이라 우리가 법국과교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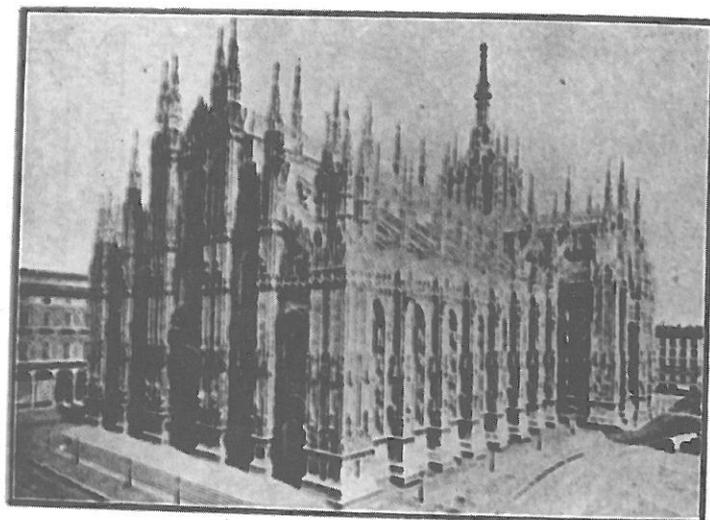
독립요지

서양한계가동으로벗어음

법술연구

업섯스미 얼마나 멀니잇는지도 모르는바라 무슴손히를 니엿다하리요 설령 귀국에 모르는인민이들이 불법한일을 행할진디 짐짓 그저두게는가 청인이나 만쥬사람이 이럿케 하엿슬지라도 우리는 또흔 이와긋치 죠쳐하엿슬지라 그동안에 청인이 변복으로 드러왔다가 잡혀 죽엇스되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인줄아는고로, 청국정부에서 아모말도 못하엿스즉 귀국빅성인줄 알엇슬지라도 법티로시형함이 실슈라할것 업게거던 흠을며 모르고하것이야 더욱이 무슴말이잇스리요 귀국에서 보니 편지가 법식에합당하지못하니 우리가 회답할의무는업스나 이일이 혼 관찰사의 조쳐할바 못되는지라 우리는, 청국의 속국인고로 모든외국의 관계되는일에는 북경정부와 의논하야 조쳐함이 우리의적책이라 이스실을 숨기지안코 바로말하노니 웃사람의게 이티로 보하라하엿더라

이편지가, 청국으로 인연하야, 법국, 정부에달함미, 법국, 정부에서보고 의논하야곧으, 디 죽기를무릅쓰고 어두운나라에 들어가 교화를전하는 내나라빅성을 엿지도라보지 안이하리요 군스를 보니여사라도 별로히 약도하고, 조선에 들어가는교인을 잘보호 하게하야 올라하야 방장 준비하려하다가 맞춤니 란이나서 그 의론이 정지되엿나  
나  
대더 교인이라하는것은 각국이 극력 보호하는법이라 서양각국에서도 슈천년동안을 나려오며 교밋는빅성을 잡아죽이기로 큰 스업을숨아 여러천명의인명이 상한후에비



당 요란 밑 에 국 리 터 의

그런데 그 건물은 매우 아름답고 해아리되 교라하는것은 각국정치와 공수의근원이라 각  
 국의정치를 주관하는것을 논파정치하는것은 본부의가 지  
 ... ..  
 ... ..  
 ... ..

로소 그 잔포무리함을 깨닫고 해아리되 교라하는것은 각국정치와 풍속의근원이라 각  
 각저의들의 미는되로 받들며 또한 저의요혼졸로미는것을 넘과긋치 하는본의가지  
 극히 인의에서 발흥이어늘 엇지 금하며 막으리요하야 공법을당하여 특별히 보호하  
 는니 이것이 곳근되명세계에 가장 주의하는바—어늘, 조선, 서는 이 본의틀모르  
 고 후 교를전하면 곳나라이 업서지거나 빅성이 다 인군도업고 아비도업시 금슈  
 치되는졸로알아 외국인을 막는뜻시 가장 국법이되고로 잔혹무리혼일이 종종  
 심긴 지라

일즉이 일천팔백륙십륙년륙월, 미국,공법선호책이 황회에서 표봉하야 니디로물닌  
 지라. 대원군의 명령으로 무스히보호하여, 청구,으로 보되였다니 그히 구월분에, 미  
 국,상선호책이 대동강 어구에들어와, 평양,압헤이르러 통상도약을 당하자하늘허  
 락지안이하고 물너가기를 저축하되 종시 뜻지안이하고 점점을나오는지라 이 소문  
 이 전파되미 란리가났다하야 민심이 소동되더라 본래 이곳에 큰비가 들어오지못하  
 거늘,얕흔졸을모르고 조슈를싸라 높히올나왔다가 물이물너가미 비밧치결너 물너  
 가지못하는지라 말은,즈세히통치못하고 민심은 크게소동되였스미 인하야 충돌이싱  
 겨 비에불을노코 인명을모도 살히하엿더라 이헤에, 법국,헌슈교신부가 변복하고 단  
 이다가 또 잡힌바—된지라 다시 이쌍에잇지말고 본국으로 도라가라하되 죽어도 도  
 라가지안케다 하는지라 이에 죽는형벌에 처하엿더니 이세에 간신이면하고 도망하야

독립요지

서양형제가등으로벗어음

빅스실인

청국으로 간자—있서 그 참혹한정상을 전한디, 법국,공스가 크게분로하야, 청국,공 천왕의게 조회를보타, 조선에서 교인을 살륙한스실을 힐문하엿는디 그 조회에 하엿스되

경계자는 이전에 귀국의 속국되엿던 조선에서 야만스러운 포학을하엿는지라 스월분에, 법국,신부들이 그나라에서 전도하다가 맞츨니 잡힌바—되여 교스구 인과, 조선,신부,닐곱명과 기외에 무수한교인들을 남녀로쇼물론하고 그나라 왕명으로 몰수히 살히하엿스니 이런행위를 결단코 그쳐두지못할지라 수일후에 우리군스가 그나라에 들어가 쳐서의일터이니 우리 대황제(대통령의기전)씨셔 그 나라 인군씨 되하야 엿더케하시던지 뜻되로하실지라 귀정부에서 본공스에게여 러번 설명하기를 귀국이, 조선에되하야 아모간섭이 업다하얏스며, 조선에 가 는 우리나라교인을 위하야 보호하는 병표를 귀정부에 청구하족 또한상관이업 다하야 안이하야준지라 본공스가 지금설명하는바는 귀국이, 조선에되하야 아 모권리도 업는줄로아노라하엿더라

청국이 미양 이런관계를 당하면 장리에 엿지되는것은 생각지안이하고 다만 당장에 화단만 면코져하야 넘어안이되도록 되답함이 발셔 한두번이 안이라 이씨에 이조회를 보고 무슴척망이나 잇슬가 두려하야 즉시되답하되

조선은 본리강한하야 항상 우리를괴롭게할뿐이오 우리속국은 안이나 우리논상

143

관이업슨즉 알아서 힘하라 하였느니라

그썩에 맞춤 우리나라 스신이, 북경에 갔다가 썩나돌아올시, 청국정부에서 은밀히  
닐너왈 우리, 청국의 세력으로도 서양사람을 임의로 디접지못하거던 흥을며 적은, 조  
션이 엇지 이런일을힘하리요 지금, 법국이 동병하야 들어간다하니 알아서 조처하느  
것이 죠타하거늘 스신이 이말을듯고 도라와 우리정부에 고하고 겸하여, 북경에 법  
인이 돌입하야 대결에 불을노코 억지로 통상약도를 덩훈스실을 썩세히말하니 죠야  
에 란리소문이 랑자하야 부분히 피란하야 산으로들어간자 - 무수하며 일변으로각쳐  
바다가에 포대를쓰으며 군스를준비하더라 이적에, 법국, 군함두척이, 강화에 이르러  
흔척은 몬져 한강어구에들어와 물속을축량하니, 강화는 발셔 법병이 점령하바 - 된  
지라 전국에 풍설이요란하야 큰 란리가 난듯하더라 우리정부에서, 리경하 - 로 군스  
를거나려, 통진에응거하야 법병과 디진훈식 글을 법진에보되여 닐너왈

너의교스가 복식을변하고 일홈을곳쳐 슈상훈식으로 되디에들어와 남의 국법  
을 억인고로 사형에처함이 당연한일이라 엇지 군스로써 혼단을되느뇨 혼디  
법장이 회답하여왈 우리교스를 무단히 죽임이 실로 불법한일이라 그일에 주장  
훈대신세명을 우리의게 되여주고 전권대신을 보되여 통상선교하는 약도를당하  
자고하엿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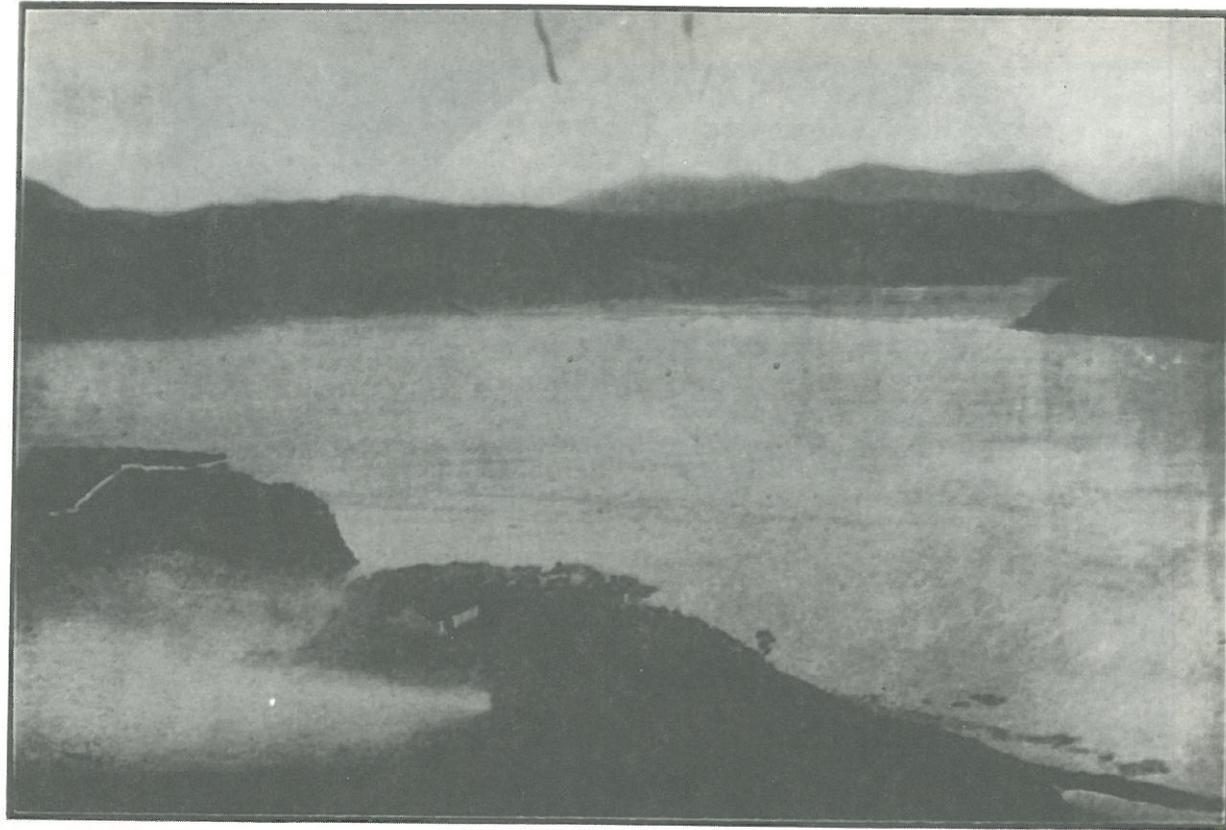
우리정부에서 다시 디답지안코 산포수 오천명을발하야 일시에 쳐물니니 법병이 무

독립요지

서양형세가동으로벗어음

빈스실습

슈히상항야 부득이 물너가니 이것이 곧 병인양요라 이씨에, 미국상선이, 평양에서  
합몰한것을, 미국정부에서듯고 그 빅성의 무고히 피히함을 그져 두지못항야 일천팔  
빅칠십일년출에, 청국에잇는, 미국공사를 명항야 군함을 거나리고, 조선에와서 약  
도를당항고 상업을통항며, 조선에오는, 미국교인을 보호항기를 의론항게 항는지라  
이에 군함오척을, 일본, 장피, 에모야 이히 오일십륙일에, 한국을항항이 썩나서 습십  
일에, 한국, 히변케 도박항야 우리정부에 글을보닉여왈 긴급히 의론할일이잇스니 관  
원을파송항야 결당항자 항는지라 이전에, 청국정부에서 미리, 미국군사의 오는뜻을  
우리나라에 통기항고로 문져 소문을듯고, 평양, 스간으로 인연항야 스단이잇슬가 두  
려항야 포군습천명을발항여, 강화어구에 둔취항고 막아물나철석 적은 비훈척이 문  
져 측량항려 올라오는것을항항야 일시에 스격항미 탈환이 비오듯항야 더 올라오지  
못항고 물너가 여려군함과 항씩을나와서 언덕에나려 포덕를점령항미 잠시는접전항  
야 류디에 응거항였스나 외로운군사가 무슈한포군과 디적할수업스며 또한 성중에  
들어오지 못할터인즉 오리상지항고 잇는것이 계획이 안인줄알고 곧 잇글어 물너가  
니 란리가 비로소 평당되더라 우에기록한 것을보면 서양각국과 동치안으라고 여려  
번승강항던 대강스적을알지라 각국이, 대한잇는것을 짐작후후로 여간군함을, 청국  
으로붓혀 파송항야 혹 호의로권항기도항며 혹 위력으로 핍박도항다가 한번도 여의  
항지못항고 랑피항여가스족 이씨까지도 우리나라에 원기가든든항던거슨 가히 짐작



미국의 함강에 아들들이 오미요 선포터에 서서 격항는 것



조선포군과 미국유군이 전청야  
량국군병이 다소  
스상호후 잠시 상륙호것



군포션조흔망전



145

하려니와 우리나라 정부에서 량측승전후로 의도가 양양함이 었더하였슬지 또흔가  
히 짐작할지라, 청구이 막지못하야 부득이허락하고, 일본이 또흔 막지못하야 통상  
을허락하였거늘 우리나라이 홀로 방비하야 뉘뉘치 물니치니 괴운이 더욱 강성하야  
종로대도상에 비석을세우고 글을삭여글이디

서편오랑키가 침범하니 쓰호지안이하면 화친할지라 만일 화친하면 나라를파는  
것이니 만세조손으로 영히 경계하라

병인년에 삭여서 신미년에 세우노라하였더라 이후로 텃쥬교인을 살허하라는령이더  
욱엄하며 외국을막아닐쥬의가 더욱 굳건하야 텃디는변허하야도 외국인은 이나라에  
용랍치못하며 서양교는 전하지못하듯하디니 지금 겨우 습십여년동안에 외국인의세  
력이 었더케퍼졌스며 교밋는사람이 얼마나만하진지 각히 생각하야볼일이라 종로네  
거리에 두렛시세워스던 비석이 다시 보이지안이하니 세상이변함을 세력으로막을수  
업는줄 황연히 깨달을일이라 지금도 점검히들어안져 왜양을몰아니자던지 저의가스  
스로물너갈날이 잇슬이라고 고집을 깨치지못하자는 참 어리석은 인성이로다

▲일본이조선과통하려함

이씨에, 아라스,가 또흔 스신을보니여, 원산에 이르러 우리정부에 통상도약을청하  
거늘 또흔 뜻지안엇스나 서양의세력이 점점 필근하야 세상의공론이 분운할지라, 일  
본이 스신을보니여, 동리에이르러 통상약도를청구하야왈

독립요지

일본이조선과통하려함

빈수신오

지금, 일본이 각국과 상통하여 세상형편을 본즉 네썩 모양으로 혼저 지닐수업스  
니 불가불 상통하여야 견딜것이오 상통하지 않으면 정치와 풍속을 일신하게 변혁하  
여 식법을 모본하기전에는 또한 부지하지 못할줄을 깨달은고로 날마다 서양법  
을 모본하기에 국민이 일심하여 점점기명에 나아가는 호험이 발서 적지안은지  
라 귀국도 우리와 갖치 타국에왕리를 통하여 부강을 도모하는거시 심히올라하  
고

동리부윤의게 청하여 그 글을 정부에 올렸더니 정부에서 곧 물니치며 날너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글을 밧고져 안이하니 그 스신을쥬어 곧 너썩초라 하는  
지라

일본, 스신이 부득이 물너가니, 일본, 정부에서 다시 교섭하려다가 맛츨니 호험이업  
섯스며 일천팔백칠십년에, 하방의질, 이가 들어와서 다시 시험하다가 또한일우지못  
흔지라 그후 일천팔백칠십오년구월분에, 일본, 군함 이척이, 청국, 치푸, 쌍에서, 조선,  
회변에 지나다가, 강화, 근처에나려 비에서 먹을물을길을식 근처백성들이보고, 법국,  
이나, 미국, 군사로알고 일시에 총을노아 밧렬히치거늘 일병이 대단격로하여 일제히  
나려서 인민을갑박하고 촌락을 불노은후에 곧 물너가, 장피, 에 이르러 그 스실을고  
하니 이썩에 일본, 정부에서 당론이닐허나 후은, 조선, 을치자고도하며 후은, 치는것  
이 리롭지못하, 다하여 시비가분은을식, 서향릉성, 이 살마피 령슈가되어 급히쳐업시

항자는 주의로 심지어 군수를 빌려서 정부를 압박하기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항는말  
이 지금 곳군수를 보이면, 조선에 파는기는 심히 쉬우려니와 의인후에 맛당히 후환  
이잇슬지니 이것을 정돈하자면 지금세력으로 이로저당치 못할것이니 처의의는거시  
우리의 리가안이라 우리는 지금부터 군수를 잘 길러 후일에 이를 힘이나 준비하며  
변으로, 조선에 호의로 권하자 다항이 들으면 부국강병할도리로 동심합력하자 서양  
형제를 막는거시 참 일테로 완전한 계획이요 만일 뜻지안이하면 다시 군수를 들어  
는것이 늦지안이하다 항야 서양통성의 계획을 뜻지안는지라 서양이 대병을 빌  
켜 정부를 몰아내고 자의로 항하자 전후닐급등동안을 큰 전장이 되었스리 이일  
에 인연하자 죽은사람이 이만여명이요 허비한 지정이 이천만원 가량이라 필경 서  
양이 피하고 평화를 주장하던편당이 의의여, 조선에 큰 병화가 이르지안케 되었스  
니 이년 진실로 량국에 다항이라 이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위급한형편에서  
항자를 짐작한이들이 후 잇섯던지 모르거니와 전국백성은 아모런줄 모르고 쌍속에  
서 지닌지라 만일 이전정치가 성기게 되었더면 임진 이후 큰 전장이 또 한번 되었을것이  
니 우리나라의 리는 엇더할것슬는지 절당할수업섯거니와 서양의 뜻신즉 가히망  
령되다 빌을지라 남의스오천년 세나라를 이러듯 무인디경갓치녀이고 엇지피항지  
안어기를 확실히 장담할스리요, 일본정부에서 그 주의를 좇지안이함은 과연 장원  
한계획에 밝히보았다 빌을지라 어두은 리우나라를 극력하자 깨우쳐서 합력하여 보

독립요지

일본이조선과동맹하려함

빈수심철

전항자들은 우리나라 신민들이, 일본에 티항야 기히 감스이 녀일바—로다

▲일본과처음으로동상함

이적에, 일본이 스신을, 조선에 보니여 통상하기를 청코저하나 본라 공법의 경위가 남의속국은 타국과약도항거나 스신을 서로 밧고지못하는법이라, 청국이 비록 각국을 티항야 누누히 성명하기를, 조선은 우리속국이안이라 하였으나 본리항위가 정대치못항야 어려운형편이잇스면 이러케말하고 그러치안으면 또 달니말항야 일당호실상을 밧을수업는고로, 청국에 몬져질문항야 확실호티답을 들은후에, 조선과의론항이 을타항야 즉시스신을, 청국에 보니여 스실을질문호족, 청국이 또한 겁을니여 여전히답항되 우리가, 조선과 상관이업서, 자주독립국으로 아난바—니 주접으로 판결항라항거늘 이에, 후전청통과, 정상형이 히육군 팔빅명을 거나리고, 조선을항홀시, 청국이 이스실을 몬져, 조선에 통기항야 부득불 화친항는것이 을호출로권고항는지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로소 세계절박호출알고 부득이 통상하기를의론호실맛춤, 대원군으로써 국정을니여노으시고 물너나가신지라 정부에서, 신, 현, 윤자승등을 명항야, 강화에가서, 일본, 스신과 약도들의론호실, 일본, 스신이 몬져물어왈

우리나라이 호상 귀국과 화친도약을 밧고저항야 누누히 청구항였거늘 귀국이 종시티답지안이호은 무슴뜻시뇨 항는지라

조선 대신이 티답항되 즈고로 귀국이 우리나라에티항야 말이 극히겸손항더니 곤리

에와서는, 대일본(대황제)라 스스로 존칭하여 우리나라보다 높은체하는것이 보기로 되 답하지 아니함이라 함되

일본 스신이 표훈말로 되 답하여 왈, 일본이 일음을 존칭함이 귀국의 실상 권리에 대한 관이업노라 함되

조선 대신이 듯고 그러히 녀이느니라

일본 스신이 다시 물어 왈 우리 군사가, 강화, 지방에 나려 물을 길 들썩에 었지 하여 충을 노었노요 함되

답왈 일본인이 양복을 남은고로 서양인인 줄 알고 뵈성들이 그리 함이로다

다시 문왈 그러면 그전에, 일본 정부에서 국귀를 귀국에 보시고 그 본보기를 각 군에 들녀서 우리나라의 모양을 알게 하기를 청하였거늘 었지 분간치 못하였노요 함되  
지라

우리나라 대신이 부득이 하여 실수함을 사과함다

이적에 정부에서는 날마다 모혀 이 문답한 전후 말을 가지고 었지 조처할것을 의론함다가 마침내 일천팔백칠십륙년이 월칠일에 통상도약을 조인하니 그약도의 대지가, 일본이,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되 접하여 본리 자주하던, 일본국과 평등으로 안다 함며 지어, 청국의 간섭여부는 말할바 업섯느니 이세가 곳, 조선이 독립 권리를 실상으로 회복하던 처음일이라 만일 뵈성이 독립을 중히 녀일 줄 알진되 이날에 곳 전국

부림요지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함

백수실구

이질거항야 경스로은 경축일을슴아 지금껏 기념함을 낫지안이 할바—어늘 백성이 독립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도로혀 항는 말이 대국을 비반항면 화근도 잇스려니와 또한 도리가 안이라 항는고로 감히 이약표를 알니자—업서서 엇지항야 통상이 되었스며 이약표가 우리나라 권리에 무슨 관계가 잇는지 지금까지 말하는자 도적으니 국권이 엇지 견고하기를 바르리요 만일 이약표가 안일면 서양각국이 결단코 그저 잇섯스리가 만무할지니 그중 강포한 나라이, '몬져 기회를 타서 착수하였던들, 대한의 형편이 엇더케 되었을는지 모르게 거늘 다항이, 일본과 몬져 약도항야 공고완전한 독립을 실상으로 성명하였스니 엇지 다항이 안이 리요 이후로 각국이 뒤를 따라 차례로 들어와, 영미, 법, 덕, 아, 오, 의, 모든 나라이 서로 따라 약도항야 피츠에 동등국으로 뒤접하며 서로 대등공사를 보이며 일테로 교섭한다 하였느니 이 엇지 당당한 독립국이 안이 리요 당초에 우리나라이 이 썩어지지, 청국의 속국이라 일거름도 실로 어림업는 말이 어니와 설령 부득이한 스정이 잇슬지라도 나라에 선택성이 잇스면 세상 형편을 몬져 깨닫고 스방으로 주선하여 각국을 청하여 독립의 인허를 엇기로 죽기까지 힘쓸바! 어늘 이러듯 선택성이 업슨고로 타국이 스청하고 들어와서 억지로 맞기에 이르렀스즉 지원하여 도와주는 표호 친구가 이러듯 만히스며 결하여, 리홍장이 몬져 우리 정부를 권하여 약표를 명하라 하였스니 각국의 눈이 눈바—되어 부득이 이러함인줄 소경이라도 짐작하게 거늘, 청국이 속으로 으르르 거늘 두려항야, 대조선 독립국이 라고 세상에 들어나

게 반포하지 못하고 구초로히 시비만 면코져하였는니 실로 용렬함이 심한도다

▲임오란리의 관계

일천팔십칠삼구년에 ○하방의질이, 조선에 주차하는, 일본공사로 서울에 득달하니 외국정부를 대표하여 주차하는공사로, 조선에 오는거시 이색에처음이라 이럼으로 우리나라와 통상할 각국공사가 모히는 좌석에는, 일본공사가 상좌에안는바, 나 일본이 이것을 가장 영광으로 녀임이라 이공사가 약도하기전에 스스로히와서 궁중에 얼마 있던바인고로, 일본이 특별히 파송함이니, 조선세력변에 얼마쯤성요하지 안을줄은 가히 짐작할지라 련연정으로 공서관을당하고 군사를두어 호위할더라 이색에, 법국, 교사 이인이 서로와서 서소문밖게거접하며 전도하다가 잡혀갓친바, 된지라 일본공사가 우리정부에 덕하여 설명하여왈, 일본에잇는 법국공사가 내게 부탁하여 이일을 덕신의론하여달나하니 이럼으로 간섭하는바어니와 나의 스스의견으로 말할 지라도 교사를 살히함이 심히 공법에 합당치못할지라 노아보되거시 올라하고 이에 보호하여, 일본으로보되고 이후로 교를반디하던 편당이 스형에처하니 이색부터 외국인을 몰아내고 교인을 업시하자는 의론이 영히 업서지고 지금에 이르러는 련주교를 의퇴하여 보호를자시 하는자, 종종잇스니 이는 다 정사가 밝지못할연고라 받게세력이 이러듯 속히들어옴은 죽히새달을만하도다

일천팔십팔삼이년에 비로쇼 세가의 스질중 총명흔인지를 탁하여, 일본에보되여 문

독립요지

임오란리의관계

립오십일

견을 넓히고 학문을 다게 하며 일변으로, 하도감에 교련병을 설시하여 별기를 가라  
치미 일로 인연하여 외국인을 위위하며 시거슬 실행하는싱가이 불췌갓치닐허나 혹은  
왜놈과 부동하여 나라를 팔아먹는다 고도 하며 혹은 말하기를 왜놈의 편당이 권리를 잡  
으니 백성이 살수업다 하여 불평한 민심이 은근히 동코져하더라 이씨에도 백성의 원과  
가 얼마쯤 남아있서 오늘날 이 부피한 형편과는 대단히 다를씨라 마침 민씨의세도로  
인연하여 은근히 조정에 혼단이잇슬씨에 군총의 요를 공평히 유지안이 흠으로 군스의  
분심이복발하여 궁궐을범하며 명성황후씨서, 충슈로 피란하시고 헛국상이 낮  
섯스며 군총들이 곳던연정을불노아 일본인을도륙하려하미 일본공스가 군스를다리  
고 간신히버셔나서, 인천으로도망하여, 월미도에 이르러 인명을상고하니 죽은자!  
세명이요 엇지된지 모르는자! 이인이라, 영국군함을타고 살아건너가서, 일본, 마관  
에나리니 이는 곳임오군요라 이씨에, 일본정부에서 이 스실을듣고 즉시 군스스천  
명을보너, 하방의질, 파홍씨, 조선에향하여 이히칠월에 량국스신이 다시, 인천항  
에모혀 화친을의론할씨. 구태공, (대원관)의말씀으로 극히스파하여왈

창졸간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리서 충들을음이니 즉시 진압치못함은 책망을 감슈  
하노라 하고 이에 약도들의론할씨

일본공스가 먼저 청구하여왈

이십일안으로 란리피슈를잡아 상당한벌로 증처하되 재판시에, 일본, 공스가 스



왕 원 대



153

람을 파송하여 심판함을 들을 것이요 란민들의게 죽은 일본인들의 시신을 상당한  
 레로 장사지내주고 그 가족들의게 상환금 오만원을 줄 것이며, 일본이 이일에 인  
 하여 손히한 군비와 비상금을 오십만원에 작당하고 다섯회에 분비하여 갑게 할  
 것이며, 일본이 그 공서관에 약간 보호병을 두어 다시 불의지변이 잇슬가 미리  
 방지할 것이오, 조선 정부에서 특별히 스신을, 일본에 보되여 실수함을 스펀할  
 것이오, 조선에 와서 사는 일본빅성의 거류들을 늘이며 상민을 보호할 것이오, 일  
 본 관인이, 조선 뉴디에 유람하는 거슨, 조선 정부에서 합당히 보호함이 라  
 이 여러가지를 다 허락하여야 다시 화친을 밋즈리라 하는지라 우리 정부에서 그리하  
 라 응락은하고 실상으로 시행함은 보히지안이함미, 하방의질이 담판을 파하고 물  
 나가며 군스으로써 위협하려 할거늘 부득이 시행함미 이후로, 한양 성년에, 일본 슈비병  
 이 지금껏 것치지안잇는니 이약도후로 우리나라 독립권에 손히됨이 실로 적지안이  
 함도다

대여 독립국에는 그나라의 허락이업시 타국군스가 군기를가지고 룬디에 올으지 못  
 함는법이어늘 막중황성에 군스를 둔취함이 었지 독립국의 실상권리를 손히함이 안  
 이리요 이것이, 대한 신민된자들의 데일등분히 녀일바, 라 그러나 이군스를청하여  
 들인것은 또한 우리가 할것이라 외국과 약도하여 공스가 와서잇게하고 란리를 널호  
 허살히하기를 도모하니 즈기군스를 두어 보호하기를 었지 생각치 안으리요 진실로

독립요지

임오란리의판계

백오십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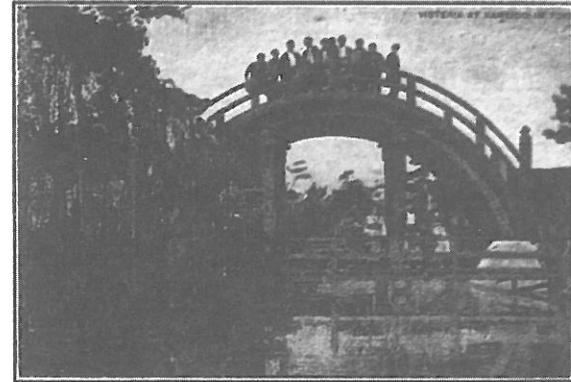
우리백성이 다 열녀서 남의나라 관민을 물론하고 교제상으로도 도호친구로 되접하며 시비중에는 경위와 공법으로 다두고 무단히 남의 생명과 재산을 손히코저하는 것이 업슬진디 그군스를 와잇스라고 우리가 지청하여도 부질업시 국지만 허비하고 와잇슬리가 만무하고 설령 와잇고저 할지라도 빙자할말이 업슬지니 우리가 아모리 약하여도 남의공론을 두려하여 감히 성의치 못할지라 그런즉 어리석은백성이 남을 히하려하는것이 맞춘니 제몸을히할뿐이어늘 도로혀 배닫지못하는지라 이 약도중에 다만 위티할씨케만 두었다가 일이업슬씨에는 물너간다 하였느니 우리백성이 그후에 라도 진작새엿던들 우리힘으로 되신보호하여 공평히되접하고 곳 것이 가라할진디우리권에 손리히함을 도로회복흔지가 오리슬것이어늘 남을히하려고만 힘쓰는고로 지금껏 것지안이하여 심지어 을미스변까지 이것으로인하여 성기기에 이르렀스니우리가 맛당히 지난일을 증계하여 어서박비 새우쳐 외국보호병이 속속히 것이 가도록 힘써이 가하도록

▲갑오전한일청소국의관계

일천팔백칠십오년에 김옥균, 서광범이 갑안히 일본에 가서 시세상을 구경하미이 씨에 비록 일본이 처음으로 경장을시작하여 지금에비하면 족히 보잘것이업섯스나 우리나라 귀인저질로 외국을유람함은 이씨가처음이라 그 쾌활하고 흥탄히녀이느니모음은 뜻지안어도 족히 짐작케도다 급기 세상물론이 엿더함과 동양형편이 엿더함



것논흐름씨름사본일



치경논잇에경동본일

155

을 들어 본즉 기화를 힘써함이 시각에 급훈지라 얼마 후에 도라와 그 보고 들은게 슬우  
 해알외고 귀척지질들을 권항야, 일본에 유람식히미 오천년쳐스국의 오릿가첫던 문  
 호를 비로소 열어노아 츠츠통으로 리왕항는길이 더욱 조조통항더라 그중에 더욱이  
 기화를 열심항는자들이 모든 세력자들을 합항여 일심으로 기화를 시험항려항리. 국  
 태공<sup>○</sup>씨셔 심히 위항여왕 이 무리들이 서학을 가져다가 우리례의 지방에 전파항려  
 한다항야 죽이고저항는지라 그중에 몇치도 망항야 화를 면항니 모든 민족들이 또 혼두  
 려항야 통상항자는스건에 상관코져 안이항더디. 리홍장<sup>○</sup>이 각국의 군축항바— 되여  
 국태공<sup>○</sup>씨권항여 통상을 허락하게 되미 세력자들이 비로소 다시 머리를 들고 권세를  
 잡아 기화를 주의항며 일변으로 권세를 자시항야 불공무리함을 무슈히 항항미 은근히  
 기화와 슈구의 두편당이성겨 서로빙탄이되다가 맛참히 군요를 날히켜 입오란리가 싱  
 긴지라, 청국<sup>○</sup>이 오장경<sup>○</sup>과 원세끼<sup>○</sup>를 보니여 군스스천명을 거나리고, 황성에 들어  
 와, 남관과 동별영<sup>○</sup>에 난호아진치고 민간에 횡항야 작폐가 무슈항며. 국태공<sup>○</sup>을 잡아  
 락진<sup>○</sup>으로 다려가고, 락동에 청관을 설시항야 리스부라 일홍항니 이는, 조선<sup>○</sup>을 독립  
 국으로 알지안는다항야 공스관이라 일홍항지안코 모든일을 다스리는 마올이라함이  
 라 각국공스는 다 쥔문받게셔 교즈를 나려 거러셔 입철항되 청인은 감히타고안져바  
 로 어전에 들어가며 나의디위가, 조선<sup>○</sup>왕의 우헤잇다항야 막중존전에서 불법무리함  
 이 비홀티업스며 거만방항여, 례절을 도라보지안코 속으로 종종위협항여왕 우리대

독립요지

강오전한일청송국의관계

백오십오

국이 항상 소국을보호하야 하고로 힘없는것이 무궁하거늘 감히 외국인의 말을듣고 상국에 실례하면 맛당히 죄책을면치못하리니 외국인을위하야 항상, 청국의게 속국으로 즈원하야 정의가친밀함을 보여야 우리대국이 다 보호하고 도아주어 타국이감히 엿보지못하리라하미 이세에 소위 완고대신들은 그 리허도 생각지안코 육을달게 녀여 아첨하고 추세하야 권리를엇고저하미, 청국(스신을) 도로혀 인군보다 중히녀이느 무리서지잇서 거의 다 원세기의 충신이된지라 이럼으로 원세기가 서로안져정치상대소스들 거의 다간에코져하느니라 각국공스들이 이거슬분히녀여 후, 조선, 관인을위하야 청인의무리함을 방지말나하면 붓그러운줄을 알지못하고 영광시러하느는말이 소국이 대국을공손이섬겨야 올라하며 후 말하거를 귀국이 당당하느주독립국이니 엿지, 청국,만 못하다하며 또한 큰 나라를 섬기고저하진디 엿지, 청국,보다더큰 나라들은 섬기지안느뇨 그런즉 대소를불계하고 귀국도 다 갓흔독립국이라 갓흔 권리를 일치말나하진디 곧 발연히변석하여왈 우리다려 엿지신의가업시 상국에실례하라하느뇨 하느니라 그럼으로 그세에, 미국,공스로왔던이가 지금까지 이런말을고담갓치하며 웃거를 마지안느다하더라 미양 각국공스들이 모히느자리에 청인이특별히 높흔디접을 받으려하느고로 각국공스가 그 무리함을시비하야 연고를힐문흔즉청인의디답이, 한국,은 조고로 우리의속국이라, 조선,이례절을 조의로 저히니 우리가 또한 그디로디절함이라 각국공스들의 상과할바안이라하니 이년, 청국이 괴왕에각

국을 뒤엎아 들어나게 성명할 말을 저바리는 것이오, 각국공수들의 권리를 멸시함이니  
진실로 무리함이 의심하도다, 조선은 속국으로 뒤접코져할진대, 막당히 위태하고 어  
려운스정이 잇슬쎄에는 담당하고 나서서 뒤진결처 할 것이 어늘, 그러치 못하야 어려울  
쎄에는 독립국이 라하다가 편할쎄는 속국이라하니, 설령, 조선에는 말할마디 할자!  
업다 할지라도 여러 통상국들을 뒤엎아 크게 능욕함이라, 필경 각국이 혼단을 타서 시비  
를 다툴지키니, 시비가 한번 버러지는 날은, 그결실이 엇지, 대한에 안전함이 되기를 질뎡  
하리요, 그런즉 독립의 실권을 비록 들어나게 세워스나, 청국의 완만무리함과, 조선의  
잔약 혼동함이 더욱이 동양형편을 위태케 할뿐이라, 이럼으로, 일본에서 이 형편을 보  
고 더욱 통분히 녀여, 민심이 대단불을 놓아 곳, 청국을 쳐물니자하야, 비성세리 즈원  
하고 나서서, 청국, 치러가는 군스가 되고저는자! 이만여명이요, 비성세리 모집하야  
군비로되는 돈이 십만원에 이르는지라, 곳, 청국과 키전하자고, 정부를 독촉하는지라,  
일본이, 오장경과 별도로, 약도를 덩하야 할

일 후에 만일, 조선에 긴급한일이 잇서, 군사를 파송할진대, 청국이 막당히, 일본  
정부에 뒤엎아, 문서의 문헌 후에, 항할 것이오, 일본이 만일, 조선에 군사를 파송할  
일이 잇슬진대, 또한, 청국에 뒤엎아, 문서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약도 후로, 일본에 민심이 심분정돈되여, 당장에 일청전쟁이 성기기를 면하였스  
나, 갑오전쟁이 이쎄에 더욱급히 썩리가 턱여, 일본이 십년동안을 주야 양병하야, 항

독립요지

갑오전쟁일청소국의관계

백오십칠

상 혼단을 기다려 한번, 청국의 고벽을 깨치고 버릇을 가라치려 하여 전국의 인심을 날마다 고동하듯 어린 히라도 일청전정은 괴어히 되고야 말줄로 알며, 청국의 비정외교를 손사갓치 알고 안져 그 속을 소상히 들여다보려고로 스름마다, 청국을 혼 뷔인 겁질로 알아 전정만 버리지면 엇지하고 엇지하여 한번에 쳐 파항기를 각기에 산하고 잇거늘 청인은 전혀 모르고 괴왕약도 혼것은 다 소용업는 거스로 녀여 돈연히 이저바리고 조고마흔, 일본을 업수히만 녀여 모든일을 다 삼혀보지 안이 하니 갑오년에 전정나기를 엇지 미리 짐작하였스리요 실로 어리석고 어둡도다

▲갑신란리소적

원리, 미국과 통상할것은 일천팔백삼십사년일이라 이나라이 조초로, 대한 독립과 기진상에 관계가 별로 갖가온고로 우리의 특별히 알고져 할바라 이히에, 미국, 특명대신, 쉬페르트가, 일본을 지나, 대한경성에 들어오니 전일, 강화에 들어올썩에 전국이 쇼동하며 나서서 막던어구에 이전에왔던 비를타고 편안히 하륙하여 안연히도 성에들어와서 통상약도를 덩하고 공스관을 설치하여, 미국 정부를 대표한국기가, 한양, 성덕에 날니니, 미국은 조그빅성이, 조선지방에서 수츠살히를 당흔 원형을 바리고 사로히교분을 도답게하려 하여 독립을 완전케하는 관계에는 극히찬조함이 적지안엇스며, 조선 정부에서는 서양인이 들어오면 곳나라를 성으로삼키는 줄로알던 모든의 심을 일쥔에 파항고 지금서지 교제를 보전하여오미 그중에 탐심을 품고 혼단을 엇보

는 나라의 업적, 안이구나 아직까지 부지하여 온 것은 다 외국들의 교제상 서로 관계한  
 형편에 달녀된 것이라 만일 지금껏 통상이 안이 되었다면 었던 강호나라이 무슴 육심  
 을 부렸을는지 알수업슬지니 온날 이 뜻슬 깨쳐본즉 전일에 사다업시 남을 의심하던  
 것이 었지 어리석지안으리요 이세에 민영익이 귀척의 저질 심일인을 다리고 태평  
 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 서둘동안을 유람하고 대서양을 건너 구라과슈를 지나, 한양에  
 도라오니, 조선, 스릉의 안목으로 서양각국을 구경할 것도 이세에 처음이오 한인의 발자  
 최로 온디구를 흔박 휘돌아 단인 것도 이세에 처음이라 그 흥금이 었더케 상쾌이 되였스  
 며 이목이 얼마나 광활하였슬것을 응당 측량기 어러워슬지라 흠을며, 미국에서 전  
 일에 저기네 비성을 무고히 잔히 하며 상용하기를 죽기로써 막던 혐의를 버리고 도로혀  
 조선서 처음으로 온 손님이 라야 독립평등국의 상등손님으로 극진히 접하며 두  
 류활동안 전후경비를, 미국이 다 담당하여 물어주고 다만 식로해달아 각국과 통  
 항려는 본의만 신기히 녀여 상하관민이 정다히 권면하며 진실로 목석이 안인자면 그 세  
 상을 구경하고 그 인정을 삼힌 후에 감동하는 식의스가 었지업스리요 인하여 혁신을 성  
 각을 가득이 품어 일심으로 작정하고 본국에 도라오미 세상형편을 뜻고 본디로 저세  
 히상달하고 기화주의의 긴급한 사무를 초치 시험하여 힘하려 할시 이세에 모든 귀척들  
 이 기화를 실혀하여 청년을 의뢰하기를 상책으로 알아 의견이 여일항의 줄연히 새치기  
 어려운세라 민영익이 귀국할지 얼마 못되여, 청국의게 불난바 되여 주의를 변하

독립요지

갑신란리소적

비오실구

고 슈구를 주장하여 기화를 막으려 함이 일을 맞춤이 일을 수습시된지라 그중에 몇사람이 청국 당파를 몰아내기로는 밀히질당하고 서로 기회를 기다리더니 맞춤 면보국을 시로설시하고 연회를 비설하고 락성하는 레식을 할수시 미리 약속하였다가 대소관인이 모친중에서 불을 노아 소동을 날히키고 민영익을 칼로쳐 귀가 상한후에 기화당들이 곳 켈년에 들어가 급급히 화석이 박 두호출로 알외고 일본 슈비병을 청하여 궁성을 호위하니 원리일병과는 미리 통과가 잇섯던지 막중금문에 무단히들입하며 털롱갓치 에우고 완고대신들을 어명으로 피초하여 들어오느니로 켈문에서 살히하니 빅성은 무슴일인지 몰으고 졸디에 란리를 당함의 엇지한 연고를 몰나 장안이 대란하며 전국이 쇼동되어 서로 풍설을 전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민심에 가득하더라

정사와 풍속을 곳쳐 변혁하기를 힘쓰기로 칙교를 내려 방장반포하려 호실즈음에 완고당들이 원세키에게 쇼기하여 청병승천명을 거나리고 궁궐을 에우고 일병을 들어 치미 안팎기 마저 쓰화 량편에 인명이 불요히 상한지라 일병이 능히 저항치 못하여 동령스관으로 들어가니 이씨에야 빅성이 비로쇼 기화와 슈구의 두편당이 쓰호는 졸 짐작함의 빅성은 기화가 무엇인지 몰은중에서 의심이 가득하여 역당이 일본을 부동하여 나라를 도모하는 줄로 녀이던중에 더욱이 련하여 데일강하고 놀흔 대국이 막어 보효하여 주는 증거가 들어나니 일변으로 분출도 충발하며 또한 뒤가 든든함의 업던피운도 싱기느니라 장안이 일시에 날하나 군과셔를 새치고 군과를 되여다가 목목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필지서슈령당신유한태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효영박슈령당신유한대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범광서슈령당신유한대



에 직회하며 스대문을 닦치고 일인을 살회할지, 스동에 잇는, 일본령스관을 에우고 진고기를 출몰함의 심히 잔혹함이 만엇더라 일병이 에운데들어 스방진을 행함야 줄디에 총노으며 서소문으로 나아가, 인천에서 비를타고 간신히 도망함야, 일본으로 건너가니 귀화당령수들이 그중에 쓰여, 일본, 강호에 가서 목숨을 도망함지라 이에 란리가 평정후, 일본에 비상금을 물어 속으로 사과하고 무스히 화천되니 이거시 곳갑신년란리라 이후로 백성이 청인을 밋는 마음이 더욱 심함며 관인들이 청인을 의뢰하는 폐단이 더욱 만흔지라 만일 청인이 안일하면 큰 일을 당하였을 줄아는 생각을 깨칠수 업시되미 우리관인들과 우리백성세리 색로 일들함여 독립자유할 생각이 나지 못함고 이리저리의 지함야 남의 보호만 받으려 함고로 백성의 원과가 줄어 날마다 잔약함야 오늘날에 이르러 스스로 설수 업시됨이 다 이색부터 시작되리라 여게 말함바—는 다 각국스롭들의 공담으로 스기에 기록한것을 대강 색여 초함야 그 관계가 엇지된거슬 알니고져 함이라 그 시비곡직은 의론코져 함바— 안이 어니와 당초에 내나라 권리를 굿게 함자는 주의에 일병을 청함야 조력함기를 도모함것이 본리 즈주의 본의가 안이라 스실이 아모리 정대 광명함지라도 나문져 남을 의뢰함고 남이 색로서기를 원함진디 남이 쓰함 다른이 에게 의뢰함야 나를 몰아치는 도리가 잇는니 이는 고금을 물론함고 독립을 의론함자의 데 일문져 경계함일이로다

▲공소를 처음으로 서양에 보냄

독립요지

공소를 처음으로 서양에 보내임

기록실일

그런즉 갑신년란리가 근본은, 청국을 물니치려함이나 그결실은 도로혀 일본을물니  
 천일이된지라 급기란리가정돈된후 상고하여본즉 청인파쓰호다가 죽은것과, 조선, 박  
 성들의게 살피당호 일본인이 통히습박여명에 이른지라 이에, 조선, 김홍집, 과, 일본,  
 정상형, 과, 청국, 리홍장, 습국, 디표자가, 청국, 런진에 모혀, 약도를의론하니, 조선이  
 일본에게 비상을갑호며 일청량국이 다, 조선, 에서 군스를것우어 물너가기로 작당  
 하였더라 이전부터, 법국, 이 여러번, 청국, 을동축하여, 조선에, 있는 청병을 물니라호  
 되 듯지안이하다가 이세에 이르러 비로소것어가 뒤 을유년륙월에 일병이 또호물너가  
 며,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 공문하여왈

지금, 서울, 에와잇는, 일본, 슈비병을 몰슈히 것어가니 이는 명치십오년에, 인천,  
 서당호, 약도중에 슈비병이 긴요호지안을세에는 거두어간다호말을 준히호야 물  
 너감이라 그러나 이번,에 잠시물너가는것을 인연호야 슈비병두는, 약도를 영히페  
 지함은아니라 호더라

이후 일천팔십오년에, 영국, 군함이, 조선, 거문도를 점령호거늘 우리정부에서무  
 슈히힐문호며, 아라스, 이 또호, 영국, 에 질문호디, 영국, 이 디답호되, 아라스, 에서, 조  
 선, 요히쳐를 호상 엿보노고로 우리가 몬져 착슈함이라 호는지라, 아라스, 이 디답호  
 되, 조선, 쌍은조곰이라도 점령호지 안킷노라호거늘, 영국, 이 비로소 일천팔십팔년  
 년, 에, 거문도, 에 세운기를 빼여가지고 물너가니 이일이, 대한, 국권과, 강도를 보전호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미국외송훈에잇눈대한공스관

저  
침  
법  
이  
니  
는  
것  
이  
다

기에 대단히 긴절환관폐라, 영, 아, 랑국이 서로 송강하여 누구던지 혼나히 문져 침범  
항지 못하게 되었스니 각국이 또한 그 리허를 알고 감히 다른싱각을 두지 못할것이니  
이중에서, 대한이 문져세탁고 뉘게던지 혼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히접티항며 능  
히 제일일을 제티로항여갈진티 필경은 타국이 감히엿보지못하게 되었슬너라, 조선정  
부에서 이세에 비로소, 청국을 더 밋을수 업는줄로 짐작하고 두려울것이업시 공스  
를티항여, 영, 미, 각국에 파송항니, 청국이, 조선, 을티항야 속으로 무슈히위협항여못  
하게할시. 원세키가 전보다 더욱이 무례함을항하며 심지어 청인이 교련식한, 대한  
병영들을다리고, 대한정부에서 청인을 밋던 마음이, 초초적어지며 도로혀 의심을품고 그  
로인연항야, 대한정부에서 청인을 밋던 마음이, 초초적어지며 도로혀 의심을품고 그  
속으로 위협항는것이 죽히 두려울거시 업는줄알어, 청국을 거절할의스가 은근히자  
라서, 일천팔백팔십팔년에, 미국에유초할 공스를파송항야, 대한정부를티표항여 그  
서울에 공스관을설시하고, 대한, 괴호를 처음으로들어니니 각국이 상등례로티접항야  
세계문명국들과 만국교제에 갖흔권리를엿으니 각국이 이날로, 조선, 독립을 세계에  
반포할날로치는지라 우리나라 신민된자 | 이스적을 영원토록 기념항지 안을수업거  
니와 이일에, 대한, 스름들이 어려운힘이 얼마쯤 들고야된거슬 또한 싱각지안을수업  
도다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서양각국으로 공스를보느니라, 청국에서 말항기를, 조선이

독립요지

공사를처음으로서양에보내임

백록심습

우리의 속국이니 공사를 타국들과 서로 바꿀수 업는지라 각국이 보려는공사는 아직  
 밧엇스나 타국에 주츠공사를 보려는거시, 청국을 비척함이라 결단코 되지못하리니  
 우리가 되신 교섭하리라 하는지라 이썩에도, 조선관인중애 독립이 무엇신지 공사  
 보려는관계가 엇더한지 모르고 다만 청인의말을 올타고만하야 모도 청인의 충노들  
 이라 이중에 몇몇사람의손으로 주선하야 안밧그로 벌어노코 불시에셔나, 미국으로  
 향하니, 청국에서 괴왕 각국에되하야 성명훈말이 지지흔즉 들어나게 막을권리는업  
 는지라. 리홍장이 미리, 미국에 잇는 청국공사의게 신척하야, 대한공사가는거슬  
 접슈하야 일을 다 잘주선하야 주는모양으로 되신주관하야 스스로 우리속국인의되  
 접을밧도록하야하며 일변으로 원세키가, 대한정부를식혀 쏘흔이썩슬, 대한공사  
 의게신척하는지라 급기공사가, 미국에 이르미 청인이 이디로 미리준비하야 그지  
 휘를밧도록 만드느니라, 대한공사가 다 뜻지아나하고, 미국정부를되하야 즉접으로  
 국셔를올니고, 청국,공사로더부러 대등권리를 다도려하미 각국은 다 칭찬함을마지  
 안이하나, 청국은 더욱분하야 속으로 위협함이 전보다 우심하더라

▲갑오전정의근인

이썩에 국태공으로써는 권리를일코 한가히 물너잇서 정사에 참여할계제가업스미속  
 으로 불평훈뜻슬품어 소문이 스스로 민간에퍼지느중 겸하야 모든 귀척들이 세도를  
 잡고안져 도식하고 탐학함이 극하되이른지라 창상이어육되여 민심이리산하키 갖춤

닉 스스로 설수업슬디경에 이르니 빅성은 어두운심각으로 원망하던말이 외국인사업  
슬석에는 나라이래평하고 빅성이부요호더니 외국인물들이 들어온후로 람이 홀나  
도 살수업시된다호미 외국인파 상응호고는 곳 살수업는줄로알아 흉용한 인심이 부  
지중에 날마다 비등호더라 이석에 맞춤 김옥관을 유인호야 일본에서셔나 청국  
상히로가셔 썰너죽여다가 그 시신을 류시호야 각군에돌린지라 빅성들이 해아리되  
기화당 역적들은 나라에서 실행호시는바 오 국태공씩셔 위위호시는바인디 더욱  
이 청국이 용랍코져안이호는니 청국은런하에대일대국이오 일본은조고마호 왜국  
이며 우리가 숨빅년티로 닛지못호원슈라 이석을타셔 혼번설치호는것이 상쾌호리라  
호니 이는 전국이 어리석은중에서 즈연히 싱기는싱각이라 일족이 칙호권이라두만  
들어 전파호야 빅성의게 말호마티를 가라쳐 준적이업섯스죽 어두운빅성이 엇지스  
스로 새기를바르리요

대더 포학이 극호뒤에는 반다시 변호는법이니 이는 고금에 면호수업는리치라 이에  
동학이닐허나 주문을닐그며 부작을부치면 능히 바람불고 비를만든다호며 서양사람  
의 대포군함을 전언호마티로 능히 막아닌다호야 전국에 거의 안이밋는자 적게  
된지라 괴슈 최시영이 전라도 고부에서 괴를들고닐허나 네가지명목을세워 각처  
에겨셔를돌나니

일은 사람을 죽이지안이호고 지산을 손상치안을것이며

독립요지

감호전정의근인

빅족심오

이는 충성과 의리를 쌓아 온 천재가야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케 할 일이고  
숨은 왜와 양을 몰아내고 성인의 도를 밝힐 것이오

스는 군사를 몰아 성중에 들어가 권문세가를 다 멸하고 법강을 세우며 명분을 밝  
힐 일이라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손에 누른 괴를 잡았스니 이는 다 무슴리치를 응하엿다 흥이라  
동에서 날 허나 면 서에서 쓰라 서며 남에서 부르면 북에서 응하야 스방이 벌닐듯 응중하  
미 관장을 죽이고 백성을 로락하야 전국이 소요할지라 정부에서 홍계훈을 명하야 군  
스 팔백명을 거나리고, 충청도로 향하야 란민을 치려 할식 원세키가 그 초원 서방  
걸로 쓰라 형평을 삼히게 하더라 경군이 동학당을 만나 루츠 접전하야 여러번 피하미  
서울이 장초 위티 할지라 원세키가 급기, 탄진에 보하미 리홍장이 정병스천명  
을 몬져 발하야, 조선에 와서 동학을 평당케 하며 맛춤니, 일본에 데 하야 혼마티도 성  
명치안이 하니 이는, 청국이 괴왕에, 일본과 약도하야, 조선에 군사를 파송할씨에는  
피츠간에 몬져 알니고 하자 할 말을 싱각지 못하고 다만 제 뜻대로만 힘힘이니 첫저는  
조선의 독립을 멸시하고 돌지는, 일본을 멸시하야 약도를 비반함이 오 세사지는 각국  
이, 조선을 동등으로 티 접하거늘, 청국이 홀로 무리히 티 접함은 다만, 조선에만 무리  
할 뿐안이라 각국을 두로 능멸함이니, 청국이 저리로 이런 기습이 잇는고로 각국이 오  
티 동중히 녀이던바, 일본이 발서 이 뜻슬 엿본지 오린고로 십년을 양병하며 미리

167

독립요지

갑오정정의근인

백록십칠

약도를 당하여 압일을 예비하고 주야로 혼단을 기다리던 중에, 청국이 방조 무리히 군사를 동하니, 일본이 엿지시각을 지체하리요 즉시 군사를 파송하여, 아산과 인천으로 물미듯 들어오며,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 하고 분분히 상륙하여 만산편야촌지라 리홍장이 대경하여, 일본 정부에 힐문하여 왈

우리가 속국왕의 청구함을 인연하여 약간 구원병을 보이며 란민을 정돈시키려 함이요 별로 다른 뜻이 업거늘 귀국이 엿지하여 대병을 보이며 너디에 돌입하는 노그 뜻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지라

일본이 곧 대답하되, 조선은 두렵한 독립국이라 귀국이 지금 와서 속국이라 할수 업고 겸하여, 런던 조약이 잇서, 조선에 군사를 보내게 될 때에는 랑국이 홀로 힘치 못하고 서로 알난 후에 형상자하엿거늘 이번에 귀국이 먼저 성명하지 안코 졸디에 동병하니 이럼으로 우리도 또한 군사를 보님이라 하니

이석에 만일, 청국이 실수함을 깨닫고 군사를 도리키여 호의로 조처하여 이전에 여러 번 공포한 말을 준행하였던들 그 욕을 당하기에 이르지 안엇게고, 대한에도 또한 영광이 되엿슬 거시어늘 우준한 완습으로 종시 깨닫지 못하고 다만, 일본을 업수히 녀는 심각만 가득하여 여일하고 짐항야, 조선이 저의 속국이라고도 하고 안이라고도 하여 분명히 질명하는 말이 업시 군사를 못 것지 아니하는 자라 음력 칠월 초하루날에, 일본 황제의 선전서를 반포하니 그 글에 왈

짐이, 청국과 전정하노니 모든지척맛흔 신하들은 우흐로 짐의 뜻슬 받들며 아리로 백성의 뜻슬 순히 하야 쓰호기와 직히기에 각각지척을 다 하야 국가의 영광을 들어 너며 만국의 공법을 억의지 말나 짐의 본의가 문학을 숭상 하고 전정을 업시 하야 백성이 편안호복을 누리게 하고 저함인고로 즉위호후 우금습심년리에 홍상조심하야 각국과 교제를 일치 안이 하며 대신의게 이 뜻슬 신척 하야 년리로 외국들과 정의가 가장 친밀하미 벗어나와 잘사피음을 심히 깃버 하디니 근리에 이르러, 조선스건을 인연하야, 청국이 여러번 신을 저바리미 실로 짐이 생각지 못홀바라 원리, 조선은 독립국인고로 각국과 약도 하고 서로 통상 하느니 이는, 일본의 권도호힘이 업지 안케늘, 청국이 홍상 저의 속국이라 하야 그 너정을 간섭 하다가 지금, 조선에 일이 잇스미, 청국이 속국을 보호한다 칭탁 하고 군사를 들어 그 너디에 들어 가니 짐이 일천팔백팔십이년 약도를 쓰라 군사를 보너 불의지변을 방비 하며, 조선을 환란중에 서건지고, 아세아, 동방에 태평을 보전 하야 짐의 원을 일우려 하노고로, 청국을 청하야 화평히 의론코저 하엿거늘, 청국이 백가지로 칭탁 하야 합동하려 안는지라, 일본이, 조선을 권하야 정사를 곳쳐서 안으로 백성을 편히 하며 밧그로 교제를 친밀하게 하미, 조선 정부에서 변혁호츄의로 명백히 허락 하엿거늘, 청국이 속으로 저희 하야 너란을 진정 한다 칭탁 하고 군사를 동하야 슈륙으로 전정을 예비 하고 군사를 점점 더 보너, 조선에 잇는 세력을 장하게 하야 강포함을



대 황 치 명 본 일

정 권 성 권



정전청일

169

밋고 약한 나라를 꺾박하여 홀로 리로올게척을 도모코져하며 거만무례함으로 우 리군함에 덕항야 대포를 못키에 이른지라

대덕, 조선의 독립이 위난 원리, 일본의 유지 힘으로 각국약도에 인허하바어 놀, 청국이 이러듯함은 다만, 조선의 디위만 손허할뿐안이라 각국의약도를 또 한 멀시하고 우리국권을 손허하며 동양의평화를 허롭게함이니, 청국의 욕심과 화심은 밝혀들어는지라 우리나라의 외로운군사를 드는것이 또한 부득이함이니 우리충성하고 용맹시러은 백성은 각기 그직척을다항야 속히 태평을일우게하고 국가의영광을 들어니기를 짐이 기히바르노라

일변히 기록으로 전정이버러지미. 원세기는 미리형편을보고 도망항야 물너가며 청 장. 섭지초는 도처에피항야, 아산, 공주, 평양에서 점점물너가서 전국이 거의다 일 병의둔취하바어 되었스되, 조선서는 종시 고집항되 청은대국이오 일은소국이며 청 은은인이오 일은원슈라 필경청이다사의의고 들어오면 디답할말이 업슬가두려항야 정부스. 리승순. 민영달등을 파송항야 관원 일백수십인을 다리고, 청국에가서 비 반치안는뜻슬뵈히고 일후에 용셔엇을 문을열어노으며 백성인즉 집을뵈여 청병을쥬 며 저물을너여 청병을조역항나 관민의어두움이 이러듯 심한즉 엇지 독립국권을의 론항리요 만일 기시에 청인의의엿던들 우리국권은 엇지되었게스며 우리백성은또 엇지 되었게스요 우리, 대한, 스람들이 불가불 지금에안져 한번다시 생각항여 볼일이

독립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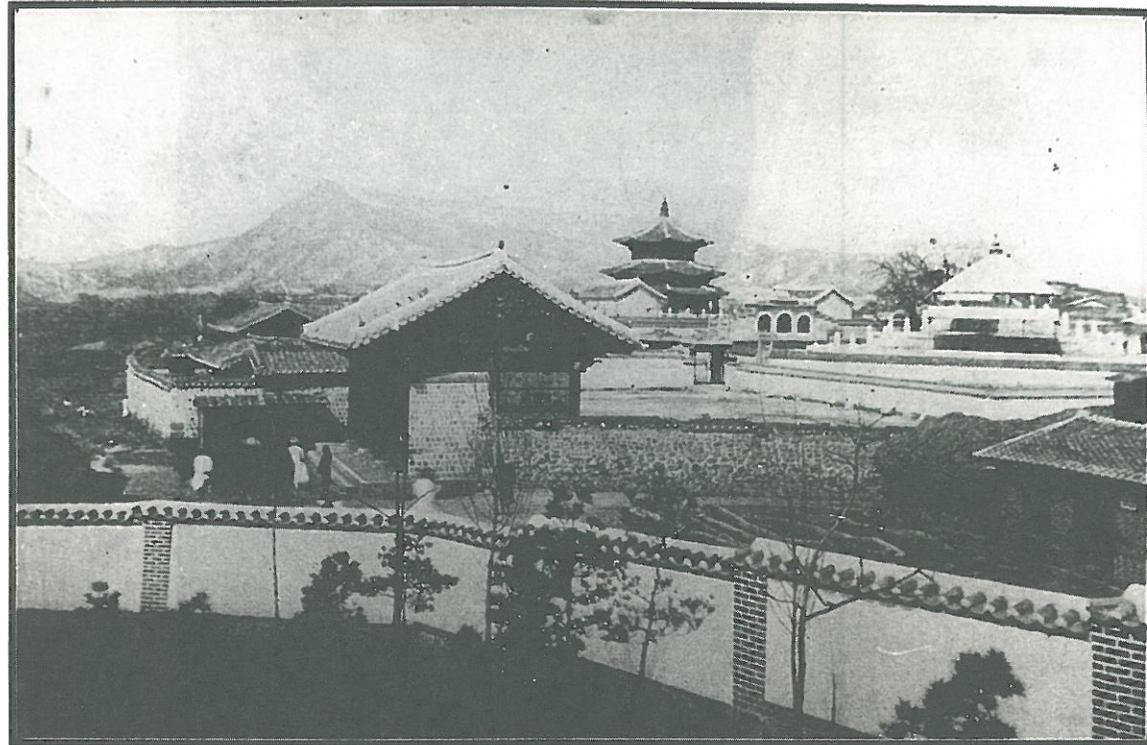
갑오전정의근인

백록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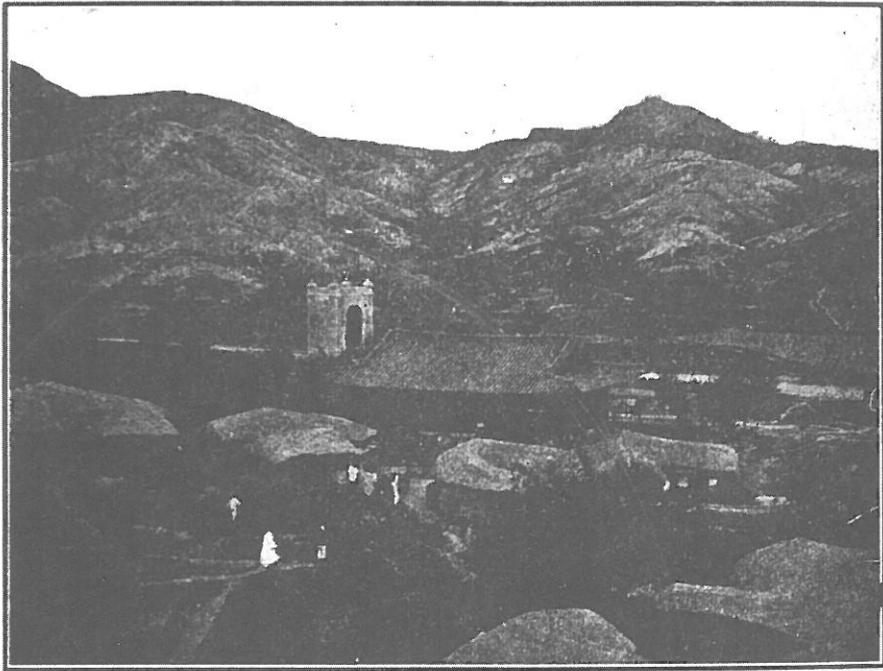
로다

▲갑오전정후관계

이석에 청인이 련하여 봉피함의, 의주에서 쫓겨 압록강을건너, 청국으로 넘어서서 구련성과, 봉황성을 차례로써앗기며, 러순구의 협고호호포되는 각국이 다 엇지할수 업는곳이라 하던것이 일시에일허바리미, 북경이흔들녀 인심이소동하며 던하가놀녀 여 세상티도가 일시에변하더라 원리로 각국이헤아리되 청은 던하의거대호고국이라 전자에, 영, 법, 량국이, 북경에들어가, 청국의 위엄을셋거스나 요마호, 일본으로감히, 청국과 전정을시작함은 실상 망녕된거조라 제나라도 보전키 어려울일이라하야 열과쓰며 그 담대함을 남으리더니 천만의외에, 일본이 빅전빅승하야, 청국이 다시는 여디가업게되미 각국이 비로소 공론을변하야, 일본의 의리를칭찬하며, 청국의완고 우준함을 뉘워하야 심분관난함을 도라보지안이하니, 청국이 더욱 엇지 할수업더라 본리, 청국의, 영국의 부강함을 장하녀이며 그 부강한근본을 연구하야 힘흥기는 힘 쓰지못하고 도로혀 의퇴할무임으로 호상 특별호호접을보혀 속으로 정의를사고져하며 아모써나 어려운일이 잇스면, 영국이 나의돕는자 : 되리니 별로 걱정업스리라하다가 이석에 이르러 도아쥬기를구하니, 영국이 엇지 정의를인연하야 형편을도라보지안이하리요 국외중립을직혀 간섭지안는지라, 청국의바르던것이 여의치못함미스세는급급하고 다른도리는업시, 일본의티하야 화친을청호시. 리홍장이, 마관에서



단구원 에 비 성 양 한



대 한 독 립 관 파 독 립 문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관욕을 무릅쓰고 빅반으로의 결사항전, 비상이여 만원을 물고 일천팔백구십오년 스월이십팔일에, 마관, 춘범루에서, 일, 청, 량, 국이 강화도약을 명하니

데일도에 흥였스되, 청, 국이, 대한을 확실호 주주독립국으로 밝히 인허하야 완전히 흠절이 업슴을 아논고로 독립주국 권리에 조곰이라도 손히 될것은 다 업시 할지니 기전에 히마다 소위공물보닌던일 갖흔페단은 일절페지하노라 흥였스니

이후로, 한, 청, 량, 국에 교제가 순쳐 피츠에 간섭이 업스미 당시에 변화하고 세력잇던 략동청관에 닷쳐둔문전이 닛락하야 황룡기를 거가고 빈괴스되 만섯스미 그러듯강포무리하던 청인의괴세가 다 어뒤로가고 여간상민들의 괴운이 셋겨지니, 중국을 높히고, 원세키의 충노되여 영화부귀로도 모하던 세력대자들이 고기를 속이고 자치를 감초아서, 중국이 음흉한 권력이 만리장풍에 흑운가치 물너가 기명의식괴운이 날바다 들어와서 기화의괴초가 이척부혀 뿌리가 박이니 이후로 영은문(영주문)을 헐어내고 독립문을 지으며 남별궁을 변하야 원구단을 만들며, 조선을 곱쳐, 대한이 되며 대청년호를 업시하고 기국 건양 광무등 다년호를 지의로 변혁하며

대군주 대황제의 존호를 받들어 세계대왕들과 상등디위를 회복하시미 무술년십이월 십습일에, 청, 국이 서로 공스, 서슈봉을 보니여, 한양에 이르러 이십일에 대황제 폐하 새알현하고, 청, 국, 황제의 국서를 받치니 그 글에 흥였스되

독립요지

갑오정정후관계

빅철십일

독립외지

갑오전쟁후관계

백철십이

대청국 대화대석 공경홍야

대한국 대화대석 편안홍심을 못노이다 우리두나라이홍씩 아세아주에잇서 물  
과륙디가 서로련홍야 슈빅년리로 도쿄연잔은거슬 서로관계홍야 피츠를 분간치  
안이홍고 능히 도을수잇는일은은 모은과힘을다홍야 갖치편안홍기만 바릇손죽이  
는 귀국스기에 자지홀지라 더 말홍것업스며 광서처음히게 귀국이 아메리가와  
구라파주 여러나라들과 약도를미즐씩에 글을만들여 밝히 말홍였스니 이는 귀  
국이 오리도록 닛지안는뜻슬표홍이라 근리에 각국이 즈유독립홍으로 공번된의  
를 습는고로 광서이십일년에 청일양국이 마관에서 약도홍고 첫도목에 귀국  
즈유독립을 밝히들어니였스며 겸홍야 네쩍북허 친밀히 지닌던정의와 근디시세  
의 어려음을싱각홍죽 서로관계홍야 보전홍논의를 도라보지 안을수업기로 이품  
후 서슈봉을 출스대신을보니여 친히 국서를쓰주어 받들고 한양에가서 짐의  
뜻슬 디신홍는바 이스신이 충성홍고 진실홍며 일에련속홍오니 바르던디  
대화대석서는 바아접디홍샤 귀국정부로 더브러 통상약도를당홍야 이후로 양국  
이 영원도록 화호홍정의를 돈목히홍야 함씩승평홍을누리게 김히 바르나이다홍  
였더라

이글을 받친후 각국통상약도를쓰라 시로히 약도를당홍고 평등디우로 교섭이친근홍  
니 이는다 갑오전쟁후에 들어난효험이라 우리가 우리힘으로 권리를회복홍야 능히



후황서광국청



명황서광국청

173

씩로 섰더면 다만 첫일흥으로만 효험을 얻을뿐안이라 실로 권리상효력이 또한 이러  
 하였을거시어늘 이거슬못하고로 우리가 오늘날 이말을하기에 실로 슈치로움을면치  
 못하느바—나 그 실상이 이러할즉 보느자—맛당히 생각할일이잇도다 전일에 우리  
 가, 중국을 돕히는것이 도리로알았스며, 중국이 매일 큰나라로 알던싱각을 오늘날  
 에 비교하면 전일에 어리석음이 었더함며 오늘날효험이 었더한거슬 황연히 깨달을  
 지라 전일에 우리가 진작 깨닫지못하여 남의조력을 었게됨을 일심으로 흥분히녀여  
 어셔빚비 더 모르고 어두운동포들을 깨닫게하여 가지고 쥬야로 일들하야 오늘날에  
 당하느슈치를 써셔바리고 영구한국권을 서로세워 볼지어다

▲아라스의세력이료동에침범함

이씨에 각국은 다 국외로안져 이전정의 결말을 구경하다가 급기전정이 평당되는자  
 리에, 일본이 비상을 은으로 이억만량을 밧으며, 료동은디방을 다 차지하느니라, 일  
 본이 과탐히 도식함을시비하야, 아, 법, 덕, 습국이런합하야, 일본정부에 조회하고, 료  
 동은 곧, 청국,으로 도로돌네보니라하디, 일본정부에서 허락지안이하다가 필박할디  
 경에 이르러 비로쇼 물너가고, 동은료 도로, 청국,에 쥬었스나 그 디신에 돈으로 일  
 억만원가량을 더물니고, 대만을 차지하얏스니, 일본의 실상리익은, 료동,반도불다  
 차지한이만 못하지안엇스나, 청국,인즉 지리로 첫일흥으로 외양치례만 중히 녀이느  
 고로, 료동을 도로회복하엿다느 말만잇셔도 얼마싱광으로 녀이느니라 전부터 밧고

독립요지

아라스세력이료동을침범함

빈첸심승

의회헌법, 영국,은 아모말도업는중에, 아라스이 홀로 힘을써서, 법,덕,을합하여, 료 동을 츠져주미, 아라스를 감스히녀이논 믿음으로 은근히의뢰하고저하는지라, 아라스이 그정형을삼히고 비밀히 달녀여왈 타국은 다 밋을수업고 다만 우리가 귀국과 디경이 접하여 편안하고 위티함이 갖가히관계되니 만일 우리두나라이 연합하면 런 하에 두려울거시 업는지라, 료동중간으로 텔로를노으면 대단히 리로올터이나 귀국 의지정이 부족흔즉 우리가 티신지정을 녀여 노을터이니 이텔로를 우리가노으면 각 국이다 우리량국의 정의가 천밀함을알고 감히 엿보지못할리라함미 어리석은져, 청국이 이말을 달게듯고 텔로노기를 허락하니, 히슴위에서부터, 만쥬중간을건너, 려순,서지동하고, 려순구를 빌어, 아라스,군함의 근거디를 만들어, 서빅리아(서세리아) 텔도를 련락하며, 텔로를 보호한다칭탁하고, 간간이 병참소를설시하여, 군스를두어진 압항니 이러듯, 광활호도디가 외양은 비록, 청국,쌍이라하니, 실상은 다, 아라스의 관 활속에들어, 청국,이 엿지홀수업시되니, 아라스로 말을진디, 당초에, 서빅리아,텔로를 노을적에 그원헌던바,이 실로여기까지 밋치지못하였다가, 일조에 총흔방안이노코, 피 헌덤안이홀니고, 아세아,동편에 한업시, 광활하고, 한업시, 기름진, 도디를 점령하여, 대 한,과, 청국,의 중간을 걸쳐안즈며, 얼음이 얼지안는, 려순,항구를 츠지하여, 동양의히 류권을 임의로조종하니, 아라스의, 다형은 실로말할수업스나, 런하에, 범곳흔, 욕심이 엿지, 료동,반도를 먹는것으로만, 풍족히녀이리요, 동양,일편을, 모도,경영함이, 가장,음험

175

하며, 청국으로 말하면 헛일홈만 차지하고 실상권리는 남의꺼니워 주어 영히 회복  
 홀 회회가 업는지라 각국이 이 소문을 듣고 과연 허락하였는가 질문하느즉 어름어름 되  
 답하야 각국을 미지안는 실정을 들어니미 각국이 분로하야 시비가 분운하니 제 거슬림  
 주어 가며 세상에 실인 심함이 엇지 통분치안으리요 이번, 일, 아, 천징의 썩리는 이 썩  
 허성긴 것이라. 리홍장이 즈괴의 영귀를 보전함만 중히 녀여. 서태후의 종이 되야  
 아라스를 의지하고 국도를 팔아 동양에 란리틀세 사쳤스니 그 더러운 목숨이 천만년  
 을 살지 못하고 오년전에 간신히 와석종신하였스나 천추에 무궁할 죄명은 실로써 시  
 어려오리로다

▲청국 의화단스변

리홍장이 본리, 청국의 홀로 주창하야 황데아리는 곳 스역 만인구의 으뜸인고로 각  
 국이 그 명망을 추앙하야 세계상 호걸인물중에 갖치던바라 겸하여 즈고로 각국  
 과 담판교섭되는 일은 모도 리씨가 주창하야 결쳐된 것인즉 동양 정치대가중에 데일론  
 저 열닌자가 또한 리씨인고로 뇌외국인의 바르느 뜻시 적지안은지라 동양형편이 점  
 점위티할 썩를 당하야 서양관민중에 고명호 친구들과, 대한, 일본에 유지호선비들이 왕  
 왕간절히 구하야, 대한을 평등국으로 되접하야 광서 황데를 밧들여 동양에 명주가 되게  
 하고 리명을 힘써, 아세아, 형제를 유지하라 하였스되 종시 완고호구습을 세치지 못하  
 여 일향고 집하다가 갑오년에 이르러 천고에 처음 당하느 곤욕을 밧으리 그 제야 해아리

독립요지

청국의화단스변

비철심오

되적은, 일본이 우리들의 입은 다른 연고가 없고 다만 식법을 힘쓰고 안이쓰기에 있다  
 항야 이에 황명을 받들고 서양각국에 스신이 되어 문명훈계제를 유람하미 비로소 부  
 그러은 생각도 나고 흠선훈출도 깨달은지라 도처에 감동하는 뜻슬 설명하고 도라가서  
 곳 회화를 힘쓰고 줄로장답하니 각국이 본리 그명망을 중히 녀이던터에 비록, 일본에  
 게훈번육을 당하였으나 불과 병가상사라 지금세계를 유람하고 더러 뜻 흠탄을 생각  
 잇는즉 도라가는 날은 응당 나라를 일신하게 만들어 동양에 부강을 일우게 할지니 엇지  
 장항지안으리요 항야 각국에 왕이하로 도처에 룡송훈덕접이 비홀디업더니 급기 도라  
 오는날에 황대씩 알현하고 혁신을 힘쓰고져훈즉 광서황대는 란리를 지닌후로 또훈얼  
 마썸 몬져 깨달은지라 네썸제도를 업시하며 식법을 힘쓰야 빅성이 의론하는 권리를 열  
 어 상하관민을 물론하고 아모던지 국민에 유조할 일이 잇거던 바로 상소를 올니게 하  
 야 디위 나즌자는 상소 못하던법을 혁파할시 이씨에 서태후가 권리를 잡아 쥘정에  
 모든 완고대신들이 다 서태후의 심복으로 황대의 기화하려는 뜻슬 실행하여 서로  
 편당을 데결하여가지고 황대를 희코져하는지라 이씨에 강유위, 량계초 등이 기진  
 상 지스로 황대의 대조를 받들고 민간에 회를 모아 국중에 유지훈 선비들을 모집하여  
 황에 툄 받들어 기력을 실시코져하다가 마침내 서태후의 희를 받아 후 잡혀도륙을 당  
 훈자도 잇스며 후 도망하여 타국으로 표박한 자도 잇고 남은 무리들은 호히저스며 황  
 태를 가두어 필경 독한약을 써서 살히하였다는 소문이 세상에 랑조하였느니 서태후



최벽량 슈령당신유국청



청국유신당령슈  
강유위



후래서국성



성국국권을조롱하던 리홍장

Vertical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likely a historical document or inscription, written in traditional Korean calligraphy.

177

독립요지

청국의화단수변

빅철심철

는 황제의셔모라 인종야 국권을찬탈하여 기획의괴초를업시하니 이는 무솔년일이라  
이셔에 리홍장<sup>○</sup>이 전일유람장<sup>○</sup>던싱각은 다 바리고 서태후<sup>○</sup>의게분히 권리를보전하  
며, 아라스<sup>○</sup>에의지향야 모든 서태후<sup>○</sup>의편당과 합력하여 주선함의 이 모든국권과강  
도를 손히향는약도가 다 이셔에된것이라 어두은빅성들은 엇지향여이러하며 어디나  
라스<sup>○</sup>들이 탐욕을넉인지 분간치못하고 서양사람들이 다 갖치,청국을 업시향려온줄로  
만알아 모도 저의원슈로녀이더라

즈리로,청국에서 교인을 위워향는페단이 심한지라 서양교수들이 들어와서 전도향  
는뜻시 아모 다른의스가업고 다만 즈기들의 지산과 인력을 가져다가 어두은빅성의  
게 즈기들의 도케아는바를 갖치알니교저함이어늘 청인들은 그교인이 후토디를세  
앗거나 빅성을 히향려오는줄로알아 관원이나 빅성이나 교인을맞나 기획만잇스면곳  
히향기를 전력향미 그 교민는나라에서 불가불 간예향야 권리를 보호향기에 이르미  
인종야 더욱이 같등이되여 교인을 히코져 향는싱각이 은근히 자라는데 교수들이  
글을지어 전파향거나 말로전도향야 허무한거슬 미지말며 헛된것을 섬기지말나하니  
이뜻슬 더욱이 실행향여 간간히 허무한말을 지어니며 민심을선동향야 외국인을몰  
아너려는거조가 종종싱기다가 이셔에이르러 형편을삼혀본즉 서태후<sup>○</sup>이하 모든세  
력가진자들이 다 기획와원슈되여 인심을 선동향는지라 어두은민심이 스스로헤아리  
되우리가 이런괴회를 다시엿지못할지라 일시에닐어나 서양인들을몰아내고 네사법

을회복하여 여전히문답치고 우리세리 살자하고 의화단을 모아 무리를합할시 요스호 말을지어 주문을외이며 부자를붓치고 호풍환우하는지조가 있다하여 스방에 전파하 미거의 전국빅성이 다 듯고밋기에이르니 맞치 우리나라에 동학란리갓치된지라 권 세잡은자들이 속으로찬조하여 뇌외가화응하니 당시 저의소견에는 온세상이라도 곳 번복하기가 어렵지안을듯하더라 대란을닐히켜 교인을 살륙할시 남녀로소 물론하고 전일에 혹 교를밋거나 기화변에 갓가온듯흔자는 물슈히죽이며 모든 외국인은 공령 스이하 대소관인이나 상민이나 교인이나 통히 구별치안이고 몰슈히 업시하려하 니 각처에 교당학당이며 뇌외국의 집파저산을 불노코 로략하여 각처에 손히당할것 이한량이업스며 도처에 인명살히흔거시 또한 슈가업는지라 각국거류민들이, 북경, 에모혀 서로보호할시 란민들이 발셔, 북경,에가득하여, 덕국,공스와, 일본,공스관서 괴성이 살히를당하미 허다흔외국인의 사성존망이 호흡에잇는지라 세계에 소문이사 각에전파하미 각국이 일테로진로하여, 영,미,법,덕,아,오,의,하,포,일,합얼나라군 스가 스방으로달녀들어 일시에련합하여, 북경,에 돌입할시 성문을쇄치고 물밀듯들 어가 교인을구원하며 란민을소탕하니 폭발약과 대포소리는 띠디를진동하는지라의 화단을닐히킨, 단친왕,의궁을 불지르고, 황성을 점령하니 경조팔월초스일에, 셔태 후,와 황태,는, 셔안부,로피란할시 모든친왕과 대신들은 다 몬셔도망하고 다만 뇌시 몇명이 호위흔지라 여간관리와 상민들이 피란을만류코져하디. 셔태후,는 즈괴의죄



179

를 짐작하는 고로 화가 마음에 밋출조를 알고 물니써져 도망할시 천리원정에 무슈한곤난  
을적금은 실로 가공한스정이 만헛스나 뜻는자 - 또한 측은히 녀이지안터라 이씨에  
각국군스들이 청인이 무고히살인함을 분히녀여 도쳐에로락질과 살상함을 여디가업  
게항야 여러천년을유전하는 모든보피와 고물을 낫낫치가져가며 사부가부녀들을 무  
란히잡탈하니 그 포학과 능욕을 견딜수업셔 스방으로 도망하고 길거리집들은 불에  
타서 파상한것이 태반이라 그중 아, 법, 덕, 군스들의 침욕이 더욱심항야, 휘춘디방  
에서는 아병이 청인남녀로소 숨천여명을 구축항야 하슈압헤이르러 날니왈

너의들이 이 하슈를견너지안으면 다 죽이리라 항거늘

청인이 울며왈 우리는 순량한상민이라 다른뜻시업고 또한 무죄한 부녀들과 하고어  
린빅성이야 무슴 란을지엇스리요 잔명을 의결항노라하고 방성대곡 항거늘

아병이 링딕항녀왈 우리는 상관의명령만 준행할뿐이라하고 슈명을못지르니 청인이  
할일업셔 쇠화로인파 어린, 히와 연약한녀인들이 후업더져 괴절도항며 분분히 물  
에더져 시신이 쌓납해 귀에쓰힌것갓흔지라 그중에 절문녀인호나는 어린, 히를안고  
풀습해업덕여 울며의결항다가 필경 살수업슴을보고 그, 히나 살가항여 풀습해바  
리고 물에써져죽으니, 히는철모르고 어미를불으며 우는소리가 스름의간장을 찢는  
듯항거늘 아병은 조곰도 동심치안코 창삿해 세여들고 의기가양양항야 합이 스천여  
명을 몰슈히죽이니 후룡강물이 피빛슬일우더라 그후 이디방에서, 대한스름이천여

독립요지

청국의화단스변

빈칠실구

명이 또 아인의 화를 몰수히 당했으며, 합이 빈디방에서 관장이 인민의 게효유하여 각 국군수를 반가온 뜻으로 영접하여 드리라 함이 아병은 그 호의를 모르고 저자를 불노 으며 부녀를 겁육하며 사부가 귀부인은 육을 보고 저결한 자 - 오빅철십삼인 이오 하등 녀인들은 멧놈식들녀가며 육을 뵈이고 갈색에는 창으로 질녀 죽이고 도라셔며 그남은 녀인은 육을 견디지 못하여 죽는 자 - 무수한 미, 일본, 군스의 게와서 아병의 무리함을 호소하는 자 - 스빅여명인디 그중에 죽은 자 - 십일명이라 량반이나 대관이라도 구별 치안코 맛나면 잡아서 짐지우고 역스식혀 조곰만 불순하면 장화신은 발로 박차며 총 디와몽둥이로 란타함미 디위와문벌을 자랑할 곳시업더라

대덕 아병의 포학무리함은 각국이 다 시비하기를 마지안는바 - 어니와 무도한 청인이 무단히 세계와 원수되어 앙화를 저취함이니 녀의 무리함만 원망하리요 다 각기 저의 죄책을 몬저싱각함이 맛당할지라 어두운 옷사람들은 저괴들의 죄가 잇서 당하는 거슬 불상타 일을 수업거니와 무죄한 잔민들은 다 옷사람을 잘못맛는 죄로 참화를 당함이 원통라 할터이나 백성이 저의 정신을 못츠리고 어둡게 지니기를 편안히 녀일진 디 마참디 육색구분이 되는 날에는 죄잇는 자만 당하는 것이 안이라 지금세상에 처한 자 - 는 부인이나 으히라도 세상형편이 엇더하며 국민된 본의가 엇더함을 알아야 되 리로다

▲ 일아정정의근인

조리로 청인의 무도함이 상상외국인을 잔혹하여 혼단을 자조닐회키미 세상에서 통  
분히 녀이며 시비가 무수하여 심지어 로디를분할하고 국권을업시하자노 의론까지  
있었더니 이세에 이르러 십국대병이, 북경을 점령함의 각국에공론이 더욱분운하여 아  
조성을난호어 국권을업시하여 일후다시 이런페단이 심기지안케하자하미 그세형편  
으로난, 청국,일본이 부지항기를 바를수업슬듯중중에 더욱이 넘려되노바는, 청국에  
란리를 정돈후에 열국군사들이 각각점령하였던 도호노디를 무심히되여 노코 물너  
갈리가 만무할듯하나 그중에서 피츠간 기름진고기를 닷도다가 큰 전징이 열국간에  
싱기면 동서양이 크게 요란하리라하여 각국정치가에서 급히념려하기를 마지안더  
니 다행히 각국의후의로, 청국의노디를 손히치말며 국권을 보전하게하노는것이 일에  
도정대하고 각국간에 시비도 업스리라하여 각국스신들이, 북경에서 다시 화친도약  
을 의논하시. 명친왕이 광서황제의 명을받들고 강화스신이되여, 북경에 이르러 군  
스물닐약도당하니 그약도대략에알

일은 란리를닐회킨 모든대신들은 사형에 처할것이오

이는 각국이 이 란리에박은 전후손회를 합당하게 비상하여 물어줄것이오

숨은 각지방에 외국인들과 교당과 교인들을 특별히보호하여 다시 후환이 업게할  
것이오

스는, 런던, 온디방은 국외디를숨아 각국의 공동히 관계되노는쌍으로 인가할것이오

독립요지

일야전정의근인

비판신인

오는, 만주, 온디방은 다 중립디를슴아 각국간에 일후 전징이잇더리도 그 디방은 병화가 밋치지 안케할것이오

륙은 각국이, 청국, 각처등상항구에잇는 외국인의 실명지산을 보호하기위하야 슈 비병을두어 후환을 방비할일이라

이약도를 덩하고 전징을 정지한후 비상금을 이억만원을 덩하야 비년하야 물게하고 각국군스가, 북경에서나와, 련진으로 물너나니 이년 곳업셔진, 청국이 다시 싱김 이라 세상에 뉘안이 다행이녀이리요 이거슬보면 각국이, 청국을 디접함이 실로 뜻 밧게후의라 그 녀은토디를 혼조각도 손히치안이하고 낫낫치 돌너보이며 비상을 또 혼 이러듯 간략히덩하야 갑오년, 일본에갑혼 슈효에비하면 겨우 반에지니지못하니 일로불진디 각국이 다, 청국을 히코저하는 악의가 업슴을 족히 짐작할지라 이적에 각국이, 서태후의 소위를동분히녀여 괴어히 국권을 황데씩돌너보이고 정스에간에 처 못하게하논것이 올라하야 의론이 싯흔 만엇스나 이는 각국이 위력을형하야야 될 지니, 청국 독립권에 손히된다하야 인하야 저의세리 하기를맛겨두미. 서태후가 환 궁하야 외국인의게 무슈히 사과하고 용랍하기를 간구하미 각국인이 더욱 동승히녀 이더라 이적에 열국군스들이 기한을덩하고 일제히, 련진으로 물너갈시, 아라스, 군 스는, 려순구와, 산히관으로향하야, 우장, 휘춘, 합이빈, 디방에 난호어 응거하니, 만 주, 온디방을 동히 차지함이라 타국이철문하면 디답하되, 청국과 약도가잇셔, 려순

183

구와, 만주 지방에 괴왕부처 털로 보호하는 군사를 들 권리가 있다 하며 속으로, 청국을 달리고 위협하여 분명히 대답을 못하게 하니 각국의 시비가 더욱 분운하니, 아라스는 전복쳐 그토디를 전혀 숨기고져 하여 털로 노아 밤낫스로 나오며 혼단을 기다리다가 갑오년에, 일본이 츠지함을 보고 곳저의 거슬 가져가는 줄로 녀여 괴어히 위협하고, 청국에 차져준 후 속으로 은근히 어리석은 청인의 허락을 잊어 관할하며 권리를 잡았으나, 실상들이나 개 확장치 못함을 항상 한눈다 이색에 이르러 다시 맛나기 어려운 기회를 당하기 군사를 움직여 영히 내거슬 만들고져 함이라 각국이 이삿슬 짐작하고로 다도어 힐문한즉 아모날은 물니 간다 하여 괴한을 당하고 은근히 군사를 내다가지 세력을 더하여 이러듯 파악함이 혼두번이 안이라 각국의 시비가 점점 더 홀스록 아인의 형세는 점점늘어서 심지어, 청국, 관리를 몰아니치고 송스와 세랍받는 거슬 다 디신 하여 주장하며 밤낫슬 쉬지 안코 군사와 전비를 털로로 실히다가, 러순구와, 허삼위와 압록강 등디에 여러 만명을 둔취하고 형세를 장히 하여 위엄을 보히며 일변으로, 대한, 서북 지방에 침범하여 점점 뿌리를 잡으며, 대한 정부에 인허를 잊어 서북히 변에 벌목 혼다 칭하고 몇 백 명씩 군사를 평복시켜 스방으로 들어오며 작년 양력 오월에, 룡암포를 곳쳐, 저니콜나스라 일출하니 이는, 아라스, 황제의 일출으로 불니 이 황제 시절에 었은 쌍이라고 영원히 괴념코져 함이라 군사를 상륙시켜 포티를 쓰으며 압록강 연변에 군사를 둔취시켜 니디로 침범하여, 비성을 로략하기 모든 불법 불의함이 비할디 업는지

독립요지

일어전정의근인

비철심오

라 각국이 뉘안이분히 녀이리요 기중에 미국과 영국이 가장 관계를 중하게 녀이  
 니 이는 두나라이 도처에 통상과 전도하기로 주장을 습는바, 청국에 대하여는 관계가  
 더욱 끈지라 그림으로 미양, 청국, 지방을 었던 나라이 차지안도록 힘쓰며 스스로 문명  
 하야 막힌곳이 없시 다 열니기를 바르느바 어늘 만일, 아라스이 이 큰디방을 다 점  
 령하는날은 각국의 교섭을 싼코 홀로 차지하지니 각국의 손히가 었지적다 하며 었지공  
 번된 뜻이라 할리요 이럼으로 영, 미국이 먼저 발론하되, 만주를 통히 열어노아 각  
 국사람이 공변되히 통섭하느라 었스미 그 관할하는 권리는 뉘가 주장하던지 열어노키  
 만 홀진미 별로 간섭지안코져 하엿슬거시어늘, 아라스이 홀로 즐겨안이 하야, 청국  
 을 속으로 위협하여 열어노치 못하게 하느니라 이세에 대한 서북지방이 또한, 만주  
 와 갖치 되는모양을 보고 각국이, 대한 정부를 권하야, 의주를 열어노아 각국 통상디를  
 만들자고도 하며, 통상포를 기항하야, 항로반비 각국에 성명하라고도 하니 이는 각국  
 에 관계도잇거니와, 대한에 데일 리로는 방척이라 신속히 각국에 반포하야, 만국상통  
 디를 만들진미 영원한 내상으로 변치안이 하고 각국은 감히 넘겨다보지 못할거시어  
 늘 정부에서 후이 뜻슬 짐작하고 각국의 원함을 쓰라 허락하려 하엿스나, 아라스이 자  
 조속으로 위협하야 허락하지 못하게 하미 통상 각국이 일변으로, 대한 정부를 독촉하  
 야 신속히 반포하라고 하며 일변으로, 아라스와 교섭하느라 여일히 약도잇는 것만 빙자하  
 고 날마다 군사를 늘여 영히 물너갈 뜻시업슴을 보히느니라 세상에서 점점 분히 녀이

는 중 가장, 일본이 더욱 긴급히 녀어는 이는 감오전정에, 일본이 차지할쌍을, 아  
라스의 탄압으로 들너보던다가 이썩에, 아라스이 썩앗습은, 일본의 권리능력  
홈이 오또호넨은쌍이, 아라스, 세력에 들어가면, 대한과, 청국이 쓰라위티홀지니  
엇지, 일본이 보전하기를 바르리요 이럼으로 슈십년전에 쥬야이를쓰고 일호넨것이  
전혀 이썩세잇거늘 엇지 통상하고 전도하는 리익상에만 관계호 태셔각국에 비호리요  
혈심으로나셔셔, 아라스와 담판을청하야, 아라스에 쥬초호, 일본공스의게 전권을  
맞겨, 피득보정부와의론하야 결쳐하라 호엇더니, 아라스이 미리알고 담판호  
뜻은 허락하  
나 이력저력밀우워가셔 후 황제가 환후의게시니 못호다호며 후 황제썩셔 타  
국에유  
람호시니 의론호지 못호다호야 빅가지로 칭탁호미, 일본이 엇지홀수업셔, 일본, 동  
경에잇는, 아라스, 공스가 담판을열어 호의로 조처호를 썩썩치힘쓰되 또호  
합의치  
못호고 점점 의론이파멸되야, 아라스, 정부에서 군스를 날파다늘이며, 알려시프  
으로  
아세아, 동방에 총독을습아 동방모든일은 다 전권으로맞기니 이는 모든칭탁을 아  
총  
독의게 밀우고 아총독은 정부에밀우워 피초 미는중에서 세월만천연하야 그  
동안 전  
정에비나 완전하호면 각국은 물너가기를 독촉하다가 초초 무음이식고 괴운이  
곤호  
여 스스로 물너갈지니, 일본이 엇지홀수업습을것이오 설령, 일본이 홀로  
쓰호려홀지  
라도 요마호적은나라를 곳멸망식히기가 여반장이라하야 피리무도호미  
갈스류심  
하야 처음에호, 일본을 썩여알, 만쥬를 우리가 엇지호던지 상관치말면, 대한을, 일

독립요지

일야전정의근인

비판실오

본이 엇지하던지 상관치안케 하다가 얼마 후에는 또 하는말이 대동강남북으로 반분하여 북은, 아라스, 권리안에 두고 남은, 일본, 권리안에 두자하미 각국이 점점 진로하야 쓰호지안이 높고는 결단코 정돈될수가 업스리라하거늘, 일본, 백성들이 날로 쳐동되여 전국에 유지호선비들이 도처에 모혀 정부에 현의하며 글을지어 국중에 전파하여 왈 우리군수가 갑오년에 피홀니고 엇은쌍을 정부에서 도로주어 오늘날 아인의처럼게 녀이지안음이라 흠을며 지금은, 아라스의 충을홀이 세상에 들어났거늘 엇지하야 전정을호로받비 열지안이호고 효험업는 담판으로 세월을연타하야, 아라스의 준비를 맞치게호고 스스로 괴회를일허 국권이 장차 위티함을 생각지안는 호야 인심이 물설트호미 각처신문에서 정부를탄히호야 시비함이 여디가 업시호며 마츄 국회를열셔가되미 국회의원들이 몬져 정부를탄히호기로 시작호는지라 즉시 칙령을나려 국회를명지호니 민심이 더욱격렬하야 전국이 흥용호며 정부주권자들을 살히호려는자들이 무슈하야 형제가 심히 위티호미 군수를두어 대관의집과 몸을보호호고 동시에 담판으로 귀정호기를 파의치안이호며 일변으로 전정에비호기는 게을니안이호미 각국이 다그전정이 불시에 버러질줄알고 각국정부에서 조그나라군함에 비밀히 명령하야 쓰함이되거던 힘홀일을 준비하라하미 소문이 날마다 퍼져서 어디서전정이버러졌다 어니시에 어니군수가 대표를노엇다호는 모든랑설이 첩첩이닐허나 세상이모

도 이 전정이 될 줄 믿으며 속히 되기를 주야로 바르다가 점점 물너가서, 일본이 마침내  
 싹쓸이 업는 거슬러 회하니 각국이 필경 락심하야 혹은, 일본이 감히 다도지 못한다  
 하며 혹은, 일본이 어리석어서, 아라스의 속이 논바 - 된다고도 하나, 실상 인즉, 일본  
 이 전정준비를, 아라스만 못하지 안케 하며 은근히 싹쓸이 안으려는 싹쓸 들어니, 각  
 국이 다, 아라스의 무도함을 더욱 더욱 분히 녀여 세상물론이다, 일본, 편으로 오게  
 만든 후에 비로소 기전하야 남의 뒤스공론이 업도록 되기를 기다림이라 부지중에, 영  
 미, 양국은 속으로 극히 돕는 친구가 되고 가라 여려나라도 다, 일본, 편으로 감정을 들  
 어는 중, 청국이 또 한, 아라스에 의지할 생각이 것치고, 일본과 합력코져 하나, 일본  
 이 홀로 담당하기를 즈원하며, 청국과 연합하기를 즐겨 안이 하는지라 이에 유지할 친  
 구들이, 청국을 권하여 전정에 간예치 말고 국외중립을 성명하라 하니 이는, 청국이 만  
 일 합력할진디 타국이 또 나서서, 청국을 빙자하고 중간에서 간예코져 할지니 점점 여  
 러나라의 상관하기를 마지 안을진디 그 싹쓸이 엇더케 될는지 한덩이 업슬터 인즉, 타  
 국은 다 상관 말고 두나라만 맞겨 승부를 결단케 하고 저흥이라 이럼으로, 청국은, 만  
 주지방만 한덩이고 그외 다른 지방은 다 엄정히 지켜 전정에 참여치 안이 하며 우리나라  
 라에서도 싹쓸이 국외중립을 반포하였스나 속으로, 아라스을 청국여들이며 엇지 중립  
 권리를 보호하려요 일병이 은근히, 한양에 들어오니 풍설이 즈로나며 인심이 소동되  
 나 정부에서는, 아라스, 공관만 바르보고 조곰도 흔들리지 안터니 금년 양력이 월초 구

일에, 인천항과, 청국, 러순구에서 대포가 터져 전장이 버러지니 이는 이전장의 대강  
리력이라 이 전장의 관계가 엇더함을 물을수업도다

▲갑오을미동안대한정형

원리로, 대한이, 청국, 및는 모음을 매치지못하다가 갑오전장이 성기기에 이르렀스즉  
이 전장을 맛춘후에는 곳상하관민이 일시에 매닷고 전일에 놈만의 퇴하던 생각을 다  
신히바린지라 이에 경장을 시작할시 료조를 혁파하고 십아문을 열시하며 소용업는관  
리를 업시하며 경비를감하며 세랍을 평균히마련하며 임의로 가감함을 막으며 순검  
을쌌아 경찰을업히하며 과거법을업시하고 인지를탁용하며 경향에 지관소를 설립하  
야 공초와즈복이 분명후에 벌에처하게하미 좌우포청에서 죄명도못지안코 인명을  
살륙하던 폐단이막히며 각궁가와 경향스부가에서 스스로서 도호도직하던 폐단이막  
히며 기외에 무슈구례가 만히업서지고 또한 정부에서 민간에반포한중 가장들어  
난것은 문벌을보지말고 인지를쓰는것이며 스식을물시하고 일테로 다스리며 과부의  
기가함을 금하지안이하며 종을두거나 미매함을 막을일이라 경향대체에 소학교를설  
립하고 인민을권면하며 즈질을 교육하게하미 허다할악습이 날로덜니며 신선한공과  
가 점점들어와 문명진보하는힘이 대단히 즈라는지라 이세에 각부대신을 다 세상형  
편아는자로식하미 태반이나 전일에 외국유람도하고 공부도힘쓰던자덜이라 각각난  
호어 대권을맞히 일심으로 일들하미 소위완고대신들은 다 물너가 즈최를감초니 혁

신호의들이 막힐티업는지라 각국이 다 칭찬하기를 마지안이하여 장차 이러듯 쉬지 안코나가면 몇히안에 곧 문명촌 식나라이되기를 의심할바—업다하더라 이히심이 월에

대황데페하씩음셔 중요에거동하샤 밍제하셔는 글을고하셔니 그 글에골은샤되

유리국오빅습년십이월십이일에 감히 황조렬성의 신령전에 고후오니 오직 짐소즈가 어려서 조종의 큰기업을받자와 우금습십일년에 다만 하늘을 두려호며 조종을 본받스오미 여러번 어려움을 당호오되 능히 기업을 썰러치지 안엇스오니 이엇지 짐소즈가 능히 런신을 받든공이잇서 됴이을잇가 진실로 조종렬성의 도으신희이라 오직 조종씩셔는 비로소 기업을 세우시고 우리뒤스스름을 도라보신지 오빅습년이 되온바 짐의 시덕에이르러는 시운이 크게변호며 세상이 밝히열녀 리웃나라이 충성으로권호며 조종의론이 혼결곳치합호여 즈유독립을 반포호고 국권을 국제세우기를 도모코져호오니 짐소즈가 엇지 감히 런신을습호야 조상의유업을 보전치안이호오며 엇지 감히 힘쓰고정신츄려 렬성의공덕을 빛닉고져 안이호을잇가 지금북하는 타국을밋지말아 나라를 부강에일우며 빅성을 북락에인도호야 즈유독립권리의 기초를국제호을저니 이싯슬일우자호면 네스거슬 고집호지말며 편호것만 도라호지말고 선황의 규모를넌니며 세상형편을삼혀 정스를변혁호야 모든구례를 곳치논디 잇슬지라 짐소즈가 큰범

독립요지

갑오을미동안대한정형

비판신구

독립요지

강오을미동안대한정형

백구십

열네도목을받들어 하늘에게신 우리 열성조신령씩 밍세하야고하오며 제치신공  
덕을 힘납어 감히 억임이업시 성취하기될 밍세하오니 밝은 신령은 삼히시옵  
소서

일은 청국을 의뢰하는싱각을 쓴허바리고 조유독립의기초를 굳게세움

일은 황실제도를명호야 국가의 계통호는근위와 종실귀척의 분의를구별함

일은 대항대역서 정면에면좌상사 정스를 각대신의게물어 결쳐하시되 황후나빈

궁이나 종실이나 종척이나 간예치못함

일은 황실에 관계호스무와 정부에 관계호스무를 분별하야 서로 혼합호지못함

일은 정부와 각아문의 직무와권리를 각각명호야 밝히구별함

일은 법성의세랍을 다 법률로 일명호게 마련하야 혹 잡세명목을너거나 의외에

더박는페단을 엄금함

일은 세랍을 밍아들이기와 국용의경비를지출호는 모든스무는 다 탁지아문에서

관할함

일은 황실에 쓰는경비를 몬저 간략하게감호야 각아문과 각 지방관의 모본이되

게함

일은 황실에 쓰는경비와 각관부에 쓰는경비를 미년에 미리예산호야 지정이 문란

치안게함

191

일은 지방관의 제도를 급히 지정하여 방벽수령의 직책과 권리를 한명임

일은 국중에 총명한 자들을 택하여 널리 파송하여 외국어 학문과 저조를 변호  
케 함

일은 스관을 교육하여 군사의 장관이 되게 하며 빅성의 나홀한명하여 몇히식의례  
히 군사되게 하는법을 마련하여 군사제도를 확실하게 함

일은 민사와 형사의 법률을 밝히 구별하여 후 법외에 가두거나 증벌하던 폐단을  
금하며 빅성의 심명과 지산을 보전케 함

일은 스름을 쓰기에 디벌을 같이 지 말고 경향과 조야에 선비를 널리 구하여 인지를  
택용함

이소문이 각국에 전파함미 세상에 칭송이 랑자함여, 조선이 불구에 서나라이되리라  
함였느니 진실로 이 기초가 여일히함하여 너 무 속히가지도 말고 또한 쉬이지도 말았  
던들 전후십년동안에 국제의 흥왕함과 빅성의 부요함이 거의 일본과 비교하게 되  
였슬지니 이번, 일, 아, 전청이, 대 한으로 인연함여 싱것다는 시비도 업섯슬것이오, 일  
아, 량국의 군사가 우리디디에 들어올리가 업섯슬지니 우리는, 일, 아, 량국간에 임의  
로 함동함였슬것이 어늘 국민이 불함함여 당시에 집권한 이들이 장원한 지식으로 빅  
성의식견을 열여 초 초함력함기를 경영치못함고 당장에 속히 성공함기를 도모함미 빅  
성이 리해를 알지못함여 한나도 함력함자 업는지라 기사에, 일본공소, 슴포, 와레결

독립요지

갈오을미동안대한정형

빅구설일

항야 위력으로 핑고저하니 민심이 자연스럽게 불복되어 울불호민이 스스로 자를조음에 역당이 일본수비병을 휘동하고 졸디에 범궤항야 을미년팔월에 만고대변을 닦였느니 이는 참아말할수업는바라 각국이 일시에 진로항야, 일본공사의 범죄함을 분히 녀이지 안는자 업는지라 전국민심이 대단히 진동하여 전일에 무식호 완고로 물너가잇던자들이 경향각처에서 들들이 머리를들고저할 조음에 졸연히 단발령을나려 빙성의 머리를 억지로싸그니 엇지순종하기를 바르리요

본리 어두운빙성은 식법이 무엇에 유조호지 엇더케 편리함은 싱각지안이하고 다만 예전법만직히는것을 올코 도케녀셔 목은 가히버힐지언정 터력은 버히지못호출로 알거늘 이빙성을 가라쳐 그리히를 알지못호고 촉급히 위력으로 핑고저하다가 각처에 의병이닐어나 전국이 소요호지라 이히 심이월에 대황데싸움서 아관으로 파천항시니 이셔북혀 일본이 모도권리를일코 아라스가 언연히안져, 대한정정을속으로 간예항니 우리의독립권리가 이셔에다시 손히되였스며 경장의 괴초가 싹호 이셔에 문허진지라 우리국민의 불행이오 싹호, 일본공효에 불행이라 기시에 ○슴포○공사의 작죄함이 실로적지안도다

▲갑오을미후일야정형

즈리로, 아라스, 사람의 정치주의가 전혀님의도디를 싸앗기로 위주항미 후 괴회를타서 계획을부리거나 혹은혜를베풀어 국권잡은이를 장악에넛거나 후 다른 여러가지

슈단을부려 혼조각쌍이라도 저의세력안에너으면 영히 제거슬만들어 장차 온세상을 다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은근히 커지니 이는 각국스피를보면 소상히알지라 이 렘으로, 아라스이 동양에서 원한은바는 이 여러나라들이 다 배척받치 어두운 속에 잇서 세상형편도물이고 국권을 보호할출도물나 점점 쇠잔하여가는중에서 저의슈단을 힘으로 부리고저함이러니, 일본이 먼저배닷고 날로부강할도리를 모본하며 동양을보전한다야 필경 갑오정정을 닐희킨후, 대한을원하여 변혁하기로 담척하고 나서미 각국이해아리되, 대한이 저의힘으로 변혁을형치못한즉 장차 국권이 위티힐것이오 그 국권이위티면 강포한 나라의세력이 동양에자를지니 이는 각국이 통상전교하는관계에 일테로 손히가될것이니 어니문명화나라이, 대한을원하여 부강을힐씨야 될터이나 만일 서양에 어니나라이 상관하고저하면 응당 식기가싱겨 혼단이날념려가잇는지라, 일본이 리웃나라으로 스정도 타국보다 저세히알것이오 괴왕 전정사지 닐희킷스족 그나라에맞겨 잘 찬조하게는거시 두로편한다야, 일본의뜻슬은근히 찬성하니, 일본이홀로, 대한, 정치변혁에 조역하는권리를 맞은지라, 아라스가 이거슬 곳눈에 가세로녀여 저희코저하나 본리, 일본인즉 저의나라안에서도 빅성을 낫낫치가라쳐, 아라스를물니쳐 그 세력에들지안도록만들고 또한, 대한에와셔도 저의힘자라는곳은 관원이나 빅성의게 낫낫치 이뜻스로인도흔즉, 아라스이 더욱 엇지 할수업셔 부득이 각국의 뜻슬싸라 표흔빛으로 서로안져 구경하는듯하나 실상은 불

평화를 가득히 품어 흥상 기회를 기다리더니 을미스변이 줄디에싱기미 각국이 다, 일본, 공사의 불법행위를 시비하며 또 혼, 대한황실이 위태항사 조석에 무슴변과가 잇슬 가 의심이 가득한지라 몇몇스름이 속으로, 영, 미, 공서관에 파견항시기를 의론항였스 나 다 허락지안이항여왈 이논, 대한, 국권에 손히됨이니 온당치못한일이라 항논지라 이씨에, 아라스이 이 기회를 타서 곳 그 공관을 빌니기로 허락항고 정다히마져들이니 이논 을미년십이월일일이라 밤시에 정부가 뒤집히고 판국이 밧피니, 일본, 편당을 낫 낫치몰아니고 식정부가 들어안져, 아라스, 보호를 의지항고 전일에 항고심던 모든일을 괴탄업시항항미 보호항여주는 친구의은해도 감사히녀이고 그 보호도 더욱 든든 항기를바르셔 속으로 금광과 철도와 나무비논 산림과 고기잡는어장과 기외에 모든 리의를 분분히 허락항며 섬을빌닌다 허관세랍과 탁지지정을 맞긴다 아병을고용항야 스관을 교련한다항야 모든국권이 날마다 감삭항미 이씨에 빅성이 독립협회를 모아 유지환 대소관민이 모혀 정치상 득실은 의론항시, 아라스이, 절영도를 우리정부와 약요항고 군함에쓰는 석탄두논곳을 만들며, 아라스, 스관과 고문관을 고빙항야 지정 파병권을맛김을보고 반디항야 정부에글을올녀 약요 파항기를청구항주

정부에서, 아라스, 공관으로 조회항여왈우리정부와 빅성이 합의항고 우리나라도디를 조곰이라도 외국에 빌니지말나하니, 절영도를 빌닐수업노라 항디

아공사의말이, 일본이 괴왕에, 월미도를 빌어쓰는 전례가 잇기로 우리도, 웃음에라

195

독립요지

갑오후일야정형

빈구심오

항은지라

우리정부에서, 일본공사의게 이스연을 조회하였더니, 일본공사가, 월미도, 빌었던 거  
슬 도로 돌려보이며, 절영도, 찾기를 지촉하되 아공사가, 또한 돌려보내고, 스관고문  
관을 다 파양야, 약도호일급을 주어 보냈으니, 이는 우리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관민  
이 일심으로, 국권을 보호하는, 처음일이라, 각국에서, 모도, 백성의 뜻을, 순히 항야, 홍상  
일을, 처판하는, 고로, 백성이 열녀서, 공법의 경위만, 일치안코, 외국의, 교제를, 방히 항지, 말  
고, 세상형편을, 드디어, 바로 항하면, 각국이, 다, 중히 녀어, 는바, 라

가, 석환하는, 정부와, 백성이, 합일치 못하여, 필경, 회를, 파하고, 모히, 지 못하게, 하였더라, 각  
국이, 이, 리치를, 삼히고, 다, 도어, 아, 라, 스, 와, 갓, 혼, 리, 의, 을, 었, 으, 려, 하니, 이는, 당, 초, 등, 상, 도, 약  
에, 각, 국, 을, 평, 균, 히, 디, 접, 한, 다, 는, 귀, 절, 이, 있, 는, 고, 로, 가, 령, 아, 라, 스, 에, 금, 광, 한, 자, 리, 를, 주, 면, 타  
국, 도, 다, 이, 와, 꺾, 치, 었, 으, 려, 한, 는, 연, 고, 라, 내, 거, 슬, 남, 줄, 스, 록, 각, 국, 의, 도, 식, 은, 점, 점, 심, 한, 며  
도, 식, 이, 심, 할, 스, 록, 국, 권, 은, 더, 육, 업, 서, 지, 고, 외, 교, 는, 스, 라, 석, 기, 여, 저, 서, 혐, 의, 와, 같, 등, 이, 날, 마, 다  
심, 한, 지, 라, 이, 렴, 으, 로, 각, 국, 의, 공, 문, 이, 있, 서, 말, 하, 기, 를, 대, 한, 의, 독, 립, 권, 리, 는, 이, 세, 에, 다, 업  
서, 족, 다, 항, 더, 라, 그, 러, 나, 대, 한, 정, 부, 에, 서, 는, 세, 상, 공, 문, 을, 들, 을, 수, 도, 업, 거, 니, 와, 들, 어, 도, 또, 한  
싱, 각, 지, 안, 이, 항, 고, 다, 그, 보, 호, 자, 만, 기, 히, 기, 히, 의, 회, 하, 되, 그, 보, 호, 자, 가, 스, 스, 로, 심, 중, 에, 풍  
족, 하, 야, 뒤, 스, 줄, 을, 다, 리, 고, 안, 저, 기, 관, 을, 놀, 니, 며, 은, 근, 히, 세, 력, 을, 확, 장, 하, 니, 부, 지, 중, 에, 갑, 오  
이, 전, 청, 국, 한, 나, 이, 또, 싱, 긴, 지, 라, 본, 리, 동, 양, 의, 문, 명, 을, 실, 케, 녀, 이, 던, 초, 에, 대, 한, 신, 민, 이, 일

데로 기화와 원슈되는 줄을 삼히고 간간히 속으로 전향하는 말이 나라마다 각각 제 풍속이  
 로 형출되리라 구타여 남의 거슬 본받을 것 업고 또 호 문명이 라는 거슨 야만들이 본받  
 아 형출되리라 대한은 괴왕 레의 지방인고로 교화가 남만 못하 지 안이 하며 풍속과 정치  
 가 다 도흔지라 문명하여 무엇하리요 상투가 아모리 길어도 부국강병에 손히가 업고  
 소미는 아모리 넓어도 치국평민에 상관이 업는 지라 전제나 압제나 우혜서하시기에 잇  
 는니 엇지 백성이 감히 상관하리요 더 여당들이 일본인을 부동하고 우해권리를 췌  
 아서서 필경 화근이 군상씩 밋칠지라 아라스는 전제하는 정치로 던하에 강국이 되  
 여 만국이 다 두려하는바니 우리를 단단히 지향하면 일본이 감히 엇지 할수 업스  
 려니와 그러치 안이 하면 장차 큰화를 당할가 두려하노라 하는지라 이런말이 의뢰하기  
 도와하는 자들의 귀에 가장 김히 박여 아라스를 밋는 마음이 곳어 린히가 부모를 바  
 람과 갓흔지라 일본이 홀일 업시 공스를 불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너도 도흔말로 다시  
 교정을 천밀히 하려 하며 광도에서 재판을 시작하여 제상에 발명코져 하며 대한에서  
 망명한 국스법들을 극력 보호하여 자국의 암살을 당하거나 다른 화에 췌지 안케 하며  
 그 등급을 쓰라 일급을 달아 주어 우티하는 뜻슬 보히니 이는 각국의 동행하는 전례라  
 즈고 나라의 권리와 명예를 온전케 할이오 또 호 어너 나라이던지 문명을 힘쓰다가 국사  
 에 범한 죄인은 홍상 특별히 티접하여 그 죄상은 도라보지 안코 즈고 나라의 데면을 위  
 하여 보호하는 법이니 일본이 이 뜻을 본받아 형출이 어늘 대한에서 난 해아리되 일

본이 었당을부동항야 괴회로엇어 우리황실을 힘롭게헌다항야 의심항는모음이더  
 우폴기어려오미 일닐로는 비록 화호호빛홀비이나 속으로난 빙탄이되여 결단코 화  
 합할수업는지라, 일본인들이 빅반으로 시험항야 혹달기기도항며 위협도항여 전일  
 의세력을 다시 회복코져항나 맛츄닉 효험이업고 점점 물너가니 그썩형편을 비유항  
 건디 압헤는 이리가달녀들며 뒤에는 사자가안져 호령항니 이리는 츄노코 가지못  
 항야 호거름을 달녀들면 사람은 곳 뒤로물너서고 사자는 더욱 압호로 나와서 점점  
 사자의일만 도케만들어주는니 필경은 사자의밤이됨을 면치못할줄 짐작항나 아직이  
 리의화를 막는것만 다힘히녀여 그 중간에서 썩로서기를 경영치못항니, 일본이모도  
 시험항는거시 다 헛이만허비항야 점점, 아라스의 괴회만 도케항여줄뿐이라 일천팔  
 백구십륙년오월십스일에, 아라스, 공스, 위피와, 일본, 공스, 소춘이 각각 그 정부  
 명령을 받들고, 대한에 관계호스무를 인연항야 약도들 명항였는디 그 약도에 항였  
 스투

일은, 대한, 대황데씨서 아공관에서 환어항시고 안이항시기는 즈의로 항시게항려  
 니와 만일 량국공스가 다 싱각항되 환궁항신후에라도 다른념려가 업슬듯 항거  
 던 맛당히 권항야 환궁항시게항며, 일본이 금권들을 별반단속항야 다른변란이  
 업기를 담척할것이어오  
 이는, 대한, 정부에 모든대신을 본디 대황데씨서티항샤 맛기시는바인디 근디 슈년

독립요지

갑오을미후일아정형

빅구실철

독립요지

갑오을미후일야정형

빈구심판

동안에 너 각관원들과 다른 중임을 맡았지. 지닌 이들의 심지가 관후호자를 다 짐작하지는바—니 이후로는 량국공스가 흥상 대황대씨권호야 이런 스름을 갈회여 국정을 잡아 관후호덕으로 인민을 잘 디접하게 할 것이오

숨은, 대한에 지금정형을 쓰라, 한양과, 부산, 식이에, 던보를 보호하기 위하야, 일본이 군스를 두어 합당히 슈비하되 만일 량국공스의 의견이 합을 쓰에는 속히 거두어 갈 것이며, 군스를 두는 처소는, 대구와, 한양과, 부산과, 각 던보국에 각각 오십명 식두고 기외 열곳은 열명 식두고 후 긴요한 곳이 잇스면 헤아려 칭호되, 대한에 모든 일이 다 정돈되야 여상히 평당호거던 일례로 것이 갈 것이오

스는, 한양과, 각 처동상구에 한인들이 종종닐허나, 일본인을 공격하니, 일본이 부득불 군스를 두어 방비할지라 지금, 아, 일, 량국공스가 약호고, 일본을 허락하야 군스 숨티를 두게 하되 두되, 한양에 머무르고 혼되, 인천이나, 원산에 두게 하야 다만 군스 슈효는 혼되에 이 백명을 넘기지 못하며, 대한에 인심이 평당되거던 곧 철과 할 것이오, 아라스, 도, 또호, 한양과, 각 처 동상항구에 잇는 공스관이 나 령스관을 보호하기 위하야 군스를 두어 슈비하되 슈효는 일병보다 지니지 못하며, 대한정형이 평당하기를 기다려 다 것이 갈 일이라

이회에, 아라스, 황태 등극하시느는 레식에, 일본, 군부대신, 산현유봉, 이 청경대사로 성피러스백에 가서 그 정부명령을 드되여, 대한에 관계한 일들을 의논할시 특월구일에

199

아라스의부대신。신보팔나。보친왕과 도약내도목을당하느니

일은, 대한에 지적이 심히군졸하느니 급기 정돈할방칙을 마련할지라, 아, 일, 량국이  
한양,에 유충공사를 신척하야, 대한정부를권하야, 소용업는 잡비를감하고 뒤년  
에 들어오는거슬 비교하야, 예산을당하야, 만일 정치상에 급급히 변혁할일이잇  
스되 경비를 마련할수업슬진디, 량국정부가 디신하야의론하고, 국치를너여 쓰기  
를 조역할것이오

이,는, 대한이 허다한잡비를감하야, 국치부족할념려가, 업시된후에는, 량국이, 대한  
대화에 씨맛겨, 군스를늘이며, 순김을 더하기에, 량국이 협조하거나, 간예치말것이  
오

숨은, 대한잇는면션을, 지금은, 일본이 위업하느바,니, 맛당히, 일본정부에, 관할  
로, 돌려보낼것이오, 한양,에서, 아라스,디경에, 통하기,서지는, 아라스,가, 먼보를  
노을권리가잇스나, 일후에, 대한이,스서, 차지할만하거던, 상당한,갑슬당하야, 사계  
할것이오

스는, 이상, 각도목을, 피츠비교하야, 더욱, 자세히, 허쳐할일이잇거나, 후, 변론이,가지  
안이하야, 다름이,싱기,는, 경우에는, 량국정부가, 공평한,관원을, 파송하야, 화평하게  
의,문함을,일이라

이상, 두약,도의,대기를, 말을,진디, 정부대신을, 출척하느권리에, 량국이,간예,하다하야, 군

독립요지

갑오을미후일아정형

빈구실구

스를 우리나라 어디에 두기로 하며 정부지정을 감당한다 하였으며 면선을 노을권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다 조유독립국을 더 못하는 말이라, 아, 일, 량국이, 대한 독립을 진실로 존중하느냐 일진되, 대한 정부에서 조원하야 청할지라도 결단코 허치 못 하는 것이 공법에 합당하려던 흠을며, 대한 정부에서 조원하야 청할지라도 결단코 허치 못 하는 것이 리 석로 안져, 대한에 당한 일을 엿지 엿지 자 하야 업는 물건 을 가지고 의론 하듯 하며 두 집에서 일어나 기른 증상을 가지고 말하듯 하였스니 더욱이 엿지 공법에 합당타닐 으리요 이 거슨 이 나라에 빅성된 이들이 분히 녀 일 줄 알 어야 이 거슬 면하 여 볼 도리가 잇슬 거시 어 놀 아 난 자도 몇 처 못 되니 엿지 분하 실 각 이 날 수 잇스며 혹 분히 녀 인 다 홀 지 라 도 그 근 인 을 실 각 지 안 는 고 로 공 연 히 더, 일, 아, 량 국 을 분히 녀 일 썬 이 니 이 런 분 은 실 상 에 합 지 도 못 하 거 니 와 분 을 날 스 록 효 험 은 업 고 도 로 쳐 내 게 만 히 로 올 지 라

무릇 기명을 힘쓰는 세상에는 스름이 범스에 그 실상을 연구하는 것이 데일이니 우리 정부에서 엿더 케 하 기 에 남 이 대 신 을 천 거 혼 다 하 였 스 며 우 리 인 민 이 엿 더 케 하 였 기 에 남 이 군 스 를 갖 다 두 어 저 의 세 리 보 호 하 기 로 하 였 스 며 전 정 과 모 든 일 을 엿 더 케 하 였 기 에 남 이 다 티 신 의 론 하 기 에 맞 쳤 는 지 기 님 기 님 히 실 각 하 여 볼 진 디 응 당 외 국 인 을 시 비 하 지 못 하 고 스 스 로 붓 구 러 은 실 각 이 나 셔 전 일 에 우 리 가 우 리 의 도 리 를 못 하 것 만 후 회 하 고 각 각 분 발 한 무 음 이 실 각 거 국 권 을 보 호 하 는 일 에 힘 쓰 고 저 하 는 스 림 이 될 지 니 스 림 마 다 이 실 각 이 잇 슨 후 에 야 장 리 여 망 이 실 기 리 로 다

201

▲ 전정전일아량국의형세

우해말흔바, 일, 아량국의약도가 된후로, 대한정부에 대소관민이 부지중 두편당이 갈녀 스스로 지목을 구별하미 혼히 량국공관에 출입잇는이가 권리를잡고 나서는지라 빅성들이 그 리치는 자세히알지못하나 일당아당을 지목흔은 스름마다 량자히전하더라 그러나 그 실상을볼진디, 일본편당에 갓갑다 흥는이는 다만 헛일흔으로실상권리변에 참여치못하고 아당이라 흥는이는 번번히 실상권리잇는자리를 차지흥는지라 이럼으로, 일, 아량국의 교섭이 점점빙단이되미, 대한형편은 점점 위급하여지논지라, 일본이 아인을호의로 물니철수업슴을보고 날로 전정을예비하며 그 빅성을고동하야 아인과논 조만간에 한번전정을훈후에야 말줄로알아 심지어 어린, 히라도 아인을보면 눈을바로뜨지 안이흥며 속으로 필경 처의일뜻을 합추하니 세상에서또 혼 그뜻을알고 언제던지, 일, 아, 전정은 한번될터이라 속히, 아라스의 무도함을셋거동양으로 벗어나오는세력을막아 서양에서, 후히를넘지못하게 만든것갓치하야 동양각국도 안전함을 엿을거시오 각국의관계호 동양상업의리익도 손히가 업스리라 흥나 이는 세상공론이 즈연, 일본을 협조흥는정의를 표함이나 전정의형편은 흥상뜻밧게 변하논고로 평시형편과 비교할수업슴뿐더러, 아라스이 아모리강포무도흥으로 각국의 실허하논바—나 서양각국들과 인종이갓고 쌍히또 혼 갓가온즉 정의상관계가 즈연 타국과달을지라, 일본은 아모리 서양과 교제를친밀히하며 의리를 갓치하다 흥

독립요지

전정전일아형세

이범일

여도 인종이다르고 또한 동양삭해 외로히잇는즉 만일, 아라스, 외접전이되면 각국이 다, 아라스를 협조항야, 일본을 필박할념려도 업지안이흔중 겸항야, 아라스는, 법국과 연합항야 서로협조항미혹, 아라스이 유조할곳이잇스면, 법국이도아쥬고, 법국이 유조할자리에논, 아라스이 도아쥬어 피츠에 힘을써서 서로자퇴항느니 외로운 일본이엇지, 아, 법, 량국을 디적항리요 이럼으로 홍상 외교상운동을 쉬히지안이하야 세계물론이, 일본편으로 돌기를 힘써쥬선항다가 지작년 정월습십일에, 영, 일, 량국이 련명항야 약도를명항느니 그 약도에 항였스되

대영국, 정부와, 대일본, 정부는 동양에 평화를유지항며, 대한과, 청국, 두나라의 조유권리와 토디를보전항며 그 두나라에잇는 각국의공업과 상업상 편호리의을 보호항기위항야 특별히 약도를명항느니

일본은 련명항느니, 영, 일, 량국이, 대한과, 청국의 조유독립항느권리를 함피인허항며 겸항야 두나라이, 한, 청, 량국의 토디를 점령할민은이 업슴을 박히들여닐것이며, 청국에 지금잇느니, 영국의 리의상권리가 가장크며, 일본인족, 청국에잇느니 리의 상관계외에, 대한에잇는것이 또한 세가지니 정치와 통상과 공업이라 이럼으로, 영, 일, 량국이 지금에 피츠박히말항야 약도를세운후에, 한, 청, 량국이 만일 엇던 다른나라의 침탈을받거나 혹 난이잇거나 기타 스단이 싱길세에는 두 련명국이 이 반다시 간에항야 방척을마련항야 보전케할일이오

이는, 대영국이나, 대일본(중)에 이상말할바 리이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함야 었던다  
른나라와 전정(정)사이에는 우리 두나라중에 하나라이 맛당히 중립하는 전례를싸라  
간섭하지말며 만일 련민국과 싸호는나라를보아 련민국을 치는나라이잇거던 맛  
당히 권력으로막아 못하게할것이오

숨은,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이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야 타국으로더부러 전정  
사이에는 피츠간에 있어서 구원하며 도와주어 싸호거나 직화거나 협력함야 힘  
을되 다만 련민국이 중간에서 간섭함야 평화로 조처하기를 상책으로 녀일것이  
오

스는 두 련민(중)나라중에 하나라이 타국과 별도로 약도를 덩(중)사이에는 이상에말한  
바 리(중)에는 손히가업게할것이오

오는,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만일 이상에말한 리(중)이위티함에 니를경위에  
량(중)정부가 피츠간에 맛당히 몬져동기함야 미리알게할것이오

류은 이 약도를(중)인쳐서 서로 밋고는날로벗혀 시작함야 오년동안을 한(중)하  
되 만일 오년후에 두나라중에 하나라이 다시 이 약도의한을 늘이고져 안이함거  
던 맛당히 열두(중)을 전(중)함야 몬져알게되 무(중)고(중)인연함야 더 련(중)하  
를 원치안함야 오년만 치우고 물시함자고(중)응당 폐지될것이오 만일 오년  
한이 다(중)기전에 련(중)중 하나라이 타국과 전(중)을 시작할진티 이 약도는 반(중)다

독립요지

주정전일야형세

이(중)송

시련속항야 평화가되기까지 니른후에 국칠일이라

이상 각도목을 본대신등이 각각 정부명령을받들어 덩하고 인치노라항였더라  
 이약도를, 영국, 서울, 런던에서, 영국외부대신과, 일본공사가 전권항여덩하고 세상에  
 반포항미 듯는자 - 다 놀나히녀여 공론이 크게닐어나는지라 혹은 말항기를 이약  
 요가 동양을영히 편안케담보항이라항며 혹은말항되 이약요가 전쟁을지축항는 표적  
 이라항야 여러의론이 갖지안이하나 이약요의성질을 대강말항진되, 영, 일, 량국이 전  
 허, 아라스, 세력을 막기위항이라 이 두나라이 련명항을보고, 아라스이 스스로물너  
 갈진되 동양에전징이 스스로물너갈줄로 이약항게스나 만일 그러치못항진되, 일본,  
 이, 아라스와 키전항지니, 영국은, 아라스를 돕지못항고, 일본을 찬조항며 평화히  
 조처항기를 힘쓰다가 만일, 법국이, 아라스를 돕는경우에는, 영국이, 일본을 도와  
 법국을 치리라항이나 완연히, 일, 아, 전징의 근인들이는지라 련하각국의정형이모  
 도변항야닐으되, 일본은 동양의 홀로 힘잇는나라이오, 영국은 세계의 강국이라 이  
 두나라이 련항항야 동양에등상리의을 보전항려항나 이년 각국의공동항의 다항이라  
 항며, 일본서는 대소관민이 이 소문을듯고 전국이 영광스리히 즐겨항야 각신문에들네  
 는거동과 민간에 경축항는모양의 곳은나라이 다 밋친듯항야 잔치항며 자랑항이비  
 홀득업스나 이년, 일본이 각국과상동항이후로 항상 각국과 평등항원리는 일치안엇  
 스나 세계강국들과 리의를다투어, 영국과 밀세를합항야 치고 적희기에 혈을난호자

항기에 니름은 실로, 일본의 한업인영광이라, 일본정부가 이러듯 부강훈디위에 니름은 그 빅성이 세계에 어티를가던지 상등티점을 밧을지니 엇지 그 빅성의 경스가 안이 리요 갓흔, 아세아, 주에잇서 갓흔 황인종으로 된 나라들로함여곰 부러움을 의의지 못하리도다 이세에, 영, 일, 량국에잇는, 대한, 공스들이 정부에면보함야, 영, 일, 동맹호소문을보함며, 한양, 에잇는, 영, 일, 량국, 공스들이 또호 이소문을 련속함여전함니, 영, 일, 량국이, 한, 청, 량국을권함야, 아라스, 의 세력범위를 버셔나서 서로조유함기를바루는뜻이라, 곁함여 이세에, 일본에서 빅성을조유로허락함야, 대한에와셔, 티디에입의로 석겨살게함자함며, 대한에농스와 토디기척함는법을 마련함자함니 이는, 일본, 이 통상호이후로 빅성이 점점번성함야, 쌍이좁어 살기어려운 념려가잇는고로, 대한, 에와셔, 어두운빅성들과 석겨살며 허다히 바려둔토디를 기간함야, 초초 차지함고, 살기를경영함이라, 우리정부에서 이권소문을듯고, 자못 불안호형편이잇서, 민간에 풍설도싱기며, 관원들중에 두려운빛도 업지안어, 후, 아라스, 이 물너가고, 일본이, 다시, 주장함기에, 니를진디, 장초, 무습변란을 당함는지도알수업고, 또호, 모든권리가, 다, 남의 손에 들어갈것이오, 조그들의몸도, 용랍을 엇기어려울듯호지라, 엇지, 너심, 의, 두려움, 이 업스리요, 정부가, 자못, 호들니는, 거동이, 잇는지라, 아라스, 이, 속으로, 닐너, 왈, 더, 두나, 라, 이, 련, 밧, 함, 엇다, 함는, 것이, 실상, 힘은, 업는, 법이라, 결단코, 우리, 대, 아, 국, 을, 결, 어, 군, 스, 를, 닐, 희, 키, 지, 못, 함, 것이, 오, 설, 명, 망, 명, 되, 히, 일, 본, 이, 전, 정, 을, 함, 고, 저, 함, 지, 라, 도, 영, 국, 이, 멀,

독립요지

전정전일야행세

이백오

니 있어서 요마흔, 일본을 돕지 안하리니 불과 저의 지방만 지축함이오 설혹, 영국이 합  
 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괴왕에, 법국, 과동맹하야 도처에 진퇴를 갖치하느니 우리 두  
 큰나라이 합력하야 지는 자리에 던하에 누가 감히 뒤적하리요 다만 우리만 밋고 요  
 동하지 말나하니 이 말이 가장 그러할듯하고 또한 형편도 괴왕 님 친거름인즉 도리키  
 기 어려운지라 이에 단단히 결심하고 태산갓치의 지하야 조곰도 두려울 것이 업스미부  
 지중에, 일본을 반대하는 뜻이 더욱 심할지라, 일본이 더욱 분히 녀여 공혁하기를 박  
 절히 좃추, 아라스를 의지하는 생각이 더욱 갖가오며, 아라스를 의지하는 생각이 갖가  
 온즉 속으로 아인의 청구하는 것이 더욱만 하셔 은근히 무어 슬허락하녀 주는지 무슴약  
 도를 체결하는지 세상에서 알수업다하며 다만 아인의 행동은 볼진디, 통암포를 엮었  
 다하며, 북도에 모든 섬과 해변에 나무버힐 곳을 인허를 엮었다하며, 경흥, 디방에 던션을  
 놓는 허락도 맛했다하며, 점점 북도로 물젖듯 들어오는지라 이세에, 미국이 발론하야  
 '청국', 만주를 만국통상 키시장을 만들어 어니나라이던지 홀로츠지하고 각국의 리익  
 상관계를 도라보지안는 폐단이 업게 하자하며 또한, 대한 정부를 권하야, 의주를 통상  
 디로 열어노으며, 통암포를 통상항구로 신속히 발포항기를 청하니 이는, 아라스, 이  
 홀로, 대한 정부의 허락을 맛했다하교 조그성을 만들고저 하는 연고라

만일 우리 정부나 백성이 능히 직책을 다하야 나의 강도를 잘 보전하엿던들 누가 감히  
 남의 주권을 간섭하리요 많은 스스몸들의 안위와 권리득실을 인연하여 남의 보호를 의

207

되하고 공변된 국토를 은근히 나눠주기에 이른지라 다른도리는 없고 다만 그쌍을 각 국통상디를 만들진디, 대한주권은 영히손히가 업슬거시오 타국은 감히 넘겨다보지 못할터이니 이는진실로, 대한에티항야 메일도흔게척이라 잠시지체하지 못할바—어 늘 이리더리 언타항야 즉시결단치 못함디 각국이 일제히 권항야 신속히 반포항라고 독축이 심한지라 정부에서비로소 그 관계를알고 열국의권함을 인연항야 즉시반포 항려항였스나, 아라스,가 속으로 공동항며 극력항여막으니 이럼으로 종시 실시가 되 지못함디 각국이 더욱 분로함을의지못항야 혼단이 곳 조석에성겨날듯항나, 아라스의 편당들은 세력이점점장항야 감히 놀을자—업더라 이럴즈음에, 일본은, 대한과, 만주,스건으로 인연항야, 아라스와 담판을열고 주야로의론항기를 그치지안이하 되, 아라스는 점점 더 세력을늘이며 순종치안을뜻슬표항야 군스를 것어간다는한을 몇번을의의미 각국스람이 만히, 일본을 권항야 속히 기전항기를 지축항되, 일본은 종시 더 담판항기를 고집항다가 필경 더할수업시되여, 아라스의 파즈막 회담을도 로물니치고, 아라스,정부다려 다시 생각항여보라 항였스미 동방에 후운이 가득항야 어니 하늘에서 비가나릴년지 알수업시된지라 각국병선이 모도, 대한,히변으로 모혀 들미 세상이 다, 대한을 주목항야 이곳에서 전징이 몬져터질줄로 아는고로 금년양 령정월오일에, 미국,보호병이 몬져 성중에들어와 공관과 면과덜도를 보호항니 각국 보호병이 차례로 입성항야 그 공령스관을 보호항더라 원리 독립국에는 타국군스가

독립요지

전정전일아형세

이비철

인허업시 상륙함은 국권을손희함이기로 미양 국중에 스변이잇슬씨에는 그나라정부에서 군사를보닉여 외국공기관을 보호함여주는법이라

우리정부에서 미국공사의게 보호병이 입성할리유를 질문한디

미공사의디답이 귀국병영은 괴물이업기로 본국병영을 들여옴이라 하더라

이씨에 각국군사들이 성중에들어와 스방에도라단이며 간간작폐가 업지안은중 아병의형위가 더욱심하야 후 민가의돌입함여 부녀를 겁탈하기도하며 후 길에서 장옷쓴녀인을잡고 몇놈이돌녀 억지로 입맞초고 도라서서웃고 훗히지며 심지어 죽동네거리서는 아병네명이 녀인을잡고 욕을뵈히려 함고로 대한사람들이 모혀 금항려다가 칼을썩여 치는바람에 훗히지고 맛춤 대한헌병이 지나다가 썩여 보너려후죽아병이칼을썩여 치려함고로 헌병이 마쥬칼을썩여쓰와 아병의손가락이 싹히지미이에 결박함여 아라스 공기관으로 잡아갓스미 각국신문에 그 헌병을 대단히 칭찬하더라

본리 백성이 어두운 럽디에는 지책에서 무슴화식이 박두함던지 잇다가 무슴변란이싱길년지도모지 알지못함고 다만 몸만편하면 태평건곤으로 녀일뿐이라 세상에 소문이엇더함며 각국의군함이 어디로오논지는 전혀 알지못함다가 급기 외국군사들의 폐단이 이러함기에 니르미 비로소 해우리되 외국보호병이 들어올씨에는 필시 무슴란리가 성기려나보다함야 민심이 자못소동되나 우헤잇는이들은 속으로 밋는곳이잇

는고로 조공도 움작이는 빗치업거늘 빅성은 웃스람들의 안연히 지님을보고 얼마쯤 무스할줄로미긔어 도로안정되더라 이씨에 정부에서는 속으로 아병을청하야 보호를든 든히 호고져하야 승천명을청병하려, 러순구로 보되였다는 소문이 랑자항미 형편을 아는이들이 겁히근심하되 만일 아병이어리셔게 성중에들어오면 룩디에서 충돌이싱 길지니, 장안에 뇌외국인이 크게위티할념려가 잇게다하더라 맛츨희상에서 일병이 슈상흔비를수담하다가, 대한에서 아병승천명을 청하려가느글을 잡앗다하야 각국신문에랑자항미 뜻는자, 대한정부에서 호는일을 더욱 통중히녀이다라

▲일야교섭의결말

일본외부대신 ○소춘슈태랑과, 아라스공스 ○으로쓰가, 일본, 동경에서 오리담관홀 씨에 련하각국이 그 의론되여가는 리허를알고져하야 모든정치가들과 신문과자들과 대소관민들이 주야담지하기를 시험하며, 또한, 일본빅성들이 더욱히 알고져하야 무 슈히힘쓰되, 일본정부에서 가장 비밀히 단속하야 확실한소문을 늦기어려오미 풍설 이 날마다싱겨 헛소문이 허다하리라, 일본빅성들은 더욱적동되여 정부를 시비하는 공론이 갈수록심하야 정부에서 빅성의뜻슬 쓰르지 안이하고 속으로 엇지하느지 알 수업다하더니 급기 포성이나고, 일, 아의 교제가신치미, 아라스공스는 홀일업시국 괴를써여가지고 도라갈식 랑국티표자가 락루하고 작별하니 그씨정곡을 싱각할진디 또한 장부의락루할곳이라 련하에 관계되는큰일을 두스람이 주장하야 여러들동안을

독립요지

일야교섭의결말

이빈구

쥬야로의론을미 세계각국이 날마다 그 두사람의 무슴결말이 날년지 알려고한다 가맛  
 참니 도흔소문이 나지못하고 량국간에 대포가터지고 교섭이 실패하여 두공사의 무슈  
 히 힘쓰던것이 다 헛거시되야 부득이 작별하기에 이르니 엇지 비감한 눈물이 업스리  
 요, 일본군사가 극력보호하야, 아라스공사를 무스히너여보너 후, 일본외부대신이  
 각국공사와 니외국신문기자들의게 되하야 그동안 교섭하던 전후사연의대기를 공  
 포하니 하였스되

대한독립과 토디를보전하며 또한 그나라의잇는, 일본의 데일리의을 보호함은  
 일본의 안위에되하야 심히 긴결한관계라 이럼으로 무슴일이던지, 대한의토디  
 를 위키게 하던것은, 일본정부가 그져두지못하거늘, 아국이, 청국과 약도하였  
 고 또한 정부의보증함이 분명하되 감히, 만주를 점령하고 더나가서, 대한디경  
 을침로하기에 이르니 만일, 만주가, 아국의 차지하바- 되면, 대한의 독립을보  
 전키어러올지라 이럼으로, 일본정부가 속히, 아국과담판하야 량국리히의 쥬근  
 한, 만주와, 대한, 두쌍에서 량국의 리익관계를 호의로조쳐하야 동양의평화를영  
 원히 유지하기를기약하고로 작년철월후로, 아국을향하야 바르느싯술 들어니고  
 합의하기를 청구하였더니, 아국정부에서 깃부게 합의할싯스로 회답한지라, 일  
 본이 팔월십일이일에, 아국에잇는, 일본공사. 불야.로하녀곰 협의할싯도를아리  
 기록한바와갓치 발론하게 하였느니

일본은, 대한과, 청국의 독립과 독립을 보전함을 존중히 할것이오  
 이는, 한, 청, 량국에 있는 각국의 상업과 공장등 모든리의상 관계를 평균히하기로주  
 의할것이오

숨은, 아국은, 대한에잇는, 일본의 데일리의을 인허하며, 일본은, 만주에잇는, 아  
 국, 털도에 관계호리의을 인허하며 겸하여 첫째, 대한의주의가 반되지안는범  
 위에서 우해그룩호리의을 보호하기위하여 합당한조치를 할것것이오

스는, 대한을 말로도아 변혁하게잇는일도, 일본의 맞길것이오  
 오는, 대한의털도를, 만주,에련락하여, 산히관과, 우장에 노은길과 등하기를 방하  
 하지 안이할것이라

이뜻을 발문하고, 일본이 이교섭을 속히 결정코져하여, 아라스, 서울에서 직접  
 으로 의론하기를 바르스나, 아국이 그확대가 멀니유람공과 기의 다른연고로칭  
 탁하고 속히 결정하기를 거절하며 마지못하여, 동경에모혀 의론하기로 작당하  
 였더니 십월십일에, 아국이 대강한표목을 다시 발문하였스되, 아국은, 청국, 주  
 관하는권리가 토디를보전하며 각국의상업과 공장을위하여 권리를 평균히하자  
 는주의는 거절하며, 만주와 그 모든히변은, 일본의 리의를 보호하는 권리안에  
 넋치안이할것이오

대한, 관계에잇는, 일본이 임의의무행동하는 권리의방한할 일평하고 리의를 보호하

독립요지

일아교섭의결말

이백십일

독립요지

일야교섭의결말

이벽십이

기위항야 요긴한관계가 잇슬쎄에는 군스보디기를 허락호되 다만 전정주의로군  
스를파송함은 허락지안이호며 북위선 습십구도 북편디경을 중립디방으로 색로  
니여 노을일이라

야국이 이주의로 발론호였스니 만일 야국이 만주를 습기려는뜻사업스면 무  
습연고로 우리의 발론호거슬 거절호였스리요 그러호나 일본은 상업상에 중대  
호리의이 현금에도 만을셀디러 장리에 더욱발달될피들이잇고 정치상으로호는대  
한에 관계됨을 인연호야 호총더 긴절호리의이잇기로 야국의 다시 발론호을거  
절호기로 결당호고 야국의 발론호도건을 참작호야 의견을곳쳐 요구호시 중립  
디방을 만주와 대한의접경으로 류십 길로미터 호길로미터가 천미리요 열미터가 칠보  
가량이라 를니여노아 당호자호고 곳쳐의론호시 동경에서 루루히 짐작호여 결  
당호고 십일습십일일에 일본정부에서 다시 결당호도건을 야국에보디 후슈  
추회담을지축호야 겨우 십일월십일일에 보왔스나 야국이 만주의관계호도건  
을 사호야바리고 도로혀 대한에 관계호리의도 겸호려호미 군스형동호는 세력  
의방한과 중립디방을 당호는일에 종시 고집호기를 마지안디라 이거시 다 당  
초에 호의로 조처호자던 주의를 억임인고로 십일월이십일일에 야국다려 다시  
싱각호라호였스며 대한관계에 디호여는 토디를쓰기에 한당을업시호였스며 만  
주디경을 걸치지안이호고 중립디방을당호자호은 의견이 합지안이호기로 일본

213

이 전제항기를 요구하였더니 금년 일일특일에 회담항되, 대한관계는 전일에 말한대로 고집항게서항며, 만주에 관계항야는, 아국이, 청구과약도항고 었는리 의을 방히치못할출로 인허항라항며 강도를보전항자는, 조건에는 아모말도 업슨 즉, 아국이, 만주를 숨기려는뜻시 명백히들어는지라, 일본도 들지번에 꺾쳐발 론호뜻슬 고집항기로 결당항고 일일십습일에, 아국, 다려 다시 생각항기를 요구 항야 슈츠 회담을지축항되, 아국이 회담도안이항며 언제 회담항마항는 괴한도 덩치안는지라 통히말항건티, 일본은 중시 온화호뜻스로 공평함을위주항야, 아 국,을 조곰도 적국으로 녀이는뜻슬 뵈히지안이항고 루루히 허락항기를 요구할 뿐이로되, 아국은 영영히 거절항고 회담항기를 서답업시 밀우어가며 일변으로 슈륙군을 확장항야 대병이 이미, 대한디경에 꺾박항였스니 이는, 아국이, 일본 으로서여곰 함당호주의를 바리고 전정을 슈고롭게함이라 항였더라

이소문이 반포되미 세계에서, 아국의 강포무도함을 더욱 통증히녀이더라 이월구일 에 전정이 터지고 그후에, 일본황제의 전정반포항는글이 나리미, 아국,황제가 또호 전정반포항는 글을나려, 일본이몬져 기전함을 들어녀여 각국에성명항니 그 대강스 의인즉 전정항는법의 글을 몬져발포항고 쓰호는것이어늘, 일본이 반포항기전에 대 포를노은것이 실슈라항며, 아국의 회담을 더 기다리지안코, 일본이 졸디에 기전호 것이 실슈라항야, 도목,도목 버려말항미, 일본이또호 변명항는 글을시어 반포항니세

독립요지

일아교섭의결말

백이십

상에서 다 그공직을 분간하더라, 일본황제에 선언서에 하였스되

하늘의도오심을받아 만세에 흔계통으로 국조를이은, 대일본황제는 충성하고용  
 밍시러운 너의무리의게 날으노라 짐이, 아라스와 전정함을 반포하노니 허륙군  
 장졸들은 맛당히 힘을다하야, 아라스와 접전하며 빅관제신은 각히 직책을사라  
 그 권력을응하야 국가의 목덕을성취하되 만국공법의 전례를여의지말고 성력을  
 다하라 짐이 생각건디 평화중에서 문명의나아가 각국과 정의를천밀히하야동  
 양에 평안함을 영원히보전하며 각국의권리와 리의를 손상치안케하고 우리데국  
 의 영광이안전함을 확실히영함이 각국과교섭하는 데일쥬의로 호상 이뜻세여임  
 이업기를 바르고 또한 짐의신하도 이뜻을본받아 힘쓰리 이림으로 각국과 관계  
 가 허마다 천밀하디니 불행히 지금에, 아라스와 전정을 시작하기에 이르니 이  
 엇지 짐의본의리요 데국이, 대한을 온전케하고저함이 호로잇들이 안이니 이는  
 량국이 여러디로 나려오며 관계가 즈별을떨더러, 대한의존망이 실로 데국안위  
 의 달닌연고어늘, 아라스이, 청국과약도호흡과 및 각국에티하야 여러번성명할말  
 을 도라보지안코 의연히, 만쥬를 점령하고 세력을구게하야 맛츄니 숨기고저하  
 니 만일, 만쥬가, 아라스의 점령하바 될진디, 대한이 보전할수업고 동양에평  
 화를또한 바를수업는지라 이림으로 짐이 이 기회를 당하야 시국의형편을 합당  
 히 조치하야 영원히 평안함을 보전하기로 괴약하였스미 직책맞은 신하로 하여

곰, 아라스, 로더부러 모혀의론하야 반년이되도록 뜻껏치 뜻껏굽헤스되, 아라스, 이 조곰도 물너설뜻스르 되답지안이호고 세월을천연하야 시국의형편이 그릇되게하며 것호로는 평화를 주장한다하나 속으로는 군비를확장하야 우리로하여곰 억지로복종하게 하려하니 일로볼진디, 아라스, 이 조초로평화를 도와하느니모음 이 터럭만치라도 잇다할수업고, 아라스, 이 이미 우리데국의 발론한뜻을 용랍지 안이하여, 대한의안전함이 위티하기에니르고 데국의리익이 장리에 보증을구하던뜻을 지금은 불가불 전정으로써 구하기외에는 다른도리가 업느니라 짐이 너의무리들의 충성호고 용맹함을 힘납어 영원히 평화할기들이 속히 회복되여 데국의영광을 보전하기 바르노라

아라스황제의 선전서에 호였스되

짐이 충성호는 신민의게 아티말흔스건을 반포하노니 짐이 평화를유지호록덕으로 동양에평안함을 구게하기위하야 전력호지 오린지라, 일본, 정부에서, 대한, 스건에 관계하야 두 예국간에 지금잇는약도를 귀정호를유의를 발론하기로 짐이 평화호를목적으로 이말을 응중호였거늘 이문제로 의론을시작하야 아직 맞치지못하여, 일본이 우리정부에서 요식이디답호려는말을 기다리지안코 우리나라와호씩의론호일과 교섭상관계를 싣기로주장하며 또한 이 교섭상 관계의 싣히짐이 전정운동의 시작호인줄로 미리 성명호지도안코, 러순구, 포티, 밧게잇는 우리합덕을

독립요지

일과교섭의결말

이백십여

독립요지

일하기전후대의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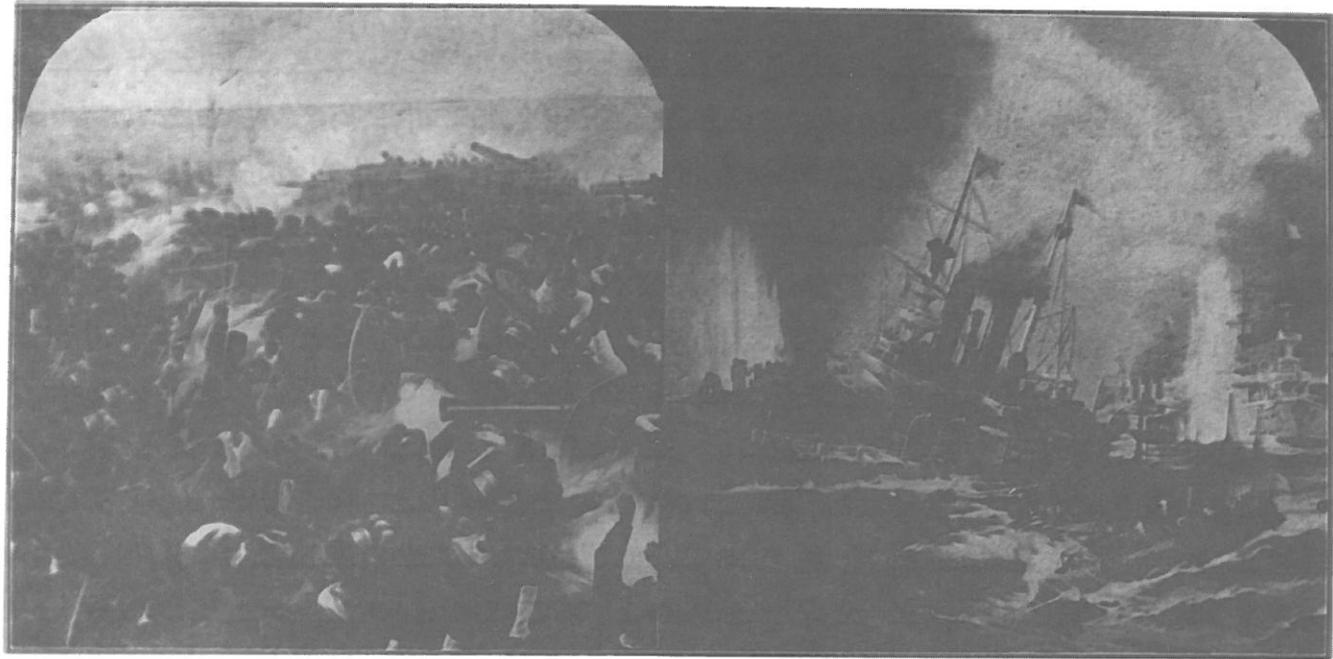
이원실록

슈뢰젠프로 졸연히 공격하니 짐이 충독의 보고를 밧어 보고 즉시 군기로써 일본 의 공격함을 마즈쓰호라고 명하였노니 짐이 이뜻을 결명할시에 곱히 하느님의 구호함을 빌었스며 짐의 신민이 그 조상의 나라를 보호하기위하여 일제히 짐 의명을 밧들기에 의심업는지라 가장 명예잇는 우리히류군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 기를 하느님께 곱히비노라

우에 기록하바 량국황제의 선전서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진디 시비곡직을 소연히분 간할터인즉 다시 설명할것이 업거니와 갑오년이 지금십년이라 전후십년동안에 일 분이 두번을 전정하야 이번에도 또 대한을위하여 기전한다하기에 나르렀스즉이 거시 참 우리를 위하느일이 될년지는 절당하여 말하기어려우되 십년동안에 아모것도 안이호표적은 이러듯 들어는지라 생각잇는 이들은 정신차려 불지어다

▲일하기전후대의정형

급기 전정이 버러지느날에는 아병이 밧쳐 상륙하지못하고, 인천항구에 군합두척이 섰다가 금년이월초구일에, 일본병선이, 팔미도,박게서 격서를 전하여왈 금일정오안 에 물너가지안이하면 곳 공격을 당하리라하디 아함이나셔며 마조쓰와 대포를 서로 노을시 포성이 거의 두시동안을 련속하야 텨디를 진동하디 팔십리 상거에 안즌서 울장안에 완연호포성이 콩투드들니니 청련박일에 퇴정이우는지라, 한양,성중에 귀 먹은자와 숨막힌자외에는 듯지못함이 업는지라 충분강기호 선비들은 쌍을치고통곡



정전륙슈아일

217

독립요지

일하기전후대한정형

이민심철

항며 옥중에 갓친자들도 붓들고우느자 - 여러이니 그 우느뜻슬 물을진디 대장부 -  
 국가에 다스흐씨를 타고나서 맛당히 전장에나아가 적국을물니치고 국권을구게항야  
 승전고를올니며 기가를높히불너 영광을 들어닐것이오 그러치못하면 탄알을 맛즈며  
 칼날을받아 나라를위항야 더운피를뿌리고 간담을쏘서어 영화로히죽어 충의를표호  
 것이어늘 우리는 넘과갓치 신태가건장항며 품질이충명항며 충이가간절항며 형편과  
 기회가 실로 천지에일시라 항게거늘 다만 머리를 남의손에잡히고 식로 들지못함으  
 로 허다흐계월을 공연히 일허바려 아모것도 안이항다가 남이디신와서 내나라히변  
 에서 락디를진동항니 이엇지 혈과남의 츄아듯고 불바 - 리요 항을며 국권과 강토  
 를보전항고 못항기가 전혀 이전정결과에 달닌지라 만일 우리가 진작정신츄려 국민  
 이일심항야 일을죤항였더면 이전정을 우리가항것이어늘 우리가못항고 도로혀 남의  
 게미혀 구경을항는것이 엇지 더욱 등분치안으리요 항더라  
 이씨에 백성들은 무슴연고인지 알지못항고 다만 포성만들니미 혹은 서로 바라보며  
 항는말이 이제는 무슴일이잇나보다항며 혹은 군함에서 레포을놓는다고도항며 혹은  
 회상에서 조련한다고도항며 혹은 전정이 시작되였나보다항야 무심히담화도항며, 인  
 천으로 구경도가니 인심이 얼마썸열녀 전갓치 헛도히 놀나지안는거슨 칭찬할만항  
 거니와 다만 어두은중에잇서 리히관계를 알지못함은 또한 유지자의 역식할 일이라  
 오정에 포성이긋치며 먼보가전파항니, 아라스, 군함두척이 몰슈히 침몰되고 아병이

후사로잡히기도하며 혹은 근처에 있던 각국군함에서 건져내여, 인천항병원에서 치료하게 할씩, 일본, 스릅들이 적십자병원을 마련하고 다려다가 치료하니  
 오히려 더 현연거대한아인들이, 일본인의게 사로잡힌바—되여 그 은혜를받아 감사히 목숨을보존하니  
 듯는자—전일아인의 강포하던소위를 더욱 가소로히네이느니라  
 각처에, 일본, 스릅들은 그시로 이소문을 전파하야 하나도 모를자—업시 위선승전호거슬 즐겨경축하미, 일본, 전국이 들네며 경스로녀임은 널으지안어도 족히 짐작하려  
 니와, 대한서울과 각처동상항구에서 경축하는 거동만보아도 곳기분런디를 일우어  
 스람마다 만세를불으며 뛰노는빛차라 심지어 어린, 히라도 입만겨우열년자는 다나  
 라를위하야 경축하는소리를질으며 하는말이 우리나라이, 아라스, 를의의고 군함을파  
 하였스니 이러호경스가 다시업다하는지라 눈있고귀잇는자야 엇지참아 이거슬 듯고  
 보며 감동호눈물이 나지안이하리오 엇지하면 우리도 나라를 넘과갓치만들어노코우  
 리전국이 더와갓치 즐겨호고 우리의동포들로 흠씩들네며, 대한에국, 독립만만세를힘  
 셋불너 찬송하며 태평동락 누리기를 원치안이호자—업슬지라 엇던스람은, 진고기,  
 가셔 그 경상을구경하고 곳도라와하는말이 스람의심장을 가지고는 참아 볼수업기  
 로 눈물을뿌리고 도라온지라 죽어셔 그런나라에 키라도되여나는것이 나호리라하니  
 듯는자—그 참분호모은은 감동히네이나 내가 죽어셔라도 내나라이 이러케 되기를  
 힘쓰리라하는말이 업슴은 또한 탄식할바—라 하더라 이세에 아인이, 러순구에서또

219

피항야 군함이 침몰함며, 군스가 사로잡히미, 대한, 히변은, 일본인이 홀로 주창하고 군스가 부분히 상륙함야, 장안에 편만함여, 서북으로 내려가며, 히군은 점점몰녀, 청국, 히변으로 향함야, 러순구를 치는 소문이 종종들니니, 각국이 위선, 일본인의 승전함을 칭찬함야, 영, 미국, 비성들은 후의 용병을 모으, 일본을 위함야, 쓰호기를 지원함며, 부인들은 의연금을 거두어, 적십회를 모으, 일본에 와서 상환군사를 치료하게 노라함며, 혹은 만은 돈을 출염니여, 군함을 사서, 주창고도 함야, 다, 그 감정을 표상고저함니, 이는, 일본이 강포함나라를 쳐몰니치고, 약호리웃슬벗들여, 각국리익을 평균히 보호함고저함이라, 이엇지, 일본의 영광이 아니며, 대한에 슈치가 안이리요, 그러나 우리정부에서 조곰도 흔들리지안느니라, 일본, 공스가, 아라스, 공스를 몰녀가라고, 지축함디, 이월, 일에, 아라스, 공스, 피블로푸, 가, 공스관슈원들과, 보호병을 다리고, 한양을 떠날시, 일병이 보호함야, 경인철로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가, 법국, 비를 타고, 상히, 로향함시, 연로에, 일본인의 보호함이, 법식에 합당함지라, 아공스가, 일본인의 감사함을 처샤함고, 몰녀가니, 당시에 세력잇고, 변화함던, 농촌공스관에, 문견이 링락함고, 뷔인괴스, 뒤만 섰스니, 권력을 자시함고, 세상을 흔들던, 무리던은, 응당의 지를 일코, 갈바를 몰을더, 이나, 아직 지지도, 뒤스줄을 바르고, 천빅게교로, 권력을 도모함는자도잇스며, 각국은 아공스의 서오히, 몰녀감을 보고, 미리방비가업슴을, 비웃더라, 이후로, 아라스, 세력이 몰녀가고, 일본이, 다시 득세함니, 정부에서, 일공스를 퇴함야, 전후스를 다, 일본의게 및

독립요지

일하기전후대한정형

이백신구

고 그 권함을 두게 노라하니 세상에서 더욱 가동히녀이더라 이적에 민간동설이랑자  
 항야 혹은 정부가 불시로변형항야, 일본당이 나서리라고도항며 혹은, 일본이, 대한  
 을권항야 문명항고 공정한사람을 획항야 민망을싸라 쓰게항리라고도항며 혹은, 일  
 본인이와서 각아문과 각지방에 고문관으로안져 국사를찬조항리라고도항며 혹은, 일  
 본이 아조, 대한을 이전까지 독립국으로 더점지안으리라고도항야 가진소문이 조석  
 으로 전파항의 나라를스랑항는 사람들이 울분항야 락루항는자—무슈항더니 양력이  
 월이십삼일에, 한, 일, 도약을딩항야 반포항니 그도약에 항였스니

대한대국 대황제 폐하의 외부대신 립시셔리 류근참장 ○ 리지용○과

대일본대국 대황제의 특명전권공사 ○ 립권조○는 각각 상당한위임을받아 협의항  
 야 약도를딩항노니

대일요는, 한, 일, 량국간에 영원히 변치못할정의를 보전항며 동양의평화를 확실히  
 유지항기위항야, 대한대국 정부는, 대일본대국 정부를 확실히미어서 정스를곳쳐  
 잘되게항는관계에 충성으로권함을 들을것이오

대일요는, 대일본대국 정부는, 대한대국 정부의 황실을 편안항도록 보호할것이오  
 대일요는, 대일본대국 정부는, 대한대국의 독립과 강도를보전항기에 확실히 보증  
 할것이오

대스도는 었던다른나라이 침히항거나 후 니란이있서, 대한대국 황시니 편안항심

221

독립요지

일어난 전후 대한정형

이념이심인

과 강도를 보전하기에 위태함이 잇슬쎄에는, 대일본정부에서 그 형편을 쟁라 필  
요한 방침을 행하되, 대한정부에서는, 대일본정부의 행동을 편리케 하기 위하여  
분주의 할 것이오, 대일본정부에서는 이 옷도목의 의를 일우기 위하여 합당한  
타협여 군수행동에 쓰기를 엿을 것이오  
데오도는, 대한정부나, 대일본정부나 서로 알고 허락되기 전에 이 약도의 뜻  
손히 하던 약도를 어니 타국과 당하지 못할 것이오  
데류도는 이 약도에 타협여 미진한 조건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이 괴들을 쟁라 다시 의논할 일이라  
이 약도를 조인하여 세상에 반포하미 각국 신문들은, 일본의 후의를 칭찬하여 혹은  
은기를, 일본이, 대한으로 인연하여 여러 번 힘쓰다가 이번에 다시 전정하여, 아  
의 세력을 몰어내고, 대한독립을 보호하는 주의를 꾀치지만 그 의리의 실상됨  
은 가히 알게 다하며, 대한관민들은 말하되, 일본이 우리국정을 찬조하는 권리가  
다 하여 장차 국권을 전혀 주창코져 할지라 우리 백성이 맛당히 날이나 반타협  
이 약도를 물시라 하고 혹은 각문에 방을 보치고 혹은 백성을 선동코져 하며 혹은  
대신의 집에 폭발약을 더지니, 일본공사가 군수를 보이며 보호하며 부상을  
잡으라고 조우리 정부에 조회하는지라 인하여 스스로 정돈되었으나 아직도  
이 약도의 성질을 자세히 아는 자 적어서 중시불평한 생각을 품는 자 불소  
호지라 그 관계를 대강 말함

진디, 일본이 토디와 국권과 황실을 보전하게 한다 하며 정치를 찬조한다함이 실로 우리 독립권리에는 손히가 불소함이라 이약도만 가지고도, 일본이, 대한을 엇더케 디 접하던지 못할것이 업슬지니 헛일홈만 놓혀주는것이 외양으로는, 일본의 영광을 빌디 로니고 속으로는 모든권리를 낫낫치 잡고 안증이 엇지, 일본의 상책이 안이리요 이약 도를 인연하야, 일본의 권리가 어디까지 밋출것은 우리가 불가불알어야 할것이오 이 거슬알진디 이케케되는것이 또흔 희망이, 대한, 관민의게 잇는줄을 더욱 알어야 할지 라 거의 슈슴십년리로 늬이 엇더케 잘 디접하엿스며 바로권면하야 주어 도흔과회가 열파나잇섯스며 진심으로 도, 좁을 몇번이나 엇엇기에 중시 아모것도 안이하고 점 점 못되게만하야 늬이 번번이 전정하야 붓들어유기에 니르니 우리가 무슴면목으로 늬을 부족다하리요 지금에, 일본이 중시 독립면목을 존중히녀이며 강도를완전히보 호하기 담보한다하니 이는, 일본이, 대한, 에디호 후의라고도 하려니와 또흔 각국의 공론이 잇슴을 인연하야 세상에 면목을 빚는 주의가 얼마쯤 잇슴이라 우리가 맞당 히, 일본과 각국에디하야 얼마빛진줄로 생각하고 하로빚비 벗기룰도 모홀지라 만일 이뜻슬 생각지못하고 도로혀 늬을 원망하느싯시 자라다가는 맞춤니 늬의과회만 도 케하여 주어 필경 세상에반포하되 우리가 이러듯 힘써, 대한을 도아주엇스되, 대한 은도로혀 우리를 원슈로디접하며 중시 독립하기를 힘쓰지못하니 장차 엇던나라를 다시청하야 무슴화단을 날희길는지 물을지라 할진디 뉘가 홀로나서서 그러치안이홈

223

을 증거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지금와서, 일본을 밭게만내이면 우리의게히가되고, 일본의 리로운과회만 주는것이니 스람마다 이싱각을과후후에 또, 일본을 전혀고마음 게만알고 슈치되는줄을몰나 번번히붓들어 유기를바르서 약한게집이 남편의게의지하 듯하야 서로설줄을 알지못할진디 이는 남의신세를 감샤히녀여 그집에 종이되야 섬 기려함과 갓흔지라 내몸이 남과갓치 너녀하게되여 전일 은인을 도로혀 도아주게되 는것이 참 스름의 립신하는 근본이 되리로다

▲일본인의주의가전과갓지안이함

지금우리가 전정중에안존지라 각처히상에서는 량국군함이 깨여지며 인명이 얼마식 상하였다는 소문이 신문에 련속히들리며, 려순구에서는 일병이 몇츠레치 공격하여 리히가 었다하며 언제쯤은 포티를세앗게다하며, 아라스에서는 불구에 군스 슈습십 만명을, 만주로 들어며, 대한, 한양, 서지 지쳐오게다하며 일병은 몇칠안에 또, 한 양에 가득히 들어오리라하며 아병은 서북디경으로 몇십명 몇백명씩 간간들어와로 략과 겁탈을행하다가, 안주와, 평양, 서지들어와 일병과맞나 몇번을 쫓겨가기도하고 후사로잡힌자도잇스며, 대한정부에서는 병당을 변방에 파송하야 디경을보호하게하 리, 강계디방에서는, 대한병영 몇십명이 아병슈빅명을 쳐 물니쳤스며 그 근경각군 에 아병이 침로하다가 우리나라 군스들의게피하야 물너간것이 여러번이며 그넘어디 방에서는, 일, 아량국군스의 죽은자 - 무슈흔지라 서북량도에 빅성이거산하야 편안

독립요지

일제의주의가전과갓지안이함

이밖이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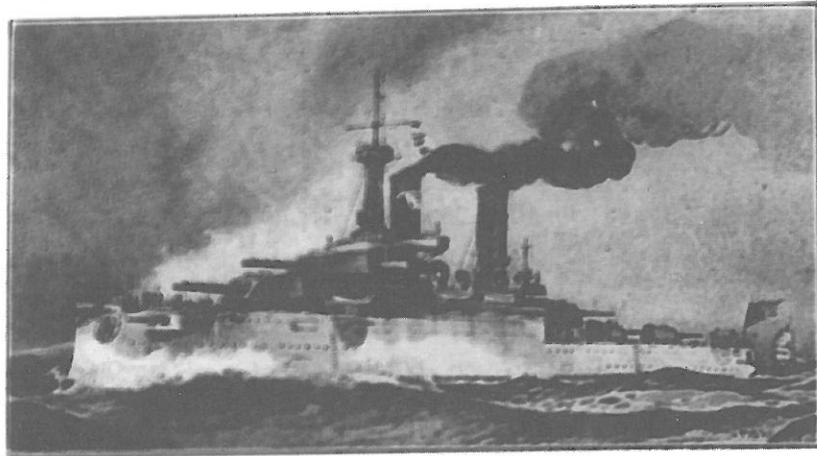
독립요지

일본의 주화자전파자지안이함

이백이십수

훈곳이 업다하니 가련호 무고잔민이 갈바를 모르며 오히려 나라를 보호호지 못호척  
망으로 양화를당호는줄은 종시 깨닫지 못호는도다 우리는 한양에안져 아직 이권화  
는 당치안엇다호나 다 갖치란리중에 잇는지라 이 란리중에서도 몸을자유로 못호고  
급히갓쳐잇서 괴운을퍼지 못호며 뜻슬용랍지 못호니 엇지더욱 울쳐호모음이업스리요  
다히히 외국신문들을엇어 형편을 대강집착호미 조석으로 이글을 기록호야 가장 우  
리나라 스톱들의 급히알바를 간략히 말호고저호나 전징과 소문의 엇더호것은 저세  
히 말호려호미안이라 호를며 이척을 엇지발간호여불는지 생각이아득호미 저세히고  
륙호기어렵고 다만 대강호주의만 말호미라 보는이들이 우리나라독립에 긴절히주의  
호본의관 급히성각호여불진디 쓰르허저가느집을 밧치기에 거의 만분지일이라도도  
움이 될가호노라

대더 전징이라호는것은 호상 시각으로 변호는것이니 지금 이전징이 얼마 못된중에  
안져 그 결말이 엇지될것을 밀이말호수업서 그러호되 전징되기전에 밧서 판결이소  
상호며 목하에 소견으로불지라도, 일본이 동양에 독권을가진지라 필경 이티로결국  
이될지니 우리,대한은 장초,일본의 권면호는찬조를 얼마쯤 밧을지라 이는 우에말  
호바와갓치 이전에도 우리가 우리의적척을 못호랏도 호려니와 호호 지금에도 능히  
서서 일호여나갈만호 직척을 밧호자—업서서 설령 우리가 호로 설권리를 잡고안져  
도 십년전이나 이십년전보다 낮게호수가 잇슬는지 장담호기 어려호즉 우리가 인저



함 군



미국  
슈 군

225

를 비양하며 린하의 공론이 돌만치 되기까지는 불가불, 한, 일, 약도의 당혹요 노으되기로 시형하며 초초 그 범위가 스스로 버서지기를 힘써야 할지라 이는 책임이 전혀 정부에 있지 안코 다만 백성이 항기에 잇는나 이럼으로 이척이 전혀 백성이 힘쓰르 바를 말하엿고 정부를 뒤항야 바르느듯 손 몇마디 말항지 안은지라 그런즉 독립의 기초를 세울자는 우리 대한 백성들이 오 우리 백성이 이 기초를 세우고 저할진디, 일본인의 굴네를 버셔야 할것이 오 지금 스상으로 알라면 전일에 었던것을 묻져알어야 할지라 우에도 대강말할바 아니와, 일본이 거의 수십년전에, 미국, 히군제독, 페리가, 일본에 처음으로 나르러 통상도약을 당항자항미, 일본이 크게 소동되여 우리나라에 병인양요갓치된지라 연타항야 류년후에, 페리가 군스를 상륙하니, 일본이 대병을 발항야 막으려하는지라, 미국, 군스가 풍류를 베풀고 무인디경갓치 도성에 들어가며 인명을 살항거나 다른침로항는 거동이 업스미, 일본이 었지할수 업는줄로 깨달으며 겸항여 침탈항려는 주의가 안인줄을 밋은지라 이에 통상도약을 당항고 일천팔백륙십이년에 스신을 서양에 보니여 형편을 구경항고 심도를 보니여 학문을 공부항게 항미비로소 시법을 안이 쓰지 못을 줄을 알고 주야로 정치와 풍속을 변항야 날마다 시백성과 시나라를 만들며 서양형제가 점점 동으로 퍼져오는것을 평안히 디점항며 백인의게 지지안으려하나 외로운형제가 홀로 디적항기어려우미, 한, 청, 량국을 깨워가지고 동양숨국이 련망항야 백인의세력과 비교항게 되닌 방척외에는 다른수 업는지라 스조, 청

독립요지

일본의주의가전과갓지안이하

이백이심오

국을권하여, 대한을 동등국으로 되점하며 문명부강을힘써 삼국이연합하자하니, 청국이 외양으로는 도케되답으나 속으로는 반되야 종시 뜻지안이하미 필경 화의로 되지못함을알고 군스를길너 히류군제도를 서양법도로 규력준비하여, 청국의권력을 능히 되적할만치만들고, 청국, 니디에 디도를공부하여 좁고험곳을 샅샅시 상고 하며 정부와인민의 대소관계와 형편을 낫낫치 탐지하여 손샅가치알고 안젓스니 늑의속과 내속을 자세히아는자는 빅전빅승하는것이 병법에 두렵흔리치라 전국빅성이 충의를비양하여 전징이버러지면 나라를위하여 죽기로 데일적척을숨아 전징이 한번 되기를 스람마다 고되하며 더청인이 외양은 비록장대하고 형세가 장하나 겁이만 코 충심이업서 다 써고은 인민이라 혼들만 쓰러히지면 몇천명 몇만명이라도 다 썰이호혀져 혼나도업슬지니 한번만 접전하면 승전하기가 여반장이라하여 저마다 팔을썩으며 대담하는지라 세상이서 얼마쯤 그 령민함을 칭찬하나 토디의대소를 보던 지 인민의다소를보던지 형세의빈부를보던지 기타 스람의 신례근력으로보던지 결단코 일본인이 청인과 비교할수업는지라 그 망령된괴운을 자못 비소하더니 갑오년에 귀회를타서, 청국의 교만방조흔 괴운을써고 십년양병호소원을 일우니 각국이 비로소, 일본을달나보며 전에 허락지안던권리를 츠츠히락하여 이후에 처음으로 치외법권을 돌려보이니 이년, 일본이 전에엇지못하던바—라 당초 통상약도를 맺을시에 각국이, 아세아, 여러나라에는 령스관을 갖다두어 각각 지키나라빅성을 다스리고, 일

본법관의 법률을 밧지안케 하였느니 이는 동양사람들이 열리지 못하여 외국인을 평  
 균히 더점할 줄 모르고 흉상 무리히 살해하거나 편벽되히 치우치는 폐단이 잇슨즉 만일  
 그 관원들의 권리로 다스리게 할진디 외국인이라고는 능히부지하지 못하게 할지니 이  
 럼으로 특별히 이쑥스로 명하고 일후에 비성이 다 열니거던 평균히 트고 지너리라 하  
 였느니 이는, 대한과, 청국이 다 혼모양이라, 한, 청, 랑국은 지금까지 이 권리를 회복  
 하지 못하여 곁하여 분할 줄도 아는 자—적으되 홀로, 일본이 조초로 통분히 녀어 괴어  
 히 서인과 갖치되여야 이 권리를 엇을 줄로 알고 주야로 변혁하여 이란리를 겨근후에 각  
 국이 일테로 이 방한을 물시하고 피츠에 평균히 다스리게 할라 하시니 몇히전부터, 일  
 본, 순검이 범법하는 서양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일본법터로 다스리는지라 갑  
 오전정으로 인연하여, 일본, 의디위가 엇더케 놓는진것은 일로써 짐작할지라 이럼으  
 로, 일본인의 생각이 즈연히전보다 얼마 놓았스나 각국의 인정이, 일본을 별로슈효  
 에 치지안고 다만 어린, 히의 식로자라는 쑥슬 길너 비양함과 갖치하니 만일 법  
 람은 육심을 디어 분슈박게 리의를 취하려가는 각국이 반다시 용랍지안을 지니, 일본  
 이 이형편을 또한 삼천고로 다만, 청국에 디하여 비상을 취한외에, 대한에 향하여는  
 실로 다른 뜻시업고 오직 진심으로 혁신을 권면코져함이라 만일 이쑥슬, 일본, 대소관  
 민이 일테로알어 쑥쑥치져바리지안엇던들, 대한, 정부나 비성이 조곰도 원슈 갖치녀어  
 난, 민심이업시 도로혀 친밀한정의를 영영보전하였슬 것이오 동양의 태평함을 또한 상

독립요지

일본의주의가전과자지안이함

이백이십칠

히치안았을것이어늘, 대한에와서, 일본정부를 대표자와 또한 각아문 고문관이며  
 학교 교수하는이들이 만히 이뜻을알지못하고 다만 스스로의일을 도모하야 속으로 권  
 리를세앗으며 리뺏을취하다가 인하여, 빅성의모음이 대단히 불평하게되고 드디어 크  
 게작조하는 거조가있서, 각국이 또한 분히녀이게만들미 맛츠니 권세를 아라스의손  
 에 너어노으, 다만, 대한에만 크게히가될뿐만아라 또한, 일본정부에 손히가 불소하  
 였느니 이는 일후, 대한에오는, 일본관민의 맑은거울이될지라 일로인연하야 십년전  
 에 발셔오날전정의근인을 미져노아 갑오이전에 청인을써그려던 주의를변하야 아  
 인을써그려하미 밤낮으로 이주의를가지고 니를갈며 일중에서 세력이 몇갑절늘  
 며 빅성의싱각이 또한 세력을쓰라 대단히늘어써 심지어 어린으히라도 심중에 아인  
 을 우습게녀이는 모음이있서, 하나이 몇식 썩려누일줄로 장담하며, 나도 어서자라서  
 아인을 다만 두세시라도 당하야야 세상에나던 본의가되게고 나라에빅성된적분을행  
 할리라하다가, 영, 일, 동맹을 일운후로 세계강국들과 실상세력을 비등하는호함이 들  
 어나스족 그 질겨 자랑하는모음이, 곧 세상에 데일인듯하더니 이번전정에 나르려 능  
 히 타국의조역함을 바지안이하고 홀로 강국을타적하야 그군함을채치고 예과를써그  
 거 세상으로하야곰 데일강포하디던나라이 다만 물건품뿐인줄 알게만들어, 노앗스니  
 세상에서도 자연히, 일본을 가외로녀어, 전가치 디접하지못할줄로 녀일것이오, 일본  
 인족 또한 스스로 싱각이놓혀져서, 일, 청, 전정, 세와는 대단히 달을지라 지금 우리의

게 회의를 한번 더 엮게 함이 또한 후의를 표함이니 만일 좋시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  
하는 충심을 닦고 죽기로써 회복하기를 도모하지 않을진대 세상에서 다 말하기로, 대  
한은 영히 자유할 그들이 없스니 더 볼것없다 할지라, 일본이 다시 무엇슬거리며  
뜻대로 못하리요 이는 우리의 허약함이 천만 조각에 나뉘어 이천만 동포의 귀에 소리를 우  
뢰갓치질너 어두운 잠을 시시로 깨워주기 원이로다

▲청일아습국의회를받음

우에 말하바, 대한이 오늘날 이디경을 당한것을 다 통합하여 볼진대, 청국과, 일본과  
아라스의회를 차례로 받았은연고—요 그회를받기는 또한 더 타국이 무고히 혼단을  
말할진대, 영, 법, 량국에게 크게 피하고, 북경이 소요하게 된후로, 청국이 조국의 몸을 부  
지하기어려워 이쓰른 동안에 우리가 서로서 지못하고 도로혀 의지하는 뜻슬 뵈히며, 종  
종 타국외와서 통상하자하면 내가 홀로 담당하여 조처하는 생각지안코 다만, 청국  
에 밀우어 되신 조처하여 주기를 바라며, 미양 속으로 청하여 도아 주기를 구하니, 청인의  
본리음 홀한 마음으로 엮어 리셔은 나라를 통략코져 하는 생각이 나지안하리요 외  
양으로난 각국의 공문을 쓰르느 체하며 속으로난, 대한의 청구함을 시험하여 군사를  
보이며, 한양에 둔 채하고 임의로 출입하며, 너정을 간에 하여, 구태공을 잡아 가고, 지  
존 혼압해 무례가 막심하며, 장안에 상민을 두어 나디에셔겨 장사하게 하니 본리 통상도 약

독립요지

청일아습국의회를받음

이밖이실구

에는, 한양에서 심리밧게 거류디로딩하고 거류디 외에는 셔겨살지못하게 하였거늘 청인이 이약도에 들지안었다하야 특별히 성중에서 장스흔다하미 각국이 또한 성중에 들어와 장스흔며 우리도 청인과 동등으로 뒤점을밧는것이 올타하니 이럼으로 지금, 한양에 귀시흔것이 다 청인의히로 인연함이라 지금 우리나라 스릅들이, 한양에 귀시흔을 실행하야 외국스릅을 시비하느자 - 만으나 다 청인의회를 밧음인줄은 알지못함며 그석에 우리정부에서 청인의 특별히 장스흔려는의습을 굿세게막지못함은 희망하는자업스며 갑오동학셔로말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백성이 지은란리어늘 우리가 셔로진압하기는 생각지안코 청인을 거연히청하야들이미 청인이 우리의청함을 인연하야 도와주려고 들어온것이 도로혀 큰쓰움이되기에밧쳐 지금껏, 대한은, 일본,의힘으로독립을 세워스다는말이잇셔 우리의게 슈치를면치못하게 하느바 - 라는다, 청국,으로 인연하야 밧는히가 우리가 청하야밧는바 - 오 무술년에너르러, 청국이 비로소공스를보너여 국셔를밧들고와셔 셔로동상도약을 덩하엿느니 이국셔에 스의를보면 우리나라 신민된자 - 일변기부기도하코 일변분하기도하리라 그 거만방조하야 남의나라를 곳업는것으로 보던의습을 업시하코 평등독립국으로 극진히공경하야 례절을처리코 다시 정의로천밀히하야 조고로 판계조별하던교제를 여전히함은 실로 동양에다형이라 이후로 량국의정의가 점점갓가와지며 셔로힘써 동양에 이런다형이 업슬지니 이것이 깃버할바 - 오 급기 피츠에파후하코본족, 청국이 진작이

뜻을 새쳐 남의 권함을 들듯고 이러하구셔를 십여년전에만 보던것들 엇지 동양형편이 오늘날 이모양에 이르렀스리요 이는 유지자의 극히 통분케 녀일바라 우리나라에 어두운사람들은 종시도 대국이 나오면 큰변을 당하리라 하느니 이는 어서급히 새달을 바오 지어, 일본으로 말하되라도 수십년리로, 대한의 독립을 확실케 하고져야 청국과 교섭함과 우리와 약호할것이 다 우리를 힘쓸것시업슴은 분명하나 우리가 서로서지못하미 필경 갑오전쟁까지 잇섯스즉 이전정까지도 또한 우리를 얼맛짐도 아 줌이라 하거나 우리가 종시 서로서기를 힘쓰지안이하고 미양 의지하기를 도모하 다가 맛춤니 아인의 간섭을 불너 들었스니 이는, 일본사람을 밋다가 힘을 당할것이오 아라스로 말하되진디 당초로 동셔를 병탄하려노욕심은 업지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만 할것에는 감히 다른싱각을 뇌지못하다가 그 보호를 청하여들여 뇌정에 간예할 기회들 스스로 하락하미 인공야 불족한싱각을 뇌었다가 맛춤니 이번 전쟁을 일우었 거니와 우리로 말하면 조주할싱각은 못하고 남만의되다가 당흔히라 이 세나라에게 차례로 당흔히를 볼진디 우리가 청하여들여 구원을엇으려 하는중에서 싱긴것을 족히 새달을지니 이것을 새달을진디 일후에 또 남의게의되하는것이 또한 장차엇더케 위티할는지 족히 의심을 새칠지라 이후에 한번 더 힘을당하는날은 다시 더 힘을받고져하여도 밝을기회도 업슬지니 관원이나 빅성이나 국권을보호하는 일에티하야조곰이라도 남을의지하던지 후 남의힘을빌어 일을하고져 하는자는 곳나라를 마즈막

독립요지

청일아송국의힘을받음

이빈송실일

팔고 천만고에 대역이라 부디조심하며 부디경계할지어다

▲도훈의회를여러번일허바림

일로써볼진디 우리는 타국과 상통하는디로 번번히 히를당하고 안젓스죽 이는 도훈 의회가업셔 그런것이안이오 미양 당훈의회를 도훈졸로알지못하야 다 일허바림이라 이번에 당훈의회를 또 도훈졸로 알지못하가는 다시 잊지할수 업슬터이기로 이것 을 재닷기위하야 괴왕에 일허바림의회를 대강말하리로다

일은 병즈이후에 샅로서지못함이니 그후로 도훈의회가 여러번잇셔 성인인군과 어진장수가 종종 북벌을뜻시잇셔 군스를길너 한번 슈치를써스려하엿스니 이셔 에 만일 상하관민이 동심합력 하엿던들, 청국의 편안무스홀썩를타셔 군스를들 어, 료동,을응거하고 포디를써어 디경을방비하며 글을보되여 동등즈유국으로약 도를 영항자할진디, 청국이 다른관계에 인연하야 잊지할수 업섯슬형편이 여러 번이어늘 다만 써은선비의 병들난바~ 되여 구츄히 편한것만취하고 설치할줄 을싱각지못하며 후저의권리나 일할가두려하야 인지를쓰지안이하야 식서로괴 와 다도근중에서 충직호신하를 물니치기도하고 후모히하야 업시하기도하미 후 지조가 특별하거나 괴운이 장훈인물이싱기면 그 부모가 감히 기르지못하고 죽 이거나 후침을주며 씬을노아 그 골절을상케하느니 이럼으로 특별한 인제가나 면홍상 타국으로건너가 붓치는지라 초소위 도적의계 랑식을주며 적국에게갈

을 빌림과 또 하니 엇지 쇠약한지 안으리요 점점 쇠약한지는 중에서 남을 의뢰하는 생각이 더욱 긴절하게 됨이니 지금 당하는 국회는 다시 이러케 일치말것이오 일은 스십여 년전에 일척바린과 회라 영, 법, 미 각국이 차례로 와서 통상을 구할 때에 남과 비교할 생각을 하여 어두운 고집을 버리고 곧 면담하여 그나라이 어디잇스며 대소강약 빈부의 엇더함과 통상자는 본의가 무엇을 인연함인지 자세히 알아 보아 만일 통상하는 것이 리롭기도 하고 또한 안이 할 수도 업는 줄로 깨닫거던 주시 신을 영, 미 각국에 보이며 자유로 약도 롬당하고 독립을 반포하였던들 청인이 서양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감히 아모 말도 못하였을 것이오 설령 강호함을 믿고 군사를 동원다 할지라도 각국이 응당 시비코져 할지니 이는 우리가 각국에게 의뢰하거나 구원을 청함이 안이라 저키네가 형편에 설바니 되여 스스로 조역함이니 진실로 이 회회를 일치안 엇던들 다만 오늘날 이 환난과 슈치만 발전안 엇슬 뿐 아니라 우리가 밧서 부강하나라이 되여 일, 청, 량국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할 것이 어늘이 거슬 힘치 못하였스니 이는 돌지번 회회를 일음이오

일은 통상 후후에 깨닫지 못함이라 청인이 서양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본후에는 우리가 청국을 두려워하던 생각을 버려 서양을 두려히 녀이며 서양의 강호함을 보고 우리도 강호여 지기를 도모하여 날로 부강문명을 힘써슬진디 빅성은 자유하는 락이 잇고 나라는 조주하는 권리가 잇스며 안에 위티한 형편이 업고 밧게 침로하는 근심이 업

독립요지

독립요지의 변인하바림

이백삼십삼



235

지금부터는 우리압해당호국회가 이전처럼 쉬울수 없으나 아조업슬 거스안이니 오는  
 귀회는 이러케 일치안어야 할터이나 슈십년리로 우리나라관인들의 일용을보건티실  
 로 다시 바를것도업고 설령 홀만호인지가잇서 그 권리를잇더리도 비성의힘을 의뢰  
 하지안코는 부지홀수업슬지니 지금 우리의거정할바는 정부에 문명호대신이 업슴에  
 잇지안코 다만 나라에 뿌리가될만호 비성이업는것만 념려인즉 우리가 어셔 민업을  
 밝혀 문명호사람이되며 충의를비양호야 독립의귀초가되기를 힘쓰는티잇도다

▲일본정부의주의

대한에서 야국세력이 물너간후에 한국정치상티도가 자못 편안치못호야 사람마다  
 념으기를 대한정부가 곳 변혁되리라호미 후 근심도호며 후 기다리기도호며 후 더  
 디될가 념려도호야 각기 즈기의소문듯는바와 관계되는티로논호며 오날된다 리일  
 된다호다가 음력 이월초심에 일본정부에서 이등박문을 파송호야 량국황실에 정  
 의를친밀히호다호고 특명대신으로 대한에오는지라 이소문을듯는자 다 념으기를  
 이번이 이등이 무단히 단녀만갈리가업스니 반다시 정부제도를 곳치도룩찬조호야  
 정치상으로 권면호다호는약도를 시행호리라호더니 급기 이등이 대한에 니르러  
 황상폐하씨 슈츠페현호고 알원말슴의 대기를들으미 호였스되

이번에 대한과 일본이 두나라황실에 정의를 도라히호기위호야 외신을  
 대황폐하씨 특별파송호기로 외신이 두황실을위호야 기부게 봉명호고왔스오

독립요지

일본정부의주의

이벽송신오

니 영영히 천복홍심을바르오며 지어 폐하의국스로 말씀함을진덕 공스의게 하  
순홍심이 가홍읍고 정스를 변혁하는일인즉 너무조급히다가는 도로혀 격동이  
싱겨 랑피하기가 힘쓰오니 조곰씩 츠츠곳쳐 나가는것이 을을가 하는이다 하엿  
더라

이 쥬품을말슴을 세상에셔듯고 이전공론이 만히변항야 혹은 말하기를, 일본이, 만  
쥬를 아조파후후에야, 대한의 변혁함을권하리라하며 혹은 이등이 귀국후후에 무  
숨운동이 잇스리라하며 혹은, 일본이 갑오년에와서 너무귀화를 조급히권하다가 랑  
피를 본고로 이번에는 찬찬히 시험하리라하며 혹은, 일본이, 대한의 흥왕하는것을  
별로 도케년일것이 업슬지라 년전에, 아라스,가, 대한에 귀화를 실행함과처, 일본  
이 장초, 대한의 귀명을실행하야 감안히바려두고 저의세리 스스로 잔멸하게만들지  
라 함을며 지금, 일본이, 대한을 것호로 놓히고 속으로 실상권리와 리의를 낫낫치  
차지하고 안즐지라 더 무식하고 어두운이들의게 권세를맞겨두고 아지도못하는중에  
속 기름을 낫낫치세닐지니 만일문명하고 충의홍일군들이 권세를타신하면 저기들의  
일에 대단히 방히로을지라 지금, 대한에 집권한이들이 귀명파는 다 빙탄이오 쏘흔  
박성들도 귀명을실행하느니 전국상하가 다 원슈로아는것을 억지로형제다가 격동  
이성기면 저기네게히요 설령 잘될지라도 저기들의 리될것이업슬지라, 일본의 주의  
가 결단코, 대한의 변혁하기를 힘쓰지안으리라하며 혹은, 일본이 속으로 밧셔, 대



이 등 박 문

이승만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하여  
군사경비를 감하고 학교제도들을  
추진하여 나라를 세우고  
고명고익의자가 만

237

한 변혁을 엿지 엿지 하지기로 예산을 절당하여 심지어 군수경비를 감하고 학교제도들을  
 이려 할야 전국에 인민을 교육시켜 스스로 문명의 리의를 깨달으며 고명훈인자가 만  
 히 성기기를 경영하는지라 아직 기회가 나르지 안은 고로 다만 권면하기를 일습다가 우  
 리 정부에서 정신 쓰리지 못하는 것을 인연하여 세상에 들어니고 정치상 간예를 시작할  
 지니 그런씨를 타서 지식 있는 이들이 기회를 일치 말고 일만 잘하여 인민을 교육만 힘쓰  
 면 장차 스스로는 힘이 성기리라 하며 혹은 말하기를 설령 이런 기회가 잇서 고명훈사  
 람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불과 일본사람들의 종질이나 할뿐이니 만일 순종치안코사  
 로서 기를 힘쓰진디 능히 몇철을 부지하지 못할지라 맛당히 빅성의 힘으로 의지하  
 후에야 무슴도리가 잇슬지니 빅성변으로서서 일하는 사람이 만어아 할지라 혹은며 빅  
 성을 교육함으로써 말하야도 빅성의 사상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다만 노례의 사상만 절  
 제속에서 길너 주면 그 교육시키는 것이 할 것 남의 충성시러온 종노릇 잘하게만 만들  
 뿐이라 그 효험이 엿지 조유의 뿌리가 되리요 맛당히 우리나라에 문명충의 훈인들이  
 차례로 인도자가 되여 인민의 생각을 먼저 길너 주어야 할지니 빅성을 교육하는 것이 엿  
 지 또한 우리 빅성에게 달나지 안았스리요 겸하여 일본의 민심이 흥상 웃사람들과  
 못지 안이 할야 그 정부에서 들은 설령 대한을 진정으로 흥왕발달하여 가는 이상을 보  
 고저 혼다 할지라도 아리 인민이 흔히 그 뜻과 반디되는 주의를 길너 대한사람들의 부  
 강 발달할 기회를 막아 저희를 념려가 업지 안이 할즉 우리 인민이 여간만 열녀 능히 남의

독립요지

일본정부의 주의

이력순신철

의스와 나의 방향을 분간하게 될것은호면 아모리 어려운중에서라도 능히 색로설성  
각이나련마는 지금 우리나라사람들은 그러치못하야 남이쓰는덕로 싸러담이느니  
저 스스로 내길을 좃겨갈줄알니요 빅성세리나서서 애웃치며 도아서 정부에서는 무  
엇을호던지 남은엇지호던지 모도상관치말고 각각 나홀도리만힘써 죽기로 나가기에  
있다호며 혹은 말하기를 나라마다 빅성이 주장이니 지금이라도 우리인민이 합심만  
되어 일심으로닐허나 국권을회복하려호면 어렵지안타호며 혹은 말하기를 빅성의합  
심하는것이 맛당히 문명호사람의 지혜로인연하야 세상에 공변된공론을 억의지말고  
을호도리를 구하야야 합심이 비로소 힘이잇슬지라 만일 어두운싱각으로 공변된  
슬의의고 스스로뜻으로 합호진디 호갓 크게위티호만 만들지니 겸하야 지금은 우리가  
도호의회를 다 일헛스죽 합심하야 일조일셔에 힘호일이업슬지니 아모경영도말고감  
안히 잇는거시올타하야 모든의론이 갖지안이호리 각각제의견디로 밋고안존중예 아  
모것도 되지못하야 더욱이 실상호협에도 방히가적지안은지라 이 여러가지의견에  
하야 가부를나타치 평론호것은업스나 통히말호진디 남을 너무의심호것도안이오 너  
무밋호것도안이며 빅성이 열리지못호고도 합심만되면 어렵지안타는것도 못될말이  
오 또호인민이 열리지못호였스죽 아모것도 경영치마는것이 올타는것도 또호 지혜  
가안이라 다만 대한사람들의 호가지힘쓰르바는 일본의세력을 버서나기에 잇느니  
이호호로잇호예 급히나가도 아니될것이오 후계를니싱각하야 호로라도 간담호미잇

239

고는 못될 것이며 군사를 기르거나 세력을 가져도 일을 수습고 정부에서 교제를 잘하거나 계책을 잘 하여도 될수업은 즉 다만 학문을 닦고 교화를 힘써 인민의 지식과 신의가 세상에 들어나 각국이 다 나의 공범된 의리상 친구가 되어 정치안어도 스스로 도와 주며 군사가 업셔도 스스로 강하게 되어야 자연스럽게 일을 지니 이는 천스람이나 만스람이 합하여 위력을 세우는데 잊지안코 다만 각인이 조국의 지혜와 힘으로 강하게 하여서 혼나서 싸로써 여노아도 다 제철을 제가지고 있게 되어야 할지니 저마다 경위로 닦도는 외에는 다른 힘이 날수업는지라 이는 만만번 우리나라 스람들의게 저저히 애우치고져 하는바 이니 이주의를 아리다시 도목을 난호어 말할지니 이척을 보논이 들은지 숨주의하기를 바르노라

▲일본박성의주의

우에말할바는, 일본정치가의 설명한의견을 인연하여 그 정부에 주의가 엇더함을 짐작코져함이라 그 정부에 일동한주의가, 대한을 리롭고져하는지 히롭고져하는지는 우리가 알기도 어렵거니와 실상인즉 그다지 알고져할것도 업는 이니, 일본이 설명우 리를 아모리 히코져할지라도 우리가 잘만하면 세상에 공론이 조지하니 그희를 밧지 안을것이오 설명, 일본정부나 혹은 세상이 다 도와주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아모호함도 업슬지니 이럼으로 그 정부에 주의를 관려할것업다함이 어니와 지어, 일본박성의의 주의한바는 관계가 우리의게 더욱 꺾근하니 이니, 일본박성이 각

독립정신

일본박성의의의

이척을보논이

국의 경위와 학문이 뛰우진보되었스며 외교상에 지정을 잘 닦아 세상공론을 돌나가 쉬우며 모든 리의상에 세력을 들나기로 말하여도 우리가 여간흔외초를 세워가지고는 비교하여볼수업스며 더욱이 그슈단이 간교하여 여간지혜로운 그룡락에 썩지안키어 럽고 한번 썩진후에는 버셔나기 어려운지라 저러흔인민들이 장차우리어두운인민과 친근히 간섭이되면 능히 그범위에 버셔날자 - 몇치나되게는요 능이 점점갓가히오는데로 피하여물너가도 내것을 보전할수업고 쏘흔 너무갓가히하여 그슈단에 썩져도 능히 내몸을 찾지못할지니 불가불 흠씩혀있셔 내가아모도록 능보다 나흔학문과 법을비와 능보다 문져착슈하여 능이할것을 미리고안즈면 능이 스스로 접죽할곳이 업슬것이오 이러케 만들어 노은후에 와셔사는것은 피츠에 갓치리의을엇을지니 이는 만히와셔살스록 우리의게 리의이만을지라 무슴손히가 잇스리요 이거시 다우리나라 스람들의 지혜와 학문과 용맹으로 다도야 될일이라 그러치안이흐면 모든리의 한업근원을 흐나도 남기지못할지니 엇지더욱 주의할바 - 안이리요 지금, 일본, 스람들이, 대한에서 리의를 엇으려 하는리의를 대강알기위하여, 부산, 사산, 일본, 상민들이, 한, 일, 협약을 맺은후에 아홉가지 도목을너, 일, 본, 정부와, 한, 양, 에 잇단, 일, 본, 공, 소, 의, 개, 을, 니, 고, 시, 행, 하, 기, 를, 청, 구, 하, 는, 것, 을, 등, 지, 하, 는, 노, 니, 그, 도, 목, 에, 하, 였, 스, 되, 일, 은, 대, 한, 일, 본, 시, 에, 괴, 왕, 잇, 는, 통, 상, 조, 약, 을, 기, 정, 하, 는, 것, 이, 오, 이는, 대, 한, 의, 토, 디, 를, 영, 하, 기, 때, 할, 권, 리, 를, 것, 을, 것, 이, 오

241

숨은, 대한에서, 일본의 상업상리인이 데일크니, 대한회관 사무원을, 일본이 주  
관할것이오

스는, 대한에 농수항난제도를 곳칠것이오

오는, 대한의디에 어티던지 외국인이 살게항난허락을 었을것이오

륙은, 심습도에 평균히영향야, 농업권장항난처소를 미도에 네곳이나 후 더 설시하  
야, 대한, 농민들이 모본하게 할것이오

철은, 일본, 사람들이, 대한회변에 어티던지가서 유람항거나 장수항거나 금항지못  
할것이오

팔은, 일본, 은행소를, 대한의디에 만히 설시할것이오

구는, 대한에 돈짓는제도를 다시 마련하야, 일본, 돈과 밧고기에 충등이 업게할일  
이라

이 아홉가지요목의관계를 대강의문할진디 일도에 통상도약을 지정하자함인즉 우리  
가 진작 부지런히 일하엿다면 우리가 우리정부에 청구하고 우리국권에 미흡한귀절  
을 곳치게 되엿슬거시어늘 도로혀, 일본인이 몬져 곳치고저항기에 니르릿스니 이는  
국권이 점점손히되느 낀관계요

대한의도디를 영영히 미매하자함으로 말할진디 각국약장에 허락지안은바—라 지금  
일본, 사람들을 도처에 도디를사느페단이 무슈하나 정부만 바로잡히면 장차 약장을

독립요지

일본침성의주의

이백소심일

드디어 제페홀도리가 업지안케거늘 이도목을 아조터서 경향물론하고 임의로사게홀  
진딴얼마안에 도호도디가다, 일본,스람의 장악에 들어갈것이오

홍왕후는디로 들고나난물건의 제익이 대단히늘터이니 이럼으로 외국에잇슬녀여 쓰  
려할여도 이문서를 잡히고야 몇십만원이라도 엇어쓰는바라 리익도 적지안으려나  
와 제정의권리가 심히 관계되는니 우리나라 스람들이 어서공부할야 이런권리를우  
리가주장할야 을출거시어늘 우리는 이런스무를 주장할공부도 줄일출자 업거니  
와 위선협잡하는페단으로 인연할야 홀나도 주장할스람이업는고로 지금, 영국,스람  
이 디신맛할 다스리는지라 우리나라스람은 이거슬 분히녀여 신속히 공부들할야 이  
권리를 회복할출은싱각지못할미, 아라스,이 년전에 회관세무스를, 대한에서 고용할  
다하고 아인, 알렉시푸으로 디신할고저할미, 영국인, 박탁안이 장쳐려져 물너가  
게되는고로, 영국,공스가 무슈히시비할야 오릭승강되다가 필경 아인이 물너가고우  
리정부에서는 아인 청할여은 비상만물엇는니 지금에, 일본이 이권리를 엇으려함이  
라 우리는 초저볼심도못쑤고, 일본인이 디신할게홀진딴 장쳐 어니써에 우리권리를  
회복할여보리요 이는 지정상권리에 큰관계오

일본인이 우리디디에 어디던지 임의로와서 살기다함으로 말할진딴 이거시, 일본인의  
의 심히원할바라 지금, 일본박성이 허마다늘어서 쌍은좁고 박성이 살곳이적은고

243

독립요지

일본박성의주의

이백수심술

로 각처에 옮겨사는 인민이 한이업는중 정부와 박성이 서로식민지를엮고져 열심으로 경영한다더라, 대한의도디와 그후가 이러듯요호며 금덤은덤과 모든 저물근원이 한업시 바라쓰힌지라 흠을며 이나라박성이 열리지못하야 어셔박비 녀여쓰고져안이 하며 녀의위력에 굽히기를 도케년인즉, 일본인이 들어와 사는되로 곳그디방에 주인이될지니 엇지 원하지안으리요 다만 약장에 방한이잇는고로 항상 한하다가 이번 에 이 방한을트자함이니 이 방한을트고보면 곳, 일본인이 국중에편만하야 모든대 소리의을 낫낫치 점령할지라 우리는 지금에 이러흔 리의를 날회킬심의도 못하거니와 설령 이런뜻시잇더라도 바린쌍을기간하야 요흔면담을 만들거나 금덤은덤을 열 어리가만히성길진디 당장에 녀의게세앗기고 피를도하게 될뿐이니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디리요 그런즉 텨심으로, 일본인의 슈중에들게만되지라 흠을며 우리나라사람들은 법률의보호를받지못하미 외국인과 경위로 다들어볼줄은 생각도못하교 항상 피하야 물너가는것이 상책으로아는고로 외국인인 점점들어올스루 날로피하야 곱흔 디로들어가고 요흔곳은 다 녀의게맛기고 말터이니 이는 인민의게 크게 관계되는것이오

농업 권장하는 처소를 십습도에 네곳씩 설치하자함으로말할진디 습한쌍에 물을써며 마른쌍에 물을디고 토디를싸라 맛당할거슬 심은것이 다 법이잇서 전국에 손바닥 만흔조각도 바린것이업스며 밭갈고 씨뿌리며 기음미고 추슈하는것이 모도그게가

잇서 홀두사람이 몇백명의힘을 더신후미 그 리가 몇십비몇백비가 되는바—어늘 우 리나라사람들은 이런법을 말도듯지못할지라 이거시 허락되면 우리나라사람들은 농 스도 여전히 홀수업느니 이는 농업에 관계됨이오

일본인이 우리나라히변에 어디던지가서 장스항기를 금치말게 호자흥인즉 상업을홍 왕식혀 전국을 다 기방코져함이라 공번된리익으로말함면 또호방히가 업다호것이나 우리나라사람들이 초초 상업의 과초를잡아 외국의상업권제와 비교할만치 된후에야 능히 이거슬트고도 손히가업슬지라 만일 그러치못하여 빅성은열니지못호고 나라만 몬져 열어노아 각국인이 상업권리를 다 쥐고안즌후에야 우리가 다시 회복호려호들 엇지 용이호리요 이는 상업에 큰관계오

일본, 은형소를 전국에설시호자흥으로 말호진디 이는전국에철믹을잡고 안즈라함이 라 일국의지정은 일신에철믹이니 경향각도성과 각방곡에 은형을설시호야 각처에딕 락이 서로동호야야 활동호는힘이 싱길지어늘, 일본, 은형소를 더신설시호진디 내몸 의숨등을 남이쥐고안즌이니 엇지 산스사람이라호리요 지금 서울에잇는, 일본, 은형두 세군디와 각항구에잇는 몇몇은형소로 인연호여셔도 전국의지정권리가 엇더케 관계 되는지 몇몇외국사람이 작당호고 일국돈을 말니려호면 불과 몇철에 다 거두어들일 지라 우리가 어서 이런권력을 비교호도리들 마련호야 호로박비 회복호야야 싱믹잇 는 나라이될것이어늘 도로혀, 일본인이 심슴도에 이권력을 퍼칠진디 무슴함이잇서

245

다시 셈작하여 보리요 이단 국민원리에 관계됨이요

주전환은 법을 바로잡자 함으로 말을 진디 우리나라에 급급히 경제활일이라 지금 서양 각국은 다 금전으로 주장을 숨어서 은전도 초초업시하여 다만 금전갑세설녀 적동이 나 빅동전 쓰듯 하니 숨년전부터 일본서도 금전을 쓰는지라 이러듯 돈제도를 타국 과못치 하는 것이 각국상업에도 다 리로운바 어니와 저기나라의 지정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니 우리가 진작우리손으로 바로잡아 넘과못치 하였더면 빅성이 이러듯 곤궁 치도안엇깃고 남이 이러듯 의론도안이었을거슬 지금껏 못치 못하고 못된돈을한 업시지어 빅성이 살수업기에니르고 각국상민이 두로손희를 받게 할지라 엇지 신속히 교정할바 안이리요 그러나 돈쓰는제도 또흔 빅성의 정도를 따라 할지니 빅성이 열 니지 못하고는 금전을 쓰르 수업는지라 지금 이 빅성의 정도로 금전을 쓰르 진디 빅성이 감추어 두거나 녹여업시하는 폐도만 할지며 외국상민들이 물건을 가져다가 팔고나갈씩 는 사다가 흥리할 본도물화가업스죽 불가불 금전을 실어 넘갈것이니 몇칠안에 돈을 구경할수업시될지라 지금 더 일본상민들이 우리나라에 금전을 쓰자 함은 안이나 우리 는 어서 금전을 쓰기 시작되기를 경영하여 할지니 인민이 문명항기를 힘쓰르 지라 엇 지 항로인들 깨을나싱각하리요

이상에 말한바는 다 일본상민들의 경영이 엇더함을 대강알게 함이라 사람마다 다 알고 김히싱각하야 될것이오 이 경영에 더하여 서양사람들의 의론이 또흔 엇더할지

독립요지

일본의 빅성주의

이 빅소실오

알기위하여, 한양에 있던, 미국인의월보에 기록한바를 번역하노니 그글에 하였스되 우리가, 일본,상민의 아홉표목을 자세히 생각할진디 지금형편으로는 결단코 허락할수업는지라, 일본,사람들이, 대한,디디에 석겨사는권리를 엮으려하니

대대,디디에 석겨사는것은 어니나라사람이던지 그디방법틀로 다스림을 밧어야 할것이어늘 지금, 일본,인의 말하느바는, 일본,법성이나 어니라국사람으로 하여곰, 대한,법틀로 다스리기를 밧으려함은안인즉 디방법틀을밧지안코 석겨살자함은결단코 허락할수업는지라, 대한,에잇는 외국인도 맞당히다스리는 법틀이잇서야 할지니 김흔,디디에가서 살너는,사람들은 무슴법틀을 밧으려하노뇨 지금은, 디에 혼두유람하느 외국인이, 대한,정부의 빙표를 맞가지고 티왕하되 폐단이 업다할수업거늘 만일 허다함, 일본,인들이, 디디에와서 녀녀살진디, 대한,정부에 서, 다스릴수업스니 불가불, 일본,경찰권리가 전국에 퍼져야 할지라 이는, 대한,의 독립권리를 손히함이니 통상,도약의 본의와 억의는바—라, 부산,에잇는, 일본,인들이 통상,도약을 기정하,자함이 이연고를 인연하듯하니 이주의로, 대한,은,디방에 경찰권리를 퍼고져함은 실로, 일본,정부에서 디답하기가 괴로히 녀일말이라 우린은 생각건디, 대한,의권리를 크게손히하,기전에는 이일이 될수업는지라, 대한,의성을 잘 교육하여 노은후에나, 대한,정부에서 장차, 일본,인들과 다른,외국인을 다 일레로들어와서, 디디에임의로살며, 대한,법틀을 복종하,기를 지금,일본,

이 각국을 허락할야 그 어디에 살게 할것고치 허락할날이 잇슬터이나 지금은그  
 씨가 아지못되엿스며 회관을 주창할것다 할는도목으로 말할진터, 영국인의 장  
 악에서 췌여녀여, 일본인이 되신자창는주의가 들어는지라 생각건터, 일본정  
 부에서 이도목한가지만보아도 그글에 모든도목을 다 물니칠지라 만일이 허관  
 스무가 대한스람의 손에들어 무슴페단이잇거나 후 타국인이주창할야, 일본리  
 의에 방허가될것고흐면, 일본이 되신한다함이 괴이치안타 할려니와 이거슨 그  
 러치안이할야, 대한모든마을에 비하면 스무원이던지 할는 스무원지 다 대한  
 에 데일이니 잘못본다할수업고 또흔, 일본의 천구되는 나라의손에잇스니 리의  
 에손히된다. 널을수도업는지라 그런즉, 일본이 이거슬엇으려할는것이 일이 더잘  
 되게 할고저할도안이오, 대한정부에 유조함을 위한다 할수도업고 다만 월급성  
 기는자리를, 일본인이 차지코져하거나 세무권리를 마자가지고저할는뜻시라 년  
 전에 회관세무로 인연할야, 영국이, 아라스와 승강할셔에 관계가 심히 중대하  
 게된거슨 련하여서 다 아는바이라, 영국이 크게비할야 필경의의엿스미 각국  
 이 다 알기를 이거슨 타국이 엿보지못할리라 할는바어늘 지금 이런셔를당할  
 야, 일본인이 감히 상관할려함은 실로 놀날만할일이라, 일본정부에서는 이런청  
 원을 인연할야 그주의를 조공도 변치안으려니와, 일본상민은 엿지할야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일을 청구할는지 과연 모호할도다 우리는들으미, 일본공소가, 대

독립요지

일본백성의주의

이백소설찰

독립요지

일본박성의주의

이벽소심판

한정부에 권하기를, 일본박성이나 회사에서 정부에 청구하는것은, 일본대표자들이 신명령하기전에는 도모지 상관치말나 하였느니 그정부에서 응당 그박성들의게 밝히말하야 지금, 대한을 외국인의게 임의로 열어노아, 대한정부와 박성의권리와 리의를 도라보지안코, 일본인이 전국에편만하야 모든리의를 다 차지하게 하는척디가 안인줄을 사람마다 알게할지라 들으니, 일본에 었던 큰 회사에서는, 대한에티하야 지화오박만원을 허마다 줄것시오 지금몬져 일박만원을줄터이니 몇가지리의를 영원히 허락하라 하였다는디 그 리이의 근원들은누, 대한전국에 명익又흔것이라 이돈슈효의 만은것만싱각하고 곳허락할진디 음식할덩이를위하야 가산잡물들을 다 파는것과 같을이로다 그러나 우리는바르건디, 일본이, 대한에티하야 힘에자란다코 무음디로 힘동하지안이하고 전례에 합당히 할것시오 또흔이 뜻슬위하야 데일나은 정치슈단으로 그박성을 별로히 단속할지나 이는그박성중에 얼마쯤 그정부의뜻을 알지못하고 흥상넘치는일이 잇는연고라, 일본정부가 이일에 공평히조처하는것을 세상에들어닐진디 각국이, 일본을다만 지명하나라로만 녀일별안이오 곳문명국으로 뒤떨을지라, 일본의 슈단으로 이 뜻슬달하기에 의심이업노라 하였더라

이 의론을볼진디, 대한을위하야 급히 녀려하는 서양친구들이 공변원의론으로, 대한을 었더케 위하야주고저하는지가히 짐작하게고, 일본정부와 박성의의향이 었더흔

지도알게고 또한, 대한정부에서 당장에 몇푼돈만 중히 녀이고 국권을 팔기에 심히 두려우니, 지안은 줄로 의심하는 뜻슬 또한 얼마쯤 짐작할지라 우리나라 빅성들이 적이 이런 뜻슬 깨닫고 열심으로 보호하기를 힘쓰리진디 외국에 의리상 친구들이 아지 못하는 중에셔 도아주는 힘이 적지안을 거시어늘 이런 소문을 아난자도 몇치 못되며 또한 알너주는 자도 업슨즉 엇지 스스로 깨달으며 엇지 스스로 보호되리요 이거시 지금에 데 일급급한 일이라 스람마다 아난디로 어셔 알너주어야 할리로다 이후로 각처의, 일본, 상민들이 련속하여 그 정부에 청구하는 글을 올넛는디 그 주의가 조공식가지안이 하나 다 이 뜻과 얼마 머지 안은 지라, 일본, 동경에 잇는 상업을 의논하는 처소에서 전국에 상업회사를 연합하여 정부에 청원할대기를 들은즉

일은 동양 은행소를 설치할것이오

일은 대한에 돈쓰는 제도를 고칠것이오

일은 일본인이, 대한에서 토다 차지하는 권리를 고개할것이오

일은 대한에 습검이 경찰하는 제도를 고칠것이오

일은 고기잡는 권리를 고개할것이오

일은 대한과, 만주, 지방에 항구와 저자를 서로만히 열어 장소를 임의로 하게 할것이오

일은 청국의 열도와 동신하는 사무의 모든 권리를, 일본인이 무연영양하게 할것이오

주요요지

일본의 성의주요

이력소신

일본은, 대한과, 만주에 모든 광산을 열어 여러가지 물건제조하는일을 다 임의로 할  
게할것이라

이 몇요목의관계는 다시설명할것 없거니와 그일에 다시큰문제가 생기는데, 대한에  
황무야야 바려둔땅을, 일본인이 다 기간하는 권리를 달나 하며 또한 산림천렵의 모  
든 리의상권리를 오십년동안만 허락하야, 일본공사가 외부로 그 안건을보내  
는지라 외부에서 정부로 보냈더니 정부에서 회의하고 다시 외부로보내여 허락  
수업다고, 일본공사의게 회답하야 하며 대소관민은 상소하고 회의도하고 후글도지  
어 전파하야 이거슨 결단코 허락수업다고 의론이 분분하니라 외부에서 이스연으  
로 회답하고 허락수업다하미 일공사의말이 이일을 괴왕폐현할씨에 처분을물었  
다하야 강경하게 요구하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까지 강경하게 베틀는 모양이나  
전국에 지각있는빅성이만아서 일심으로 잘 조처하야 될터인디 이런소문을아는자  
이 만치못하야 여간안다는자도 후엇지할수업스니 상관하야 무엇하리요하거나 그  
러치안으면 곳 빅성을닐회켜서 야단을치고저하는 이두가지 사람뿐이니 엇지시비를  
갈회며 경위를세우기바르리요 이관계가엇더하스더 말하지안아도 다 짐작들이잇  
스려니와 영즈월보에말하바, 대한의 명익이라할것이 곳 이거시라  
숨흐다, 대한동포들은 장차 어디로가려나고 이아리말은 더할수록 흥분하고 또하너  
무지리호고로 더 의론치안커니와 당당하네나라일을 우리논 할가지도 의론치못하고

후회가 팔아먹으려는지 후 팔아먹었는지 알수도 없고 알려고도 아니하며 도로혀 타  
국인이 안져서, 대한일을 조국정부에 청구하고 시형하여 달나하니 이엇지 우리나라  
에 백성이 있다 할리요 이는 우리의 충심이 남만 못할 것도 아니오. 저 조와 지혜가 남만 못  
함이 아니라 다만 우에 잇는 이들이 조국들의 시비가 들어 날가 후권리가 감할가 두려하  
야 백성이 감히 알지도 못하게 하며 후 말도 못하게 하며 외국신문에 랑조히 닐는 말도  
내나라 신문에는 감히 들어 너지 못하며 외국인들은 스방에 들네 되 내나라 백성은 할마  
티도 음기지 못하야 전국이 아모도륙 어 두운중에 잇서 속으로 무슴약도를 인쳐 주었는  
지 나라를 무슴디경에 너르게 하였는지 도모지 모르도륙 힘쓰는고로 능히 알스람도  
업거나와 알어도 감히 아는체를 못함이라 이중에 잇서서 각국이 만일 육심으로 할려  
면 무엇을 못하리요 일언이페 지하고 지금 우리의 급하고 급하고 또 급한일은 아모다  
른것에 잇지 안코 다만 알내고 하며 또 할 알게 하난디 잇슬뿐이라 형편이 잘되기를 바  
르지도 말고 글너 가는것을 락심하지도 말며 정부가 엇지 되는거슬 상관도 말고 또 할정  
부를 줄디에 반티하는싱각도 두지 말며 다 각기 내몸이 내나라 권리를 보호할만할스  
람이 되여가며 주야 쉬히지 말고 서로 형편과 도리를 전파하야 얼마안에 전국 백성이 다  
알고 목숨은 바릴지언정, 대한데국, 조유독립권리 닐나 혼져적혀 우리 이천만동포의  
일천구백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구명이 다 머리를 숙이거나 다 죽어 업서진 후에라도  
나 할나는 태극국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히들고 압호로나 아가 할거름도 뒤로물너가지

투쟁요지

일본제성의주의

이백오십일



만 승 리 가 교 외



미 국 에 서 담  
판 하 던  
일 아 강 화 도  
약 써 에 대 한  
독 립 권 리 의  
손 히 를 면 키  
위 하 야  
미 국 대 령  
과 각 정 치 가  
를 방 문 하 고  
전 후 운 동 하  
던

252

안기를 각각 마음속에 밍세하고 다시 밍세하고 천만번 밍세하십시오

독립요제

일본의성의주의

이백오십이



충정공 민영환



故閔忠正公諱煥節竹  
光武十年七月十五日  
大韓俱樂部故寫

민충정공이 순절하기 전  
일삭경에 본저술자에  
게 보낸 서간

厚意 垂青 二 以 是 在 公  
深 謝 以 此 以 此 也 也 也 也  
心 乎 平 友 之 心 滿 是 也 也 也 也  
性 太 太 太 太 而 而 而 而 而  
以 以 以 以 以 以 以 以 以 以  
做 做 做 做 做 做 做 做 做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性

253

후록

▲ 독립주의의 필요성도목

이책에 기록한바는 우리 대한독립에 관계한 스적을 대강대강 말함이라 무궁무진한 뜻  
슬 다 말할수없스나 이것만가지고도 김히 주의하여야 불진디 독립이라 하는것이 무어  
시며 그관계가 엇더하며 오날 우리의독립이 엇더한디경에 잇는것과 장력에 또한엇  
더케될거슬 적이 짐작할지라 사람마다 지슴연구하여보시며 일변으로 모든사람의게  
권하여 얼마안에 전국인민이 하나도 모르논자—업도록 일심으로 전력하기를 간절히  
바르논바—라 그러나 다만 이 스적만알고 엇지하면 장초 독립을 완전케할는지 방향  
이 나서지안이하면 또한 효험이 업슬터이기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의 생각에 가장  
긴급히알것은 대강말하여 사람마다 속으로새다고 본받어행하여 초초 혼두사람의몸  
에서 힘이싱겨 맞츄디 온나라이 혼몸과 혼몸이되야 스지와빅레가 완전히 활동하  
는 힘을잇을진디 엇지 이책의효험이 아조 업다하리요 그 긴절한강령을 여섯도목에  
난호아 구별하노니 후우에말한것도잇고 후석로말한것도잇스나 다 그본의를 김히  
새닷도록 하고저함이라 정부에서무엇을행던지 모든사람이 무엇을행던지 다 관계하  
지말고 각각 스자의혼몸을 싸로써여싱각하여 나하나히 이거슬행하며 남을 또이티  
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될줄로밋기를 바르노라

첫지는 세계의 맛당히 동하여야 할 줄로 알 것이라

독립요지

후록

이책의신상

독립요지

후록

이백오십수

일은 량하만국에 통치안은 나라이업스며 만국만민에 열나지못할자—업느니. 기벽 이후로 싸로막혀잇서 세상을모르고지닌던 모든섬들이 지금와서는 각국과 왕티 상통치 안은곳시업스며 모든섬에살던 각섬야만종류들도 모도 식빛출박아 날로 변하야 남과又치되여 부강문명을 다도느니. 이런디방은 점점홍왕하야 평등한세 력을 잇으며 그러치안은곳은 박게세력이 점점들어와 한업시자라며 안에형편은 점점잔약하야 날로쇠잔하며 필경 인종까지 업서져서 장초 온세상사람이 다 혼 결又치되여 평균한정도를 일우고말지니. 지금 동양시티가 비컨티 동티을씩와又 혼지라 후 핏발이 몬져빛치는곳도잇고 후 나종빛치는곳도잇스나. 듯어 오느히를 막을자는업스니. 맛츄닉 스방에 섹又치빛치고야말지라. 서편에서 날허나서 핏빛 又치 들어오느식빛출 우리가 홀로 막을수 업느지라. 괴왕 지닌온일을보면 막지 못할출을 분명히 증거홀지라. 이거슬 변연히보고안져셔도 생각지못하고. 종시식 빛출 박지안으려고만 힘쓰다가는 나라이 영히업서지고 인종이 장초소멸홀지라. 이는 스람마다. 지금세상에잇서서 타국들과 통치안을수업느것출을 깨달을것이오. 이는 통상하는거시. 피츠에 리익됨을 깨달을것이라.

대더 스람이라 하는거슨 리웃시잇셔야 사느것이니. 만일 리웃시업고 다만 식와 즘싱과 석겨살진티. 당장에 몸을 엷지부지함며 나의먹고넘고 쓰느거슬 다 내손 으로 혼져 만들어야홀지니. 엷지 이거슬 다 내손으로 만들수잇스며 학문지조와

인의례지를 엿더케보함며 인성의귀한것이 무어시며 지물과 보비가잇기로 또호  
 무엇에쓰리요 그림으로 나의사는거시 다 리웃슬힘넘어 넘고먹고 쓰는거슬엇으  
 며 학문과도덕을 비호기도하고 행하기도 하는바 라 리웃시넙을스룩 나의슈용  
 홀물화가 더욱 정긴하고 풍족함며 나의물건이귀하고 널니씨울것이오 문견과지  
 식이 더욱 넙을거시니 이거시 곳 온던하만국과 서로리웃슬숨아 문호를열고 풍  
 속을곳치며 물화를받고는바 라 그러치못함면 압집이뒤스집과뵈히며 북도가남  
 도와뵈히며 서양이 동양과뵈히서 이집에불이나도 저집에서 모른체함며 함경도  
 에 흥년이들어도 경상도에 무슈호곡식을써기히며 팔지못함고 이나라에 역질이  
 대단함야 사람이 삼쓰러지듯함되 더나라우두법을 비와오지못함지니 모든 이런  
 거스로 밀우워보면 사람의동치안는거시 세상에 엿더케 히롭다함게스노요 이럼  
 으로 각처에 서로통함기물 데일슈의로숨아 호구척도 통치안는곳이업도록 만들  
 미 룬선화차와 뎌보우데등 각척기계가싱긴지라 우리나라도 어셔이법을비와 전  
 국안에 거의줄들이듯시 설치함며 동셔남북이 지척곳치왕리함며 시각으로동신  
 함야 정의가친함함며 풍속이 호결곳치되며 산협두메사람은 어염이풍족함고 섬  
 중이나 해변벽성들은 룬디와 산중소산을 구함기에 어려울거시업슬지라 각처인  
 민이 서로 긴호거슬받고아 잇고업는거슬 피츠에보용함며 도쿄언짚은거슬 서로  
 비교함미 세계각국이 호 리웃시되여 평균호리의을 일테로 누리스니 이는 사람

독립요지

후록

이백오십오

마다 통상하는 리익을 깨달을 것이오

숨은 통상하는 거시 지금 세상에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근본이니 세상에 모든 부강을 다는 나라들이 다 그 본국 지방 안에서 싱기는 곡식이나 혹은 다른 지물만 가지고 능히 풍족하게 된 거시 아니라 다 그 빚성으로 하여 품 상업을 확장시켜 각국의 지물을 버려드린 고로 그 나라 안에 통상하는 지물이 한 업서만 하여져서 날마다 부강에나 아감이라 오늘날 세계에 영국이 심히 부강하다 하니 그 본국도 디를 보면 불과 조고마흔 섬덩이 세 조각이라 그 후도 합당치 못하고 물산도 별로 업스미 빚성이 제 조공장하는 법에 정긴 하여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팔미 하여 정부에서 또한 극히 보호하여 그 나라 상민이 흔들만 가 있는 곳이라도 곳 군함을 보이며 권리를 안전케 하미련하에 그 나라 상민이 안이 가 있는 곳이 업스며 련하지 물의 큰 권리가 영국인 과 관계 안이 되는 것이 업스니 영국이 엿지 부요한 지 안으리요 다만 영국만이 련뿐 안이라 각국이 다 상업의 권리를 데일 중하게 녀이 는 고로 베껴에는 각국이 흥상 쌍을 써앗스려고 전정을 날히 키더니 근디에는 상업의 권리를 위하여 쓰호는 나 상업의 관계가 이러흔 지라 우리나라에도 이전에는 농사를 주장으로 알고 장사는 극히 천하게 녀였스나 지금은 결단코 그러치 안이 하여 상업을 발달치 못하 고는 다만 농업만 인연하여 치부할 도리가 업는 지라 일변으로 농사도 힘써서 도훈도 디를 리간 하여 곡물과 식물도 무한히 일우려니와 스방에 도훈항구가 만히 잇서 출포식

히기도 편리하며, 일본과, 청국, 각 해변에 발미출처소가 있으며, 각 식련조물도 또한 풍부하니, 족히 동방에 호 부국을 일출지라, 이는 사람마다 상업으로써 부국출근본을 삼을것이오

스는 외국인의 오는것이 본리나를허용려는주의가업고 피츠에 다 리롭기를 경영함인즉, 외국인의 오는거슬 막을사담이업슴은 가히알녀니와, 만일 남의오는것만 허락하여, 다만 안저서접티항기만 위주출진티, 그 통상하는리의과 세력이 다외국인의손에만 들어갈지니, 이러케통상하는거슨, 더사름의게만 리롭고 내게는리로올것이업서, 도로혀 허만될뿐이니, 맛당히 우리도 남의게가서, 형편과풍속과물정을삼히고 들어올물건과 나갈물건을, 츠우리손으로 티신하여, 남의하는것을나도 그와우치 항기를힘써서, 오고가는것이 평균하게되여야, 비로소 남과우혼리의을 엿을거시니, 이는 사람마다 외국에가기도하며, 외국상업의정형을 삼히기도하여, 리의를엇어, 내나라 상권을 확장하게하기로, 급무를삼을것이오

오는 외국인을 원슈우치녀임이, 데일위티호는것이니, 이는 어두운 빅성들이 호상사담업시, 남을미워하는페단이라, 우에말호것만보아도, 족히 남을미워호리유가업슴을 가히파후호게거늘, 세상형편도모르고, 남의뜻도 모르는중에서, 어리석게 남을은근히 실혀하여, 중중의회를당호면, 허항기를써호는니, 실로 스리에도 대단히합당치안커니와, 나라에도 이만치 위험한일이업는지라, 당초에 튜주교인을 업시호

독립외지

후록

이십오신철

독립요제

후록

이백오십팔

려다가 병인양요를 만들었고 갑신임오에도, 일본인을 몰아내려다가 란리를 날  
회해 큰화통당하였스며 갑오년에 동학이 날어나 외국인을 몰아내다가 동양  
이 대란하게 만들었으니 이난 우리나라에서 연면히 당하는것이오, 청국은 외국  
을 밀어내려다가 영, 법, 량국에게 큰 란리를 당하고 의화단이 날어나 각국인들도  
륙하려다가 창성이 어육되고 그 빌미로, 일, 아, 전정을 만들었스며, 인도국은 뜻  
치 서양사람을 히하려다가, 영국이 군스를 갖다두고 나라를 업서야 속디를 만  
들었으니 이난 빅성이 어리석은거시 곳 나라를 멸망시키신 데일첩경이라 사람마  
다 새닷고 경성야 사답업시 늠을 미워하는 마음을 업시하고 또한 다른사람의게  
이 뜻술 열심으로 설명야 저저히 파혹하고 다 갖치 동포형제로 뒤접야 피츠에  
구별이 업게 되기를 겁쓰라 지라 흠을며 그 근본을 생각하면 스히가 다 형제라 더  
각국인들은 교화가 험함하며 지식이 발달되야 세상사람을 다 갖치 뒤접는고로  
형용이다르고 언어가 싱소호인물이 그나라에 들어가면 빈부귀천을 도라보지안코  
다 타국손님이라야 특별히 보호하며 뒤접는법이 어늘 그중에 후인야 만코 혼  
인종들은 이상호인들을 보면 곳 잡아 살히거나 저의가 피야 도망하는나 이거  
시 곳야 만과 문명인의 등분이라 더 서양사람이 우리를 야만도종코치볼진디 우  
리디디에 들어오는자 - 응당 보호할예비하고 호랑이나 이리의 굴혈로 들어가는  
것코치 어렵게 녀일거시어늘 그러치아니야 인의와례모가 도저호문명국 사람



우교양서는 흑도전서와에한대

259

으로 아는고로 일의인의 외로운몸이 니디에 유람하기를 의려업시하며 겸하여 영미국의 도덕높은남녀들은 자기의 요혼나라를바리고 부모쳐조를떠나서 저물을 허비하며 바다를건너고 산을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로히니디에 호혀져 등치못하는말과 가지안은풍속을 비화익혀가며 모든고초와 곤난을겪고 흉과 유을 밧아가며 평생을 일하는뜻은 다만 자기들의 요혼줄로 밧는도들이 모르는사람들의게전하여 갖치요케됨을 원하는것뿐이라 후병원을설시하여 각식병인을갑업시곳쳐주며 후학교를설시하여 학문과교화를 각처에서 교육하며 후고공원을설시하여 의지업을 기르고가라치며 후고공원을 설시하여 소경과병어리를 모아다가 교육하며 기외에 여러가지 인의자미호스업을 행하는니 사람으로 하여곰 그 착한뜻을알진디 실로 같은몸을 의의지못할지라 남녀를 물론하고 비록란리중이나 위티함을 불게하고 호들석 니디에싸로가서 살기도하며 후길혼곳에 홀로 유람도하는니 더 외국인들은 우리를 이러듯 요혼뜻으로 뒤절하는것을 그뜻을모르고 도로혀 상히행기물도모홀진디 우리가 스스로 문명호 뒤절을밧고져 아니함이라 엇지 슈치롭지 안으리요 이는 슴마다 외국인을 실행하는몸을 변파할것이오

들지는죄법으로써각몸과집안과나라를보전하는근본을숨을것이라

일은 외국인의 오는거슬 괴왕 물니치지못호줄을 확실히 깨달을진디 맛당히 내거

독립요지

후록

이백오십구

독립요지

후록

이범복심

슬보전항야 피츠에셔겨살며 동등리의 엇기를 생각하여야 할지라 만일 그러치 못하여 속으로 헤아리되 강약이 부동항야 온갖 자들을 막아닐수업스니 부득이 흠씩 살며 서로 상관만아니하면 허될거시 업슬것이오 혹 우연이 상관되는 일이잇거던 아모리 원통항더리도 고기를육이요 참아서 피항면 그만이라 나라에서도 엇지항지 못항는거슬 우리가 엇지할수 잇스리요항야 늪이 혹 뾰근히들어오면 피항여물너가며 혹 늪이 불의항스를 항코져항면 무심히췌앗기고 말고져할진뒤, 대한사람은 장츠 살곳이 업슬것이오 용랍할쌍이 업슬지라 흠을며, 일본, 하등인민 들은, 대한에오는류의가 우에말한바 각국상민이나 교인의췌과 갖다할수업는터에 장츠 이스름들이 국중에 거의 아나가는곳이 업슬지니 천만가지리의익을 전후 좌우로 좀먹듯 차지할지라 혈릭과 기름을 낫낫치 늪류어노코안져 장츠 어뒤로 가서 살기를바르리요 소위 외국과상등이라고 시작할지가 전후슈십년에 흐나도 압흐로나간거슨업고 점점 못되여온거슨 다른연고안이오 다만 우에셔나 아릭셔나 다 이 구츠항싱각을가지고 늪의게 부닥게사는중에서 이러케 됴이니 지금도 이 구츠항싱각을 파항지못항면 무슴여망이잇스며 엇지 부지항기를바르리요그런즉 맛당히 흠씩셔셔 밀너가지안기를 밍세항여야 될지니 무슴방척으로 밀니져안으리요 다만 경징이라항는거슨 다도는췌시니 늪과비교항야 흐거름이라도 압셔가려항며 몬져 엇으려항이라 공부를항여도 이 밍음이업스면 잘되지못항고 장

스물한여도 이 모음이 업스면 될수업스며 세상천만가지를 이 모음이 안이면 지금 세상에 설수업는지라 그러나 지금우리가 더문명호외국인들과 무엇으로경정호 갖노뇨 더스람들은 각각 그정부에힘을잇어 공법의보호를받으며 통상도약의 보호를 받는다바 어늘 우리는 정부를 의뢰할힘이업스며 공법도소용업고 약장도호 령이업는지라 엇더케 더 외국인들과 경정호힘이 잇스리요 일로써볼진디 우리는 아조엇지할수업는치디를당혹스나 다만 우리빅성이 모음만강호할진디 우리 중에서 서로보호호할힘이너너호며 정부에서 우리를호여줄만치 만들기도 호호우 리중에서 자연히될지라 우리나라 하등인중으로보아도 원산항에모군들이 가장 보호호는힘이잇서 타국하등인이 무단히 능멸호지 못한다호느니 이호 그스람들이 서로호열이잇서 호나이라도 남의게 무고히욕을당호면 여러스람이 일시에모 혀기어히 경위되로 설원호고야 물너가며 엇던스람호나는 외국인과 경위를분 석호려다가 외국인이 무슈히나서서 무슈히구타호며 내나라인민들은 스방에 도 라서서 구경만호를뿐이오 말호마디안이호며 관원된이들은 빅번을 호소호여도 도 라보지안는지라 마지못호여 밤에칼을가지고가서 그스람을불너히여 당장에죽이 고 그칼을가진디로 일본경찰소에가서 살인호죄로 죽기를즈청호나 듯는자 다 송구히 녀엿다호느니 그 모음의악독호음은 죽히 칭찬호것이업스되 그 강적호야굴 치안으려호는혈괴는 가히 본받을만호지라 인민의모음이 이러듯 굿세게 빅일진

독립요지

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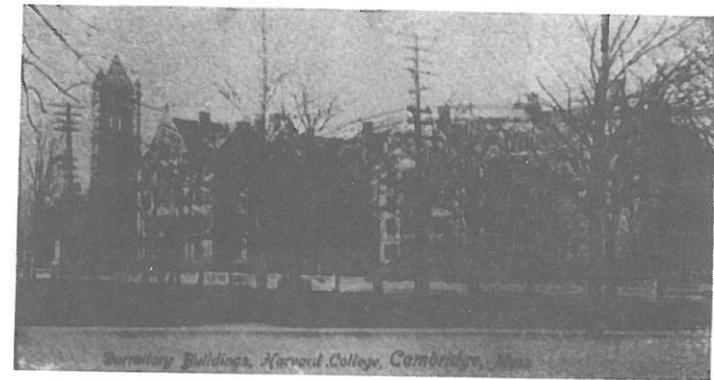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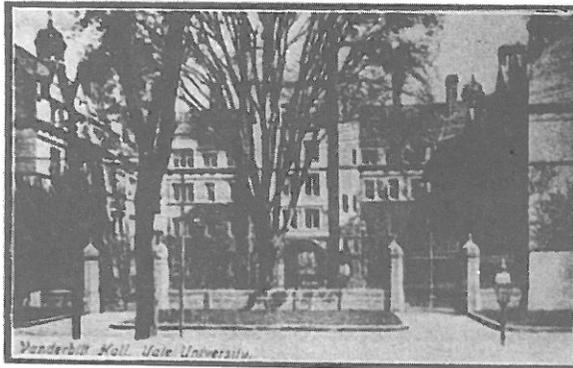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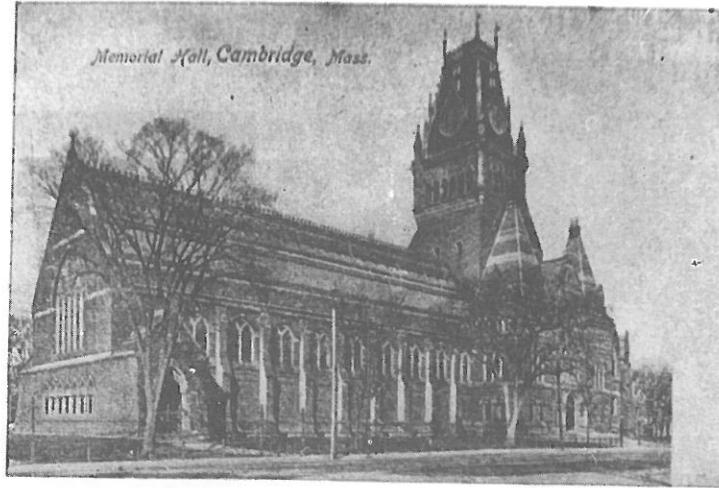
이민독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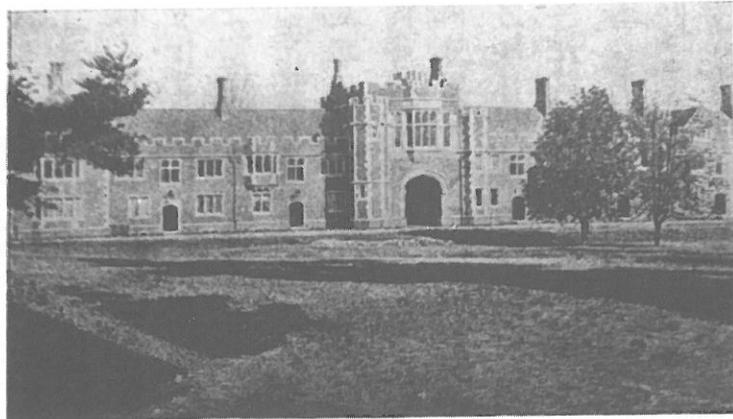
디 정부에 보호업슴을 엇지 념려함며 남이 엇지 감히 무리함게 디 접함리요 그런즉  
지금 우리나라 백성의 흥중에 이 믿음 이 굿세게 백여야 할터이나 전혀 굿세 V 믿음  
만가지고는 능히 경영할수업슬지라 맛당히 경위를 알아야 굿세 V 믿음을 바로 쓰  
는 것이 될지라 그러치안으면 내가 남의 경위에 지는 거슬가지고 강력을 부리고져  
할지니 이러한 강력은 실로 내게히만되는 거시라 맛당히 남의 경위와 법을 알아야  
될터인즉 이거슬알라면 전혀 이것을 상상하여 가지고야 될지라 타국의 인정은 엇  
더함며 풍속은 엇더함며 교화와 정치는 다 엇더함거슬 대강이라도 짐작하여야 위  
선 무식을 면할터이니 문명한 스람을 디함여도 스스로 머리가 숙여 지는 슈치로 면  
할 것이오 또 한 남을 디함여 엇더케 접제 할 줄을 알 것이오 시비를 당함면 분간 할 줄  
을 알지라 이거시 다 이거슬 상상함는 중에서 초초 매달을 것인즉 이거시 곳 스람  
마다 이거슬 상상함 데 일 관계오

이 는 고서를 전력함야 힘쓰지 말고 모도 식학문치를 주장을 숨을지니 위선 공법과  
동상한 약장합편이며 내나라 스과와 디지를 힘쓰며 통감 스략등, 청국, 스과만 공  
부함지 말고 각국의 지는 스적과 당시형편을 의론함 모든 스적과 정치 교화 풍속이  
며 각 식학문상 서적을 구함여 헌문디리가 엇더함며 리학 철학 화학 산학 법학  
의학 농학 상학 경제 정치등 모든 학문을 주의함야 인간 천만에 남아는 거슬 다  
알녀고 힘쓰며 신문과 월보등의 외국 스적을 말함거슨 괴어히 구함야 치국 평민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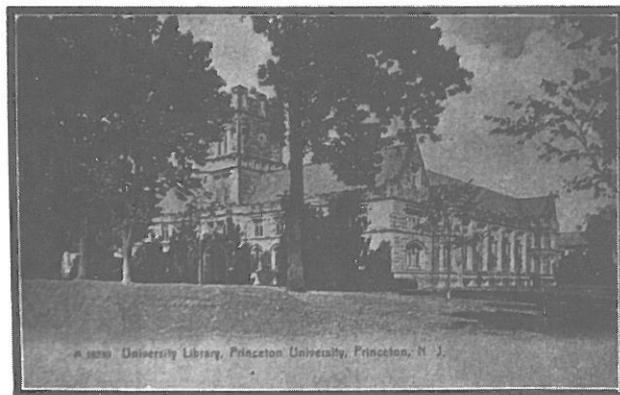


## 교학대 드버하 혼숫쌔 국미





미국프린스턴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안도서관

이승만연구회  
출판물  
이승만  
연구회

법을 강구하여 일심으로 쇠거슬비호며 다만 비호기만 할뿐안이라 그 비호는거  
을 곳 힘이야 힘이흥보고 육호는거슬 도라보지말고 나 혼져본져서 힘이보고 또  
한 나를싸르게 할터인디 이는 다만외양으로만 모본하여가지고는 못될일이라 당  
초에 믿음을기우려 속으로 흠선이녀어 할지니 몬져새달을것은 지금세상에 네  
것을 숭상하여가지고는 부지할수업슬것이오 겸하여 지금세상에 쇠거시라 하는  
것은 각국의여러가지될 비교하여 예일도흔거스르되하고 더 정긴히만들어 흥용  
하는거신즉 내나라에서 혼져쓰며 또다흔것을가지고 비교할수 업슬지니 비록  
나의도흔거시라도 다바리고 쇠거슬준행하여 능히 부지할줄로 새달을지라 이  
싱각을 속에몬져두고 쇠거슬보아야 효험이속할지니 만일 그러치못하여 쇠것도  
좀보고 네것도좀시켜 츠츠형편을싸라 변항리라 할진디 서편총계에 올으려하면  
서 동편줄을다리고 늦치못함과 갓흔지라 엇지 속히올나 놓흔디니 르기를바르리  
요 그런즉 우리네사법에 데일긴하게 녀이던것도 다 바리고변하여 쇠거스로되  
신항기를 작당할지니 이러듯 작당하고 밤낮으로변하여 사람과집안과 나라이낫  
낫치 쇠거시되어 장차 일이십년안에는 전국이다 영, 미국 낫치되게 우리손으  
로만들기를 일심으로 힘쓰르진디 엇지, 일본 만못할것을 녀려하리요, 일본이져  
러듯된 근본을상고하면 다 우에안존이들이 몬져새달고 아리빅성들을 가라치고  
인도하여 신학문이안이면 곳 힘세하지못하며 살수가업는줄로 알도록 만들어쥬

독립요지

후록

이범복심소

독립요지

후록

이범복상소

는고로 빅성이 저러듯 속히변화엿것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관원들이 인도하  
여 쥬기룰 바르기도어렵고 그 인도하는거슬 또한 기달일것도업스니 우리가 다  
각기 인도자가되여 힘과익를 몇갑절 더써야할지라 이는 사람마다 시거슬 구하  
기에 용당시러히 할것이오

숨은 신탁문을힘써서 나의리익을 남의게 빼앗기지안키를 위쥬할지니 농학을빅홀  
씨에 어셔밭비 줄업하야 바린쌍을기척하며 괴계를들여다가 몇비를늘게하야 외  
국인이 몬저략슈홀결을이 업게하야 상업을알아 외국상민이 권리가 스스로것치  
게하야 광산학을알아 전국의리익을 외국인이 차지하기전에 몬저잡고 안즈려하야  
희상에 비질하는리의과 면선우례를 통하는권리며 고기잡기와 룩디에 나무베히  
기와 공디에식목하기며 기타 모든관계에 무슴법을쓰며 무슴괴계를 쓰는거슬낫  
낫치 비와다가 남보다 몬저하기로힘쓰며 허관에세랍받기와 각야문에 고문판될  
죄목을 무슈히 만들어니야 외국인을 고용하지말고 시법을행하게하야 물건제조  
하는법을 갖것이로비와 외국물건을 사오지안코 지어쓰며 지은물건을 외국으로  
실어니야 타국의돈을 벌어들이기를 큰 스업으로 녀야할지라 물건제조하는거  
시 심히긴급하니 다만 의복한가지만 보아도 손으로짜는이보다 기계로짜는거시  
물건도정긴하고 갑도싼지라 본국에서 짜는포복은 사다남는 사람이업스죽인하  
야 짜는사람이 또한 업셔지고 전국이 다 서양목만사남으니 일년에 의복으로인

연항야 외국으로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기외에도 가진 일용수물이 다 이와  
 갖치 수입항니 만일 흉상 이러하면 전국에 헐릭이 말나 지물은 귀하고 사람은 천  
 항야 고용항는 월은이나 모군서는 품삭이 허마다 쓰러지며 사람은 살기는 점점 어려  
 워서 기와 돛희 더점을 밧으면서 엿어먹기가 난항여 싸로서기를 생각지 못할지라  
 이엇지 백성을 남의 노래를 만드느 큰 관계가 안이리요 이상여러가지를 다 우리  
 가 비와셔 남과 처치만 들며 초초 남보다 낮게 항기를 시험항야 외국에서 만드느 물  
 건이 도로혀 품렬도 항고 선가와 티가 를 먹여 오기에 갑도 빗스셔 사지 안이 항며 빅  
 성들이 일심되어 설령 내나라에서 서로 만든 물건갑시 몇푼더 할지라도 돈이 외국  
 에나가지 안키 위항야 다도어 본국것을 사며 외국물건이 스스로 밀내나가고 내나  
 라것이 초초 풍성항야 상업의 기초가 잡힐진디 빅천가지스업이 다 이러케 항왕항  
 야 초초 지물이 들어오며 스업이 발달되며 인민의 생계가 터져서 날로 흥성항는 경  
 황이나리니 이거시 다 식거슬 승상항는 디셔 되느니라 스람마다 그리이이 이러  
 케되기를 경영할것이오

스는 신학문의 관계가 이러함을 알진디 맛당히 정긴 항게 공부항야 그 실상 효험을 엿  
 어야 할지니, 일본과, 청국에서 번역한 것과 모든 서적을 만히 구항여 보면 녀년 할  
 터이나 국문으로 지은 책이 업스니 어서 국문으로 번역도 항며 만들기도 항여야 한  
 문모르느 스람이 학문을 비와 볼게 제가 싱길지라 심히 급급항거니와 이것만가지

독립요지

후록

이범록심오

독립요지

후록

이범복신탁

고는 오히려 부족함을 넘려가잇스니 위선 외국언어와 문장틀비와 외국서척도보며 외국인을 교섭하여 정의도상동하여 내나라글과 말로 통할수업는뜻슬 연구하며 일변으로 외국에유학하여 세상구경도 친히하며 각식 괴이한물건과 정긴한법도 눈으로친히보아 이목과 의수도넌니며 학문과직조도 정통하여 넘과 비교하여도 질것이업도록 되어가지고 도라오기를 괴약할지라 만일 이성벽이업시 넘과교섭 할진디 마지못하여 생각하되 우리는 의례히 넘만못하고 넘과셔기지못하리라 하여 항상 넘의아리 거하기를 면치못하리니 이는 다만 넘의노래밖에 못될자라 엇지 독립하기를 경영하리오

숨흐다 무식한인민의생각이 멀지못하여 혹 무슴공부를권하면 나는 하지못하노라 하니 이는 제몸을 스스로 바림이라 다 갓흔런품으로 아니될리치가 어딴잇스리요 사람마다 맛당히 넘이하는거슨 나도힘쓰면 되는줄로 알것이오 혹은 엇지하여 얼마동안 공부하다가 맛참니 과의하며 당장에 흐두핀이라도 엇어먹을 일을 한다하니 이는 공부가 밋천인줄을 알지못함이라 당장에 곤궁함을 의의고 몇히 지조를 닦갓스면 당초에 몇핀자리못되게 구구히 공용하던자가 곳 몇갑절 버리를 꽤쾌하는줄은 알지못하는지라 이는 사람마다 맛당히 미가륙정을하거나 굶고 열어가면셔라도 공부로성공하는것이 큰근본으로알것이오 혹은 엇지하여 외국에가셔라도 큰목뎌은 니져바리고 주식풍류장에 썩지거나 혹은 저물별기에 저

267

미들들이 나라형편은 엇지 되었던지 내의 동포는 무슨디경을 당하던지 무심히안  
저 세월을 허비하느니 이는 외국의 가난자 - 흉상 대의를 잊지말것이오 혹은 형  
편에 긴절할거슬 삼히지 못하고 다만 헛된 일흥만 중히 녀여 고등전문학을 장원히  
경영하되 그 생각에 이 학문을 비호면 남이 장차 나를 불너 쓰르 석가 잇스리라 하는  
지라 이 생각이 본리 불가함은 안이로되 지금우리나라 처디로 비교하면 이 생각이  
또한 남의 노래됨을 벗어나지 못함이라 맞춘디 즈립하는 주의가 업스니 스람마다  
이러케 주의할진디 다 각각들이 안저 형편이 변하기만 기다릴지니 형편을 변하게  
만들자는 누구며 설령 변치 못할 날은 그 학문을 무엇에 쓰기뇨 그럼으로 공부하  
는자 - 맛당히 긴급함을 몬저 힘써 형편이 아모리 어려운 중이라도 내가 와서 홀  
로 힘하여 어두운 딴디에 등불이 되야 남을 가라쳐 동리와 고을이 식빛출보게만드  
는 직책을 담당하야 도처에 남의 선성과 표준될자 - 만기를 도모할지니 이거시 참  
이런 나라에 요긴도 높고 또한 중대한 스업이라 이 직책을 합당히 담척할자 - 잇서 교  
육상 명예와 권력이 츠츠자라서 공효가 일국에 들어날진디 그 공효와 영광이 엇  
지 심상한 부귀와 비하리요 이는 스름마다 헛된 영광을 경영치 말고 실상 스업을  
힘쓰리 지어다

세스 저는 외교를 잘 할 줄 알아야 할지라

일은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나라를 부지하는 법으로 알아야 할지니 만

독립요지

후록

이민독심전

독립요지

후록

이념복심판

일 외교가 아니면 형제가외로워서 남의 침탈을 면할수업는고로 세상에 아모리강  
 한나라도 외교상에 벗어나는거슨 대단히 두려운바—라 사람이 무인디경에 혼  
 져잇스면 증상의히도 막을수 업스려니와 강포한자가 거리셀것업시 침탈을저니  
 여러히모혀잇셔야 으히가진척도 감히 빼앗지못을지라 나라이 외로히잇스면 강  
 국이 줄디에침로홀지니 여러나라이합하여 혼 리웃시되여 서로관계를밧고 지닐  
 진디 남이엇지 나의약함을 인연하여 법외에일을행하리요 내가몬져 공법의뜻을  
 억의지말고 공평정대하게 형제하며 각국들과 친밀히하여 정의가타올진디 타  
 국이나를 의리상 친구로알어 언제던지 내가 남의게원굴함을 당홀척에는 경위  
 로 힘셋도아줄지니 이는우리가 구하지안어도 스스로 도아주는자—만히 심행  
 이라 이거시 곳잔약한나라들이 강국스에잇셔 능히 보전하는 근본이오  
 이는 외교를 도목히 하고져홀진디 맛당히 공평함으로 주장을숨을지니 만일 한나  
 라는 친근하고 한나라는 성의면 나의편벽됨을인연하여 남의식기를 날히키는거  
 시라 친근치못한자는 응당 기회를기다려 허술싱각이날것이오 친근한자는 응당  
 형편을 인연하여 특별한리의를 도모홀지니 이는 스스로 위턱롭게하는근본이라  
 당초에 남의은혜를받거나 힘을의뢰하고는 자연히 편벽된뜻시 들어나지 안을수  
 업스니 남의찬조하려는 일이잇거던 괴어히 힘납지말고 우리손으로 비화서형상  
 기를 힘쓰르 진디 스스로 공평호주의를 일치안을것이오 내나라빅성은 너무후이

티접항며 타각인민은 박항게티접항거나 내나라빅성은 박항게 티접항고 타국인  
 민은 후항게항는것도 또호 공평치못호지라 맛당히 일테로 공평호뜻슬일치말어  
 티외와 피츠를구별업시 경위와 법티로만티접항며 뜻뜻치 평화호주의를직혀도  
 혼뜻슬 들어닐지니 경향을들론호고 관원이나 빅성이나 외국인을티접항씩에 혼  
 연호뜻스로 주익된례모를일치말어셔 평시에는 다 호호친구요 란시에는 적국이  
 되는줄을 일치말어야호지라 서양문명호나라에 가장 문명호인민은 호호나라로  
 써 심히 구별치안코 의리로써 주장을승는고로 의리에관계호일은 호의나라빅성  
 들이 조원호고와셔 군스가되여 티신쓰호기도호며 심지어 제나라정부에서 군스  
 를보되여 타국과 쓰호는차리에도 의리만들니면 그빅성들이 의리를위호야 타국  
 편으로가셔 군스가 되는일이 무슈호죽 내가 제상에 의리만 장히들어되면 각국  
 에 의리남조는 다 나의편으로설지라 남과 나를 구별호것 업슬듯호거니와 문명  
 이 이정도에 잇셔가지고는 전혀 의리만 힘님을수업스죽 설령 불호호야 더나라  
 와 내나라이 전정호게되는날은 더사람과 나의정분이 평일에는 아모리요왔스나  
 더사람은 불가불 더나라를위호고 나는불가불 내나라를 위호여야될지니 공의상  
 으로는 피츠적국간이라 이 의리를싱각호면 평시에는 아모리 정답게지되다가라  
 도 국권에손호호는말이나 일이잇슬씩에는 불가불 면분이나정의로 인연호야 말  
 지못호지며 또호 더사람과 적국이되는것도 당장 의리를닷도는마당에만 티접호

독립요지

후록

이범복선구



271

오

스는 진실함으로서 교제하는 근본을 숨을지니 이논기인이기인을 교제하는것도 진실한것을가지를바리고는 엇지할수없스려던 홀을며 나라이나라를교섭하는것진실함이업고야 엇지남과합하기를 바르리요 동방에교화가점점희하여지며 참됨이 적고 거짓거슬숭상하여 하등천인들의 거짓말과 속이논일은 다 니르지도말고다 만 상등관인으로 말을지라도 권모술수와 룡락수단은 업슬수업다하여 정정방방히 하는일은 당초에 되지안코 남의색에 색진스람만 될줄로아니니 이 교질을파하지못하고는 결단코 교제를 엇을수업는지라 맛당히 무슴일을당하던지 외국과 교섭할색에는 성의를 성가지말고 스실덕로 들어니여 나의진심을뵈히며 궤홀한 계획과 반복하는지조로 이력저력 들너니야 당장에 응구첩티하거나 화를면하는 것만 지조로녀이지말고 광명정대호 힘실로 세상에 신이들어나서 우리가하는일과 우리가하는말을 남이 다 취신타만치되여야 당장은 권모술수를부리지못하여 랑피하는듯하나 실상은 한업논리익이되는법이라 이논, 대한스람들이 본국인제 리도 천만스에 데일몬져힘쓰며 가장 김히본밭을바어니와 더욱이 외국인과상관하는자리에 이거시안이면 곳망신평가망국하는 근본으로알아서 니를갈고적 혀힘하여야 될것이오

오는 내가 아모리 진실진인이며 공평정직하게 티정함을지라도 당초에 우리가 힘세

독립요지

후록

이비철심인

독립요지

후록

이원철심이

를 잘하지 못하여 세상 취신이 되지 못하도다 더 외국인중에 불법불의한 자 - 업지안  
 어서 법률을 어기고 경위에 버서나 는 일을 행하고라도 도로혀 우리를 업지안 말을 진디  
 세상에 서는 더 불법불의국인의 말을 고지들을 지언정 우리의 억울을 당하거든 손 잘  
 밋지안 이혼즉 세상에 들어 너여 경위로 닥들 수도 업고 우리나라 법률로는 외국인의  
 무리함을 다스릴 수도 업는 지라 그런즉 외국인이 이런 기회를 보고 곳 무인디경  
 치너여 분슈박게 욕심을 닐는 자 - 부분히 성겨 불법무리함을 첩첩히 행할 지니  
 이런 경우를 당하거던 맛당히 도흔 뜻으로 허셔하여 경위가 그러치 안은 것을 알  
 어듯도록 나르며 그 허가 었더 할 것을 비교하여 소상히 새우쳐 주며 일반국민이 각  
 각 자의 일로 알아 일제히 모혀 공평히 시비를 분석하되 종시 경위에 굴치안 이항거  
 든 아모리 스소호일이라도 적게 너여 과의치 말고 괴어히 법으로 판결하기를 시  
 험할 지라 내나라에 외부도 잇고 각 지방관도 잇는 즉 사실의 소상호증거를 들어 경  
 찰스 법관에 등소들이 괴어히 사로 잡고 물너나기를 괴약하며 여간 호두판관이라  
 도 여러 사람이 일심하여 경비와 인력을 몇 갑절 허비하고라도 경위를 괴어히 밝  
 혀야 일후 큰 관계에 공동호회를 밋지안 을 줄로 너여 위티하고 어려운 거슬 무릅쓰  
 고 쫓기지 나갈 진디 맛춤너 회복홀도리가 성길 것이오 만일 그러하여도 설원홀  
 도리가 업슬 진디 곳 나의 성명으로 시비를 결단할 지라 었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구추히 편한 것만 경영하리요 혈과 장부가 찰하리 죽어 물을 지언정 었지 그분을 참

고 뜻슬라야 다만 향로잇을의 더러운목숨을 더살기만 장히 녀이리요 향을며 나함몸의당일일이 곳 전국뵙성의 일테로당함이라 나의목숨을 살기위하야 경위를 굴항난날은 남의형피하난 문을열어 전국동포가 다 남의침탈을 당할지니 일 후 나의조손은 엇지 이 침탈을면하리요 내가 이 더러운목숨을 잠시바리는날은 더 무리한인민들이 스스로 간담이떠려져 이후에는 이런형습을 저연 서슴고 못 할지라 일로인연하야 내나라뵙성의게 제치는호험이 저지안을지니 엇지 나의공효가안이며 또한 그뒤를싸라 인심이 날로강하여질진디 세상공론이 초초들아서 말항기를 대한뵙성은 공법과 경위에박아서 몬저 실슈하난 일이업고 남의무리함을당하면 목숨을 바리기까지라도 괴어히 뜻홀디고야마느니 그사람들을 경홀히 보았다가는 랑피하리라하야 점점 법외에일이적어가며 농흔디점이 도라올지라 이난 외교로인연하야 국권을 강하게하난 근본이오

네스지는국권을중히녀일것이라  
일은 사람마다 처외권리를 엇지못함으로 매일슈치와육인줄알어 괴어히 우리성전에 회복하난거슬보고야 말기틀괴약홀진디 맛츄디 되는날이 잇슬지라 타국사람이 우리나라에들어와 사는것을 우리가 우리법률로 다스리지못하난고로 남의동등디점을 받지못함이라 그런즉 우리도 향로박비법률을곳쳐 남과맞치되며 사람을 공평히디접하야 등분을 같히지말고 경찰을박히하야 불량한무리들이 조취를

독립요지

후록

이백철심승

숨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형벌을 폐하여 야만의 하는 일들을 일호도 행치 말며 옥정을 곳  
쳐 위상에 적당하도록 하며 재판하고 가두는 것이 방한이 있게 하고 사람의 권리를  
중히 녀어 법외에 학되거나 위협하는 폐단을 제하며 누구던지 국법을 천단히 곳  
치지 못하게 하여 일당호위령이 행하게 하며 후상관의 청을 뜻거나 세력에 눌려서  
범법하는 자를 짐짓 정치호위안찰진퇴 이는 상관이 문져법을 범하는 거시니 법을  
여의는 상관의 명령은 결단코 준행치 말어서 곳 파면을 당하거나 중죄를 받더라도  
내호몸이 이 자리를 녀어 노키 전에는 법외로만 행하리라 하여 목숨이 다하기까지  
나가 논 거시 비로소 직책을 행하는 사람이오 그 아리 평민이라도 이 믿음을 품어 법  
외의 일은 짓기만 행치 않을 뿐 아니라 남도 행치 못하도록 결심하며 녀외국인을 물  
론하고 범법하는 자는 다만 법외로 증치하는 외에 후 스스로 욕을 회하거나 규  
축을 여의고 설치설분하는 일은 엄금하며 기타 모든 일을 다 이 몇가지 경위를 밀  
우워 행할지라 그러나 사람이 법만의 지하고 행세하면 인심이 흉상 각박하고 한  
독홀터이니 이것만 믿고는 만국공회에 참여할 수 없고 별로히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본을 숨아 어질고 자비한 사업을 만히 닦아 서양 문명이나 그들의 교  
밋는 남녀가 각국인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만히 모본하여 높흔 덕화가 세상에  
들어 나야 세상에 스스로 높흔 디위로 되접하느니 이는 외국인을 평등으로 다  
스틸 권리를 차즐 근본이오



대형 달은 파인 부그 파 맨 어 쇠 스 박 학 의



대한에서 전도 하 논 미 국 선 포 스 종

후 온 라 도 로 으 국 미 즉 일  
에 (쓰 즐 선 로) 야 하 위 을 인 한  
독 감 고 학 립 설 들 회 교

구 천 던 하 결 천 장 가 서 의 가 술 저 본

이 는 대 소 관 민 이 나 남 녀 로 소 를 물 론 하 고 직 칙 이 있 는 줄 로 알 지 니 각 각 무 슝 직 업 을  
 하 던 지 다 게 으 르 지 말 고 부 즈 려 님 히 호 며 일 하 여 그 위 업 하 는 심 의 가 나 라 에 리  
 로 운 가 히 로 운 가 문 저 상 각 하 여 보 아 서 나 라 에 히 로 을 일 은 괴 어 히 바 리 고 다 른 상  
 의 를 도 모 하 야 나 라 에 도 리 롭 고 나 의 게 도 리 로 을 일 을 엮 어 위 업 을 지 니 크 나 적 으  
 나 여 러 스 램 의 게 유 조 하 는 것 은 나 라 에 리 로 운 것 이 오 남 의 게 히 될 것 은 내 가 아 모 리  
 리 로 워 도 나 라 에 히 되 는 거 시 라 스 램 마 다 이 뜻 을 두 는 것 이 부 국 하 는 근 본 이 오 또  
 한 업 제 던 지 국 권 을 보 호 하 며 인 민 의 게 공 번 되 히 유 조 하 는 일 이 있 슬 세 에 는 분 분 히  
 직 업 을 폐 하 고 전 방 을 닦 처 저 자 를 것 으 며 혹 지 산 도 되 고 인 력 도 들 여 일 심 으 로 찬  
 조 하 야 괴 어 히 성 스 하 게 힘 쓰 며 부 디 나 닦 혼 스 램 은 슈 효 에 철 것 이 업 다 거 나 남 이  
 다 안 이 하 는 것 을 내 가 하 여 무 엇 하 리 요 하 거 나 내 힘 이 안 이 라 도 힘 있 는 이 들 이 만  
 호 니 알 은 체 하 는 것 업 다 는 모 든 상 각 은 다 바 리 고 각 각 제 형 세 와 힘 되 로 힘 하 는 거  
 시 제 직 칙 이 라 실 스 처 약 하 는 것 도 여 러 겹 에 합 하 면 절 기 게 되 는 것 은 스 램 마 다 알 것  
 만 은 그 중 에 한 을 이 라 도 써 어 힘 이 업 스 면 그 자 리 는 곳 헛 것 이 되 여 그 편 에 서  
 북 혀 문 저 상 하 는 니 찰 하 리 업 셴 디 면 헛 슈 효 만 처 우 는 폐 가 업 기 고 남 의 게 서 지 히  
 가 밋 치 지 안 을 지 라 나 라 에 실 나 닦 혼 빅 성 은 나 도 제 직 칙 을 힘 하 는 힘 이 업 스 면 몸  
 서 지 업 는 거 시 제 게 도 합 당 하 고 사 회 에 도 히 가 업 슬 거 시 어 늘 엮 지 살 아 있 는 것 만  
 중 하 녀 이 여 제 직 칙 을 알 고 저 안 이 하 며 힘 코 저 안 이 하 리 요 사 램 이 직 칙 을 힘 하 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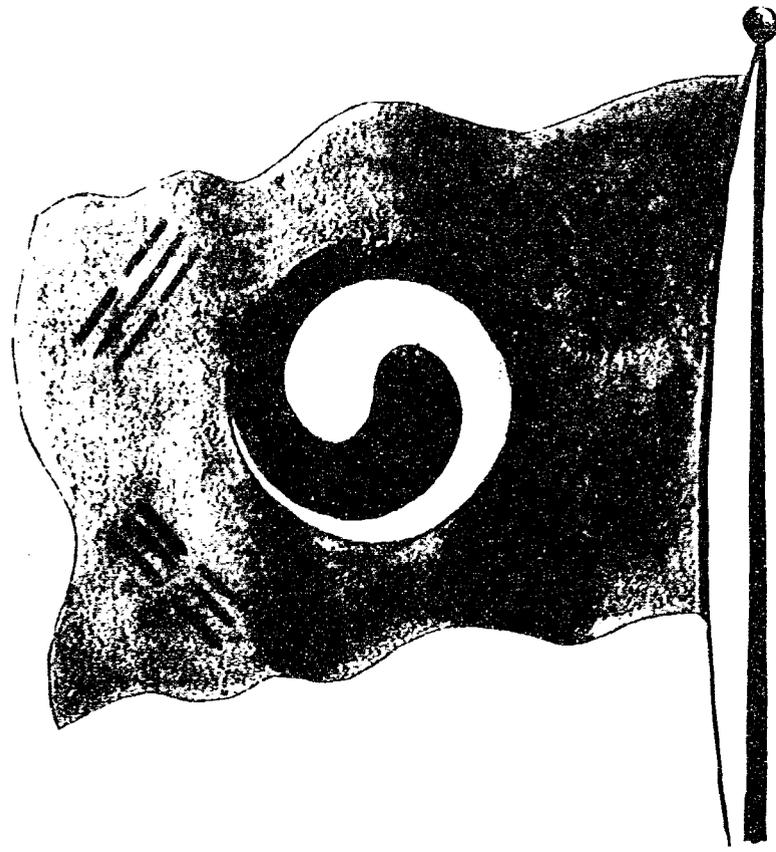
독립요지

후록

이민정신요

에야 권리가잇는법이냐 권리가업스면 엇지 사름된리익을 넘과긋치누리리요 이  
는 저마다 나라에속호직척을 몬저형호기로 중히녀야 할것이오

숨은 내나라에속호스람이나 물건이나 남의게 슈치당호는거슬보거던 괴어히 안이  
밧도록호것이니 이는 세상에셔 천히녀이거나 흥보는거슬 다 곳쳐셔 다시 남의  
게 천히녀이느바 - 되지만키를 힘쓰리 지라 가령 서양스람의 의견으로말호진디  
스람의슈족으로 우마의힘을 디신호야 보교를메거나 차를쓰는거슨 동포를사랑  
호는 본의가 안이라호녀 아조 금호는풍속이라 그러나 동양스람들은 이거슬싱  
각지못호는교로 서양스람들이 돈몇푼만가지면 동양스람의 억외등으로쓰는거  
슬 임의로타느니 이럼으로 일본서싱각호되 우리느 디위가 높흔이라도 서양에  
가셔 못호는거슬 빅인은하천호자라도 우리화인을 우마긋치부리니 이는 우리가  
우리동포를 천히디접 호는교로 우리나라스람의 디위가 스스로 낮여짐이라호녀  
보교등속을 엄금호고 인력거도 츠츠업시호여 가는중이라 남의나라와긋치 마차  
와 털도로써 디신호느니 나라이되여가는거슨 웃스람이나 아리스람이나 일테로  
힘쓰며 쥬야로 일호는것이 다 이러호고 우리나라에는 모든 이런페단을 곳칠거  
시 한이업느니 평민의스가를 총집으로짓는거시 참람호다호야 타국인은 총총루  
각을 도쳐에지으되 내나라스람은 심의도못호며 대신중신압해는 타고가지 못호  
다호야 공번된대로상에 벽제가진동호민 안존자는 서게호고 선자는안게호되 타



국태의국 국데한대

국인은 인력거군이라도 흉나만맛나면 꽃 고기를 씹이고 입을 열지 못하면서 분홍  
줄도 모르고 붓그러운 줄도 몰나 의례히 흉는 말이 이니 타국사람인고로 그러하  
다 하며 스대문을 닦치고 내나라사람은 누구던지 밤에 출입하지 못하되 타국사람이  
라하면 누구던지 언제던지 방한이엄시 임의로 열고 닫게 흉는나 이런 괴망측한  
풍속이 얼마인지 모르는지라 고금련하에 이리리치가 어디다시잇스리요 이러케  
뒤접하는 옷사람들이나 이러케 뒤접하는 아리빅성이나 조곰도 다를것이업는나  
지금부터는 엇더한 사람이던지 모도 이런거슬 분히 녀여 괴어히 내풍속을 못쳐  
과긋치되여 동등뒤접박기를 전려하며 만일 이거슬 알고도 자그들의 스스리히  
인연하야 못치지 못하게 흉는자는 곳 전국에 원슈되는자로 뒤접할 것이며 다만사  
람의게만 이러할뻔안이라 심지어 각식물건사지라도 남의게 훔쳐이고 슈치당할  
것을 일심으로 보호하며 시급히 못쳐서 남의게 칭찬을 들을만치된후에 말기로  
땡세할것이오

스는 국기를 중히 녀일줄알어야 할지니 국기라하는것은 그나라인민과 토디들표  
훈거사라 비록 전정중에라도 어찌나라괴호를 썩은곳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나  
라보호를 받는고로 타국이 무단히 그압할향하야 총을노치못하느니 이니 그나  
를 다 적국으로 녀임이라 비컨뒤 제의 어미나 아비를 뒤하야 실례할자는 어린  
히사지라도 다 제성명을 다터어 설치하라는것긋하느니 이럼으로 그괴호가 가는곳은

독립요지

후록

이민정신

국립요지

후록

이민철심판

남이 감히무리함을 형치못하느니라 사람이 외국에 단이다가 혹 허상에 서나륙  
 디에서나 제나라의호를보면 어린히가 일헛던 부모를 만드듯하야 반가온 마음  
 에 곳 눈물을나리느니 사람이 국괴를이러듯 사랑하느고로 몇천명 몇만명식 다  
 도어나가서 영광스러운피를출니고 목숨을바려 그밋헤속흔인민과 토디와물건이  
 안전호호를잇어 태평안락호복을 누리이니 그복을받는사람들은 죽은이의공업  
 을 감동하야 눈물을출녀 영광을나타니며 또한 그 후성들은 조조상들의 피출  
 니고 잡아노은괴초를 보비로은 유업으로알어 덜싣만치라도 손히만잇스면 곳조  
 괴의 심명을바려 보호출출로 아느바라 우리도 우리조상들이 이런보비로은괴  
 초를 이러케 감지게작만하엿던들 오늘날 우리도 남들과갓치 무궁호복을누리며  
 우리태극국괴를 이러케 사랑출출 알년만은 그러치못헛스즉 원되고 한되는거슬  
 깃히깃히새달아 우리들의 구구호복을 귀중하게바려서 이 후성들이나 질거온  
 세상을 보게함이 맛당흔지라 이러케 작명후에는 누구던지 국권에손히되는일  
 이나 말을하느자는 친형데간이라도 곳나의원슈로녀에 혼하늘에 머리를두지안  
 키로작명흔지니 지금세상에는 이거시 데일 큰 의리요 참 충성의근본이라 저마  
 다 이뜻을알어행하야 될것이오

오는 밍세고 외국에 입적하지말것이라 지금세상은 문호를 서로열고 리왕과 거류  
 를 피쳐셔하느니 각각 제모음티로 호적을타국에걸고 타국의빔성이되기를저

유로호는고로 정스가포함하며 조유를 잊지못한나라는 비성이 초초줄어지고 어진정사로 비성의권리를 온전히호는나라에는 각국인민이 스방에서모혀들어점점 만호지는법이니 진실로 한업는도호련디라 어진자는호호고 포함호자는 망호게됨이니 공법의본의가 실로 공평타호려니와 그 비성된자로말호면을타고도못호깃고 리롭다고도 못호지라 내가 나의부모국에서나서 성질에마즌 풍토의후와 눈에의은 강산루티며 갖흔인종과 갖흔방언으로 텨연호디위를 보전호미 평성의극락이라 맛당히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나의직척을다호야 어두운동포가 밝은티로향호며 악호풍속이 아름다히변호고 악호자 - 힘이나며 게으른자 - 부지런호야 정치와 교화의근본을 바로잡아 대동호복과락의 무궁호괴초를세움이 스탐의지극호원이라 이원을가지고 평성을일호를진디 일우지못호리가 업슬지니 호번성취호고보면 나의심전에 영광과복락이엇더호게스며 설령내눈으로 보지못호고죽는다호지라도 나의직척은 다호였스니 세상에붓그리호것이업는 당당호대장부라스후에 일호미라도 업지안호것이어늘 이거슨 심각지못호고 괴로움을피호야 타국디경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에입척호고 몇만리를 건너가서 타국비성이되여편안호세월이나보다가 죽을이라호진디 잊지 인류로티여는본의라호며 남의도호나라에가서 잘사는거시 참편호고락이잇게는가 언어문조와 풍속인정의 합지안이호도 물론호고 거처와 심이는 잊지호던지 호호 의론치말고 기외에 모든관계를

독립요지

후록

이비철심구

독립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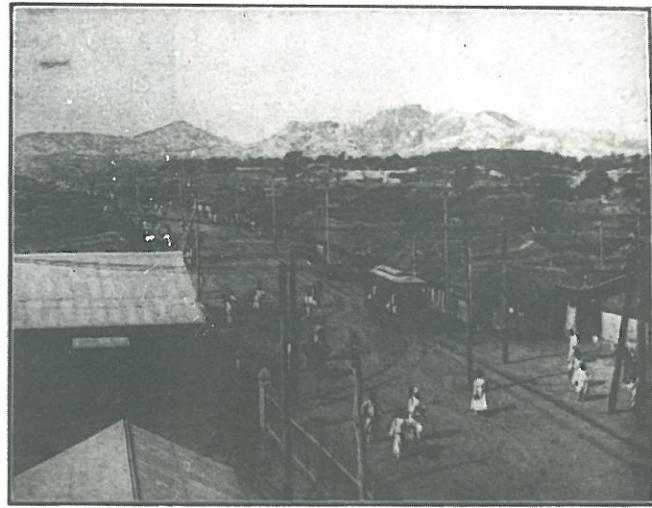
후록

이원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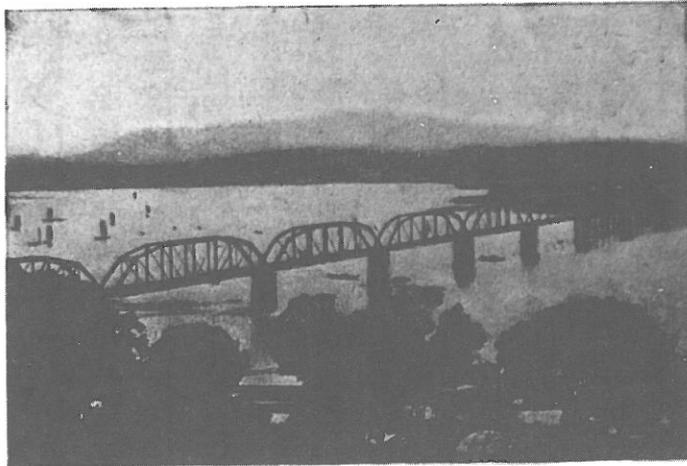
다 너너히 변통하여 결핍한 것이 업다 할지라도 제나라를 제손으로 총왕하게 못하고 타국에 붙쳐사는 목숨을 누가 놓히 되접하며 설령 불상히 녀며 되접한 다한들 남의 이국하는 총심중에서 엇지 붓그러온 마음 이 업스며 남의 독립명일이니 이 일국에 경절을 당할 때 에는 저러듯 질겨 경축하는 중에서 엇지 부럽고 분하고 원통할 마음 이나 지안이 하며 시시로 외롭고 회심함을 엇지 이로억제하며 가난구름 지는 뜻 세 고국산천을 뉘속곳치성각하고 비감한 눈물은 엇지 다억제하며 부모의 분묘들은 누가 잇서 슈호하며 무진한 이역 풍상을 누가 알아 위로할가 모든 이러할 관계를 더 무식한 류들은 생각지 못하고 후 디경을 넘어 얼마만 가면 편안할쌍이 있다던지 저물이나 잇스면 어디를 가던지 살기가 요케스하니 이런 생각이 잇거나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결단코 인류사회에 용납지 못할 것이오 후 남의 게고용하여 성의 하는 자도 또한 제나라에 향하는 의리가 업서 외국인의 게 의지하여 국권이 손히 하는 거슬 보고 보호할 생각이 업거나 후 도리혀 리의를 위하여 나라 권리나 명예에 손히 되던 일을 힘하는 자는 국민이 일테로 용납하지 말아서 적국곳치 되접하여도 또한 심양지안을 지라 그러나 타국인의 게 관계한 자를 문져 무단히 구별하여 공평치 못하게 되접하여 외국인의 권리에 방히 롭게 후 후 에는 남의 간섭이 안이 성길 수 업느니 미리 이런 폐가 업게 하고 밝히 삼혀 힘할지라 이는 스람마다 내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데일 의리로 알 것이오



안문소서성경



안문대동성경



교 철 돌로

뜻은 국치를 숨길지라 스스 집으로 말할지라도 압뒤경영업시 남의 빚지기를 두려안  
는자는 맛춤니 제가산을 부지하지못하거던 흠을며 빈약한나라으로 타국의 빚을  
두려운줄 모르면 국권을 잊지보전하리요 강호나라이 남의 약한나라의 정을 상관  
코져할세에 미양 지물로 몬져벌내주어 그거슬빙자하고 니정을 주장하느니 이거  
시 나라를 일화바리노 데일 첩경이라 이럼으로 국권을 잘 보호하는 나라에셔는  
집권자들이 아모리 간곤한 스정을 당하되 타국 빚을 니지안이하며 중환변을 니  
고라도 내나라 빚성의게 빚슬쓰느니 정부에서 가령 빚만원을 쓰려하면 빚만원에  
치국치증서를 만들어 한은면히요 변은면분이라 하야 반포하면 빚성들이 각각돈  
을니고 얼마식이던지 사두었다가 한에 그 돈을 받느니 이는 정부에서 외국인의  
게 빚니지안이하고 중환이라도 내빚성의돈을 쓴즉 리익이 외국으로나가지도안  
이하고 국권의 위태함도 업슴을 위함이 어니와 만일 이런 생각이 잇고서라도 억지  
로 원랍하라고 던장과 집문서를 써앗거나 부민을 괴롭하여 투정을 할진디 빚성이  
제거슬가지고 마음대로 먹고입지못하며 잇는거시 도로혀 원슈로알거던 뉘가최  
천환품을 니여노코져하리요 우리나라 빚성들도 지물이업는것이안시오 충심이부  
족할것도안이라 다만 우에잇는 이들이 너 무몹시한탄신즉 지금부터는 빚성의게  
신의도 좀뵈히며 타국의 빚엇기도 영히막으려니와 빚성도 맛당히 그 관계를 달  
아 국가에 필요히쓰는 것을 보거던 맛당히 힘디로 합하야을너 국스를 찬조하며 후

독립요지

후록

이민정신

일취바릴지라도 국민의게 넘니유조항일은 괴어히 도야야 정부에서 부득이항야  
 타국의빚되는페단이 업슬것이오 쓰흔 저물이라하는것은 못어두면 세상에 리의  
 업슬지라 흥을며 나의귀물을 두엇다가 나라이 워티항게되는날은 그저물이소  
 용업는거시될지니 불가불힘을녀여 여려히모아 렬로광산등 리의도경영하며 후  
 하교병원도 설시항야 나와남이 일테로 효력을엇게할지라 겸하여 정부에합이업  
 는것도 빅성이 다 념려항야 그 근본을 바로잡고저할진딕 빅성의돈을 혼푼이라  
 도 남의랑타에치워 일출리가 만무항며 타국의빚잇는것도 정부에서 아모리항고  
 저할지라도빅성이원치안는것을 억지로 던당을쥬거나 비밀히 무슴리의을허락하  
 고 쓰는거슨 슨사람다 괴어히사실항야 세상에들어닉고 괴어히 못항게출출로알  
 진딕 이런 큰페 단과 워티항이 스스로 근본이막힐지라 이는 관민이일테로 국치  
 를쓰지말기로 질명항것이오

닷섯지논의를중히녀임이니

일은 뜻갓흔이게 감정을 표출출알어야할지라 감정이라하는거슨 곧 소리가갓흔면  
 서로응항고 괴운이웃호면 서로통항는것과 갓흔이니 슨사람의마음에 이성질이 지  
 연히 잇는바—라 그러나 슨사람이쓰르줄을모르논고로 스스로 폐하는것이 된듯하  
 나 실상은 아조업서진것이안이라 목덕이웃혼자는 즈연 뜻시쓰르니며 의리가웃  
 혼자는 스스로 합찌나가느니 이거사다 억지로행항이안이오 련성으로 감발항

는 것이니 우리가 이거슬 주장치안으면 세상에 의가 설수 업슬지라 비록 천만리  
 밤개잇서 면목을 서로보지못할지라도 나와 의리만 갖춘자는 뜻슬표출것이오 비  
 록 형편이달나서 나와 의리가 갖춘자이 세상에 역명을쓰고 나설곳이업셔도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러치 안은줄을표하며 올흔사람이 군축을 당하는자리에  
 다만 말흔마디와 글흔장이라도 괴어히 보니여 그 올흔줄로 아는뜻슬표하며 어  
 디서던지 나와 혼뜻슬가지고 홀로나서서 바른길로 행하는자는 천만인이 다 막  
 을지라도 용명시러히 싸라가서 힘디로 할흔것이오 또흔 무슴사회에던지 평일에  
 의를비반하고 반복소인으로 이리저리부혀서 의리상친구들 모히하며 국민의사  
 회를 멸망식히고 심령을 어육만들며 나라를 팔던자는 안스를보거나 형편에설녀  
 서 짐짓 용랍하지말고 당장에 칼침을맞여도 그 죄악을 들어니여 도죄하고 곳의  
 를세우는 자리에서 몰아니여 일반국민된디점을 허락지안을지라 이일이 가장심  
 혼듯하나 모든사람이 초지도안코 쓰겁지도안은중에서 시비도 구별이나서지안  
 이하며 아모일도 되지못하는지라 혼을며 세상에 강도보다심하고 원슈보다미운  
 자는 참 이런류들이라 이런류를합하여 성스하는법도 업거니와 우연히성스흔더  
 리도 곳 후벽을갈녀니고 일을랑피하는것이 도로혀나홀지라 우리가 선악시비를  
 이만치 구별하여 거의 스름마다 이려하고 동리마다 이려할진디 의를위하여 관  
 육을당하며 목숨을바러가며 의로운편을도아 쓰홀자—한업시만을것이오 더간

독립정신

후부

이민정신

독립오지

후록

이범팔심소

계소소호무리들은 초초세력도 줄어지며 화약야 도라서기도할지라 국중에 선악  
이 즈연 텨양곳치 판단이될터이니 이는 집권호자들이 상벌을가지고형하려하여  
도 되지못하는것이라 대소인민이 저마다힘쓰면 어렵지안은것이오

이는 공변된의리를 중히녀임이라 본리의리의주의가 대소와 공스의구별이잇는니  
도적세리도 서로 도라보는정의는잇서서 의리라닐카르며 기라 모든인류들이각  
각저의스스관계상에 도라보는의리가 또한 무슈하나 실상 그 공변된뜻과 대데  
를의의고난 의리라닐을수업는나 만일 이런거슬 의리로알어 고집할진디 도로혀  
참 의리를 방히호혀가 만홀지라 맛당히 나라고써 의리의 주스디를숨아 나라  
를박드는뜻슬 의의고난 아모의도 설수업는줄로 알아야홀지라 이번에 었던 일본  
녀인호나히 아라스 사람과비필이되여 여러히를 살엇는디 일, 아, 전정에 아인이  
비밀호정담을키여 아라스로보닐식 그 안히를얼마씀 미는고로 실상을알녘더니  
그일녀가 곳고발하야 저기남편을 잡혀가죽게하고 그녀인은 죽시 저결호였는니  
세상에서 이말을전파하며 놀녀여 칭찬치안는자 업는지라 그녀인의 도리로말  
호면 남편이 무슴일을호던지 싸로돕다가 갖치죽는거슨 가라호려니와 나라를위  
호는 큰의를 더 중히녀여 남편의게 죄를지어 대의를세우고 그뒤를싸라 남편의  
게 티호의를 또한 완전케호은 열니지 못호스람의 저마다 알기어려온바 이  
것호가지로 밀우어보면 세상천만스를 다 가히구별호지니 스람마다 의리의주의

를 이리케알어야 피츠에 분명이나지 안을것이오 설령 분명이 좀잇슬지라도 나  
라를히하는일에는 다 반디한다가 실로 리로올일만잇스면 서로닷도어 원슈긔치  
보던자라도 일시에 시비를바리고 다 흘끗스로 나설지라 그런즉 나라를 위하는  
자리에는 부즈형데간 튜툰의의라도 도라볼수 업는줄로알어 실상으로 흥흥기  
지나가야 비로소 의를안다홀러인디 나라를 위한다흥인즉 빅성을잔히하고 강토  
를팔며 쫓샤를위티케하고라도 인군의뜻만맛츠는것이 나라를위함이안이오 실로  
전국이 다 편안하고 완전케하는거시 나라를위하는것이라 이뜻으로 큰의를잡아  
간담에섞여두고 목숨보다 중히녀여 크나적으나 이주의의관계한 귀회만 당하거  
던 곳 죽는자리에 갈지라도 굴치말고 혼넬긔치나갈진디 맛츄니 그영광이 스스  
로 들어날지라 이논의를직혀 홀로 흥하는거시 참 장훈줄로 저마다알것이오  
숨은 의리를 중히녀이고저할진디 맛당히 용맹시러히 나가는마음이잇셔야 그자리  
를보면 어렵고두려운거슬 생각지안코 다만 나의맛당히 홀일이니 이 뒤일은나  
의알바 안이라하야 서슴지안코 곳나갈것이오 용맹심이잇스면 맛당히 강호힘  
이잇서 쫓쫓시 능히 참어야홀지라 만일 처음에 나가는힘만잇고 여간 어려운자  
리물당하면 곳 뒤로물너갈진디 당초에 나서지안은것만 못홀지라 아조성의도말  
고 들어누엇더면 헛된슈고나 아니하고 남의치소도 업섯슬것이어늘 거연히나섯  
다가 졸디에 들어누으면 세상에 드러온 천장부의 일흔을 엿지먼하리요 즈고로

독립요지

후록

이반관상어

충신열스가 태평안락호중에서 된자—업느니 흥상 그 견딜수업느니 경우를 뜻뜻치  
참아서 굴치아니하고 맛츨닉 빛느스적을 세스쳤느니 일로보면 곤난과군축을당  
하고서야 의를세우는법이라 나를 이차리에당하게흔거시 더 충신열스들의 당하  
던괴회를 준것이니 비견되 유명호장수가 죽을마당을 엮은후에야 공을일올지라  
그 어렵고위티함을 녀려하야 천창만검지중에 들어가지아니하면 엇지 대공을도  
모호리요 나의곤난방음이 곧 공을일올차리라 모든 세상사람들은 잘먹고편히잇  
서 호강하다죽는것이 데일로아는고로 나의 이것받느거슬 어리석게도녀이며 웃  
기도하거니와 나의장히아는바는 잠시있다 업셔지느 육신의 잇지아니호죽이거  
슬 영광으로알어 육신의 약약히압호고 어려움을 의의고견되여 새기 기지아니하  
면 명명훈가온되 보시느이가게서 응당 일우느날이잇슬지니 한번 일우느날은무  
슈히받은고초와 곤난의상급이 한업슬것이오 설령목숨을보전치못한다 홀지라도  
죽은거슨 나의충심이오 사느것은 나의의라 의로써 육신을의임은 곧 세상을의  
임이니 후세에영광이 엇지 영원치아니하며 썬세상에가서 상급과 위로올받기가  
엇지 의심이잇스리요 고금스기에 유명호 스업고초자들이 다 별로특별흔거사업  
고 다만 그차리를보고 크게힘을썬이라 우리도이씨를당하야 이차리를 엮엇스죽  
여일히 나가느것이 곧 고초잡느뿌리라 엇지몸이나 집안에스소호곡절을 도라보  
리요 이느 의를중히하느자의 맛당히 몬져알고질명호것이오

여섯지느러미권리를중히녀일지라

일은 사람마다 자유권리를 성명치중히녀여 남의게 힘납기를 실행할지니 남의힘을 의뢰하고는 지금세상에 설수업는연고—라 사람을 두가지등분에난호어 구별하느니 제손으로 제몸을다스리는자와 남의게다스림을받는자—라 제몸을다스리는자는 남의힘을조곰도 밧지안는고로 제지혜와 슈족을의지하야 세상에싸로서서 도처에횡행하며 어둡고 무식한무리들을다스려 제어하고 그러치못한자는 제지혜를다지아나하야 나는하느수업다하고 지조를비호지아나하며 제슈족을게을나하야 나는힘쓰지못한다하고 스스로바려서 남의아리되기와 곤궁히지니기를풍족히아는고로 남의다스림을밧기를붓그러히녀이지아나하야 남의게여간힘납는거슬감지덕지하야 좋되기를달게녀이느니 엇지천하고 더럽지안이하리요 인류가점점천하가다가맛춤스스로잔멸하여짐을면치못하느니이거시곳인간하등사회라맛당히저마다알기를세상에사람이하느거슬사람이못할것이업다하야 남하느거슨나도하면될지니 남하느거슬하면나도그사람과웃흔디위를엇으리라하고분과를발하며힘을녀여곳행하기를시작할지라이거시곳문명하나라에서사람마다평성경영에데일요긴훈법으로알어학교에의례히써붓치기를사람이하느것은사람이훈다고시시로인심을깨우치미나는할수업다하거나하여도안이된다말이당초에업는지라우리나라동포들이가장이뜻슬

독립요지

후록

이민팔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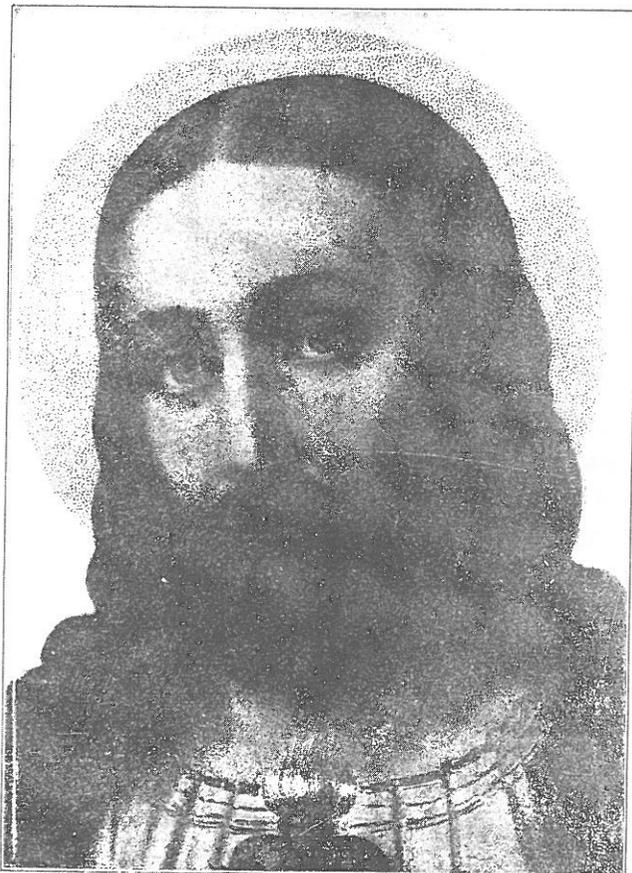
특별요저

후록

이범팔선판

물나서 아모것도 아니라고 살려는중에서 점점 나쁜디위를 엮음이니 저마다 이  
 뜻슬 데일김히 새달으며 데일만히가라쳐서 일변공부도하고 일변일도하여 남과  
 못치되기를 날로병영할지니 설령 남의힘을 의지하여 잘될회기있거나 의식을  
 편히할도리가 심길지라도 밍제코 취하지말며 남의노복이나 슈종군이라도 이전  
 힘습에 편히녀이지말고 싸로서서 일하고버려먹으며 공부와 지조를비와 옷소름  
 과 남은이에 힘하는스업을 본떠힘하면 스스로 동등의디위를일울지니 전일에는  
 남의슈족이되여 사회에티호직척은 업느줄로알던몸이 초초변하여 남의굴네를벗  
 고 육신을싸로늘녀 세상에티호일을하며 나라를위하여 직척을메며 독립을바드  
 는 무거운짐을 나호어질진디 나라에 일헛던빅성을 호나식 더 초즈이오 즈괴의  
 결박호슈족을 풀어노음이라 엇지 관계가적다호리요 이는 사름마다 제몸이싸로  
 서기를 중히녀일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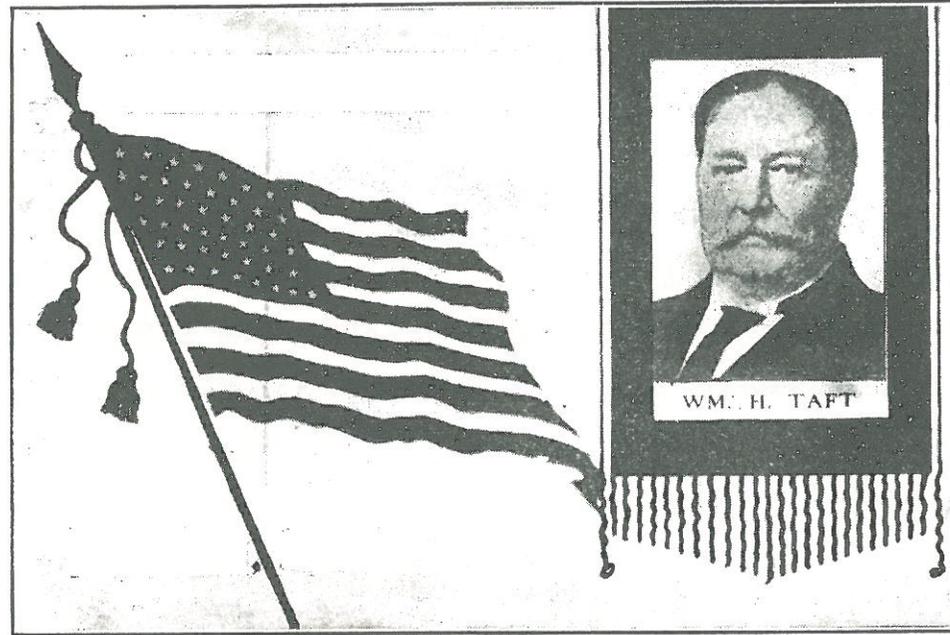
이는 남의권리를 또한 중히녀일지니 괴왕에 제권리를엇고저호진디 남의권리를또  
 호그만치주어야호지라 나의권리를 찾는다고 분슈외에넘쳐서 방한업시 힘동호  
 며 인하여 남의권리를 침탈하여서는 남이다스림을 부득이받게되노법이오 또한  
 문명에나가는 본의가안이라 맛당히 이전에압제하던 모든습견을 다 깨치고나  
 의아리된사름을 초초노아주어 싸로 즈유하게하며 남히디접하여 나의동등을허  
 락하여줄지라 이런말을 처음듣는자는 큰 변괴의말로 알터이나 공변된권리를가



수예쥬세구



조부공인성대하던



트푸티 령통대국미씩 흘간발척본

지고보면 그 공평됨을 스스로 깨달을것이오 후여러번들어 공평함을 아는 자라도 구습을 용망있게 깨치지 못하거나 후자의 소소한 손익을 비교하여 짐짓 부들고 노치안이 함이라 맛당히 즉각 파혹하고 도라서서 힘할지니 나의 종된 자들이나 남의 하인비들이나 후하천히 녀이는 부인녀자들파 내지식이나 남의 지식이나 어린의 혀들을 다 혼추을 녀성각하여 전일에는 다 사를 슈효에 처지안코 다만 사를 의게 속흔물건으로알던 모든 악습을 내려 국법과 경위중에는 다 동등인으로 뒤점하여 싸로서서 직업을 일삼는 국민이 되게 할지라 만일 그러치 못하여 후해아 리되 아직 풍기가 열리지 못하였스니 어리석은 천인들을 줄디에 넓혀주면 그때 단을 막을수업스리라 할진디 이는 종시도 완고한 소견을 벽파치 못함이라 저마다 이러케알진디 풍기는 장초어느 때에 열녀보깃스며 또 혼빚성이 이러케말후후에 야정부에서 전국인민을 풀어줄수업다는 거슬 엇지 피이라 할게는 가웃사를 이루어 리를 이러케 뒤점함은 실패하며 우리가 우리의 아리사를은 이러케 뒤점함을 진디 엇지 공평타 할것인가

대더 그 근본을 생각하면 미키한 사람의게 자유권 주는 것이 그때 단은 흥상 업슬 수업는지라 이거슬 과연모름은안이나 저고로 행하여 나려온 것을 생각하면 웃사 람된 이들이 도로혀 혀를 좀 밧어야 올키도 하고 지금시디가 또 혼이 거슬 밧는 세상 이 되었스니 억지로 면할수업스며 설령 이것으로 혀를 만히 밧는 다 할지라도 내나

독립요지

후록

이필판설주

라 어리석은 백성을 열거노아 외국인의게 슈모를당하는것보다 몇비 나홀지니 부  
 딘집히싱각하고 고집하지말어서 모든백성으로하여곰 제힘껏버려서 제지조셋공  
 부항야 립신양명항기를 방한을말진딴 인민이 스스로 활발한기운이싱겨 풍속이  
 날마다변항며 원기가날로차를지니 부강발달에 니르기가 불과 몇십년안에 될일  
 이라 즈유를중히녀임이 엇지 나라를세우는 근본이안이리요

우에 여섯가지강령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힘써서 각각일기인이 즈괴의  
 몸뚱히변화항기에 요긴한말이라 저마다 이거슬힘써 날로 용진발달항는힘이 싱길진  
 디 일국이 곳 용진발달항는힘을 엇을지니 엇지 효험이아 조업다항리요 그러나 이거  
 손 다만 가지와입식만 들어 말항이오 실상근본은 구름이안이라 물은 근원을몬져막  
 히고 나무는 뿌리를 몬져북돋아야될지니 우리는 맛당히 늬의나라의 지정지미호정  
 처벌도와 인의자비호 도덕교화의근본을 연구항야 인민의 악호뿌리를썩고 량선호런  
 성을 회복항야 인간천만스가 다 바로잡힐지라 만일 그마음을 다스리지못항고 다  
 만 지조만닥그면 이는 곳 범의날기를 돛침과우항서 세상을 히롭게항는괴양이 늘터  
 이니 계상에도 대단히위티항고 맞참닉 즈괴게도 히가도라올지니 찰항리 그 지조는  
 비호지안은것만 췌지못홀지라 그럼으로 나라를다스리고 련하를태평케 항는것이 다  
 사람의마음을 바로잡는딴서 시작다항섯는니 마음을 바로잡지 못항고야 무슴일을  
 다시 의론항리요 사람의마음인즉 세상법률로써 바로잡지못홀것이오 다만 교화로써

바로잡을지니 이년세상법률이 다만스람의육신으로형하야 들어는죄악만 다스릴뿐이  
오 그 마음으로지어 형적에 나타나지 안은거슨 다스릴수업슴이라 세상모든일이 선  
악시비간에 다 마음에서 문져싸이나서 형위에 나타나니 마음의하는일이 엇지슈족  
의하는일보다 더 크지안으리요 악의 그큰거슨 바려두고 적은것만 막아 못하게할진  
디 엇지 써기은물건을 비단으로쓰노코 독헌님식물 막고져함파다르리요 이럼으로스  
름의형위가 날로부피하여가며 나라의풍속이 날로 피악하야짐이니 우리는 맛당히교  
화로써 만스의 근원을숨어야 할터인디 교화에 또또 구별이 잇는지라 우리동방에  
유교가 실로 인도상에 극히선미할디 니른고로 슈슴천년을 이교로 인연하야 인륜을  
덕하고 풍기를열어 치국평탄하하는 근본을숨엇스나 인도라하는것은 시덕를싸라 변  
하는고로 인심에합을써가잇고 합지안을써가잇는니 가령 세사적성인들은 왕던하하  
는대도로 세상을다스리다가 후세에초초변하야 피도가형하얏는니 이거시훈가지증거  
요 또또 인도는 목전에비히는것만 말하고 이후세상에 엇더할것은 의론치 안는고로  
육신을바려 더 큰거슨 구출줄을 알지못하는지라 다만 던도가잇서서 지극히 광대하  
고 지극히 장원흔지라 사람이 이도를 깨달아형을진디 던디만물을만들어 홀로 다스  
리시며 만국만민을 다 굽어감찰하시는 하느님이 깨신줄을 보는듯시알것이오 또  
홀스람이 다만 잠시있다업서지는 육신만 잇는것이아니오 기외에 영원히 죽지도안  
코써기지도안는 령혼이잇서 이후이세상을써는후에 각각 그죄악을 인연하야 무진

독립요지

후록

이원구신언

흔 벌받으실것을 의심업시 밋을지니 엇지 쌍결근흔빅년에 헛된 영화부귀를탐하여 대  
 자대비홍신 텃부압해 죄를범하고 멸망을즈취하시요 흠을며 공변되신 텃부는  
 스정이업스샤 높고나즌이도업고 멀고 갓가운이도업스며 뇌물이나 아첨으로 깃버홍  
 심을 엇을수업스즉 우리가 다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박쳐서 더럽고 악흔거슬 바리  
 고 전혀 텃리를순중흔면 이세상에서도 나의복이 만을것이오 또흔 죽어셔도 밋을상  
 급이 무궁무진할지라 겸하여 하느님은 못보시는것도업고 모르시는것도 업스즉나  
 의손으로 짓는죄만 벌주시실뿐아니라 속에 믿음으로 생각흔것도 또흔 감찰흔실지니  
 엇지두렵고 붓그렵지안으리요 그러흔즉 악흔거슬 아니함이란이오 감히못함이라 스  
 램마다 이러흔즉 모야무지간에 인명을상하고 죄물을취할자 업슬것이오 물건을위  
 조흔야 세상을속할자 업스며 권세를밋고 욕심을부려 빅성을 포학하지못할지라 그  
 러는 사람이 다만악흔을 헹치안는것만 가지고는 착하다닐을수업스며 텃복을엇는다  
 할수업스니 이는 세상스람의눈에 아모리 올흔듯하나 지극히 어질고착하신 하느  
 님압해는 세상에 죄업는자 업스니 비록 어린히의런성이 아모리착하나 육신이싱  
 기면서 곳 죄가붓쳐 철모를써붓쳐 흥는거슬보면 또흐나 언짢으나 손에 잡히는덕로  
 입에너으며 올으나 글으나 제삿덕로 흥고저흔야 만일 바로인도흔야 주는자 업스  
 면 곳 큰죄악에 빠짐을 면치못하시니 일로보면 육신에 붓흔류는 흔나도 죄악이 업  
 는자 업는지라 더 순흔인민이 다 죄가잇서 멸망에들어감이 엇지 어지신 하느

님의 슬피 녀이심이 안이리요 이에 구원할길을 열어주시니 곳 예수그리스도○를  
 상에 보니야 련도의 오묘한리치를 들어보고 평성에 님의 곤욕과 곤난을 밧다가 필경은  
 세상인민의 죄를 디신하야 목숨을 바리샤 천만고 스람들로 하여곰 밧고 도라와셔 죄를  
 즈복하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말아서 용서를 밧고 복을 밧게 하셧느니 순전히 사랑함이  
 아니면 엇지 님을 위하야 몸을 바리게 아니르리요 우리가 이 리치를 밧지안으면 웃고  
 흉보려니와 굽기 밧는 마음 이잇슬진디 엇지 감사할 마음이 업스며 괴왕 감사할 줄 알진  
 디 엇지 갑고져하는 생각이 업스리요 그러나 이 은혜는 다른것으로 갑할수업고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스람을 위하야 나의 목숨을 바리게 되지 일할뿐이라 런하에 의  
 롭고 사랑하고 어진것이 이에 더 지닌것이 어디잇스리요 이는 하느님의 감사  
 할은혜를 밧달아 착한일을 스스로 안이 하지 못함이라 스람마다 두려운 뜻으로 악을 짓  
 지 못함며 감사할 뜻으로 착한일을 안이 하지 못할진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중에 서  
 엇지 평강안락복을 엇지 못함며 이 잔인포악한 인간이 곳 런국이 되지안으리요 이  
 거시 곳 지금 세계상 상등문명국의 우등 문명한 스람들이 인류사회에 근본을 숨어나  
 라와 빙성이 일테로 높흔도덕디위에 나름이라 지금 우리나라이 쓰러진디셔 날허나  
 려함며 써은디셔 싹이나고져할진디 이교로써 근본을 숨지안코는 세계와 상통하여  
 도 참 리의를 엇지 못할것이오 신화문을 힘써도 그 효력을 엇지 못할것이오 외교를 힘  
 써도 기본정의를 밧지 못할것이오 국권을 중히 녀여도 참 동등디위에 나르지 못할것이

독립정신

후록

이민구신술



294

독립요지

후록

이백구심소

오 의 리 불충상항여도. 혼별~~又~~홀수. 업슬것이오. 즈유권리로 중히항려도. 평규~~호~~방하을  
알지못홀지라. 우리는 맛당히 이교로써. 만스의근원을속야. 각각 나의목을나저바리고  
남을위항여. 일항는자. | 되야. 나라를 일심으로받들어. 영. 미. 각국과 동등이 되게항며  
이후. 단국에가셔. 다. 갖치맛납세다.

건국스천이. 백삼십칠년. 류월이. 십구일

독립요지  
종



본척저술할씨 본저술가리승만 본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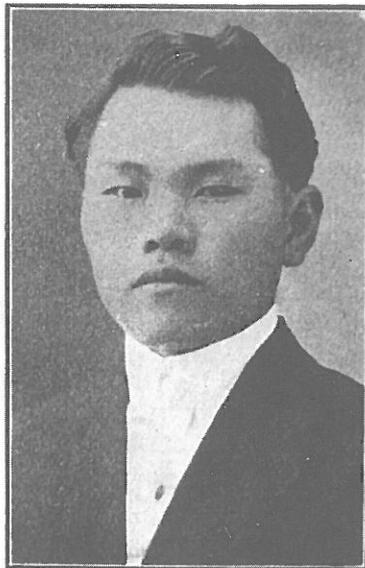
원 스 송



호 병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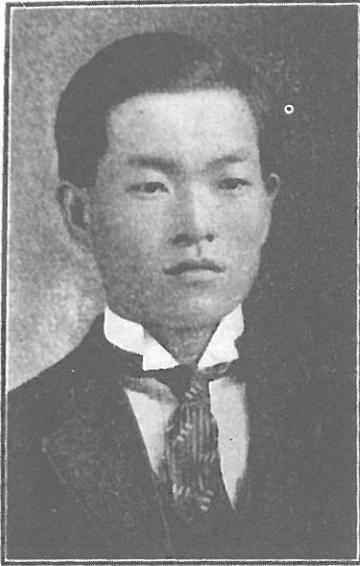


군 흥 김



룡 승 한

이 하 는 본 칙 을 발 간 기 위 하 야 본 심 셔 관 을 성 립 호 제 군



김 경 병



오 윤 리



하 상 욱



최 영 만



오 남 식

박 순 원



장 김 강 김 리  
한 만 홍 성 성  
조 준 범 오 로



길 춘 림



칠 성 리



보 국 강



용 슈 김



오 봉 김



봉 운 왕



환 처 김



선 계 김



이승만연구원

李承晩研究院

The Syngman Rhee Institute



이병리

이성돈



김원택

오충국



규 일 빅



문 양 목



목 상 심



식 경 박



295



룸희스년이월  
룸희스년이월

일 일  
일 일  
발HING

영가금(美貨) 一元五十錢

저술인

리승만

발HING시(미국에유학)문학소

발HING소

대동신서관

미국로신출리쓰

인쇄소

대동신서관

元賣所

大同新書館

分發所

식주 韓美商業會社

桑港大同保國會館內